



연구보고서 2013-20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3차)

- 취약계층의 삶을 중심으로 -

김미곤 · 염주희 · 정희선 · 최준영
권지성 · 이은미 · 정선욱 · 정혜숙 · 조준용 · 이현주

【책임연구자】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공공부조의 한계와 대안

성균관대학교, 2011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공저)

【공동연구진】

염주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지성 참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은미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선옥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해숙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준웅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현주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정희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최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20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3차)

- 취약계층의 삶을 중심으로 -

발 행 일 2013년

저 자 김 미 곤 외

발 행 인 최 병 호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122-705)

전 화 대표전화: 02)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처 한디자인

가 격 10,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ISBN 978-89-6827-051-2 93330

한국보건사회연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 연구들의 분석방법은 양적분석이다. 양적분석의 중요성과 분석결과의 명료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적분석은 측정 가능한 부분을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질문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복잡하고 다양한 삶의 경험과 인식이 사상되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 질적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인식, 생생한 경험, 변화의 맥락 등을 담은 ‘블랙박스’ 내부를 관찰하는데 유용하다(Padgett, 1998). 이러한 이유로 최근 질적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양적방법론과 질적방법론을 실용적인 차원에서 통합하여 서로의 장점을 살리는 혼합방법론(mixed methodology)이 나타나고 있다. 혼합방법론은 상대방의 발견에 대해서 인증(confirming), 반박(refuting)하는 과정을 통해 풍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Carvalho and White, 1997).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1년 한국복지패널 가구 중 빈곤층 100가구를 표본으로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동 패널자료는 자료명이 내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몇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연계’라는 점은 앞에서 지적한 혼합방법론(mixed methodology)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계량적 분석으로 생산되는 수많은 통계 수치에 생명을 불어 넣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질적패널’이라는 점은 빈곤의 다차원성에 대한 동태분석을 질적인 방법으로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러므로 향후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역동성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연구 3차년도 보고서이다. 1차년도 보고서는 패널구축에 대한 기초 보고서 성격을 지니고 있고, 2차년도 보고서는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질적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금년의 경우 질적분석과 혼합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1차 및 2차 보고서보다는 진전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김미곤 연구위원 책임하에 원내 연구진으로 염주희 부연구위원, 정희선·최준영 연구원이 참여하였으며, 원외 연구진으로 권지성이 은미·정선옥·정혜숙·조준용·이현주 박사가 참여하였다. 모든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적 연구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적 패널자료 구축을 위해 현장에서 심층 면접을 수행하고 방대한 분량의 면접결과를 녹취록으로 작성해 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질적 패널가구로 참여하여 심층 면접에 장시간 응해주신 한국복지패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최종보고서를 검독하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이현주 연구위원과 김문길 부연구위원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3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 I 부 양적·질적 혼합 연구방법론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9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4
제2장 양적·질적 연계패널 구축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	41
제1절 양적 & 질적 연계 혼합 연구방법론 관련 이론 및 동향	41
제2절 빈곤 역동성 측면에서 양적·질적 연계패널 구축의 필요성과 의의	55

제 II 부 질적패널 자료구축

제3장 저소득층 질적 패널조사 표본추출 및 가구특성	75
제1절 저소득층 질적 패널가구 표본추출	75
제2절 저소득층 질적 패널가구의 특성 분석	86
제4장 저소득층 질적 패널조사 자료수집과정	95
제1절 질적 패널자료 수집과정	95

제2절 질적 패널자료 수집	102
제3절 질적 패널자료의 구축	110
제4절 질적 패널자료 분석방법	117
제5절 질적 패널자료 연구 과정 평가: 데이터 수집에 참여한 코디네이터와 조사의원의 경험을 중심으로	118
제6절 질적 패널조사 수행 및 자료 활용시 윤리적 고려	138

제III부 질적패널 분석

제5장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패턴과 맥락분석	151
제1절 서론	151
제2절 연구결과	153
제3절 소결	183
제6장 저소득 가정의 자녀양육 현상에 관한 연구	189
제1절 서론	189
제2절 관련 문헌 검토	191
제3절 연구결과	198
제4절 결론	203

제7장 장애인(가구)의 장애 및 질병 발생으로 인한 영향과

대처 경험 연구	207
제1절 서론	207
제2절 분석결과	209
제3절 소결	231

제8장 빈곤가구 한부모 여성의 자활 경험에 관한 연구

제1절 서론	237
제2절 연구결과	241
제3절 소결	257

제9장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경험한 삶의 변화와 탈빈곤 전망:

혼합방법론을 중심으로	263
제1절 서론	263
제2절 이론적 배경	266
제3절 질적 분석	273
제4절 양적분석	286
제5절 결론	301

제Ⅳ부 양적·질적패널 활용방안

제10장 양적·질적패널 활용방안	309
제1절 질적 연구 자료로서의 활용	309
제2절 양적 패널자료의 보완과 연계로서의 질적 패널자료의 활용	311
제3절 질적 패널자료의 활용상 한계점	313
제4절 질적 패널 구축의 기대효과 및 연계 활용방안	316
 제11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321
제1절 요약	321
제2절 정책적 시사점	322
 참고문헌	329
 부 록	341
부록1. 2013년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조사 조사표	341
부록2. 2013년 코드표	360

표 목차

〈표 2-1〉 질적 연구방법론의 특징	43
〈표 3-1〉 한국복지패널 원표본 가구 유지율과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 규모	76
〈표 3-2〉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 참여가구 특성	78
〈표 4-1〉 2013년 심층면접 조사 대상 가구 유형 및 조사소요 시간	99
〈표 4-2〉 2013년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조사표 구성	103
〈표 5-1〉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시간사용 분석	156
〈표 5-2〉 초등학교의 일상생활 경험	159
〈표 5-3〉 청소년(중고등학생)의 일상생활 경험	164
〈표 5-4〉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맥락	169
〈표 6-1〉 빈곤아동·청소년의 적응유연성 및 발달과 관련된 보호요인	192
〈표 8-1〉 참여자 정보	241
〈표 9-1〉 빈곤의 역동성과 관련된 기존연구 정리	268
〈표 9-2〉 연구대상자 특성 요약($n=14$)	275
〈표 9-3〉 연구가설 별 연구모형	290
〈표 9-4〉 변수설명	292
〈표 9-5〉 주요 관심변수에 대한 집단 간 평균차이	294
〈표 9-6〉 탈수급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297
〈표 9-7〉 탈빈곤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300

그림 목차

〔그림 2- 1〕 종단적 연구에서의 시간에 따른 변화의 탐색	65
〔그림 3- 1〕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지역별 분포 비교	86
〔그림 3- 2〕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가구주 연령 분포 비교	87
〔그림 3- 3〕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가구유형 분포 비교	88
〔그림 3- 4〕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가구원수 분포 비교	88

[그림 3- 5]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기초보장 수급여부 분포 비교	89
[그림 3- 6]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의료급여 수급여부 분포 비교	89
[그림 3- 7]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아동가구원 유무 분포 비교	90
[그림 3- 8]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노인가구원 유무 분포 비교	90
[그림 3- 9]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장애인가구원 유무 분포 비교	91
[그림 4- 1] 효율적 자료관리의 필요성	111
[그림 4- 2] 데이터 불러들이기	113
[그림 4- 3] 노드 생성	114
[그림 4- 4] 코딩하기	116
[그림 4- 5] 코딩결과 확인하기	117
[그림 5- 1]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맥락구조	168
[그림 5- 2] 사례1 아동(초등 고학년-일반가구)의 맥락	171
[그림 5- 3] 사례2 아동(초등 고학년-일반가구)의 맥락	172
[그림 5- 4] 사례3 아동(초등 고학년-수급가구)의 맥락	174
[그림 5- 5] 사례4 아동(초등 고학년-수급가구)의 맥락	175
[그림 5- 6] 사례5 청소년(중1-일반가구)의 맥락	176
[그림 5- 7] 사례6 청소년(중1-수급가구)의 맥락	177
[그림 5- 8] 사례7 청소년(중3-일반가구)의 맥락	179
[그림 5- 9] 사례8 청소년(중3-수급가구)의 맥락	180
[그림 5-10] 사례9 청소년(고2-일반가구)의 맥락	181
[그림 5-11] 사례10 청소년(고3-수급가구)의 맥락	182
[그림 6- 1] 아동빈곤의 영향경로	192
[그림 9- 1] 순차적 변형전략 연구설계	273
[그림 9- 2] 탈수급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296
[그림 9- 3] 탈빈곤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299

Abstract <<

Qualitative Panel Data on Low-income Households (2013)

This study is the third phase of the Qualitative Panel Data on Low-Income Households. The two major characteristics of this study are its unique sample and longitudinal study design. The sample of the current study was driven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which would enable researchers to examine selected cases with mixed-method approach in near future. In addition, a large-scale longitudinal study on poverty is very rare and allows researchers to look at the poverty dynamics of the sample. While the data collected for 2011 was archived manually, in 2012~2013 research team established an electronic database where researchers can sort, search and divide data according to their research purpose. Also, a process evaluation of the research project was conducted using focus group discussion. The researchers collected valuable pieces of advice from data collectors, most of which will be used for the next year's study. The first part of this report includes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study design, the methodological approach, and the sample. The second part of the report contains six research articles written by qualitative researchers around

the country. These papers demonstrate what can be done using 2011, 2012 or 2013 Qualitative Panel Data on Low-Income Households. This report also includes discussion on research implications for future project and how to use poverty study to better inform policymakers.

I.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빈곤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양적 연구들은 빈곤층의 시각보다는 연구자 중심의 분석을 시도하고 있음. 이 결과 빈곤층이 처한 환경이나 사회구조적 맥락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빈곤의 다차원성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연구주제의 한계라는 측면도 있지만, 빈곤 연구방법론이 지나치게 양적 (패널)자료에 대한 분석에 의존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의 획일성에도 기인함.
- 이러한 배경에서 일회성 횡단면 조사의 한계와 양적 연구방법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저소득층 중심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
 - 양적 패널 연계 질적패널을 바탕으로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연계한 혼합 연구방법(mixed methodology)이 가능함.

□ 연구 목적

- 질적 패널자료 구축 및 취약계층의 삶에 대한 심층 분석

4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3차): 취약계층의 삶을 중심으로

□ 양적·질적 연계패널 구축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양적 & 질적 연계 혼합 연구방법론 관련 이론 및 동향

-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을 연계한 혼합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고, 최근 활용되고 있는 연구방법의 동향과 사례를 소개함.

○ 빈곤 역동성 측면에서 양적·질적 연계 패널 구축의 필요성과 의의

- 오늘날의 빈곤은 단순히 통계수치에 갇히는 정태적인 결핍의 상태로 이해되기보다 다차원적이며 역동적인 경험으로 인식됨.
- 이에 계량적 분석의 양적 연구방법론과 인식의 다원화를 추구하는 질적 연구방법론을 혼합하는 연구방법론의 유용성이 제기됨.
-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에서는 하나의 데이터 구조를 통해 양적 및 질적 데이터를 동시에 제공하여 혼합 연구방법론의 적용을 가능하게 함.

II. 질적패널 자료구축

□ 저소득층 질적 패널조사 표본추출 및 가구특성

○ 저소득층 질적 패널가구 표본추출

- 제1차 한국복지패널에서 경상소득 기준으로 평균소득 6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를 저소득층의 개념으로 설정하여 표본추출함. 그 다음으로는 제6차 한국복지패널 조사기간 중 질적 패널조사에 참여의사가 있는 가구 중에서 양적 패널가구 주요 특성 및 가구구성, 지역 등을 비교하여 100가구를 추출함.

- 2012년 제2차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조사에는 일반노동시장 참여자, 자활사업 참여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등 다양한 근로 빈곤층을 포괄하여 역동성 평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이에 부합되는 20가구를 추가함.
- 2013년 제3차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조사에서는 한부모가구를 추가적으로 표본 추출하고자 하였으나, 조사에 응하는 가구가 없어 1차와 2차에 구축된 120가구를 그대로 유지함.

○ 저소득층 질적 패널가구의 특성 분석

-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가구 120가구의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시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가구주 연령은 65세 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 가구유형은 일반가구, 가구원수는 2인 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아동가구는 34.2%, 노인가구는 50.0%, 장애인 가구는 29.2%이었음.

□ 저소득층 질적 패널조사 자료수집과정

○ 질적 패널자료 수집과정

- 2013년 제3차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에서는 1차와 2차에 구축된 120가구 중에서 작년 조사시점 이후 변화된 가구를 파악하였으며, 작년에 조사된 내용 중에서 보완이 필요한 가구를 각 연구진이 추출하여 최종적 심층 인터뷰가 필요한 가구를 선정함.
- 올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선정된 가구는 크게 근로빈곤가구, 장애인가구, 아동가구, 한부모가구로 구분됨. 근로빈곤가구는

자활, 탈수급, 차상위 등 심층인터뷰가 필요한 가구를 추출하였으며, 장애인가구는 장애가 있는 가구 이외에도 오래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가구까지 포괄함. 아동가구의 경우 가구의 양육과 아동·청소년 일상생활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가구를 선정하였고, 한부모가구는 자활에 관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대상을 포함함.

- 2013년 조사가 완료된 가구는 60가구이며, 조사기간은 2013년 5월 13일(월)부터 2013년 7월 5일(금)까지로 약 50일간 조사를 진행하였음.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가구는 7월 18일(목)까지 추적조사를 진행함.
- 원활한 조사 과정을 위해 인터뷰들은 1차 심층면접이 종료되면 인터뷰 결과를 요약하여 코디네이터에게 송고하고, 코디네이터는 이를 읽고 1차 심층 면접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회신함. 또한 인터뷰어들은 수시로 코디네이터와 유선을 통해 조사시 어려운 점을 상의함.
- 조사 및 녹취록이 완료된 이후, 좀 더 정확한 녹취록 자료를 생성하기 위하여 녹음파일과 녹취록 파일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며, 조사에 참여한 인터뷰어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자료가 생성되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관리하고, 패널자료로서 다양한 방면의 연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며, 2차 자료로 활용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Nvivo 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코딩을 실시함.

Ⅲ. 질적패널 심층분석

□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패턴과 맥락 분석

-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패턴과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임.
- (연구방법)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에 참여하는 가구들 중에서 아동과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구들을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일과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일상생활에 대한 패턴 분석과 맥락 분석을 실시하였음.
- (연구결과) 전체 연구결과는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패턴과 일상생활 맥락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음.
 - 첫째,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패턴을 분석하였는데, 먼저 부모인 연구참여자들이 작성한 일과표를 토대로 아동·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보내는 활동들의 비중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연구참여자들이 면접에서 진술한 자녀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경험들을 분석하였음.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시간 사용은 먼저 학령단계에 따라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하고, 각 단계 안에서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아동·청소년 자녀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경험은 크게 아동(초등학생)과 청소년(중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여기에서 초등학생 자녀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경험은 일상생활 패턴과 요즘 고민과 해결 방법, (자녀의) 강점, 다양한 생활영역에 대한 생각, 예외 상황, 부모의 기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대

한 부모들의 경험은 일상생활 패턴, 요즘 고민과 해결방법, 강점, 생활영역에 대한 생각, 부모의 기대 등으로 구분되었음.

- 둘째, 아동·청소년들의 일상생활 맥락을 분석하였음. 일상생활 맥락은 공간 차원에서 아동·청소년들과 사회환경체계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맥락 구조를 말하는 것임. 이번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각 연구참여자 가구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모두 분석하였고, 각 가족의 맥락 구조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가구의 맥락과 수급가구의 맥락을 비교하였음. 또한 이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초등학생인 아동과 중고등학생인 청소년들을 자녀로 둔 사례들을 각각 추출하여 비교, 분석하였음.

○ (소결) 분석결과에서 드러난 이슈들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일상생활 패턴에서는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 사이의 미묘한 차이가 나타났음. 둘째, 일상생활의 맥락에서 볼 때, 이러한 패턴의 차이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정자원과 돌봄 활동, 가치관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셋째, 청소년기보다는 아동기에서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차이가 더 분명하게 나타났음. 넷째,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저소득가구들 중에서도 교육복지서비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양육 현상에 관한 연구

- (연구목적) 본 연구는 “도대체 빈곤 가정에서는 아동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빈곤 가정의 자녀 양육 현상은 무엇인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임.

- (선행연구분석) 빈곤 및 저소득층의 가구소득이 아동의 학업성취도 및 사회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이며 이러한 빈곤과 아동 발달 간의 관계는 인적자본투자이론이나 가족과정모델로 설명됨. 이러한 접근에 따른 연구들은 원인과 결과의 관련성을 보여주지만, 흔히 블랙박스라고 알려진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양육과정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접근을 통해 저소득층 양육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연구방법)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연구 3차년도 (2013년도)자료를 활용. 면접 가구 중에서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있고 과거에 수급대상이었거나 현재 수급을 받고 있는 18가구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분석은 개방코딩 수준에서 녹취록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자료를 개념화하고 유사한 개념을 범주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연구결과)
 - 저소득층 부모들은 자녀가 ‘사람됨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으로 자라길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보다 구체적으로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 ‘거짓말하지 않기’, ‘남을 배려하는 아이’, ‘마음이 부자인 사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도움이 되는 사람’ 등을 이야기함.
 - ‘바라는 대로 키우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자녀 양육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활동에 대해 들어봄.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이의 재능을 키워주지 못하는 것, 그리고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과 미안함, 안쓰러움을 표현하면서도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실천하는 모습을 보임. 특히 이혼으로 한부모 모자가정이 된 경우, 배우자로서 아이 아빠가 밋고 원망스럽지만 자녀에게 아빠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기 위해, 그리고 아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빠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많이 드러남.

- 마지막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껏 뒷바라지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함. 이밖에 배움이 짧아 공부를 잡아주지 못하는 점, 말 안들을 때 감정적으로 대하고 화풀이했던 것, 몸이 힘들어서 제대로 놀아주지 못한 것, 일과 가정일이 너무 바빠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등으로 나타남.
-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저소득층 자녀 양육은 “자녀의 ‘사람됨’을 강조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음”으로 이해될 수 있음. 특히 ‘사람됨’의 강조는 자녀들에 대해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것(사람됨)으로 합리화, 자기 위안을 삼는 것으로 해석됨. 저소득층 자녀 양육에서 두드러진 또 다른 현상은 ‘고군분투함’임. 부족한 돈, 짧은 배움, 양육방법을 모름, 건강하지 않은 몸과 마음, 늦게까지 일을 해서 시간이 없음 등등으로 저소득층 부모가 처한 상황은 다 다르지만, 이들은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자녀를 키우고 있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부모의 부담이 견딜 수 없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든 버텨왔던 자녀 양육의 방식들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에 있음. 그러기에 우리 사회와 국가가 아이를 공동 양육한다는 생각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지해주는 노력이 필요함.

- 장애인(가구)의 장애 및 질병 발생으로 인한 영향과 대처 경험 연구
-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가구)의 장애 및 질병 발생으로 인한 영향과 이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 또는 가구원들의 대처 경험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임
 - (연구방법) 2011년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연구에 참여한 가구 중 19가가와 2012년 신규로 조사된 가구 중 10가가를 대상으로 총 29가구의 장애인 또는 질병 발생 당사자 또는 가구원을 1:1심층면접함. 장애유형을 다양화하고(신체 및 정신장애 등), 응답자의 연령대를 다양화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음. 연구분석을 위해 연구목적과 면접질문에 따른 응답내용과 맥락을 개념 단위로 분석하고, 이를 전체적 관점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통합적으로 분석함. 개별사례들의 경험과 그들이 부여하는 의미를 범주와 주제별로 분석 및 해석함.
 -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 주제로 도출되었음
 - 장애 및 주요 질병 발생이 당사자나 가구원에게 미친 영향과 대처경험: 장애인들은 대부분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음. 우울감, 위축감, 소외감이 지속되고, 특히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정신건강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짐. 기초생계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가족관계에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함. 자녀들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부담을 끼칠 수 밖에 없고, 대인관계가 축소되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함.
 - 장애인과의 교류: 본 연구참여자들의 장애인과의 교류는 적극적이거나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심리적, 물리적 부담과 함께 비용 발생도 교류를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었음. 생

제가 어려울수록, 나이가 들수록 교류의 빈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음.

- 복지혜택 수급 경험과 문제점: 수급제도가 기타 복지서비스가 없었다면 생존하기 힘들었을 것임. 특히 의료비가 많이 발생되는 만성·중증질환자들은 의료급여 혜택에 매우 의존하고 있었음. 따라서 생계비나 연금액의 상향조정을 원하고 안정적인 주거제공을 희망함. 복지전달체계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근로로 연결되지 않는 현재의 수급제도와 자주 바뀌는 복지공무원 인사제도가 문제임.
- 장애인(가구)의 노후대책: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가구는 전혀 찾아보기 어려웠음. 생계를 걱정하기도 바쁜 현실에서 노후준비는 먼 나라 이야기임.
- 장애의 의미: 연구참여자들에게 장애는 ‘절망’, ‘인생을 바꿔놓은 것’, ‘다스려야 하는 것’ 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빈곤가구 한부모 여성의 자활 경험에 관한 연구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빈곤가구 한부모 여성들이 경험하는 자활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것임. 본 연구를 통해 취약계층 한부모 여성들의 고유한 현실을 반영하는 자활 접근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내 자활 정책과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경험적 지식들을 산출하고자 함.
- (선행연구분석) 국외 기존 사회복지연구들은 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전개되고 있는 자활 접근이 ‘위로부터의 관점(top-down approach)’에서 출발된 점을 문제제기하면서 자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아래로부터 관점(bottom-up approach)’

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음. 이들 연구는 복지개혁이후 강조된 ‘자활’의 목표가 탈수급과 탈빈곤이라는 경제적 목표에 초점을 두어 설정되었지만 실제 탈수급된 빈곤층 당사자들이 탈빈곤과 자활을 성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도 확인하였음. 국내 역시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자활 관련 빈곤정책이 수립되면서 자활을 다른 연구들이 축적되기 시작함. 그러나 대부분 연구들이 자활사업의 정책적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어 ‘아래로부터 관점’에 근거하여 빈곤층 자활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질적 연구들이 활성화될 필요성 있음.

-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 연구에 참가한 응답자들 중 연구자가 만난 7명의 빈곤가구 한부모 여성가구의 심층면담 녹취자료를 분석함. 질적자료분석과정을 통해 도출된 핵심 주제들의 해석과 관련된 참여자 진술들을 연구결과로 제시함.
- (연구결과)
 - 자활이라는 용어는 주로 자활사업과 연관된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어, 그 원뜻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영세민’, ‘밑바닥’과 같이 그들 스스로 ‘사회적 약자 혹은 빈곤층로서의 낙인감’을 ‘자활’의 이미지로 떠올리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자활 당사자들의 관심이나 만족여부에 대한 환류 과정없이 위로부터의 일방적 기획과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현재 자활사업은 참여자들의 자활 의지와 근로동기를 충분히 이끌어내기 역부족임.
 - 복지 의존에 대한 참여자들의 현실 부정과 낙인감은 수급 초기

시기에 나타나지만 자녀의 주양육자로서의 책임감과 자활 의지를 세워 나가면서는 오히려 복지 수급 및 복지욕구에 대한 긍정적·구체적 욕구를 발전시키고 있음.

- 참여자들에게 경제력 즉 경제적 자활의 의미는 크지만 ‘자활’의 긴 여정을 위해 이혼녀, 한부모, 수급자, 빈곤층을 극복하고 의연하게 그들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성취해갈 수 있는 정신적 기제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 복지의존에 대한 국가의 우려는 일반적으로 수급자 개인들의 자립 및 근로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가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참여자들의 인식과 욕구 등을 고려할 때 그 가정은 클라이언트중심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함. 또한 국내 자활 정책 및 프로그램은 경제적 자활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한부모 여성들을 위한 자활 지원에는 자녀양육과 건강(신체적·정신적)관리와 관련된 자원들의 할당과 배치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경험한 삶의 변화와 탈빈곤 전망: 혼합방법론을 중심으로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경험한 지난 3년간의 삶의 변화와 탈빈곤 전망을 질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여 양적 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것임.
- (선행연구분석) 근로빈곤층에 대한 기존의 양적 연구들은 인구사회학적 변수, 노동시장 변수, 제도적 변수 등 상당 부분 유사한 변수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빈곤 역동성을 설명하고 있음.

- 최근 들어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심리·정서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양적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존감과 수급 탈피 전망이 실제 수급탈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음.
 - 근로빈곤층의 경험과 행위의 맥락에 대한 통찰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정서적 변인들을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양적연구에서 사용하는 탈빈곤 요인의 영향 분석은 변수들의 단선적인 관계에 대한 이해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더 나아가, 수급탈피나 탈빈곤 전망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이 중요함에도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함.
 - 이에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를 혼합하여 탈빈곤 행위와 관련된 근로빈곤층의 다양한 전망과 경험을 이해하고, 이를 양적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의 1차년도부터 3차년도 조사까지 모두 응답한 근로능력이 있는 14가구의 가구주의 녹취자료를 사용하여 근로빈곤층의 탈빈곤과 관련된 경험과 인식에 대한 맥락을 분석함. 이어 순차적 탐구전략 연구설계에 따라, 저소득층의 인구·경제·사회학적 변수뿐만 아니라 생활전망, 자존감, 빈곤(탈수급) 전망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 한국복지패널 7차자료(양적)를 사용하여, 변량 분석 및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질적분석에서 도출한 가설을 검증함.
- (연구결과) 수급경험이 있는 빈곤층에 대한 혼합방법론을 사용한 분석을 통해, 탈수급 회피 행위와 인식 뒤에는 제도적 탈수급과 탈빈곤적 탈수급 집단 간의 소득 및 가계전망의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을 확인함.

- 탈수급을 위한 경험과 행위들이 생활전망을 높이지 못하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 확인함.
- 수급자들의 탈수급 전망에는 교육수준이 생활전망과 매개되어 있으나 교육수준이 직접적으로 탈수급 전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음.
 - 비경상소득 역시 생활전망을 매개로 하여 탈수급 전망에 영향을 미침.
 - 자아존중감의 경우 탈수급 전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안정적인 탈수급 상태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탈수급 전망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질적연구 결과와 부합함.
-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전망 역시 교육수준이 생활전망과 매개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교육수준은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치나, 여기서도 자아존중감은 탈빈곤 전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이는 교육이나 자아존중감 만으로는 실물경제에 기반한 탈빈곤 지위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음.
- (정책적 함의) 탈수급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제도적 탈수급은 탈빈곤과 다를 수 있음.
 - 탈수급 정책이 탈수급을 유도할 것이라는 단선적인 탈수급 경로를 강조하기보다, 근로빈곤층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생활전망 및 탈수급 인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안정된 생활에 대한 전망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탈빈곤 전망을 높일 필요가 있음.

I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요약

- 양적분석은 측정 가능한 부분을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질문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복잡하고 다양한 삶의 경험과 인식이 사상되는 한계를 지님.
- 반면, 질적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인식, 생생한 경험, 변화의 맥락 등을 담은 ‘블랙박스’ 내부를 관찰하는 데 유용함(Padgett, 1998).
 - 이러한 이유로 최근 질적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양적방법론과 질적방법론을 실용적인 차원에서 통합하여 서로의 장점을 살리는 혼합방법론(mixed methodology)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1년 한국복지패널 가구 중 빈곤층 100가구를 표본으로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자료’를 구축하였음.
 - 동 패널자료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 먼저 ‘연계’라는 점은 앞에서 지적인 혼합방법론(mixed methodology)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는 것을 의미. 그러므로 양적 분석으로 생산되는 수많은 통계 수치에 생명을 불어 넣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음으로 ‘질적패널’이라는 점은 빈곤의 다차원성에 대한 동태분석을 질적인 방법으로 분석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는 것을 의미
-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 연구 3차년도 보고서로

서 금년 3차 연도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1차 및 2차 연구와 차별성을 지니고 있음.

- 1차 연구는 질적 패널 조사대상 100가구를 구축하는 기초보고서 성격을 지니고 있음.
- 2차 연구는 질적 패널가구 20가구를 추가하고, 1차조사 자료와 2차조사 자료를 Nviv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코딩을 하였음. 이를 이용하여 1차 연구에서 시도하지 못하였던 6개 영역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음.
- 금년 3차 연구에서는 2차 연구와 마찬가지로 3차 조사자료를 Nviv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코딩하는 중이고, 혼합방법론(mixed methodology)에 의한 분석을 시도하였음.

□ 정책적 시사점

○ 패널분석의 경우 3개년 이상의 자료가 축적되어야 제대로 된 패널 분석이 가능함. 질적 패널분석의 경우 귀납적 분석을 하므로 양적 패널분석 더 많은 자료 축적이 되어야 질적 패널분석이 가능하고, 다양한 질적 조사자료 모두 분석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1차~3차 자료(주로 1~2차 자료 이용)를 바탕으로 5개 영역에서 심층분석 연구 결과만을 이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아동 청소년의 일상생활 패턴과 맥락 분석

- 첫째, 일상생활 패턴에서는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 사이의 미묘한 차이가 나타났음.
- 둘째, 일상생활의 맥락에서 볼 때, 이러한 패턴의 차이는 부모

가 가지고 있는 재정자원과 돌봄 활동, 가치관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셋째, 청소년기보다는 아동기에서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차이가 더 분명하게 나타났음.
- 넷째,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저소득가구들 중에서도 교육복지서비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양육 현상에 관한 연구

- 저소득층 자녀 양육은 “자녀의 ‘사람됨’을 강조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음”으로 이해될 수 있음. 특히 ‘사람됨’의 강조는 자녀들에 대해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것(사람됨)으로 합리화, 자기 위안을 삼는 것으로 해석됨.
- 저소득층 자녀 양육에서 두드러진 또 다른 현상은 ‘고군분투함’임. 부족한 돈, 짧은 배움, 양육방법을 모름, 건강하지 않은 몸과 마음, 늦게까지 일을 해서 시간이 없음 등으로 저소득층 부모가 처한 상황은 다 다르지만, 이들은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자녀를 키우고 있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부모의 부담이 견딜 수 없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든 버텨왔던 자녀 양육의 방식들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에 있음. 그러기에 우리 사회와 국가가 아이를 공동 양육한다는 생각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지해주는 노력이 필요함.

○ 장애인(가구)의 장애 및 질병 발생으로 인한 영향과 대처 경험 연구

- 장애 및 주요 질병 발생이 당사자나 가구원에게 미친 영향과

대처경험: 장애인들은 대부분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음. 우울감, 위축감, 소외감이 지속되고, 특히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정신건강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짐. 기초생계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가족관계에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함. 자녀들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부담을 끼칠 수 밖에 없고, 대인관계가 축소되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함.

- 장애인과의 교류: 본 연구참여자들의 장애인과의 교류는 적극적이거나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심리적, 물리적 부담과 함께 비용 발생도 교류를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었음. 생계가 어려울수록, 나이가 들수록 교류의 빈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음.
- 복지혜택 수급 경험과 문제점: 수급제도나 기타 복지서비스가 없었다면 생존하기 힘들었을 것임. 특히 의료비가 많이 발생되는 만성·중증질환자들은 의료급여 혜택에 매우 의존하고 있었음. 따라서 생계비나 연금액의 상향조정을 원하고 안정적인 주거제공을 희망함. 복지전달체계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근로로 연결되지 않는 현재의 수급제도와 자주 바뀌는 복지공무원 인사제도가 문제임.
- 장애인(가구)의 노후대책: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가구는 전혀 찾아보기 어려웠음. 생계를 걱정하기도 바쁜 현실에서 노후준비는 먼 나라 이야기임.
- 장애의 의미: 연구참여자들에게 장애는 ‘절망’, ‘인생을 바꿔놓은 것’, ‘다스려야 하는 것’ 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빈곤가구 한부모 여성의 자활 경험에 관한 연구

- 자활이라는 용어는 주로 자활사업과 연관된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어, 그 원뜻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영세민’, ‘밑바닥’과 같이 그들 스스로 ‘사회적 약자 혹은 빈곤층로서의 낙인감’을 ‘자활’의 이미지로 떠올리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자활 당사자들의 관심이나 만족여부에 대한 환류 과정없이 위로부터의 일방적 기획과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현재 자활사업은 참여자들의 자활 의지와 근로동기를 충분히 이끌어내기 역부족임.
- 복지의존에 대한 참여자들의 현실 부정과 낙인감은 수급 초기 시기에 나타나지만 자녀의 주양육자로서의 책임감과 자활 의지를 세워 나가면서는 오히려 복지 수급 및 복지욕구에 대한 긍정적·구체적 욕구를 발전시키고 있음.
- 참여자들에게 경제력 즉 경제적 자활의 의미는 크지만 ‘자활’의 긴 여정을 위해 이혼녀, 한부모, 수급자, 빈곤층을 극복하고 의연하게 그들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성취해갈 수 있는 정신적 기제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 복지의존에 대한 국가의 우려는 일반적으로 수급자 개인들의 자립 및 근로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가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참여자들의 인식과 욕구 등을 고려할 때 그 가정은 클라이언트중심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함. 또한 국내 자활 정책 및 프로그램은 경제적 자활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한부모 여성들을 위한 자활 지원에는 자녀양육과 건강(신체적·정신적)관리와 관련된 자원들의 할당

과 배치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경험한 삶의 변화와 탈빈곤 전망: 혼합 방법론을 중심으로

- 수급경험이 있는 빈곤층에 대한 혼합방법론을 사용한 분석을 통해, 탈수급 회피 행위와 인식 뒤에는 제도적 탈수급과 탈빈곤적 탈수급 집단 간의 소득 및 가계전망의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을 확인함.
- 탈수급을 위한 경험과 행위들이 생활전망을 높이지 못하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함.
- 수급자들의 탈수급 전망에는 교육수준이 생활전망과 매개되어 있으나 교육수준이 직접적으로 탈수급 전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확인.
- 비경상소득 역시 생활전망을 매개로 하여 탈수급 전망에 영향을 미침.
- 자아존중감의 경우 탈수급 전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안정적인 탈수급 상태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탈수급 전망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질적연구 결과와 부합함.
-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전망 역시 교육수준이 생활전망과 매개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교육수준은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치나, 여기서도 자아존중감은 탈빈곤 전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 탈수급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제도적 탈수급은 탈빈곤과 다를 수 있음.
- 탈수급 정책이 탈수급을 유도할 것이라는 단선적인 탈수급 경

로를 강조하기보다, 근로빈곤층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생활전망 및 탈수급 인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안정된 생활에 대한 전망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탈빈곤 전망을 높일 필요가 있음.



제 I 부

양적·질적 혼합 연구방법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 온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비록 그 양상과 정도는 다를지라도 어느 시대와 사회에서나 지속되어 왔다. 오늘날에는 노동시장정책, 사회보장정책 등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지난 10여년간 다양한 복지정책이 도입되고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복지정책이 빈곤 및 불평등 감소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성으로 대응하여 왔는지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의 유형을 살펴보면, 최종적인 사회안전망(last social safety nets)인 기초보장제도의 첫 번째 목적이 최저생활보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각지대 발생 원인과 대응에 대한 다양한 실태와 정책대안 연구가 있었다. 자활이라는 또 다른 기초보장제도의 목적과 관련하여 수급자의 근로의욕과 탈수급 동기 및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있었다. 전달체계관련 연구로는 부적정 급여의 실태와 사후관리 체계의 문제점 및 대안, 기존의 자산조사 중심에서 사례관리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의 전환에 대한 관심과 요구,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및 정책대안에 이르기까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다양한 주제와 유형의 연구가 요구됨과 동시에 수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빈곤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연구의 심도가 깊어

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더 이상 빈곤을 단순히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나 물질적 결핍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빈곤을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인 삶의 조건과 방식으로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 경제, 심리, 사회 등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빈곤 연구의 흐름은 Sen이 주장한 빈곤의 다차원성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또 다른 흐름은 빈곤 실태에 관한 정태적 현황 및 분포 뿐만 아니라, 빈곤의 동태적 변화, 즉 역동성을 다루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대부분의 정태적 빈곤 연구는 일회성 양적 조사(횡단면 양적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빈곤층의 인식과 욕구를 분석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주된 연구의 방식이다. 반면, 빈곤의 역동성을 중심으로 한 동태적 연구에서는 빈곤의 진입과 지속, 탈피, 특정 인구학적 집단을 대상으로 빈곤 상태의 변화 등을 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는 특정 시점에서 빈곤의 스냅샷(snapshot)을 분석하는 것보다 빈곤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¹⁾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빈곤 연구 경향의 변화와 확장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기반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한 패널자료라고 할 수 있다. 대우경제연구소로부터 시작된 패널자료의 구축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의 탄생을 가져다. 이어 등장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은 저소득층의 빈곤실태 변화와 욕구를 동태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정책 효과성을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어, 빈곤의 다양한 측면을 보다 다차원적이며 역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1) Alcock(2004)은 빈곤의 정태적 분석과 역동성 분석을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비유하여, 특정 시점에서 빈곤을 측정하는 저량(stock) 분석과 긴 시간에 걸쳐 빈곤의 진입 및 탈출을 다루는 유량(flow) 분석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패널자료의 구축을 기반으로 하여 빈곤의 다차원적 측면을 역동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가 양산되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양적 연구방법에의 편향에 따른 다양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양적 연구방법론으로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는 이미 사회복지학계에서 지적된 바 있다(김교성, 2011). 특히, 빈곤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양적 연구들은 여전히 빈곤층 중심의 시각보다는 연구자 중심의 분석을 시도하고, 빈곤층이 처한 환경이나 사회구조적 맥락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빈곤이라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와 사례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빈곤 연구가 공통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으며, 정태적 분석이든 역동성 분석이든 분석결과에서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²⁾.

이러한 문제의식은 빈곤의 다차원성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연구주제의 한계라는 측면도 있지만, 빈곤 연구방법론이 지나치게 양적 패널자료에 대한 분석에 의존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의 획일성에도 기인하기 때문이다. 양적 패널자료는 결국 측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질문을 단순화하는 과정을 통해 구축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상적인 생활과 경험이 몇 가지 데이터로 환원되기 때문에 양적 자료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빈곤 현상과 관련된 경험이 결국 통계적 수치로 축약될 수밖에 없다. 즉, 연구 대상자의 복잡하고 다양한 삶의 경험과 인식이 사상되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측면은 한국복지패널을 비롯한 수많은 패널자료가 지닌 한계점

2) 김교성(2011)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의 주요 학술지에 수록된 246편의 빈곤 연구를 분석하여, 44편을 질적 연구로 분류하였다. 이 중 빈곤정책의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가 30편이고, 실제 빈곤층이 연구에 참여한 질적 연구는 14편이었다. 빈곤층이 참여한 연구 중에서도 단순히 심층면접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표현을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전통적인 질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5편에 불과하다고 제시하였다.

이다. 특히, 연구주제와 관련된 확률과 통계에 근거하여 계량적 일반화를 목표로 하는 양적 연구방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결론이나 정책대안 개발에서 차별성 있는 연구가 나타날 가능성이 감소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양적 패널자료가 제공하는 변수들의 활용도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양적 연구방법만을 활용함으로써 빈곤의 다차원성과 역동성과 관련된 경험과 태도, 행위 동기 및 결과, 맥락, 삶의 통찰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질적패널 자료를 이용한 질적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질적 패널자료의 구축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양적 패널자료가 구축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광하였던 상황과 비견될 정도로 빈곤의 다차원성 및 역동성과 관련된 연구 영역과 연구방법론의 또 다른 확장을 가져올 수 있다.

연구방법론의 확장 중의 하나는 양적방법론과 질적방법론을 통합하여 서로의 장점을 살리는 혼합방법론(mixed methodology)이다. 혼합방법론은 상대방의 발견에 대해서 인증(confirming), 반박(refuting)하는 과정을 통해 풍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Carvalho and White, 1997). 빈곤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일상적인 생활과 관계 등 동일한 현상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된 패널자료를 활용하게 된다면, 계량적 분석으로 생산되는 수많은 통계수치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질적 연구를 통해 빈곤의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이 추가되면, 양적연구 결과와 함께 풍부한 설명과 해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앞에서 지적인 혼합방법론(mixed methodology)의 풍부한 분석적 함의는 향후 맞춤형 새로운 정책대안 모색에 긴요하게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기초보장 수급자 및 비수급 빈곤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의 생활실태 등 삶의 질 뿐만 아니라 근로 및 소비활동, 가족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양상과 인식, 경험의 변화에 대한 관심과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책에 대한 평가와 맞춤형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책대안이 요구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1차 목적은 기존까지 진행되어 왔던 일회성 횡단면 조사에 의한 정책현안에 대한 평가 또는 실태분석과 양적 연구방법론 중심의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을 통합한 연구방법론에 기반을 둔 저소득층 중심의 ‘한국 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질적패널 자료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다양한 삶의 맥락적 의미를 파악하여 정책적 함의를 얻는 것이 본 연구의 2차 목적이다. 예를 들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기침체 등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일상적 생활과 다양한 관계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로 인한 복지체감도와 복지 욕구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러한 욕구는 어떻게 표출되고 공공영역의 복지정책 및 사적영역의 네트워크를 통해 어떻게 충족되고 있는지, 이러한 과정에서 복지대상자들의 인식과 삶의 만족도, 가족관계, 근로 또는 수급과 관련된 인식 및 행태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복지정책 확대 논쟁과 관련된 인식이나 최근 도입하였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어떠한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 중 1차 목적인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금년의 경우 질적패널 표본 120가구³⁾ 중 연구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60가구에 대한 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Nvivo 코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코딩을 완료하였다. 하지만 연구의 2차 목적인 질적패널 자료를 통한 저소득층의 다양한 삶의 맥락적 의미를 파악하여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낸다는 연구 목적은 시간과 인력의 한계로 다양한 영역 중 일부만 이루어 졌음을 밝힌다. 패널 조사자료의 조사내용이 매우 방대하여, 한 해의 연구로 모든 설문내용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없다는 시간적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금년의 경우도 조사내용 중 일부인 취약계층의 삶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 내용

앞에서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주요 연구내용을 총 4부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먼저, I 부에서는 제2장 1절에서 한국복지패널과 연계한 질적 패널자료 구축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 연계와 관련된 혼합 연구방법론(mixed research methodology)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함께 최근 활용되고 있는 연구방법의 동향과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질적 연구방법론의 특징과 장점이 어떠한 측면에서 양적 연구

3)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의 표본은 1차연도에 100가구를 추출한 후, 2차 연도에 표본으로 20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에 대하여 보완적으로 작동하여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제2장 2절에서는 혼합 연구방법론을 기초로 저소득층 중심으로 구축한 양적 & 질적 연계 패널구축의 필요성과 의의를 빈곤 역동성 연구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를 위해 다차원성과 역동성을 중심으로 한 최근 우리나라 빈곤 연구의 경향에서 양적 연구방법에의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한 질적 연구방법의 활용 필요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빈곤 역동성 연구에서 질적 종단 연구 및 패널자료 구축 필요성과 본 연구가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과의 연계성을 통한 질적 패널자료 구축이 지닌 의의 및 질적 조사내용 및 질문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II부에서는 한국복지패널과 연계하여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구축한 양적 패널자료의 구축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 표본가구와 연계하여 1차 한국복지패널을 기준으로 평균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중 1~7차 패널조사를 모두 완료한 표본가구(2,880가구) 중심으로 저소득층 양적 패널자료를 구축한 과정과 이들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저소득층 양적 패널조사 자료수집과정에 대하여 기술한다. 그리고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연구 과정을 담는다. 질적조사의 경우 자료 수집과정의 엄밀성이 양적조사 보다 더 강조되므로, 자료 수집 및 활용시 필요한 윤리적 사항 등을 적시한다.

다음은 한국복지패널과 연계된 질적 패널자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파트인 III부이다. 여기서는 제5장부터 제9장까지 질적연구 및 질적·양적 혼합분석을 다루고 있다. 제5장에서 아동 청소년의 일상생활 패턴과 맥락분석, 제6장에서 저소득 가정의 자녀양육 현상에 관한 연구, 제7장에서 장애인(가구)의 장애 및 질병 발생으로 인한 영향과 대처 경험 연구, 제8장에서 빈곤가구 한부모 여성의 자활 경험

에 관한 연구, 제9장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경험한 삶의 변화와 탈빈곤 전망: 혼합방법론을 중심으로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IV부는 한국복지패널과 연계하여 양적 & 질적 연구방법론의 통합적 접근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최초로 시도한 질적 패널자료의 지속적 구축 및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먼저, 본 연구를 통해서 구축된 양적 & 질적 패널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및 자료구축의 의의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향후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질적 패널자료 구축을 위한 조사수행 계획 및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특히, 기존의 양적 패널자료인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공개 및 활용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향후 질적 패널자료의 제공 및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여기서는 한국복지패널과 함께 질적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자료로 학술적 연구 및 정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제공할 필요성을 언급한다.

그 밖에도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질적 연구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여 질적 연구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양적 & 질적 연구방법론의 연계 및 통합의 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계획과 지속적으로 조사영역 및 내용을 확대하여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의 연계 및 혼합을 통해서 다양하고 풍부한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질적 연구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양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이러한 자료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윤리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질적연구도 양적연구와 마찬가지로 표본추출, 조사 및 자료 구축, 분석이라는 일반적 흐름을 따른다.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의 제1차 연도 표본추출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구성된 양적 패널가구(2,960가구) 중에서 제6차 한국복지패널 조사과정 중에 질적 패널조사 참여(녹취 및 자료제공)에 동의한 362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특성 분포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질적 패널조사 대상 100가구이다. 제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의 표본분석결과 다소 부족한 유형인 근로빈곤층 등 20가구를 추가로 표본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의 조사 및 자료 구축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 심층 면접을 통해 질적 자료가 수집된 전 과정 및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질적 패널조사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구직/근로경험), 빈곤 및 탈수급 관련 역동성, 가족에 대한 인식, 배우자와의 부부관계, 부모-자녀 간의 관계 등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정신건강 및 심리상태, 생활 만족도와 행복 체감도를 공통적으로 조사하였으며, 가구 구성원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이 있는 가구의 경우는 양육, 일상생활맥락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영향 및 주변의 인식, 여성 가구원을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차별, 자녀돌봄 어려움, 경제활동에서의 어려움 등을 조사,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참여와 노화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질적 조사대상 가구별로 1~3회 방문을 실시하여 총 3~6시간 정도의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녹음파일과 약 4,000페이지 분량에 이르는 녹취록을 작성하였고, Nviv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코딩하였다.

코딩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질적 자료 분석방법은 질적 연구방법론에서 주로 활용하는 개방형 코딩방식으로, 연구자들은 녹취록으로 작성된 심층 면접내용을 Nvivo를 이용하여 조사 영역별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담은 단어, 어구, 어절, 문장, 문단 등을 파악하였고 이를 의미 단위의 형태로 전환하였다. 의미 단위는 단어나 어구, 어절의 형태로 요약된다. 의미 단위를 파악한 이후 연구자들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위들을 묶어 하위범주를 구성한 뒤 이러한 의미 단위를 포괄하는 이름을 붙이고, 다시 유사한 의미를 가진 하위범주들을 묶어 상위범주로 통합하고 이와 같이 통합된 범주에 적합한 이름을 붙이는 범주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연구영역별 상위범주와 하위범주, 의미 단위들이 구성되었으며, 이를 기초분석 및 심층분석 결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작년 및 재작년에 수행된 1차 및 2차 연구와 올해 수행된 3차년도 연구와의 차별성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2011년에 수행된 1차 연도 연구의 목적은 질적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기초분석을 하는 것이었다. 2012년 수행된 2차 연구의 경우 1차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금년 3차 연구에서는 양적·질적 연계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제2장 양적·질적 연계패널 구축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양적 & 질적 연계 혼합 연구방법론 관련 이론 및 동향

제2절 빈곤 역동성 측면에서 양적·질적 연계패널 구축의 필요성과 의의

2

양적·질적 연계패널 구축 <<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양적 & 질적 연계 혼합 연구방법론 관련 이론 및 동향

여기서는 먼저 양적 연구방법론과 대비되는 질적 연구방법론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두 연구방법론이 연계된 혼합 연구방법론과 관련하여 정의 및 유용성, 최근 동향을 살펴본 후에 질적 연구방법론의 어떠한 장점이 양적 연구를 상호 보완적으로 만드는지에 관한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질적 연구방법론의 특징: 양적 연구방법론과의 비교

가. 질적 연구방법론의 정의

질적 연구방법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Denzin 등 (1994)은 양적 연구방법론과 대비되는 즉, 양적 연구와는 다른 일련의 연구방법으로 질적 연구방법론을 정의하였다(유태균 역, 2001 재인용). 질적 연구방법론이 양적 연구와 다르다는 것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 인식론 및 존재론적 가정에 대한 패러다임의 차이를 반영한다. 이와 같이 질적 연구방법론을 양적 연구와는 다른 특징을 가진 일련의 방법론으로 정의하는 것은 다음의 질적 연구 특징을 통해 보다 명확해진다.

나. 질적 연구방법론의 특징

1960년대에 질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에 앞서 역사적 뿌리가 있었다. 질적 연구와 흔히 관련지어지는 몇 가지 지적 흐름(예를 들어,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회과학의 막강한 조류로 질적 연구가 출현 하기에 앞서 나타났다. 이처럼 질적 연구의 잠재적 기반을 표면화시킨 것에는 다음의 몇 가지 요인들이 존재한다. 즉, 과학적인 접근방법(즉, 양적 연구)의 결과에 대한 재인식의 증대, 토마스 쿤과 같은 과학철학자들의 연구 관심에서 비롯된 자기반성의 촉구, 그리고 1960년대 후반의 현상학(phenomenology)과 관련된 사상의 확산이 그런 요인들이라 볼 수 있다(홍동식 외 역, 1992).

질적 연구방법론이 가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홍동식 외 역, 1992), 질적 연구방법론은 연구 참여자의 시각(눈)으로 사건, 행위, 규범, 가치 등을 관찰한다는 데 있다. 두 번째, 일상생활의 아주 피상적이고 사소한 것까지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회적 여건들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강조한다. 이는 일상적이고 하찮은 것들도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현실의 여타 분야들에 대한 단서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세 번째, 질적 연구는 사건, 행동 등을 그것이 발생한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기 때문에 맥락주의(contextualism)를 선호하며 이러한 맥락주의는 질적 연구방법론의 또 다른 특징인 총체적(holistic) 접근과 관련된다. 즉, 총체적 접근은 사회적 실체들을 총체적으로 그들의 전반적인 맥락 속에서 설명되고 이해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네 번째, 질적 연구는 정적인 것보다는 과정적인 측면으로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는 종단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질적 연구에서 과정을 강조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현실을 있

는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관심의 표명이다. 다섯 번째, 질적 연구는 융통성과 비구조적 성격을 특징으로 한다. 질적 연구자들은 미리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연구할 것인가 결정하기 보다는 비교적 개방적이고 비구조화된 연구 전략을 선호한다. 마지막으로, 질적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생소한 인식 틀을 강요하지 않는 연구 전략을 선호하기 때문에 흔히 현장 연구 착수에 앞서 이론 및 개념을 설정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한편, LeCompte & Schensul(1999), Marshall & Rossman(2006), Hatch(2002)들이 제시한 질적 연구방법론의 특징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이들이 제시한 특징을 살펴보면 오늘날의 질적 연구들은 연구의 해석주의적 특성과 연구자와 참여자, 독자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맥락 내에서 연구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조흥식 외 역, 2010).

〈표 2-1〉 질적 연구방법론의 특징

특징	LeCompte & Schensul(1999)	Marshall & Rossman(2006)	Hatch(2002)
자연스러운 상황(현장에 초점을 둔 밀접한 상호작용을 위한 자료의 원천)	○	○	○
자료수집의 주요 도구로서 연구자			○
말 또는 이미지 등의 다양한 자료 원천	○	○	○
귀납적, 순환적, 상호작용적 자료분석	○		○
참여자의 관점, 그들의 의미, 주관적 시각에 초점	○		
사회적-정치적/역사적 맥락 내의 또는 문화적 렌즈를 통한 인간 행동과 신념의 구성		○	○
엄격하게 미리 형성된 설계라기 보다는 유연한 설계		○	○
기본적으로는 해석적 탐구 - 연구자는 연구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역할과 독자의 역할, 참여자의 역할, 참여자의 역할을 반영		○	
사회현상에 대한 총체적 관점		○	○

자료: 조흥식 외 역(2010: 63)

2. 혼합 연구방법론(mixed research methodology):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의 연계 및 통합

가. 정의

혼합 연구방법론(mixed research methodology)과 관련해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그러나 혼합 방법론의 다양한 특성들을 통해 이해할 수 있으며, Creswell 등(2011)은 혼합 연구방법론의 핵심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①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연구문제에 기초하여)를 일관성 있고 엄격하게 수집하고 분석한다. ② 이들 두 자료를 결합(combine) 혹은 이들을 병합(merge)함으로써 동시에 두 자료를 혼합(mix) 혹은 통합(integrate)·연결(link)하거나, 하나를 수행하고 순차적으로 그것이 다른 것의 근거가 되게 하거나 혹은 다른 것 내에 하나를 끼워 넣는(embed)다. ③ 두 자료 가운데 하나 혹은 양자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④ 한 연구에서 혹은 연구의 여러 단계에 걸쳐 이러한 절차를 사용한다. ⑤ 철학적 세계관, 이론적 렌즈 내에서 이러한 절차들을 표현한다. ⑥ 이러한 절차를 연구수행 계획을 이끄는 특정 연구 설계와 결합한다고 설명하였다.

나. 혼합 연구방법론의 유용성

하나의 연구에서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연구대상, 주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혼합 연구방법론의 유용성에 덧붙여 보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론을 혼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Greene,

Caracelli, and Graham(1989)는 ① 다원화(triangulation): 상이한 연구 방법으로부터 결과의 수렴, 확증, 그리고 관련성을 추구, ② 상보성(complementarity): 다른 연구 방법의 결과와 함께, 한 연구 방법으로부터 나온 결과의 정교화, 향상, 설명, 명료화 등을 추구, ③ 개발(development): 한 연구 방법의 결과를 사용하여 다른 방법을 개발하거나 이해. 이 때 개발은 측정 결정뿐 아니라, 표집, 실행 등을 포함, ④ 창시(initiation): 패러독스, 모순, 새로운 증거들의 발견. 다른 연구 방법으로부터 나온 결과 혹은 질문을 통해, 한 연구방법의 질문 혹은 결과를 재구성, ⑤ 확장(expansion): 상이한 연구 요소에 대해 상이한 연구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연구의 깊이와 폭을 확장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Bryman(2006)은 ① 다원화 혹은 더 큰 타당성: 결과를 다원화, 즉 상호적으로 확증하기 위해 양적, 질적 연구가 결합될 수 있다는 전통적 견해, ② 상쇄(offset): 양적, 질적 연구 방법은 각각 장점과 약점이 있으며, 이들을 결합함으로써 강점을 끌어내고 약점을 상쇄할 수 있음, ③ 완전성(completeness): 양적, 질적 연구 방법을 채택한다면, 연구자가 관심이 있는 연구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끌어낼 수 있음, ④ 과정: 양적 연구는 사회생활의 구조를 이야기하고 질적 연구는 과정을 제시함, ⑤ 상이한 연구 질문: 양적, 질적 연구는 각각 상이한 연구 질문에 답한다는 주장, ⑥ 설명: 다른 연구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를 설명하는데, 한 연구방법이 사용됨, ⑦ 기대하지 못한 결과: 한 연구 방법에서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가 다른 연구방법을 통해 이해될 수 있을 때, 양적 및 질적 연구방법이 유용하게 결합될 수 있음, ⑧ 도구적 개발: 질적 연구가 설문지, 측정 항목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맥락을 언급, ⑨ 표집: 특정 접근이 응답자 혹은 사례의 표집을 촉진하는데 사용되는 상황, ⑩ 신뢰성: 양적, 질적 접근을 채택함으로써 결과의 진실성을 높일 수 있음, ⑪ 맥락:

두 방법의 결합은 일반화되고 외적으로 타당한 결과 혹은 서베이에서 발견되지 않은 변수들 간의 폭넓은 관계 등과 결부되어 맥락적 이해를 제공하는 질적 연구의 측면에서 합리화됨, ⑫ 예시: 양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질적 자료를 사용. “딱딱한(dry)” 결과라는 “뼈”에 “살”을 입히는 것으로 비유됨, ⑬ 결과의 유용성 증진 혹은 효용성: 두 접근의 결합이 실천가들에게 보다 유용함, ⑭ 확증과 발견: 가설을 만들기 위해 질적 연구를 사용하고 단일한 프로젝트에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양적 연구를 사용, ⑮ 견해의 다양성: 양적, 질적 연구를 통해 연구자의 관점과 실천가의 관점을 결합함. 또한 질적 연구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의미를 드러내고 동시에 양적 연구를 통해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발견함, ⑯ 양적, 질적 결과를 증진 혹은 이것에 기반을 둬: 양적, 질적 연구 접근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보다 많은 양적 혹은 질적 결과를 생산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도 Rossman 등(1985)은 혼합 연구방법론의 유용성으로 확증(corroboration), 정교화(elaboration), 창시(initiation)를 제안하였으며, 이들은 다음과 같은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① 질적 연구방법론과 양적 연구방법론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얻어진 결과들을 통합하고 수렴하는 이론의 확증(corroboration)이다. ②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풍부하고 상세한 내용을 찾아내어 표면화하는 정교화(elaboration)이다. ③ 이러한 증거와 근거에 기반을 둔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새로운 해석을 모색하고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아이디어나 연구주제를 찾아내는 창시(initiation) 등이다(Rossman et al., 1985, 천희란 외, 2011 재인용).

다. 혼합 연구방법론 활용 시 유의사항

앞서 살펴본 혼합 연구방법론의 유용성이 극대화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어떤 목적으로 혼합 연구방법론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연구주제(목적)에 맞는 연구를 결정한다고 할 때, 혼합 연구방법론이 적합한 연구문제는 하나의 자료 원천으로 불충분한 연구문제들, 설명이 필요한 결과, 일반화될 필요가 있는 탐색적 결과 등이다. 혼합 연구방법론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연계하여 시행할 경우 예산과 시간 낭비 등 오히려 더 큰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고려할 점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상호작용 수준에 대한 것이다. 상호작용은 두 가지 연구방법이 서로 독립 혹은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Creswell, et al., 2011). 즉, 연구자는 두 가지 연구방법론이 상호 독립적인지, 상호적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상호 독립적인 경우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독립적으로 수행될 경우를 지칭한다. 즉, 두 가지 연구방법론은 별개이고 연구자는 양적 및 질적 연구문제, 자료 수집과 분석 등을 별개로 진행한다. 이처럼 연구가 독립적일 경우, 연구자는 연구 말미에 전반적 해석을 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만 두 가지 연구를 통합한다. 반면, 상호적인 수준에서는 양적 및 질적 연구 간에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최종적인 해석 이전에 두 방법은 통합된다. 연구 과정의 다양한 시점에서 다양한 형태로 통합이 이루어진다.

셋째, 혼합 연구방법론에 의한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 방법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혼합 연구방법론은 단순

히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의 합이 아니라, 혼합 연구방법론 나름의 다양한 연구 절차와 기술이 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혼합 연구방법론의 의미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 문제는 특히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을 수행 결과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 더욱 중요하다.

3. 혼합 연구방법론(mixed research methodology)과 관련된 논의 및 동향

실증적, 계량적, 연역적, 서베이 등의 특징을 갖는 양적 연구방법론과 해석적, 비계량적, 귀납적, 참여관찰과 비구조화된 인터뷰 등의 특징을 갖는 질적 연구방법론의 차이점에 대한 강조에서 한 걸음 나아가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두 가지 연구방법론의 연계 혹은 혼합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두 가지 연구방법론을 연계 혹은 혼합한 ‘혼합 연구방법론(mixed research methodology)’은 하나의 현상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그러한 현상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적인 맥락과 문제에 얽혀있는 복잡성과 다양성, 차이 등을 심층적으로 관찰하고자 하는 시도이다(Bryman, 2007; Johnson et al., 2007; Wolcott, 2002; 강민아 외, 2007 재인용).

Fry 등(1981)은 질적 연구의 장점이 어떻게 양적 연구에 대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6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강민아 외, 2007 재인용). ‘① 질적 연구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들을 좀 더 정제할 수 있는 동시에 기존 사고방식에 대해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한다. ② 보다 다양한 설명적 개념이나 유형을 발견하는데 유용하다. ③ 양적 연구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설정오차

(specification error)를 줄일 수 있다. ④ 더욱 향상된 개념과 문화적으로 관련된 범주에 근거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⑤ 양적 연구 자료에서 종종 발견되는 예외적인 현상(outlier)을 질적 연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⑥ 새로운 아이디어, 통찰력, 가설 그리고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국외에서는 질적 연구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질적 연구방법론과 양적 연구방법론의 혼합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질적 조사자료와 양적 조사자료를 결합한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논의의 기원은 19세기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가, 1850년 중반 사회학자 Le Play는 사회현상을 연구함에 있어서 이러한 두 가지 연구방법론을 동시에 채택하고 결합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Erzberger & Prein, 1997; 심준섭, 2008 재인용). 물론 이 때부터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을 혼합 혹은 결합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아니다. 1970년대 이전에 출판된 사회연구방법론 교재들을 보면 거의 자연과학 방법에 따른 양적 연구방법론이 대세였고 바람직하다고 여겨졌다(홍동식 외 역, 1992). 그러나 1960년대에 현상학에 대한 높은 인식과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동안 전통적인 관행으로 여겨져 왔던 양적 연구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면서 질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 후 1980년대 들어서면서 두 가지 방법론의 연계 또는 혼합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우리의 사정은 어떠한가? 사회복지학계에서도 2000년대 들어 질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최근 사회복지학계는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두 가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첫째는 양적 연구의 확대 및 고급 통계의 지향성이 두드러지는 것이고, 둘째는 양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지나친 편향성, 질적 연구방법론의 미성숙과 왜곡된 연구문화에 대한 자성

적 고찰이 제기되면서 다양한 연구방법, 즉 질적 연구방법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김미옥, 2007). 사회복지학계에서 질적 연구방법이 활용되기 시작한 역사가 10여년에 불과한 관계로 이 두 방법의 혼합에 관한 논의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외의 경우 1960년대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1980년대 혼합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는 사실로부터 향후 우리 사회복지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실천 현장을 중심으로 욕구조사, 평가조사 등에서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실제로 행해지고 있다.

요컨대,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의 혼합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각 방법론의 장점을 취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서 연구대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성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이라는 설득력을 갖는다.

한편, 두 가지 연구방법론의 혼합과 관련하여 모든 연구자가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연구에서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과연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이 통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첨예하게 이루어 졌으며, 통합 논쟁의 핵심은 “인식론적 관점”과 “기법적인 관점” 간의 대비로 이해할 수 있다. “인식론적 관점”에서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은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경우 두 방법은 서로 양립 불가능한 연구과정으로 이해된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서로 다른 인식론적 입장을 가진다는 입장을 가진 연구자들은 사회현상의 실체는 무엇이며 어떻게 연구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양적 연구방법 혹은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두 방법을 통합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반면에, “기법

적인 관점”은 양적 연구방법 혹은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특정 연구문제의 적합성에 관한 “기법적” 고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홍동식 외 역, 1992). 다시 말해, 연구문제에 따라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 혹은 둘의 통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용주의자들은 최근에 이러한 혼합 연구방법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집단이다(김미숙, 2006). 실용주의자들은 철학적 독단주의와 회의론의 중간지대에서 역사적으로 동의가 진전되지 않는 오랜 철학적 이원론(이성주의 대 경험주의, 현실주의 대 비현실주의, 자유의지 대 결정론, 사실 대 가치, 주관주의 대 객관주의 등)을 거부하는 대신 이 논의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기초로 철학적 이원주의에 대한 온건하고 상식적인 견해를 선호한다(김미숙, 2006). 한 패러다임에서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의 통합을 지지하는 실용주의자는 방법 혹은 방법의 기저에 있다고 가정된 세계관보다 연구문제를 더욱 중시한다. 이들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론적 도구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구자의 특정 방법론이나 방법의 기저에 있는 패러다임보다는 그들이 제기하는 연구문제를 어떻게 하면 보다 잘 탐구할 수 있는가에 더욱 큰 관심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방법론이 따라가야 한다고 본다(김미숙, 2006).

최근에는 두 가지 연구방법에 대한 철학적 논쟁보다는 각각의 학문적 독자성과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질적방법과 양적방법을 통합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김미숙, 2006). 물론 여전히 방법론적 순수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의 통합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문제를 더 잘 해결하고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입장에서 통합적인 혼합 연구방법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

구방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Tashakkori & Teddlie, 2003; 김미숙, 2006에서 재인용).

4. 혼합 연구방법론 활용 사례

많은 질적 연구자들은 교육 및 사회복지실천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질적 연구방법론과 양적 연구방법론을 혼용하는 접근방법을 적용시켰다(유태균 역, 2001). 두 가지 연구방법론을 혼용하는 접근방법에 의한 프로그램 평가가 갖는 장점은 양적 평가를 통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밝힐 수 있고 또한 질적 평가를 통해 어떻게 어떠한 프로그램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질적 연구방법론과 양적 연구방법론을 혼합하는 평가라고 해서 반드시 성공적 평가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연구의 심도와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음은 분명하다(유태균 역, 2001).

프로그램 및 실천 평가와 관련된 국내의 사례로 ‘우리 아이 희망네트워크 지원 사업 성과평가’가 있다. 2006년에 삼성 사회봉사단의 지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획 사업으로 시작된 우리 아이 희망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아동과 가족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 친구, 친지 등과 같은 비공식적 자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공분야 또는 전문분야 간의 전문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한 마을의 아이들을 서로 돌보고 키우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노혜련 외, 2007). 우리 아이 희망네트워크 지원 사업 성과평가는 네 가지 집단, 즉 희망네트워크 사업을 경험한 서비스 이용자 집단, 사업진행 실무자 집단, 지역사회 연계자원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에 대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성과평가를 통해 희망센터에서 제공된 서비스가 이끌어낸 긍정적 변화를 구체적인 예로 제시할 수 있었고 이러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가장 크게 작용한 요인, 즉 프로그램(개입)의 블랙박스를 발견하는 데 기여하였다(김미곤 외, 2012에서 재인용).

국외 사례로는 뉴욕에서 정신장애인 노숙자 대상 서비스 제공 기관인 Pathways to Housing 사업 평가가 있다. Pathways to Housing 프로그램은 기존의 통제 및 관리 위주 노숙자 사업과 달리 노숙자의 선택과 자율을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것으로, 많은 서비스 제공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공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실제 이 프로그램에 대해 양적 및 질적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었다(유태균 외, 2001).

London 등(2007)은 미국의 복지개혁 정책을 주제로 패널자료를 구성하고 이와 함께 일부의 추가 표본을 대상으로 질적 인터뷰를 병행하였는데 결론적으로 혼합 연구방법론은 정책과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에 기여하였으며, 질적 자료는 양적 자료만으로는 예상하지 못한 통찰을 제공하였다(이현주 외, 2009에서 재인용).

한편, 양적 연구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종단 연구 분야에서도 질적 종단 연구(QLLR, Qualitative Longitudinal Research)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양적 방법의 한계, 실증주의에 대한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비판이 질적 연구에 대한 탐구와 보다 광범위한 활용을 가능하게 했듯이, 양적 연구방법에만 치우친 종단 연구 분야에서도 사회적 맥락에서 시간과 과정에 따른 변화를 탐구하고 이해하는데 기여하는 질적 종단 연구에 점차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경제사회위원회(ESRC, The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는 질적 자료

및 질적 연구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질적 종단 연구 전략을 개발하는 방식을 조사하기 위한 예비 타당성 연구(feasibility study)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Henwood & Lang(2003)은 종단 연구는 이미 수없이 많이 진행된 혹은 진행 중인 양적 연구들과 함께, 질적 연구와도 훨씬 더 많이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 종단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예산 제약과 연구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질적 종단 연구는 학문, 정책연구 분야, 특히 정책평가의 주요 방법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Holland, et al., 2006 재인용). 이들은 질적 종단 연구의 강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Holland, et al., 2006 재인용). 양적 연구방법에 기초한 패널 연구는 유동성, 매우 상황 특정한(situation-specific) 경험, 사람들이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이것을 다루는 방식을 중재하는 이해와 인식을 사정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질적 연구방법에서는 깊이 있고 상세한 조치(treatment)를 제공할 수 있다. 질적 연구는 맥락적인 이슈들에 매우 민감하며, 사람들이 인생의 전환기에 자신의 삶에서 발생한 변화(예를 들어, 어머니/아버지로의 전환) 등을 주관적으로 교섭(협상)하는 방식과 같은 중요한 미시-사회적인 과정(micro-social process)을 밝힐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의 일상태도와 행동이 사회문화적 변화 패턴 속에 어떻게 내재되는가를 탐구하는 것도 가능하다(사회적 역할에 대해 당연시 여겼던 가정과 신념, 예를 들어 부모 역할의 성적 분화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같다). 맥락에 대한 민감성의 결과로 질적 연구는 사회적 과정에 대한 미시적 관심과 거시적 관심을 결합할 수 있다.

또한, 양적 연구에서는 평균과 경향에 기초한 비교를 통하여 상세한 것을 없애지만, 질적 연구는 사회적 행동에서 지속적인 것과 순간적인 것을 구별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차이의 중요성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Pollard & Filer, 2002; Holland, et al., 2006 재인용).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과를 유발시키는 차이들을 구별할 수 있고, 변화가 어떻게 개인과 집단에 의해 다르게 경험되고 실행되는가 알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하나의 질적 종단 연구는 심리적, 자서전적 과정(lived through experience)을 통해서 사회적 결과가 발생하고 중재되는, 바로 이러한 과정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이미 확립된 사회과학 연구 분야에 신선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교육, 심리, 건강 연구, 사회학(생애 과정 및 생애사(life course, life history),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대한 연구, 범죄 연구) 등에서 질적 종단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2절 빈곤 역동성 측면에서 양적·질적 연계패널 구축의 필요성과 의의

1. 최근 우리나라 빈곤 연구의 경향 : 다차원성과 역동성

오늘날 우리나라의 빈곤연구는 빈곤을 더 이상 단순히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나 물질적 결핍으로만 이해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빈곤을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인 삶의 조건과 방식으로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 경제, 심리, 사회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다(성준모, 2010; 이상록·이순아, 2010; 이주하, 2011; 이현주 외, 2009). 또한, 실현능력 접근과 같이 빈곤의 비화폐적 측면을 강조하여 빈곤을 측정하자는 주장들도 나타나고 있으며(김교성·노혜진, 2011; 서병수, 2007; 최균·서병수, 2006; 최균

외, 2011), 이들은 다차원적인 빈곤에 대해 이해하고 측정을 하며, 이에 기반한 정책을 강조되고 있다⁴⁾.

한편 IMF위기 이후에는 빈곤의 정태적 현황 및 분포뿐만 아니라, 빈곤의 동태적 변화를 다루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전에는 횡단적 자료를 사용하여 빈곤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빈곤층의 요구와 의식을 조사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등의 정태적 빈곤 연구 경향이 지배적이었다⁵⁾. 그러나 최근에는 빈곤의 역동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곤의 진입과 지속, 탈피, 특정한 인구학적 집단을 대상으로 한 빈곤 상태의 변화 등을 살펴보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빈곤의 스냅샷을 분석하는 것보다 역동성 분석이 빈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Alcock, 2004)는 사실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는 빈곤으로의 진입과 탈피를 관찰할 수 있는 패널 자료가 1990년대 후반부터 구축되면서 가능해진 것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종단적 자료를 사용하여 빈곤 역동성을 살펴본 연구로는 먼저 황덕순(2001)은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패널 데이터로 연결하여 분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빈곤 역동성을 살펴본 주된 연구들은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안정적인 구축과 맞물려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강신욱, 2009; 구인회, 2005; 금재호·김승택, 2001; 김은하, 2009; 석상훈, 2007, 2009; 홍경준 2004), 이러한 연구들은 패널자료의 특성을 활용하여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율의 변화, 빈곤 진입과 탈피 경향, 빈곤의 반복이나 장기화 현상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⁶⁾.

4) OECD(2001:10)도 빈곤을 소비, 식량, 건강, 교육, 권리, 표현, 보장, 존엄, 좋은 일자리와 같은 실현능력과 관련된 다차원적인 박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5) 1990년대 이전의 빈곤 연구 경향에 대한 논의는 김영모(1989)를 참조한다.

6) 서구의 경우 역시 양적 종단자료의 구축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노동시장 특성과 빈곤의 진입과 유지기간, 탈피와 같은 빈곤의 역동성에 대한 양적 연구들이 많이 나왔으며, 이는 탈빈곤정책의 발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Millar, 2007).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은 저소득층의 실태변화와 욕구를 동태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정책 효과성을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빈곤의 다차원적이며 역동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주거 빈곤과 아동발달 및 가족생활,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 빈곤 혹은 관련된 서비스와 가족 갈등, 요보호 가구원 부양과 가구빈곤, 빈곤층의 소비패턴 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 졌으며, 이들은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이해를 시도하여 빈곤 연구의 지평을 확대시켰다. 더 나아가 자산빈곤과 빈곤의 지속, 빈곤과 우울의 종단적 고찰, 빈곤지위 변화와 정신건강, 탈수급 전후 의료서비스 차이, 근로능력에 따른 탈수급 결정요인 등의 연구들은 다차원적 빈곤에 대한 이해 및 관련 정책의 다양한 측면을 역동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들이 제시하는 빈곤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은 정태적인 연구결과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교성(2011)은 우리나라 사회정책 빈곤 연구의 동향과 과제에 대한 논문을 통해 “빈곤실태 연구는 그것이 스냅샷인지 혹은 동영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연구가 공통적인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빈곤실태 연구가 정태적 분석을 하든, 역동성 분석을 하든, 거의 모두가 개인, 가구, 노동시장 요인 등이 주요 변인으로 나타난다고 하여, 각각의 분석결과에서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김미곤 외, 2012 재인용).

2. 빈곤의 역동성 연구에서 혼합 연구방법론의 필요성과 의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들어 빈곤의 다양한 측면을 역동적으로 이

해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는 것은 빈곤 연구에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패널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양적 연구가 갖는 많은 장점을 포함하는 동시에, 양적 연구방법론에의 편향에 따른 다양한 한계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앞서 제시했듯, 정태적 분석과 동태적 분석이 결과적으로 차별성이 없다는 문제의식은 빈곤의 다차원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연구주제의 한계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러한 다차원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이 지나치게 양적자료에 대한 분석에만 의존하고 있는 양적 연구방법론의 획일성에서도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양적자료는 측정 가능한 사건들에 대해서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질문을 단순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대상자의 삶과 경험이 몇 가지 데이터로 환원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Alcock, 2004). 이와 같은 양적자료의 특성은 복잡하고 다양한 빈곤 현상 및 관련 경험들이 결국 통계수치로 축약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국복지패널을 비롯한 많은 패널자료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확률과 통계에 근거하여 수리적 일반화를 목표로 하는 양적 연구방법론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결론이나 정책대안 개발에서 차별성 있는 다양한 연구가 나타나지 못하는 위험도 증가하게 된다. 더 나아가, 시간이 지나면 궁극적으로 양적 패널자료가 제공하는 변수들에 대한 활용도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양적 연구방법만을 통해 빈곤의 다차원성과 역동성과 관련된 심도 깊은 개인의 경험과 태도, 행위 동기 및 결과, 맥락, 삶의 통찰을 이해하기란 더욱 힘들어 보인다.

양적 연구방법론에의 편향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미 사회복지학계에서 일부 연구를 통해 지적된 바 있는데(강철화·김미옥, 2003; 김인숙, 2007; 오정수, 2002; 홍경준, 2002), 이러한 논의는 빈곤 연구에 대해 적용하더

라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즉, 빈곤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양적 연구들은 여전히 빈곤층의 시각보다는 연구자 중심의 분석을 시도하며, 빈곤층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사회구조적 맥락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빈곤이라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와 사례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김교성, 2011). 더 나아가 이러한 양적 연구방법론의 편향성은 실증주의 이외의 지식기반에 근거한 빈곤문제에 대한 새로운 담론 형성을 이끌어내지 못해, 인식론의 다원화를 꾀하기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적 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질적 연구방법론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Carvalho & White(1997)는 빈곤 연구에 있어서,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 중 어느 하나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대부분의 경우 두 가지 연구방법론이 서로 간과하고 있는 질문들을 다룰 수 있으므로, 이를 혼합하는 연구방법론이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질적 연구에서는 누가 가난한지에 대한 질문보다는 왜 가난한지,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빈곤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Barrett(2004) 역시 양적자료에 기반한 빈곤의 역동성 연구를 통해서 단순히 재생 가능한 결과들을 생산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법론의 연계 및 혼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어떤 대상에게, 어떤 시기에, 어떠한 규모와 내용을 가진 개입을 시도할 때, 삶의 기준의 향상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하여 인과적인 분석을 해야 하는데, 이는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의 혼합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혼합 연구방법론을 통해 동일한 현상에 대해 다양한 출처를 통해 다차원적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게 된다면, 통계수치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고, 교차

확인(cross-check)을 통해 측정의 다원화(triangulation)를 추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Jick, 1979; Barrett, 2004). 이러한 양적 & 질적 연구방법론의 연계 또는 혼합은 양적자료의 설문을 질적 자료와 연계되도록 설계할 수도 있고, 질적 분석을 통해서 빈곤과 관련된 지표들을 개선할 수도 있으며, 서로 상대방의 발견에 대해서 인증(confirming), 반박(refuting)하는 과정을 통해 풍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Carvalho & White, 1997).

최근 혼합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수행된 빈곤의 역동성 연구들을 살펴보면, 질적 연구방법론은 빈곤의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통찰의 기반을 제공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풍부한 이해를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의 역할에 대한 세밀한 관찰까지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Adato et al., 2006; Lawson et al., 2006; Lawson et al., 2008).

3. 빈곤 연구와 관련된 질적 연구 및 혼합 연구방법론 활용 사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질적 연구에서는 빈곤층의 삶의 경험과 빈곤 정책과의 상호작용을 잘 드러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기존 통계나 사회적 편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빈곤 현실에 대한 통찰과 심도 깊은 이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Edin & Lein(1997)은 “Making Ends Meet”라는 저서에서, 미국의 싱글맘들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복지수급자들이 삶을 유지하는 방법과 경험을 통찰력 있게 전달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미국 통계국의 빈곤에 대한 양적 측정결과와는 별도로 싱글맘들이 생존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방법과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Seccombe(1999)은 “So You Think I Drive a Cadillac?”에서, 미국의

여성 복지수급자들의 복지개혁에 대한 인식과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수급 여성들이 고급 캐딜락 승용차(Cadillac)를 타고 다닌다는 이미지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확실적인 양적 연구방법론에의 편향성에 대한 사회복지학계의 성찰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다양한 질적 자료를 사용한 빈곤 연구들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빈곤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목표로 하는 연구에서도 절대빈곤층의 삶과 경험을 제공하거나(박순일, 1994; 윤석범, 1994), 문학작품에서 나타난 빈곤층의 의식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윤석범, 1994), 엄밀히 말해서 이러한 방법들은 전통적인 질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라기보다는 질적 자료를 사례로 제시하여 소개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연구자의 일방적 분석보다 빈곤층의 인식과 목소리를 통해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타나고 있다(권지성, 2008; 김교성, 2011; 백학영, 2006; 이은주, 2008). 그 밖에도 질적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의 거시적인 실천과정을 평가할 수 있고, 참여자의 시각에서 사회복지 실천과정의 작동 기제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홍현미라, 2011).

이러한 논의들은 빈곤 연구에서도 질적 연구방법의 도입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을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블랙박스로서 빈곤정책의 작용 기제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함의를 제공한다⁷⁾. 이러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7)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를 저술한 Deborah Padgett(1998)도 질적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인식과 생생한 경험을 찾아내고, 프로그램, 혹은 개입이라는 “블랙박스” 내부로 들어가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 질적 연구방법의 이러한 활용은 자활사업에 참여한 여성가구주의 경험을 중심으로 자활사업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전망에 대한 연구(백학영·고미선, 2007)
-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과정에서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연구(백학영·조성은, 2012)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해 수급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이태진 외, 2007, 2008)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연구(이희연, 2009)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수급 관련 인식, 가족관계 및 근로활동에 대한 인식과 전망 등 사회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양적 연구와 더불어 질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연구(이현주 외, 2009)
-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인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을 평가한 연구(권지성, 2010)

4. 빈곤 역동성 연구에서 질적 종단 연구 및 패널자료 구축 필요성

이상과 같이, 최근 들어 질적 연구방법론이 빈곤 연구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해서 양적 연구가 지닌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Carvalho & White, 1997). 앞서 제시한 것처럼 이러한 두 가지 연구방법론의 차이는 상호 보완을 통해 보다 정합적인 연구방법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⁸⁾. 하지만 지금까지의

8) 오정수(1997)는 실증주의의 장점과 비실증주의를 결합하는 형태로 나타난 인식론적인 다원주의를 긍정적인 변화의 방향으로 보고,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의 효과적인 정합은 연구목적과 연구대상의 다양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빈곤과 관련된 질적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매우 제한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빈곤의 다차원성과 역동성이라는 최근의 연구경향에 비추어 본다면, 질적 연구가 향후 빈곤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 빈곤의 다차원성에 대한 질적 연구(김교성·노혜진, 2011; 이현주 외, 2009; 최종혁 외, 2009)는 그나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빈곤의 역동성과 관련된 질적 연구는 거의 발견하기 쉽지 않은데, 이는 무엇보다도 질적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종단적 연구에 필요한 질적 자료의 부재로 인해, 질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빈곤의 역동성에 대한 연구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양적 패널자료를 활용한 빈곤의 역동성 관련 연구가 많이 나온 것처럼, 질적 연구를 통해서도 빈곤의 역동성에 대한 연구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Millar, 2007). 특히, Millar는 질적 종단 연구에 기반한 빈곤 역동성 연구들은 지위변화(transitions), 기간(durations)과 경로(trajectories)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대상자들의 각기 다른 경험들을 잘 보여주며, 이를 통해 이론적, 정책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Farrall(2006)은 질적 연구를 종단적으로 수행할 경우, 양적인 종단 연구나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회성 조사에 의한 질적 연구에 비해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어떻게 사회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되어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탐색할 수 있다. 둘째, 거시적 절차나 사건을 개인의 삶과 환경에 접목시킬 수 있다. 셋째, 프로그램 개입이 효과가 있었는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개입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또한 왜 그런지에 대한 맥락적인 분석과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 넷째, 개입 결과를 개인적 차원에서 볼 수 있다. 다섯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응답자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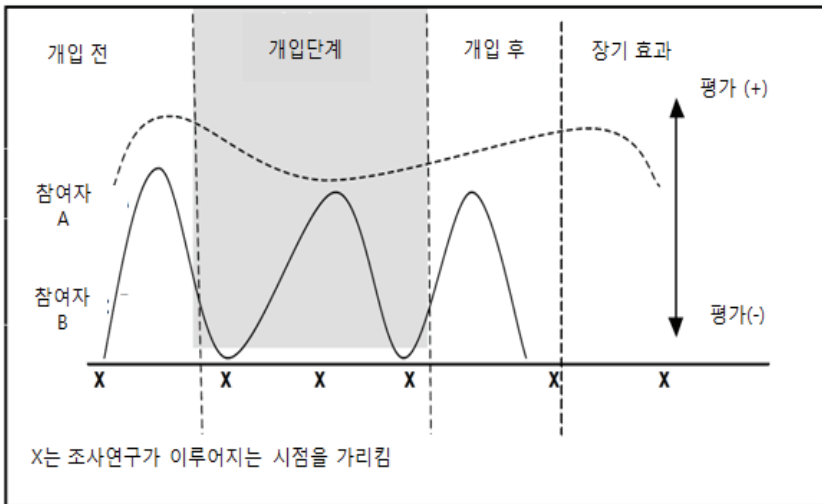
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된 변화들과 다양한 감정의 흐름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량적으로 의미가 없고 일반화시킬 수 없는 소수의 다양한 응답들이 사장되는 기존의 양적 연구에서와 달리 이들 사례로부터 이론적 성찰을 도출할 수 있다.

그 밖에 질적 종단 연구란 변화에 대해서 왜 그리고 어떻게 변화가 발생했는지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고 Molloy et al(2002)은 이야기하였다. 이들은 청년을 위한 뉴딜(New Deal)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하여 질적 연구 사례를 통해 질적 연구를 종단적으로 실시했을 때의 유용성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뉴딜의 구직이나 기본 기술개발과 관련된 경험에 대해 참여자 A, B의 평가 점수를 개입 단계에 따라 연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때 프로그램 참여의 전 과정에 걸쳐 평가점수가 고르게 나타나는 A에 비해, 평가점수가 단계 내에서 위아래로 큰 격차를 보이는 B의 경우, 스냅샷만으로는 프로그램의 경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 질적 종단 연구는 이러한 경우에도 경험의 평가와 관련된 고점과 저점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러한 변화를 설명해줄 수 있다는 유용성이 있다. 실제 연구에서 B의 경우 이러한 고점과 저점이 나타난 것은 뉴딜 참여자의 사생활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A의 경우처럼 극적인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질적 종단 연구는 왜 이 참가자가 완만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어 프로그램 실행과 정책 입안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김미곤 외, 2012 재인용).

이와 같은 질적 종단 연구의 특징은 앞서 제시했던 빈곤의 역동성에 대한 양적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가 보다 포괄적으로 양적 연구와 연계되어 함께 사용된다면 더욱 강력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는

데(Corden & Millar, 2007), 이는 마치 사람이 한 다리로는 도움 없이 서있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나가려면 두 다리가 필요하다는 비유로도 설명할 수 있다(Barrett, 2004).

[그림 2-1] 종단적 연구에서의 시간에 따른 변화의 탐색



자료: Molloy et al(2002:12) 에서 재인용

5. 한국복지패널과의 연계를 통한 질적패널 구축의 의의 및 이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은 복잡하고 다양한 빈곤과 관련된 특성들을 수치로 축약해버리는 양적 패널자료의 특성 및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개별 연구자들에 의해서 빈곤과 관련된 질적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여전히 빈곤의 역동성과 관련된 분석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연구 성과를 발견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구축된 기존의 양적 패널자료들은 아직 세대를 뛰어넘는 자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대간 빈곤의 역동성을

보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교성, 2011).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복지패널과 연계된 질적 패널자료를 구축하는 것은 질적 종단 연구를 통한 빈곤의 역동성 연구를 위하여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질적 종단 연구를 통해 빈곤 역동성과 관련된 개인의 관점과 주관적인 경험을 이해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대한 적응 과정과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은(Millar, 2007) 빈곤연구 발전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이와 같은 양적·질적 연계 패널자료의 구축을 위해서는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은 빈곤의 역동성과 같은 하나의 연구 영역에 대해 다른 시각과 목적의 연구 질문들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질문들이 협력적으로 이루어질 때, 빈곤의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계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 보다 풍부한 이해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된다. 즉, 질적 연구방법론에 의해서 구축된 패널자료와 이를 바탕으로 수행된 연구는 기존의 양적 패널 연구에서 나타난 다양한 수치를 보다 생생하게 해석 가능하게 하고, 측정의 다원화(triangulation)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로의 발전에 기초하여 향후 각자의 연구주제와 질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나가는 실용적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빈곤정책 평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상호 인증과 반박과정을 거쳐 빈곤 정책 수립을 위한 통찰력의 기반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연구방법론 연계 및 혼합은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간의 연결 고리(links)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연구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입안자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다(Corden & Millar, 2007). 물론, 질적 패널자료 역시 패널의 손실(attrition), 패널 조건화(conditioning)와 같은 문

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서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을 연계할 수 있는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Ruspini, 1999).

마지막으로, 양적 자료인 한국복지패널과 연계한 질적 패널조사에서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양적 패널조사와 연계되어 상호간에 보완적인 질문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질적 종단 연구의 특성이나 장점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질문들을 구성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를 위해 Saldana(2003)는 질적 종단 연구 질문들의 유형에 관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였다. 그는 질적 종단 연구를 통해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참여자의 인식과 인간의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을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종단적으로 구축된 질적 패널자료에 대한 분석과정의 틀을 만드는 질문(framing questions), 둘째, 변화에 대한 기술적인 질문(descriptive questions), 셋째는 다양한 변화와 관련된 분석적이고 해석적인 질문(analytic and interpretive questions)이다.

먼저, 종단적으로 구축된 질적 자료에 대한 분석과정의 틀을 만드는 질문들은, “구축된 자료의 풀(pool)이 다음에 어떻게 달라지는가? 언제 변화가 일어나는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개입적 조건은 무엇인가? 시간에 따른 변화의 역동성은 무엇인가? 참여자의 변화에 대한 사전 진술들이 자료 분석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변화에 대한 기술적인 질문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엇이 증가하거나 나타나는가? 무엇이 축적되는가? 어떠한 돌발적인 것들이 생겨나는가? 무엇이 줄어드는가? 무엇이 지속되는가? 무엇이 특징적인가? 무엇이 없어지는가?”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끝으로 변화와 관련된 분석적이고 해석적인 질문들은 “어떤 변화들이 경과에 따라 서로 연결되는

가? 어떤 변화들이 본연적인 인간 발달이나 구성된 사회적 과정에 대립 혹은 화합하는가? 무엇이 시간 경과에 따른 국면, 단계, 순환 등과 같은 리듬인가? 무엇이 연구를 관통하는 주제인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김미곤 외, 2012 재인용).

한편, Farrall(2006) 역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종단적 차원에서 구축된 질문과 자료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와 관련된 과정을 탐색하고 측정할 수 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시하고 있다. ① 웨이브(wave) 간 어떠한 차이가 발생했는가? ② 언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어떠한 변화가 먼저 혹은 동시에 일어나는가? ③ 돌출되는 사건들이 있는가?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엇이 증가하고 감소하였는가? 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무엇이 없어졌는가? ⑥ 변화와 변화의 시기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인 과정은 무엇인가? ⑦ 어떠한 변화들이 인간의 성장 과정에 도움을 주거나 혹은 가로막는가? ⑧ 변화들이 응답자들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⑨ 변화가 실제적인가 아니면 상징적인가?

이와 같이 제시된 질적 패널조사에서의 종단적 질문의 유형들은 향후 빈곤의 역동성 연구를 위한 질문내용의 개발에도 많은 함의를 제공한다. 1차년도에 구축되었던 질적 패널자료가 양적 패널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질문들로 주로 구성이 되었다면, 2차년도와 3차년도에 이루어진 질문들은 보다 시간에 따른 차이와 변화 과정, 관련된 사건이나 맥락,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한 기술적이고 해석적인 질문들을 추가하고 의미가 없는 질문들은 생략하였다. 이렇게 1차년도~3차년도의 조사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빈곤층의 삶의 경험과 인식의 변화, 탈빈곤을 위한 노력, 그리고 그것이 갖는 맥락과 의미들은 종단적 연구가 아니면 드러나기 힘든 소중한 정보이며, 그 과정에 대한 분석자체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자료들은 이후 연구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될

변화들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II부

질적패널 자료구축



제3장 저소득층 질적 패널조사 표본추출 및 가구특성

제1절 저소득층 질적 패널가구 표본추출

제2절 저소득층 질적 패널가구의 특성 분석

3

저소득층 질적 패널조사 << 표본추출 및 가구특성

제1절 저소득층 질적 패널가구 표본추출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표본가구로부터 저소득층 중심의 질적 패널 가구 표본을 추출하여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는 질적 패널을 한국복지패널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이미 축적된 다양한 양적 자료를 활용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다양한 영역별로 필요한 조사내용을 심층적으로 그리고 부가적으로 조사하여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처럼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자료 구축 기반이 되는 한국복지패널 표본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조사구에서 추출되었고, 조사지역은 농어가(읍면지역)는 물론,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표본의 대표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복지패널은 패널가구의 전국 대표성을 확보하고 복지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과대표집⁹⁾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1차 한국복지패널은 조사 당시 총 7,072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조사결과 저소득 가구비율이 약 45%, 일반가구 비율이 약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1차 한국복지패널을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기준 중에서 가장 확대된 개념을 활용하였다. 즉, 가구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평균소득

9) 중위소득의 60%(OECD 상대빈곤선)이하의 저소득층을 3,500가구 추출하고,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일반가구를 3,500가구 추출하였다.

6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질적 패널조사의 포괄적 대상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으로 설정하여 우선적으로 원표본 가구 중에 3,723가구(원표본 7,072가구 대비 52.6%)를 추출하였다. 이 가운데 질적 패널이 최초로 구축된 2011년 당시 6차 한국복지패널조사까지 표본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모든 조사를 완료한 2,960가구(원표본 7,072가구 대비 41.9%, 1차 패널 기준 평균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3,723가구 대비 79.5%)를 최종적으로 추출하였다. 제2차년도 질적 패널 구축 시점인 2012년에는 7차 한국복지패널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표본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는 2,880가구(원표본 7,072가구 대비 40.7%, 최초 평균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3,723가구 대비 77.4%)이었으며,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 3차년도(8차 한국복지패널조사)까지, 표본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는 2,788가구(원표본 7,072가구 대비 39.4%, 최초 평균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3,723가구 대비 74.9%)이다.

〈표 3-1〉 한국복지패널 원표본 가구 유지율과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 규모

(단위: 가구, %)

구 분 (조사 기준시점)	전체 패널가구	원표본 유지율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
1차 웨이브 (2005)	7,072	100.0	3,723 (52.6%)
2차 웨이브 (2006)	6,511	92.1	3,528
3차 웨이브 (2007)	6,128	86.7	3,370
4차 웨이브 (2008)	5,935	83.9	3,270
5차 웨이브 (2009)	5,675	80.3	3,136
6차 웨이브 (2010)	5,335	75.4	2,960 (41.9%)
7차 웨이브 (2011)	5,271	74.5	2,880 (40.7%)
8차 웨이브 (2012)	5,104	72.2	2,788 (39.4%)

한편, 본 연구를 통해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앞서 선정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6차 한국복지패널 조사기간 중 질적 패널조사 참여(심층 면접내용 녹음 및 녹

취자로 제공) 동의여부를 사전에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질적 패널 조사가 구로 심층 면접에 참여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할겠다고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한 가구는 362가구이었으며, 이들 가구의 특성을 중심으로 최종 질적 패널 표본가구 추출을 위하여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이처럼 질적 패널조사 참여의사를 지닌 362가구와 앞서 구축했던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2,960가구)의 주요 특성 및 가구구성(지역분포, 가구주 연령, 가구유형, 소득지위, 기초보장 수급여부, 가구원 중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유무 등) 등을 비교함으로써 유사한 분포를 나타낸 가구를 최종적으로 질적 패널 표본가구 100가주로 선정하였다.

우선, 지역은 수도권, 지방광역시, 지방중소도시, 농어촌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추출하였으며, 가구유형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일반가구, 단독가구, 부부가구, 한부모가구로 구분하였다. 동시에 가구원의 특성 중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근로활동 가구원을 적절히 고려하여 질적 패널 조사대상 가구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질적 패널가구로 선정된 100가구에 대해 1번부터 100번까지 질적 패널가구 고유번호(ID)를 부여하였다.

2012년 제2차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 조사에서는 100가구 외에 20가구를 표본으로 추가하였다. 추가된 20가구는 다양한 근로 빈곤층을 포괄하기 위하여 일반노동시장 참여자, 자활사업 참여자 및 조건부과 제외자 등 역동성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부합되는 가구를 추출하였다. 또한 1차 질적 패널조사 결과에서 표본가구의 추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장애인가구와 아동가구가 추가되었으며, 이렇게 추가된 가구에 대해서는 101번부터 질적 패널가구 고유번호를 부여하였다.

2013년 제3차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 조사는 한부모가구를 추가적으로 표본 추출하고자 하였으나, 조사에 응하는 가구가 없어 1차와 2

차에 구축된 120가구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 참여가구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3-2〉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 참여가구 특성

패널참여 가구	가구원수(명)	가구형태	기초보장수급	연령	성별	장애종류
1	2	부자가구	수급	63	1	장애인
				20	2	
2	4	기타가구	비수급	71	1	
				68	2	
				41	1	
				39	2	
3	1	단독가구	비수급	85	2	
4	2	기타가구	비수급	73	1	장애인
				70	2	장애인
5	2	기타가구	비수급	66	1	
				64	2	
6	1	단독가구	비수급	43	2	
7	3	기타가구	수급	57	2	
				22	1	
				88	2	
8	1	단독가구	비수급	71	2	
9	1	단독가구	수급	72	2	
10	1	단독가구	비수급	77	2	
11	1	단독가구	수급	74	2	
12	3	기타가구	비수급	40	1	
				40	2	
				9	2	아동
13	3	기타가구	비수급	80	2	
				46	2	
				17	2	청소년
14	4	기타가구	비수급	55	1	
				50	2	
				25	2	
				24	2	
15	2	기타가구	비수급	82	1	
				74	2	
16	2	기타가구	비수급	61	1	
				54	2	
17	2	기타가구	비수급	74	1	
				64	2	

패널참여 가구	가구원수(명)	가구형태	기초보장수급	연령	성별	장애종류
18	1	단독가구	수급	78	2	.
19	3	모자가구	비수급	47	2	.
				16	1	청소년
				14	1	청소년
20	4	기타가구	비수급	46	1	.
				43	2	.
				14	2	청소년
				9	1	아동
21	5	기타가구	비수급	53	1	.
				53	2	.
				27	2	장애인
				21	2	.
22	1	단독가구	수급	82	2	.
23	1	단독가구	비수급	92	2	.
24	3	모자가구	수급	49	2	장애인
				18	1	장애인
				13	1	아동
25	3	기타가구	비수급	81	2	.
				30	1	.
				60	2	.
26	1	단독가구	비수급	75	2	장애인
27	1	단독가구	비수급	49	2	.
28	5	기타가구	비수급	42	1	.
				38	2	.
				18	1	청소년
				12	2	아동
				7	1	아동
29	4	기타가구	비수급	36	2	.
				16	1	청소년
				38	1	.
				6	2	아동
30	2	기타가구	비수급	56	1	.
				62	2	.
31	3	기타가구	수급	65	1	장애인
				68	2	장애인
				30	1	.
32	5	기타가구	비수급	57	1	.
				51	2	.
				24	2	.
				22	2	.
				12	2	아동

80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3차): 취약계층의 삶을 중심으로

패널참여 가구	가구원수(명)	가구형태	기초보장수급	연령	성별	장애종류
33	2	기타가구	비수급	84	1	
				72	2	
34	2	기타가구	비수급	74	1	
				72	2	
35	2	기타가구	비수급	78	1	
				75	2	
36	4	부자가구	비수급	82	2	
				22	1	
				19	1	청소년
				52	1	
37	2	기타가구	비수급	55	1	
				73	2	
38	2	기타가구	비수급	89	1	
				82	2	
39	2	기타가구	비수급	66	1	
				58	2	
40	5	기타가구	비수급	52	1	
				50	2	
				23	2	
				21	1	
				12	2	아동
41	2	기타가구	수급	73	2	
				21	2	
42	2	기타가구	비수급	78	1	
				78	2	
43	3	기타가구	비수급	69	1	
				64	2	
				42	1	
44	2	기타가구	비수급	71	1	
				77	2	
45	2	기타가구	비수급	74	1	장애인
				67	2	
46	4	기타가구	비수급	45	1	
				42	2	
				16	2	청소년
				12	2	아동
47	3	기타가구	수급	73	2	
				23	2	
				21	1	
48	3	조손가구	비수급	78	1	
				68	2	
				18	1	청소년

패널참여 가구	가구원수(명)	가구형태	기초보장수급	연령	성별	장애종류
49	1	단독가구	수급	90	2	.
50	3	부자가구	비수급	55	1	.
				21	1	.
				15	2	.
51	2	기타가구	비수급	75	1	.
				72	2	.
52	5	기타가구	비수급	36	2	.
				12	1	아동
				44	1	.
				15	2	청소년
				11	2	아동
53	2	기타가구	비수급	60	2	.
				26	2	.
54	6	기타가구	비수급	78	1	장애인
				77	2	장애인
				37	1	.
				37	2	.
				9	1	아동
				7	1	아동
55	1	단독가구	수급	67	2	.
56	1	단독가구	비수급	75	2	장애인
57	1	단독가구	비수급	86	2	장애인
58	3	기타가구	비수급	40	1	.
				36	2	.
				8	1	.
59	3	기타가구	비수급	74	1	.
				65	2	.
				35	2	.
60	2	기타가구	비수급	73	1	.
				67	2	장애인
61	4	기타가구	비수급	70	2	.
				49	1	.
				45	2	.
				23	2	.
62	2	기타가구	수급	83	1	장애인
				76	2	.
63	2	기타가구	비수급	67	1	.
				55	2	.
64	2	기타가구	비수급	75	1	장애인
				64	2	.
65	2	기타가구	비수급	74	1	.
				73	2	.

82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3차): 취약계층의 삶을 중심으로

패널참여 가구	가구원수(명)	가구형태	기초보장수급	연령	성별	장애종류
66	2	기타가구	수급	64	2	
				18	1	청소년
67	3	기타가구	비수급	54	1	
				27	1	
68	3	기타가구	수급	24	1	
				60	1	
69	1	단독가구	비수급	54	2	
				27	2	
70	2	기타가구	비수급	76	2	
71	2	모자가구	수급	76	1	장애인
				73	2	
72	5	기타가구	비수급	42	2	
				16	2	청소년
73	1	단독가구	비수급	44	1	
				41	2	
74	1	단독가구	비수급	11	1	아동
				11	1	아동
75	5	기타가구	비수급	5	2	아동
				59	2	
76	2	모자가구	수급	75	2	장애인
				86	1	
77	3	기타가구	수급	85	2	장애인
				53	2	
78	6	기타가구	비수급	10	2	아동
				50	1	
79	1	단독가구	수급	39	2	
				13	2	아동
80	1	단독가구	비수급	50	2	장애인
				26	2	장애인
81	4	기타가구	비수급	8	1	아동
				82	1	
82	6	기타가구	비수급	75	2	
				50	1	
83	1	단독가구	수급	50	2	장애인
				20	2	
84	1	단독가구	비수급	16	2	청소년
				66	2	
85	4	기타가구	비수급	62	1	
				42	1	
86	1	단독가구	수급	42	2	
				11	2	아동
87	1	단독가구	비수급	6	1	아동

패널참여 가구	가구원수(명)	가구형태	기초보장수급	연령	성별	장애종류
82	2	기타가구	비수급	79	1	.
				79	2	장애인
83	2	기타가구	비수급	67	2	.
				44	2	.
84	1	단독가구	비수급	79	2	.
85	2	기타가구	비수급	79	1	장애인
				79	2	.
86	5	기타가구	비수급	38	1	.
				35	2	.
				13	2	아동
				10	2	아동
				9	1	아동
87	2	기타가구	비수급	82	1	장애인
				81	2	.
88	2	기타가구	수급	64	1	.
				62	2	.
89	2	기타가구	비수급	72	1	.
				67	2	.
90	5	기타가구	비수급	43	1	.
				38	2	.
				15	1	청소년
				13	1	아동
				11	2	.
91	2	기타가구	비수급	71	1	장애인
				67	2	.
92	4	기타가구	비수급	55	1	.
				52	2	장애인
				27	1	.
				26	1	.
93	1	단독가구	비수급	91	2	장애인
94	3	기타가구	비수급	74	1	.
				69	2	.
				42	1	.
95	3	기타가구	비수급	76	1	.
				72	2	.
				46	2	.
96	2	기타가구	비수급	65	1	.
				61	2	.
97	2	기타가구	수급	54	2	장애인
				76	2	.

84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3차): 취약계층의 삶을 중심으로

패널참여 가구	가구원수(명)	가구형태	기초보장수급	연령	성별	장애종류
98	4	모자가구	비수급	40	2	
				17	2	청소년
				14	1	아동
				20	1	청소년
99	1	단독가구	수급	72	2	
100	2	기타가구	비수급	81	1	
				77	2	
101	-	-	-	-	-	
102	8	기타가구	비수급	40	1	
				39	2	
				16	2	청소년
				14	1	청소년
				10	1	아동
				8	2	아동
				72	1	
				69	2	
103	4	기타가구	비수급	41	2	
				48	1	장애인
				16	2	청소년
				15	1	청소년
104	2	모자가구	수급	54	2	
				16	2	청소년
105	2	기타가구	수급	58	2	장애인
				31	1	
106	1	단독가구	수급	62	1	장애인
107	2	기타가구	수급	61	2	
				32	1	
108	-	-	-	-	-	
109	4	기타가구	수급	53	1	장애인
				50	2	
				15	1	청소년
				12	1	아동
110	1	단독가구	수급	58	1	장애인
111	1	단독가구	수급	59	1	장애인
112	5	기타가구	수급	50	1	
				51	2	
				28	1	
				25	2	
				19	2	청소년

패널참여 가구	가구원수(명)	가구형태	기초보장수급	연령	성별	장애종류
113	6	기타가구	수급	57	1	
				49	2	
				22	1	
				20	2	
				18	2	청소년
				14	2	아동
114	2	기타가구	비수급	62	2	
				36	2	장애인
115	2	기타가구	수급	55	2	
				31	2	
116	4	기타가구	수급	45	2	
				19	1	청소년
				68	2	
				43	2	
117	4	모자가구	수급	45	2	
				21	2	
				18	2	청소년
				15	1	청소년
118	2	기타가구	수급	58	1	장애인
				89	2	장애인
119	-	-	-	-	-	
120	2	모자가구	수급	53	2	
				14	2	청소년
121	5	기타가구	수급	52	1	
				50	2	
				22	1	
				20	1	
				7	1	아동
122	-	-	-	-	-	
123	3	모자가구	비수급	49	2	
				17	2	청소년
				13	2	아동
124	-	-	-	-	-	
125	3	기타가구	수급	51	1	
				45	2	
				16	1	장애인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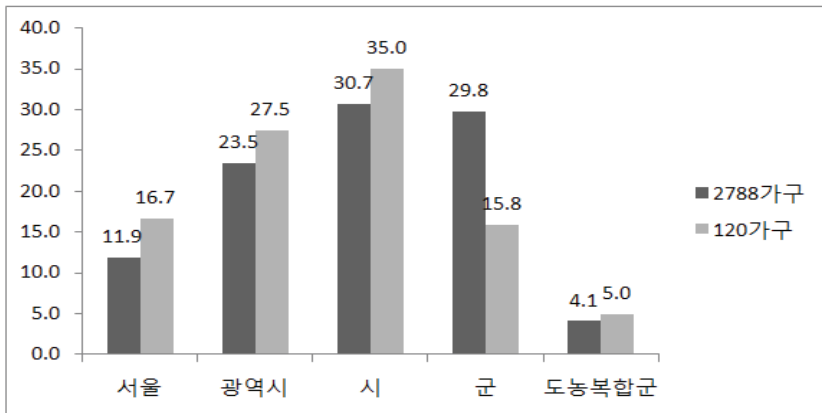
주: 가구ID (1~125) 중 위의 표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101, 108, 119, 122, 124번 가구이다. 이들은 2012년 추가적으로 표본추출 할 당시 포함되었던 가구이며, 6차 한국복지패널 조사기간 중 질적 패널조사 참여에는 수락한 가구였다. 그러나 실제 심층면접을 위해 예비 응답자들에게 전화 연락을 취했을 때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여, 방문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가구이다. 그러므로 이 다섯 가구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자료 관리측면의 통일성을 위해 해당 아이디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제2절 저소득층 질적 패널가구의 특성 분석

본 절에서는 한국복지패널과 연계하여 구축한 저소득 질적 패널가구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1차 한국복지패널 기준 평균 경상소득 60% 이하 가구 중 2012년 제8차 한국복지패널조사까지 표본이 유지되어 조사가 완료된 2,788가구와 2013년 제3차 질적 패널조사 표본 120가구의 특성별 분포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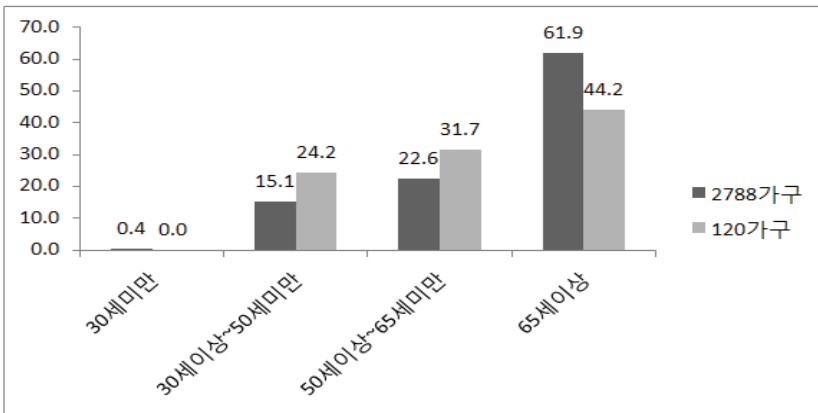
먼저, 저소득층 질적 패널 가구(2,788가구)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시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군지역, 광역시지역, 서울, 도농복합군 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질적 패널 가구(120가구)의 경우는 광역시 지역이 27.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울 16.7%, 군지역 15.8%, 도농복합군이 5.0%로 분석되었다.

[그림 3-1]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지역별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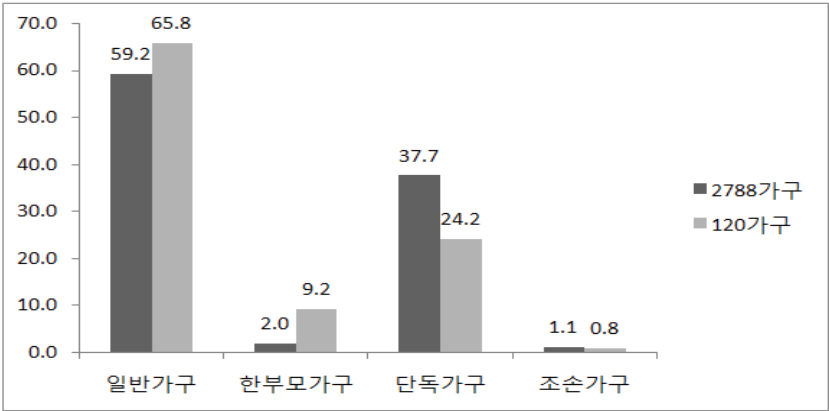
가구의 연령은 65세 이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50세 이상~65세 미만, 30세 이상~50세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질적 패널 2차년도에는 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역동성 평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30세 이상~65세 미만의 가구의 비중을 다소 높였다.

[그림 3-2]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가구주 연령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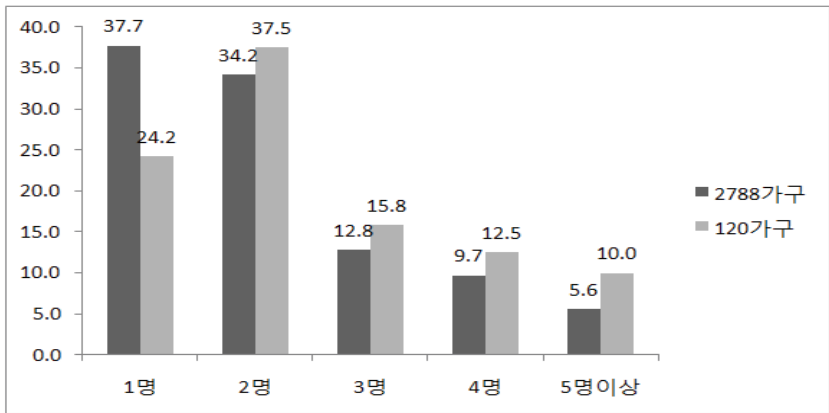
가구유형으로는 일반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단독가구, 한부모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질적 패널 2차년도에는 30~50대 가구주와 아동으로 구성된 일반가구를 추가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분석 결과, 일반가구의 비중이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2,788가구)보다 질적 패널가구(120가구)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3]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가구유형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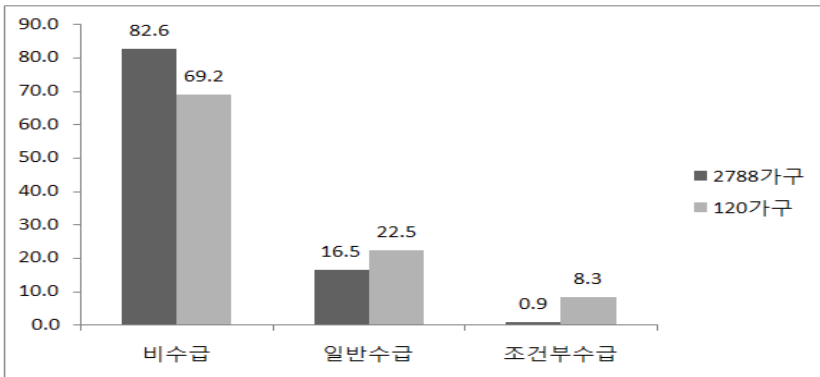
가구원수는 저소득층 양적 패널 가구(2,788가구)의 경우 1명인 가구원인 경우가 37.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명 이상인 가구원으로 구성되었다. 반면, 질적 패널 가구(120가구)의 경우는 2명으로 구성된 가구가 37.5%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명인 가구원이 24.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가구원수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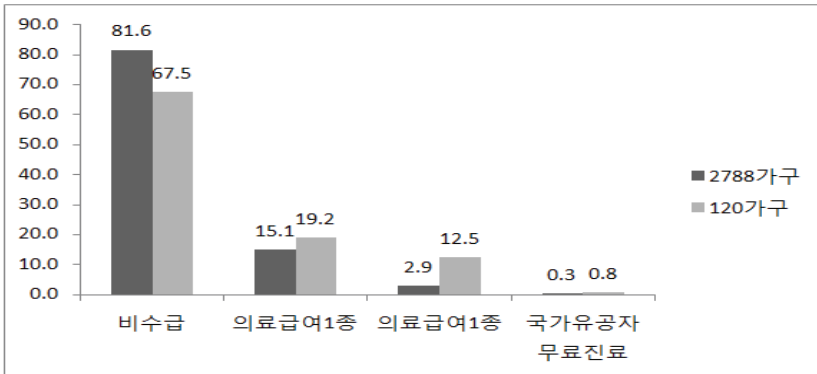


한편, 질적 패널 가구(120가구)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는 약 31%로 분석되었으며,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는 약 32% 수준이었다. 이는 저소득 양적 패널 가구(2,788가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초보장 수급여부에서 조건부수급자의 분포가 다소 높은 이유는 질적 패널 2차년도에 근로빈곤층의 빈곤 역동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일반노동시장 참여자, 자활사업 참여자를 표본에 추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3-5]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기초보장 수급여부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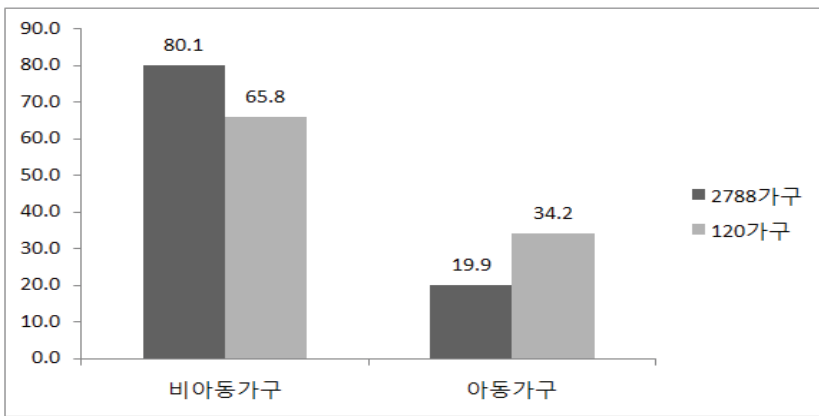


[그림 3-6]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의료급여 수급여부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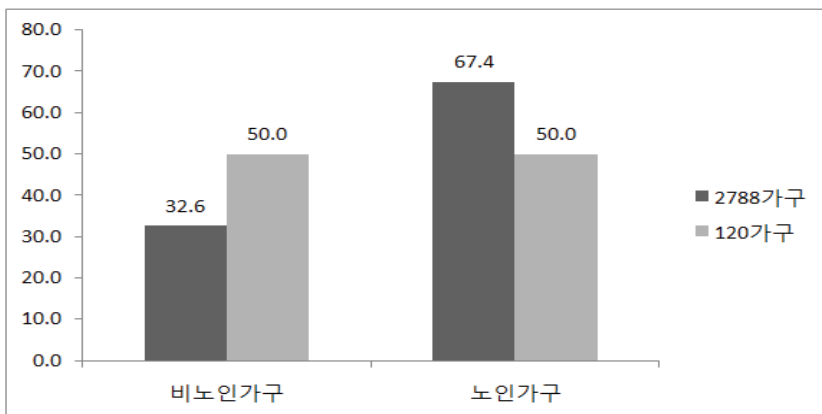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양적 패널 가구(2,788가구)와 질적 패널 가구(120가구)의 가구원 구성원을 살펴보면, 아동이 있는 가구는 각각 19.9%, 34.2% 이었으며, 노인 가구는 각각 67.4%, 50.0%, 장애인 가구는 각각 25.0%, 29.2%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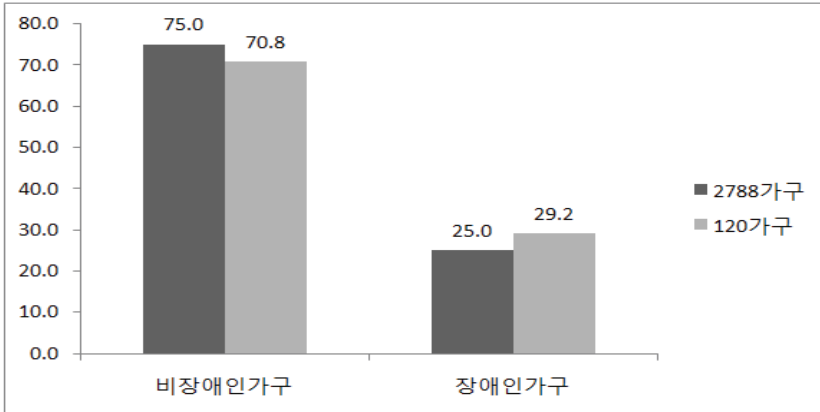
[그림 3-7]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아동가구원 유무 분포 비교



[그림 3-8]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노인가구원 유무 분포 비교



[그림 3-9]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장애인가구원 유무 분포 비교





제4장 저소득층 질적 패널조사 자료수집과정

제1절 질적 패널자료 수집과정

제2절 질적 패널자료 수집

제3절 질적 패널자료의 구축

제4절 질적 패널자료 분석방법

제5절 질적 패널자료 연구 과정 평가: 데이터 수집에 참여한

코디네이터와 조사원의 경험을 중심으로

제6절 질적 패널조사 수행 및 자료 활용시 윤리적 고려

4

저소득층 질적 패널조사 << 자료수집과정

제1절 질적 패널자료 수집과정

2011년 제1차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 조사 대상자는 한국복지패널 제1차년도 가구 경상소득 기준으로 평균소득 6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중에서 6차년도(2011년)까지 패널을 유지해 온 가구를 1차적으로 선정하였다. 이 가구 중에서 362가구가 질적 패널 조사에 동의하였으며, 지역, 가구특성, 가구원 구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100가구를 추출하였다.

2012년 제2차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에서는 근로빈곤층의 역동성 평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이에 부합되는 가구와 가구주가 30~50대이면서 가구주에 장애등급이 있는 가구와 초중고생이 있는 가구를 추가적으로 20가구를 추출하였다.

2013년 제3차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에서는 1차와 2차에 구축된 120가구 중에서 작년 조사시점 이후 변화된 가구를 파악하였다. 변화된 사유로는 가구원이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한 경우, 바라던 자녀의 출산, 결혼 및 임신 등으로 인한 가구변화, 가구원 전체의 소득의 증가 등의 좋은 일이 있었던 가구를 조사하였다. 또한 가구원의 사망, 질병, 미취업상태, 소득 감소 등의 스트레스 받는 가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의 수급과 탈피, 장애인 등급의 변화로 인한 복지혜택이 변화 등 제도와 관련하여 변화된 가구도 파악하였다. 이렇게 파악된 가구이외에도 작년에

조사된 내용 중에서 보완이 필요한 가구를 각 연구진이 추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심층 인터뷰가 필요한 가구를 선정하였다.

올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선정된 가구는 크게, 근로빈곤가구, 장애인가구, 아동가구, 한부모가구로 구분된다. 먼저, 근로빈곤에 대해서 선정된 사유로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가구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자활계획, 현재 하는 일이 변화하는 사유 또는 하는 일이 유지하고 있는 사유, 탈수급에 대한 인식, 가족원의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현재 하는 일의 변화, 나빠진 경제상황을 해결하는 방법,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수급과 탈피에 대한 부분, 차상위가구에 대한 질문 등에 있어 심층인터뷰가 필요한 가구를 추출하였다.

장애인가구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 이외에도 오래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가구까지 포괄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가구주의 치매로 인해 가구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의 정신장애로 인한 가구주 및 가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비등록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분, 가구원의 질병발생으로 인한 가구의 영향 등의 사유로 심층인터뷰가 필요한 가구를 추출하였다. 또한 아동구성원이 있는 가구에서는 가구의 양육과 아동·청소년 일상생활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가구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구의 자활에 관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대상자를 포함하여, 총 64가구를 추출하였다.

그 밖에 1차와 2차에 참여하지 않는 가구 중에서 한부모가구 2가구를 추가적으로 추출하였다. 이들은 2013년 추가 가구 표본추출에 포함된 가구로 전화로 본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을 때, 구두로 수락한 가구였다. 이렇게 총 66가구를 2013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 중에서 총 60가구가 조사완료 되었으며, 6가구는 올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먼저, 이 중 4가구는 이민, 가구원 병원입소, 농번기로

인해 시간내기가 어려움, 직장 퇴근시간이 너무 늦은 이유 등으로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나머지 2가구는 3차 때 추가 표본 한 가구로 구두로는 조사에 수락하였으나 인터뷰어가 실제 심층면접을 위해 예비 응답자들에게 전화 연락을 취했을 때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여 방문이 성사되지 않았다.

조사에 참여하는 인터뷰어들은 질적 연구의 경험이 있거나 질적 연구 관련 수업을 수강한 대학원생 15명과 연구진 6명이 참여하였다. 인터뷰어들은 1차와 2차년도에 질적 연구 조사경험이 있는 자와 3차에 새롭게 참여하게 된 자를 포함하고 있다. 인터뷰어 교육은 2013년 5월 11일(토)에 실시하였으며, 질적 조사의 목적, 질적 연구 대상자의 특성, 조사표 교육을 진행한 후 심층면접 테크닉 논의 및 롤플레이를 통해 조사 면접 기술을 교육하였다. 그 밖에도 조사대상 가구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이외에는 절대 활용하지 않을 것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5월 13일(월)부터 2013년 7월 5일(금)까지로 약 50일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가구는 7월 18일(목)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진행은 녹음이 가능한 전용기기를 활용하여 녹음하고, 인터뷰어들은 면접을 수행한 뒤에는 바로 녹음 파일을 업로드하고 요약본 및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심층 면접은 한 가구당 2회 방문을 하도록 연구를 설계하였으나, 상황에 따라 1회 방문 또는 3회 까지도 방문하였다. 1회 방문시 평균 2시간 내외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조사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후, 완료된 녹취록 및 요약 자료들은 패널 가구들의 개인적인 정보보호를 위해 실명, 거주 지역, 근무지 이름 등 응답자 보호를 위해 가려야 하는 부분을 기호화로 처리하였으며,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국어적인 오타를 교정하는 등 확인 작업을 실시하였다. 단, 일반적으로 응답자의 사투리, 은어 등은 별도로 교정을 하지 않고 응답자

가 이야기한 그대로 옮겨두었다. 이렇게 정리된 녹취록 및 요약본은 2013년 7월 22일(월)까지 모두 완료되었다.

한편, 심층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자료수집의 수준을 조율하며, 인터뷰어들에게 면접에 대한 슈퍼비전을 주기 위하여 면접조사 코디네이터를 별도로 배치한 상태에서 조사를 수행하였다. 코디네이터는 질적 연구 수행 경험이 풍부한 외부 연구자로 인터뷰어들이 심층 면접을 수행하는 동안 연구에 직접 참여하였다. 조시기간 동안 코디네이터가 수행했던 주요 역할은 첫째, 심층 면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의문점들을 해결하고, 둘째, 인터뷰어들이 조사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며, 셋째, 인터뷰를 위한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넷째, 이에 대한 모든 과정을 문서 기록으로 남겼다.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원활한 조사의 과정을 위해 인터뷰어들은 1차 심층 면접이 종료되면 인터뷰 결과를 요약하여 코디네이터에게 송고하였고, 코디네이터는 이를 읽고 1차 심층 면접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회신하였다. 또한 인터뷰어들은 수시로 코디네이터와 유선을 통해 조사시 어려운 점에 대해 상의하였다.

이렇게 조사 및 녹취록이 완료된 이후, 좀 더 정확한 녹취록 자료를 생성하기 위하여 녹음파일과 녹취록 파일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이는 2013년 8월 12일(월)부터 8월 23일(금)까지 인터뷰어를 실시하지 않는 대학생 7인이 수행하였으며, 녹음파일과 녹취록 파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도 개인적인 정보보호 및 오타자 등을 확인하였다.

본 조사가 완료되고 질적 패널 자료가 구축된 이후, 조사에 참여한 인터뷰어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인터뷰를 2013년 8월 27일(화)에 실시하였다. 초점집단 인터뷰에서는 올해 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에 대한 의견, 면접이 잘 되었을 경우와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경험과 대처방

가구 ID	가구원 수(명)	가구 특성	기초 보장	연령	성별	1차 조사	소요 시간	2차 조사	소요 시간	3차 조사	소요 시간
29	4	아동 청소년		36 16	여성 남성	7/3	2:20	7/5	0:40		
31	3	장애	수급	65 68	남성 여성	6/29	1:15				
32	5			51 22 12	여성 여성 여성	6/9	3:10				
36	4	부자 청소년		52	남성	6/16	1:50	6/29	1:45		
39	2			58	여성	7/6	1:00				
40	5	아동		50	여성	7/13	1:30				
44	2			71	남성	6/27	1:30				
46	4	아동 청소년		45 42	남성 여성	6/25	3:00				
47	3		수급	73	여성	6/25	1:30				
48	3	조손 청소년		78 68	남성 여성	6/22	1:40	6/30	1:00		
52	5	아동 청소년		36	여성	6/28	2:00	7/2	1:35		
53	2			60	여성	6/5	1:10	6/20	1:06		
54	6	장애 아동		77	여성	6/5	2:15				
56	1	단독 장애		75	여성	6/2	2:30	6/30	2:00		
60	2	장애		67	여성	6/30	1:00				
66	2	청소년	수급	64	여성	6/6	2:35	7/9	1:50		
68	3		수급	60 54	남성 여성	6/19	2:00				
71	2	모자 청소년	수급	42	여성	6/9	2:00	6/17	1:30		
72	5	아동		41	여성	6/17	1:40	6/26	2:00		
73	1	단독		59	여성	6/30	2:15				
76	2	모자 아동	수급	39	여성	5/17	2:30	6/6	2:00	6/29	1:50
77	3	장애 아동	수급	50	여성	6/14	1:40	6/28	2:00		
78	6	장애 청소년		82 75 50	남성 여성 남성	6/20	1:40				

가구 ID	가구원 수(명)	가구 특성	기초 보장	연령	성별	1차 조사	소요 시간	2차 조사	소요 시간	3차 조사	소요 시간
81	4	아동		42	남성	5/17	1:40	5/18	1:45		
				42	여성						
				11	여성						
86	5	아동		35	여성	6/17	1:00	6/18	2:00		
87	2	장애		82	남성	6/8	1:30	6/9	1:30		
				81	여성						
90	5	아동 청소년		38	여성	6/22	2:35	7/5	1:30		
92	4	장애		55	남성	6/21	2:10	6/24	2:00		
				52	여성						
93	1	단독 장애인		91	여성	6/21	1:20	6/24	2:40		
94	3			74	남성	6/1	2:50	6/15	1:00		
				69	여성						
97	2	장애	수급	54	여성	6/15	2:00	6/23	1:00		
				76	여성						
98	4	모자 아동 청소년		40	여성	5/26	3:00	6/22	2:00		
				17	여성						
				20	남성						
100	2			77	여성	6/11	2:10	6/23	1:05		
102	8	아동 청소년		40	남성	6/2	2:00	6/20	2:00		
				39	여성						
103	4	장애 청소년		42	여성	6/25	2:00	7/5	2:00		
104	2	모자 청소년	수급	54	여성	6/1	2:00	7/1	2:00	7/18	1:30
				16	여성						
105	2	장애	수급	58	여성	6/24	1:40				
106	1	단독 장애	수급	62	남성	6/17	1:20	7/4	1:15		
107	2		수급	61	여성	6/27	2:00				
109	4	장애 아동 청소년	수급	50	여성	6/28	2:20				
				15	남성						
110	1	단독 장애	수급	58	남성	6/22	2:00	6/25	1:50		
111	1	단독 장애	수급	59	남성	6/14	2:30	6/21	1:05		
112	5	청소년	수급	50	남성	6/6	1:35	7/9	1:20		
				51	여성						
113	6	아동 청소년	수급	49	여성	6/30	1:50				

가구 ID	가구원 수(명)	가구 특성	기초 보장	연령	성별	1차 조사	소요 시간	2차 조사	소요 시간	3차 조사	소요 시간
115	2		수급	55	여성	6/21	2:40				
116	4	청소년	수급	45	여성	6/20	2:00				
117	4	모자 청소년	수급	45	여성	6/7	2:55	6/28	2:00		
118	2	장애	수급	58	남성	7/4	1:30				
120	2	모자 아동	수급	53	여성	5/18	2:00	6/13	2:00		
121	5	아동	수급	50	여성	6/8	2:05	6/15	1:50		
125	3	장애 아동	수급	51	남성	6/6	1:30	6/15	2:00		
				45	여성						

주: 가구특성 중 '모자'는 모자가구, '부자'는 부자가구, '단독'은 단독가구, '조손'은 조손가구를 의미하며, '장애'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 '아동'은 아동이 있는 가구, '청소년'은 청소년이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장애라고 적혀 있는 경우 심층면접 응답자가 장애인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2절 질적 패널자료 수집

구조적인 측면에서 2013년도 조사표는 2011년과 2012년의 조사표를 일부 추가, 삭제, 대체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그 동안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다 나은 양질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표를 발전시키기 위해 진행되었다. 조사표는 크게 세션1과 세션2로 나뉘어져 있으며, 세션1에는 도입, 생활만족, 경제1(빈곤), 생활영역1(건강)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세션2에서는 경제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 및 고용지원 프로그램, 생활영역2(정신건강, 주거, 교육, 문화), 가족관계, 인구특성별 가구원조사(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2>와 같다.

〈표 4-2〉 2013년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조사표 구성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션1 공통질문	도입	근황	
		인생의 가치	
	생활만족	행복의 정도	
		행복영향요소	
		행복을 위한 요소	
	경제1	빈곤	현재상태
			과거의 어려움
			해결노력
			주위도움
	생활영역1	건강	신체적 건강
			직간접 건강문제
			직간접 건강문제의 어려움
			신체건강 요소
세션2 선택질문	경제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 변동
			탈수급 방법
			미래 예측
	근로 및 고용지원프로그램	현재일	
		구직의 어려움	
		고용프로그램	
	생활영역2	정신건강	정신건강 상태
			과거 정신적 어려움
			직간접 정신문제
			상담치료 경험
			건강을 위한 노력
		주거	
		교육	현재 교육 미래 교육
		문화	현재 문화생활 원하는 문화생활
	가족관계	가족간 관계	가족 관계
			배우자 관계
			부모님 관계
			자녀 관계
			가족 정의
			부부간 폭력
			자녀 폭력
	인구특성별 가구원조사	장애인	어려움
			장애 영향
			주위 반응
			교류
			사회적 영향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복지혜택
			노후준비
			장애의 의미
		여성	가정에서의 차별
			경제활동에서의 어려움
			자녀돌봄 어려움
			출산경험
		아동/청소년: 양육	자녀 소개
			부모님의 양육
			양육의 중요성
			자녀에 대한 기대
			자녀에 대한 바람 정도
			본인양육에 대한 생각
			양육 어려움
			경제력과 양육
			가족구조와 양육
			가족관계와 양육
			본인 양육 칭찬
			본인 양육 후회
		아동/청소년: 일상생활맥락	일상생활
			어려움/해결방법
			능력 및 장점
			관계 진로 건강 등
			원하는 삶
			과거의 어려움
		노인	일상생활
			경제활동
			여가활동
			추가 희망활동
			노인이라 느낄 때
			나이 들
			노인 대우인식
			개선사항

1. 도입

2012년에는 도입에서 ‘요즘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라고 질문을 하여 하루 일과나 일주일의 생활패턴,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였다.

2013년에는 추가적으로 ‘귀하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라는 인생의 가치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생활만족

생활만족은 2011년 조사표에서 후반부에 해당하는 ‘정신건강’ 범주 내 ‘생활실태 만족 및 의식’에 해당하던 질문들을 2012년에도 단독 범주로 구성하였다. 행복의 요소에 관한 내용은 전반적인 삶의 환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와 같은 포괄적인 질문으로 인터뷰가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하여 단복범주로 구성하고 조사표 앞부분에 배치하였다. 2013년에는 2012년 조사표와 동일하게 구체적 이면서도 경험적인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질문의 문구를 조금 수정하였다. 예를 들면, 본인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질문한 다음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 때문에 행복하십니까?’라는 질문하였던 것을 불행하다고 응답한 경우를 대비하여 ‘어떤 점들 때문에 불행하십니까?’라는 질문도 보완하였다.

3. 경제

2011년 조사에서는 ‘빈곤, 탈수급 관련 역학적 특성’을 ‘빈곤의 경험’과 ‘빈곤에 대한 대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에 대한 인식/비전/제도개선’으로 나누어 질문을 진행하였다. 또한 경제적 상황을 과거-현재-미래로 나누어 물어본 뒤 그에 대한 대응 및 도움을 묻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 대한 경험과 빈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12년 조사에서는 ‘빈곤의 경험’과 ‘빈곤에 대한 대응’을 ‘빈곤’으로 묶었으며, 과거의 경험적 측면을 조망하고 미래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질문은 탈수급 관련 범주로 넘김으로써 질적 조사 흐름의 유동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빈부에 대한 인식’ 내지 ‘부의 이동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되었다.

2013년에는 두 단계로 구분된 질문을 다시 분류하였다. 세션1 공통질문에는 ‘빈곤’이라는 질문을 통해 경제적인 상태, 새롭게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위로부터의 도움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세션2 선택질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질문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질문하였으며, 수급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마지막으로 5년 뒤 귀댁의 경제사정 및 사유, 5년 뒤 모습을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4. 생활영역

2011년에는 정신건강으로 구성되었던 질문을 ‘정신건강’에 대한 질문 이외에도 2012년에는 ‘신체적 건강’, ‘주거’, ‘교육’, ‘문화’에 대한 질문들을 추가하여 생활영역 범주를 추가하였다. 이를 추가한 사유로는 2011년 조사 결과 정신적 건강 이외에도 신체적 건강도 중요한 이슈이었으며, 조사표에 관련된 내용이 없었음에도 상당히 유의미한 내용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신체적 건강을 추가하였다. 또한 주거, 교육, 문화와 관련된 이슈들도 여러 응답자로부터 나왔으며, 조사내용이 이후 의미 있는 연구로 발전될 상당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기에 추가하였다.

2013년에는 함께 묶여져 있는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주거, 교육, 문

화에 대한 질문들은 세션1과 세션2로 구분하였다. 세션1에서는 ‘신체적 건강’에 대한 질문으로만 구성하여 신체적으로 건강한지를 질문하고, 귀 하 또는 가족구성원 중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운 경험 이 있는지,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질문하였다. 세션2에서는 ‘정신건강’, ‘주거’, ‘교육’, ‘문화’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심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경험과 그로 인한 어려움, 상담 및 치료 경험 유무, 정신건강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또한 주거환경에 대한 질문, 현재와 미래의 대한 교육과 문화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작년과 비교하여 변화된 점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5. 근로 및 고용지원 프로그램

2011년에는 ‘직장경험/구직과정’과 ‘고용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일자리를 잃은 경험의 유무와 근로를 해보지 않는 경험으로 나누어 상황에 맞게 질문하도록 구성되어 있었으며, 고용지원프로그램도 경험 유무에 따라 다르게 질문하도록 구성하고 과거에 초점을 두어 질문 하였다.

2011년 조사이후 근로와 관련한 응답자의 답변이 보다 다양하게 표현 되었다는 결과에 따라 구조를 다변화하고 맥락을 보다 넓히기 위한 방향으로 2012년 조사표를 수정하였다. 즉, 근로경험과 관련하여 질문의 내용을 과거에 초점을 맞춰져 있던 것을 현재와 미래의 구직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하위 질문으로 있었던 현재의 근로경험에 대한 질문과 구직과 관련된 질문들을 주요 질문으로 추가하였다.

2013년 조사에서는 이를 다시 조금 수정 보완하여 간략하게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작년과 비교하여 근로를 유지하고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는

지를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추가적인 질문을 하도록 변경하였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지, 어려움은 무엇인지, 정부가 제공하는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이와 같은 질문들은 전체적으로 지난번 조사이후 변동된 경험에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6. 가족관계

2011년 조사표에서는 가족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들을 각각 배우자,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만족/불만족 여부, 만족/불만족 요소, 만족을 위해 필요한 노력, 만족을 위해 바라는 점, 갈등원인 등으로 나누어 탐색하였다. 그러나 조사결과 단답형으로 답변을 하는 양상을 보이거나 유사하게 반복되는 질문에 비슷한 내용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2012년에는 각 가족구성원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들어가기 이전의 도입으로 ‘가족 구성원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파악한 후에 배우자, 부모님, 자녀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또한 가족에 대한 정의를 후반부에 배치하였다.

2013년에는 2012년의 조사표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최근 1년간 부부 상호간의 폭력’에 대한 질문과 ‘부모와 자녀간의 폭력’에 대한 경험을 추가하였다.

7. 인구특성별 가구원 조사

인구특성별 가구원에는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그 구성을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다. 다

만 조사내용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변경되었다.

먼저, 2011년에는 여성이 겪는 불평등에 대해서 이를 결혼생활, 직장 내에서 겪는 불평등으로 나누어 질문을 하면서 의식주나 성생활, 언어생활, 여가취미생활, 종교생활과 같이 전반적인 생활의 영역과 관련된 불평등을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질문하였다. 그러나 2012년에는 생활영역 전반적인 부분에서 나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주요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2013년에는 2012년에서 좀 더 간략하게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즉, 가족생활에서의 차별, 경제활동경험에서는 차별을 질문하고, 자녀돌봄의 어려움과 출산의 경험에 대한 질문만을 포함하였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질문하는 경우 2011년에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주관적 빈곤 인식, 미래의 꿈과 부모님의 기대에 대한 질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조사결과 답변이 반복해서 나오는 질문들이 존재하였으며, 2012년에는 반복적인 답변이 나오는 질문들은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즉, ‘미래의 꿈’이나 ‘부모님의 기대’에 대한 질문의 경우 반복적으로 답변하는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부모님이나 함께 살고 있는 어른은 00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로 변경하였다.

한편, 2013년에는 아동·청소년이 조사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들 대상으로 조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의 양육과 일상생활 맥락을 부모에게 파악하도록 하였다. 조사구성으로는 ‘부모님의 양육’, ‘양육의 중요성’, ‘자녀에 대한 기대 및 바람 정도’, ‘본인 양육에 대한 생각과 양육의 어려움’, ‘자녀의 일상생활’, ‘자녀의 고민이나 어려움 해결방법’, ‘자녀의 주변과의 관계, 진로, 건강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등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경우 2011년에는 '일상생활', '사회활동', '여가활동', '정신건강', '노화의 의미'로 구성되어 있었다. 2012년에는 크게 변화하기 보다는 다른 범주와 중복되는 질문이나 중복된 답변이 나오는 질문들을 수정하였다. 즉, 정신건강과 겹치는 부분은 제외하였으며, 노인에 대한 대우와 인식에 대한 부분은 하나의 질문으로 합쳐서 조사하였다. 2013년에도 기존과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호상에 대한 질문은 응답자들의 응답이 유의미하지 않게 조사되어 제외하였다.

제3절 질적 패널자료의 구축

1.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패널 자료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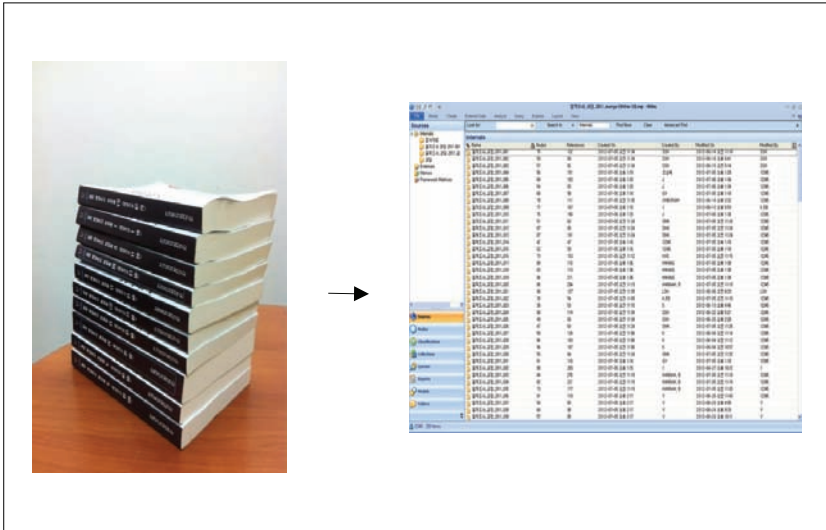
가. 효율적 자료 관리의 필요성 -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자료관리

질적조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총 120가구에 대한 인터뷰 결과가 방대한 양의 자료로 생성되었다¹⁰⁾. 다른 질적 연구와 다르게 질적 패널 연구의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자료가 생성되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자료를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패널 자료의 단순 관리뿐만 아니라 질적 패널자료로서 다양한 방면에서의 연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2차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한 측면의 관리까지 고려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진에서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10) 2011년에는 100가구, 2012년에는 120가구를 구축(이 중 45가구 조사 완료함), 2013년에는 120가구 중 60가구가 조사 완료되었으며, 3년간 구축된 질적패널 조사대상 가구는 총 120가구이다.

자료를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림 4-1] 효율적 자료관리의 필요성



나. Nvivo를 이용한 질적데이터 구축

질적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는 NUD-IST, ATLAS.ti, Nvivo가 있다. 각각의 프로그램은 그에 맞는 특색을 가지고 있으며,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여 연구에 이용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질적 패널 연구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Nvivo이다. 질적 패널 데이터와 같이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데이터(rich data)의 경우, 연구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코딩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야 한다. 먼저 rich Data은 네 가지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어야 한다. 첫째, 데이터의 내용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둘째로 독자들로 하여금 강한 임팩트를 남길 수 있는 진실된 내용과 thick description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요건은 ‘복잡성’과 ‘유동성’으로, 이 두 가지의 요건이 있음으로 각각의 데이터아이템들이 많은 의미와 주제들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전자보다는 후자의 두 가지 요건이 데이터의 richness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한다(Lyn Richards).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데이터(rich data)를 다루는 연구자들은 단순코딩을 넘어서서 끊임없이 데이터에 내포되어 있는 임의의 주제를 설정하고 탐색하면서 카테고리를 구조화하고 묶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포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Richards, 1999). 또한 질적 연구를 소프트웨어로 관리 및 활용할 때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서 형광펜, 잘라내기 및 붙여넣기 등의 방법으로 데이터에 대한 가공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진은 다양한 층위로 연구가 가능하고 데이터의 다양한 가공이 가능한 Nvivo를 이용해 질적 패널 데이터를 관리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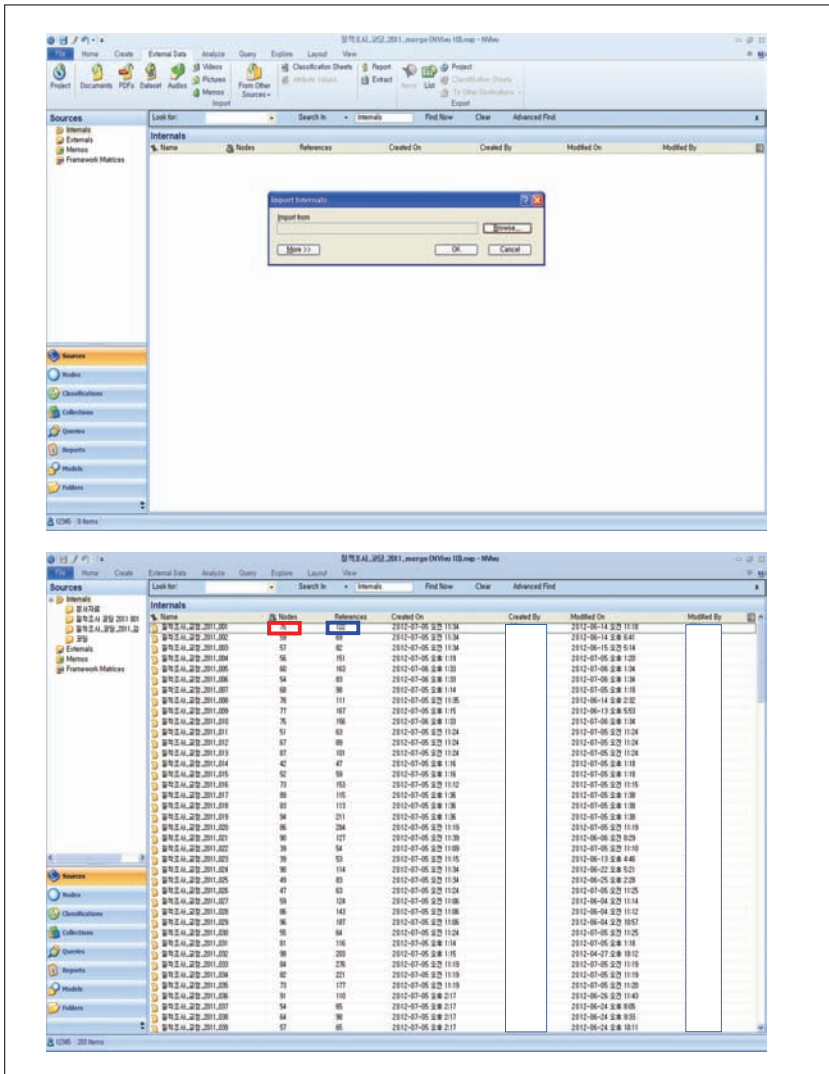
2. Nvivo 프로그램을 이용한 코딩과정

Nvivo에서 질적 연구의 가장 주된 작업인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프로젝트에 불러들여야 한다. Nvivo에서 한글 프로그램 확장자인 파일은 불러들일 수 없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파일 또는 텍스트파일로 변환하여 불러들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모든 데이터(녹취록 자료)를 마이크로소프트 워드파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필요한 데이터를 모두 불러들이게 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오며, nodes(빨간 네모)라고 표시된 부분 아래에 있는 숫자는 해당 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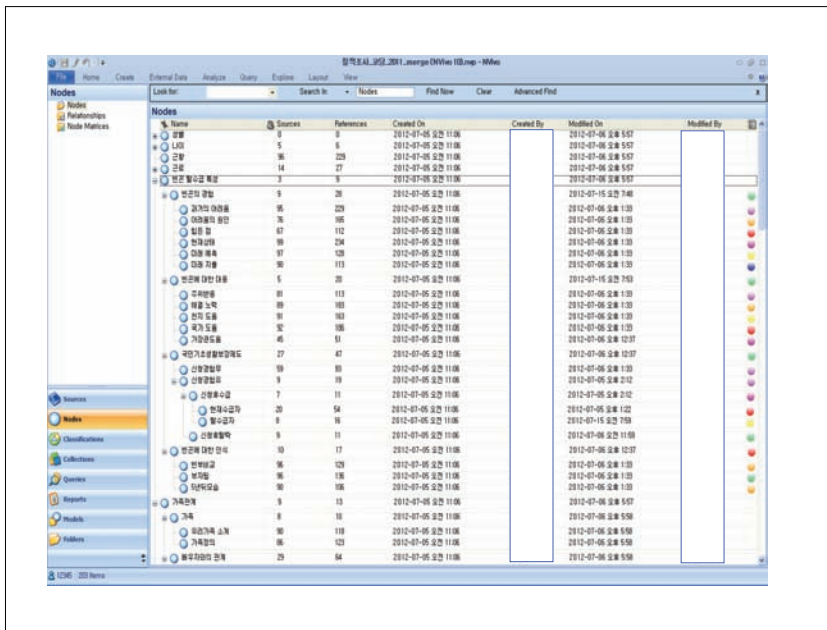
터에 코딩된 노드의 숫자이고, references(파란 네모)라고 표시된 부분 아래에 있는 숫자는 데이터를 코딩한 숫자이다.

[그림 4-2] 데이터 불러들이기



Nvivo에서 노드는 미리 생성할 수도 있고 코딩을 하면서 필요한 때에 따라 생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딩 전에 기본적인 노드는 조사표를 바탕으로 체계를 정하여 생성하였고, 코딩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또는 그 내용이 연구에 있어서 유의미한 경우에 대해서만 새롭게 노드를 생성하였다. 또한 Nvivo상에서 다양한 층위로 노드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표의 체계에 따라 상위노드와 하위노드를 생성하였고, 새롭게 생성된 노드는 별도의 체계 없이 일괄적으로 배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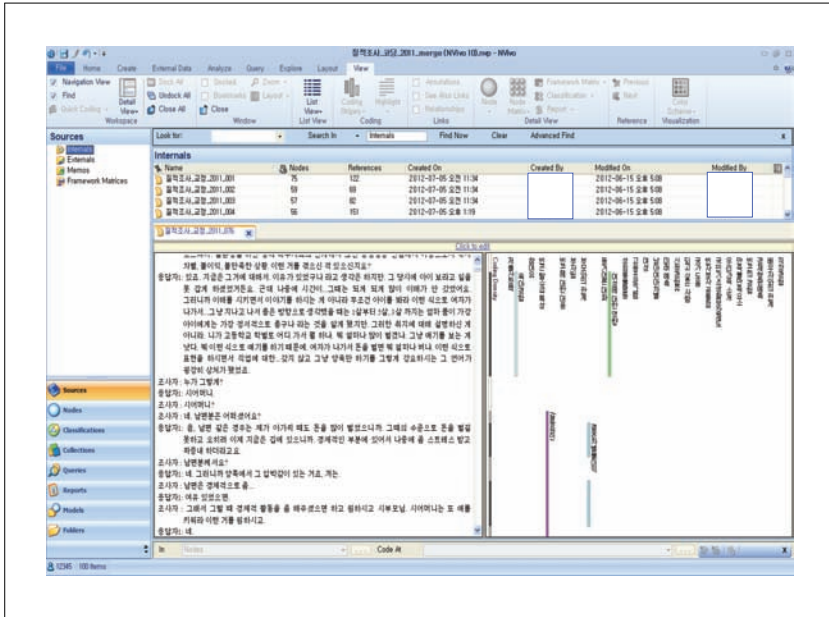
[그림 4-3] 노드 생성



데이터에 코딩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데이터를 클릭하여 창을 연 다음 코딩을 하고자 하는 영역을 드래그한 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여 ‘code selection’에서 노드를 선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조사표를 토대로 노드를 생성한 뒤 코딩을 진행했기 때문에 주로 ‘coding selection at existing nodes’를 사용하였다. Nvivo에서의 코딩은 하나의 노드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노드로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여러 층위의 노드라 하더라도 하위노드와 상위노드는 개별적으로 코딩이 되기 때문에 상위노드까지 코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위노드와 상위노드 모두 체크를 한 뒤에 코딩하였다(그림 4-4 참조).

마지막으로 데이터에 코딩을 한 후에는 코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코딩작업은 ‘view - coding stripes’를 통해 코딩결과를 함께 보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코딩 결과 창을 열면, coding stripes는 선택된 노드, 가장 많이 코딩된 노드, 가장 적게 코딩된 노드, 가장 최근에 선택된 노드 등이며 한 번에 볼 수 있는 노드의 수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그림 4-5 참조).

[그림 4-5] 코딩결과 확인하기



제4절 질적 패널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1년도 질적 패널 자료 100가구를 구축하여 모두 조사를 수행하였고, 2012년에는 120가구를 구축하고 이 중 45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120가구 중 60가구를 조사완료하고 이를 활용하여 각 연구진별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녹취록에 대해서 Nvivo를 통해 1차적으로 분류한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들이 조사영역별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담은 단어, 어구, 어절, 문장, 문단 등을 파악하였고 이를 의미 단위의 형태로 전환하였다. 이렇게 의미 단위를 파악한 이후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위들

을 묶어 하위범주를 구성하고 이를 포괄하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이후 이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밖에도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패턴과 맥락을 분석하기도 하고, 질적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확인하기 위한 양적자료 분석을 하는 혼합방법론으로 접근 하는 등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심층분석에서는 각 연구진이 아동·청소년, 장애인, 자녀양육, 한부모 여성의 자활, 탈빈곤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심층분석 자료는 2011년 1차년도 질적 패널 자료와 2012년 2차년도 질적 패널 자료, 2013년 3차년도 질적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5장부터 제9장까지 제시하였다.

제5절 질적 패널자료 연구 과정 평가: 데이터 수집에 참여한 코디네이터와 조사원의 경험을 중심으로

질적 패널 조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해 실시되고 있다. 이에 2011년 1차 조사에서는 총 100가구, 2012년 2차 조사에서는 120가구, 2013년 3차 조사에서는 60가구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이 이루어졌으며 해마다 10명 내외의 조사원들이 담당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수행 전, 조사원들은 조사원 교육을 통해 본 연구의 특성과 질문지 내용을 숙지하고 연구 후 가구 당 2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는데 1차 조사 후 코디네이터에게 연락을 취해 조사 과정과 조사 내용을 다음과 같이 논의한 후 2차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1. 생활만족, 2. 경제, 5. 장애인 부분 중 1), 2), 4), 6)번 문항이 진행되었고, 3. 생활영역(정신건강, 교육, 주거, 문화), 4. 가족관계 중 배우자 부분, 5. 장애의 3), 5), 7), 8)번 문항입니다.

⇒ 2차 조사에서는 조사가 안 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주세요. 요약본을 보면 조사된 부분은 조사가 매우 잘 진행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직 조사가 안 된 부분을 중심으로 조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질문은요,

4. 가족관계 중 배우자 부분을 질문해야 할까요? 배우자와 결혼 3년 뒤에 사별하셨거든요. 지난 인터뷰에서 말하기 꺼려하시는 것 같아서 차마 여쭙지 못했는데, 질문을 해야 할까요?

⇒ 한번 시도해 봐주세요. 작년과 다를 수 있고 인식이나 느낌의 변화가 있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니까요.

※ 그 다음에는 일단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뚜렷한 특이점은,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현재 국민기초생활제도에 대한 문제로 귀결됩니다. 응답자는 너무나 근로하고 싶어 합니다. "현재 응답자는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담배피고, 술 마시고, 딸과 연락이 되지 않고, 다른 시각장애인들과 교류하지 못하는 모든 이유는 국민기초생활제도에서 소득이 조화되는 즉시 수급권에서 탈락하고, 그 이후 다시 수급권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자신은 노동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은 우울하고, 불행하다"라는 명제의 반복입니다. 제 고민은요,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특이점이긴 한데, 응답자 스스로 질문지에 대해서 더 탐색해 볼 수 있음에도 불고하고, 위 주제로 넘어가서는 계속 흥분 게이지가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저에게 흥분하는 것은 아니는데, 조사자로서, 더 자세한 탐색이 되지 않는 상황이 속상하기도 합니다. 들어드리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고, 하는데,

⇒ 이게 어떤 말씀인지 정확히는 이해가 안 되지만, 자꾸 그 주제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인가요? 아니면 중요한 이슈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더 깊게 파고들지 못하는 조사 스킬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인가요? 어려움의 종류에 따라 제가 생각하는 답은 다르겠지요. 먼저, 자꾸 넘 어간다면 그 분에게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드리면서 선생님께서 질문을 잘 리드해 가셔야겠어요. 후자라면 저희 인터뷰가 2차에 마무리되어야 하고 현재로서도 충분히 잘 조사하셨으니 걱정 마세요. 저희 연구가 질적 연구이지만 시간의 제약이 있고 구조화된 질문이 주어진 시간에 비해 매우 많아 일반적인 질적 연구처럼 프로빙을 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마세요.

※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다른 분들과 인터뷰 할 때와 달리 좀 베일에 쌓인 느낌이 있습니다.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 뭔가 숨기는 느낌. 왜냐면요, 제가 인터뷰 약속을 잡을 때는 매번 굉장히 바빠다, 인터뷰를 연달아 했으면 좋겠다, 복지관에 가야하고, 친구들과 놀러 나가야 한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도 또, 인터뷰를 연달아 했으면 하고 다시 요청하시더라고요.

⇒ 인터뷰를 연달아 요청하신 데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바쁘셔서 그럴 수도 있고 낯선 사람에게 자신을 포장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조사비가 필요해서서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라포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극히 예민한 내용을 질문하기 때문에 응답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냥 수용해주시면 될 것 같구요. 선생님께서 다른 질적 연구를 하시거나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셔도 저런 일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라포가 형성되고 조사자에게 충분히 오픈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해소될 수 있는 어려움이지만 현재로서는 깔끔한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저도 다른 연구를 할 때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냥 수용합니다. 사실 관계를 캐낼 수도 없고 그런 것이 조사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 그런데, 막상 인터뷰를 하면서는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지 물어보면,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면, 복지관에도 잘 나가지 않고 친하게 교류하는 친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명확하게 안 잡힙니다. 그리고 모든 주제는 위에서 제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내 발목을 잡아서 근로할 수 없다라고만 흘러갑니다.

⇒ 이 역시 응답자의 응답을 수용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모두 파악하기에는 조사 기간이 짧고 한계가 많아 중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것을 훑는 조사로 가게 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구진들도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차 조사는 안 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구의 경우, 조사가 안 된 부분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그걸 조사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 패널참여가구 110 - 1차 조사 후 코멘트 내용 ▪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모든 조사가 끝난 후 조사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연구와 조사에 대한 제언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 2013년 조사원 간담회 질문지 ※

1. 올해 조사 경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한분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올해 조사 경험이라는 큰 주제를 봤을 때,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인상에 남은 점은 있었는지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면접을 나가시기 전 해당가구와 연락을 하시고 약속을 잡으시잖아요.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이나 느낌, 면접을 실제로 나가서의 경험,

면접을 다녀온 이후에 대한 느낌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3. 면접을 하다보면, 쉽게 면접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어떤 때는 잘 진행되지 않은 적이 있으셨을 텐데요. 각자 면접을 하면서 떠오르거나 아니면 이럴 때는 잘 안되었지만 이렇게 하니 잘 되었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4. 저희가 조사를 한가구를 2번 방문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1차 방문 후 요약본을 정리해서 코디선생님과 말씀을 나누신 후 2차 방문을 하도록 하였는데요. 그 1차와 2차 방문사이에 코디선생님과의 디브리핑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5. 심층면접을 참여하시고 그것을 본인의 경험으로 만드셨는데요. 내년에도 질적연구 조사에 참여를 한다고 가정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년에는 이런 실수는 하지 않으면 좋겠다. 내가 올해 이렇게 해 보니 너무나 좋은 방법인 듯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고 싶다는 점, 개인적인 노하우나 당부할 사항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6. 조사 이외에 선생님들께서 요약 및 녹취록 작업도 해 주셨는데요. 그런 점에서의 어려운 점이나 녹취록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좀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거나 하는 등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지요.
7. 코디네이터 추가 질문
8. 그동안 많은 행정적인 처리와 조사지원을 해드렸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연구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조사원과 코디네이터의 경험을 중심으로 자료수집 과정을 고찰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조사 기간 동안 코디네이터기 기록한 조사 과정 일지와 코디네이터와 조사원 간 주고받은 메일과 코멘트 문서, 조사원 간담회 녹취록을 활용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슈가 제기되었다.

첫째, 조사원 정체성의 문제이다. 본 조사는 빈곤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심층 면접 대상자 내에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정보 접근이 어려워, 혹은 형편이 어렵지만 지원의 내용을 몰라서 등의 이유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가구를 면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어려움을 알게 될 수밖에 없는데 조사원들은 문제가 노출된 가구를 위해 그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도 되는 것인지, 혹은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난감함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문제에 대한 개입은 저희 쪽에서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때문에 상담이나 연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도외시 하는 것에 대한 딜레마이고 많은 조사자가 호소하는 어려움입니다. 일단 클라이언트가 도움을 선생님께 직접적으로 호소한 것이 아니라면 도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겠구요. 저희가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알아보는 것이 자칫하면 자기 결정을 위배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움을 적극적으로 원할 경우, (요약본을 보면 도움을 받고 싶다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선생님을 통한 도움을 원하는 것인지, 정말 힘드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인지 명확하게 먼저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구요) 선생님은 조사를 위해 방문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얼마나 드릴 수 있을지 확인해보겠다고 말씀드린 후 다시 저와 상의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저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진과 연구원이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더구나 지방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지역 사회 정보에 한계가 있어 가능할 지 여부를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 클라이언트가 욕구를 명확하게 전달하였을 경우, 다시 말씀해주세요.

▪ 조사원 오○○의 질문에 대한 코디네이터의 응답 메일 중 ▪

코디네이터는 조사 과정동안 이와 같은 맥락의 질문을 자주 받았고, 질문을 받을 때마다 위와 같이 유선이나 메일을 통해 답을 해주었지만 코디네이터에게 질문을 하지 않은 조사원의 경우, 그러한 궁금함을 해결하기 어려웠음을 토로하였다.

사실 조사원에 대한 정체성인데요. 저는 어느 정도 제가 뭘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터뷰어들은 내가 뭘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사들처럼 이야기를 듣고 자원을 바로 연결해주는 것도 아닌

■ 조사원 간담회 중 / 조사원 김○○ ■

조사원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인터뷰를 진행할 때, 실제로는 어떤 정보를 주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처음 갔을 때 어떤 태도로 해야 좀 더 알맞은 태도인가라는 고민을 했어요.

■ 조사원 간담회 중 / 조사원 김○○ ■

그런데 이 문제는 올해 조사에서만 제기된 것은 아니다. 지난 해, 조사원들은 차기 연구를 위해 ‘인터뷰어와 실천가의 역할 사이에서 방향성 확립’을 위한 조사원 매뉴얼을 준비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함이 지적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조사 전 이 부분은 연구진 내에서 심도있게 논의는 되었으나 적절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채 조사가 실시되어 조사원들이 전년도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저희가 작년에 연구진 교수님께서 말씀 하셨기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거나 하는 가구들에 대해서 핫라인 같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수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선까지 제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안 섰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조사원으로 올해 나가신 건데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까지 제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교수님께서는 한분은 실제로 조사를 나가셨는데. 그분께서도 동일하게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사회복지사 마인드로 상담을 좀 해주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더라고요. 그 점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점이라서 내년에는 어떻게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 조사원 간담회 중 / 연구원 정○○ ■

한편, 조사원의 정체성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였다. 면접에 임하는 해당 가구들은 많게는 3차(2011년~2013년) 내내 연구에 참여를 하기도 하였는데, 그동안 연구에 참여를 한 후 당사자들의 복지체감도에 변화가 없었다고 느끼거나 혹은 연구 참여가 곧 정책 입안이나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연결되지 않아 이에 대해 조사원에게 묻거나 궁금해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원들 역시 그러한 부분은 잘 알지 못할뿐더러 모든 연구의 결과가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과 연결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 지 난감했다는 것이다.

저의 인터뷰이었다면 좀 더 뭔가를 계속 바라는 것이 있고 그게 안 되면 힘들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 주고 하면 나라에서 나에게 뭔가를 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 조사원 간담회 중 / 조사원 김○○ ■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본 조사에만 국한되는 부분은 아니다. 복지와 관련된 조사나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정도는 다르지만 연구 참여가 자신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임하는 연구 참여자가 실제로 많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이 가고 여러 번 연구에 참여했지만 막상 변한 것은 없다고 느껴질 때 연구 참여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조사원에게 가감없이 표현을 하다보니 조사원이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원 교육에서 이러한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고 코디네이터 역시 조사원이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해주었을 뿐, 적절한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불편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둘째, 조사 가구의 무변화이다. 한 조사원은 1차 조사 실시 후, 다음과 같이 코디네이터에게 ‘빈곤 가구의 시간 개념’에 관한 이슈를 제기하였다.

노인+ 장애가구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하는 조사원들과도 빈곤가정의 '시간'이 빈곤 가정과 다르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는데, 시간개념이 (상대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빈곤가정의 중요한 특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조사원 김○○이 코디네이터에게 보낸 메일 중 ■

전에 했었던 녹취록을 읽고 갔는데 패널이라서 변화를 봐야 하는데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답을 듣는데, 변화가 안 보여져서 조금한 마음을 가졌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을 너무 똑같은 말씀만 해 주시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많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고민이었습니다.

▪ 조사원 간담회 중 / 조사원 김○○ ▪

이러한 특징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포함된 가구에서 더 잘 드러났는데, 이는 그들의 ‘시간’은 정체되어 있는 듯 보이며 일상의 큰 변화가 없어 해마다 조사되는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가구의 경우 조사원들은 작년과 같은 내용을 다시 다루게 되며 이는 면접하는 이로 하여금 지루하게 만들거나 매해 같은 이야기를 하도록 해 면접의 흥미가 떨어지도록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질문이 있을 경우 코디네이터는 최근 1년의 변화를 다룰 수 있도록 권하거나 중요한 다른 이슈를 찾아 그러한 내용을 인터뷰할 것을 권하였으나 상기한 바와 같이 최근 1년의 변화가 거의 없고 새롭게 부각된 이슈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의 어려움이 따랐다.

조사원은 질문지의 내용을 모두 조사했으나 기존의 조사 내용과 비교하였을 때 가구에 달라진 변화가 없고, 새로운 경험이나 이슈를 발견할 수 없어 조사의 마무리를 요청하였음. 이에 6월 21일 유선을 통해 조사 종결을 정리하였음.

▪ 코디네이터의 과정 일지 중(패널참여가구 -68) ▪

셋째,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조사자의 반응이다. 연구에 참여하는 가구들은 저마다 특색이 있는데, 대부분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주었으나 특정 응답자는 조사 도중 감정이 격해지거나 다른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맥락의 대답만을 하는 등 응답자의 반응에 따라 조사의 과정이 어렵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조사자들은 위축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인터뷰를 진행해나가야 할지 난감하기도 하였다.

본인은 좀 더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울컥 하셔서 자꾸 이런 것을 질문하면 본인이 기분이 안 좋다고 하시면서 본인이 몸도 안 좋고 하니깐 더 기분이 안 좋으셨던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깐 저도 주눅이 들고..

■ 조사원 간담회 중 / 조사원 김○○ ■

하지만 지금까지 학교나 연구의 현장에서 그러한 응답자를 다루는 기술에 대해 배운 적이 없고 조사원 교육에서도 그러한 전략을 다룬 적이 없어 갑자기 그런 경우에 당면했을 때 당황하거나 인터뷰의 흐름을 놓치기도 하였다. 이는 본 조사에서 연구와 다음 해 조사를 위해 해마다 각 가구에 대한 요약본과 녹취록을 남기기는 하지만 각 가구 응답자의 특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바가 없음에서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조사원들은 당황하는데 그치지 않고 응답자들을 진정시키면서 조사를 진행해나가는 기술을 터득하게 되었고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나가기도 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질문을 하는데 그분이 흥분하거나 화를 내시거나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그러시는데 그러면 다시 거울처럼 “화내시군요 흥분하고 계시거든요”라고 하면 그때 그 분은 제도자체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제가 거기에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셨는지 계속 뭐라고 하셨는데 “왜 화를 내세요?” 라고 했더니, 당신한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더니. 거울처럼 이야기 하면 좀 진정하시는 거 같아요.

▪ 조사원 간담회 중 / 조사원 김○○ ▪

넷째, 조사원의 탈락으로 인한 문제이다. 어떤 연구나 조사는 동일한 조사원 집단이 해마다 유지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본 조사도 그러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데, 2012년과 2013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조사원은 2명이었으며 나머지 조사원들은 새롭게 모집된 조사원들이었다. 조사 경험이 있는 조사원의 경우, 본 연구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고 작년에 이어 다시 조사를 나간 가구를 잘 이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라포가 형성되어 있어 조사가 보다 용이하고, 더욱 많은 내용을 조사할 수 있었다는 강점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강점을 가진 조사원들이 많지 않아 상기한 강점을 극대화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는 것이다.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나간 가구인 경우 라포 형성이 잘 형성되어 작년 보다는 올해 조사가 좀 더 수월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나간 가구도 첫 회기에서는 마음을 많이 안 열었었는데, 두 번째에는 좀 더 편하게 하게 되어서 매년 계속 방문을 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방문을 하기 전에 녹취록을 다 읽고 나가기는 하였는데 작년에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

런 점이 더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현지회의비를 사용할 수가 있어서, 저
도 뭐 드시고 싶으신지를 여쭙보고, 당뇨이신 분은 견과류를 사가지고 갔
는데, 사소한 부분이지만 좀 더 본인을 신경 써 준다는 생각을 하셔서 인
지 좀 더 수월하게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그 부분이 좋았습니다.

▪ 조사원 간담회 중 / 조사원 김○○ ▪

다섯째, 조사 과정 수칙의 준용이다. 본 조사에서는 1차 조사 후 코디
네이터와 1차 조사 과정에 대해 논의할 시간을 가진 후 2차 조사를 실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해당 가구가 장거리인 경우, 또는 1
차 조사에서 연구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다루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코디네이터와 상의 후 2차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올해에도 이
러한 조사 과정의 수칙은 조사원 교육에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긴 하였으
나 조사 과정에서 수칙을 준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조사원들이 있
었다. 응답자가 1회에 모두 조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장거리이기 때문에
조사원이나 응답자 모두 양일에 걸쳐 조사하길 원하는 경우, 조사원이 1
차 조사 내용을 코디네이터에게 너무 늦게 전달하여 논의할 시간이 충분
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주어진 기한 하에 1, 2차 조사를 모두 하려면 조사 사이의 텅이 짧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2차 조사에서 1
차 조사와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오게 될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 1차 끝난 후 바로 요약본을 주시면 제가 수시로 메일을 체크하고 있
으니 바로 응답 드리겠습니다. 다만, 1차 조사 후 바로 다음날 2차 조
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필히 사전에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우선상으로

도 코멘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는 1차 조사 후 저와 커뮤니케이션을 한 후 2차 조사 일정을 잡으셔야 하는데요, 시간 상 먼저 2차 조사 날짜를 잡으신다면 제게 요약본을 최대한 빨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2차 조사 나가시기 전날(24시간 전)쯤에는 주셔야 제가 기존의 조사를 다 보고 선생님과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됩니다. 지금 조사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 요약본을 너무 늦게 주시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시고 저와 연락을 취하시면 충분히 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염려마세요.

▪ 조사원 이○○의 질문에 대한 코디네이터의 응답 메일 중 ▪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간격을 어느 정도 두고 가야 좋은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되었습니다.

▪ 조사원 간담회 중 / 조사원 김○○ ▪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1차 조사로 종결될 경우, 연구에 필요한 조사가 한 번의 조사를 통해 모두 다루어지는지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코디네이터와 연구진은 조사 기간 동안 상시로 의논을 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원들을 독려하여 2회 조사 원칙을 준용하게 하거나 조사원들을 변경하여 조사에 재투입하기도 하였다. 또한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지켜왔던 조사 과정의 수칙에 문제가 있는지, 혹은 1차 조사 내용을 코디네이터와 논의한 후 2차 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부담 여부를 점검해보았으나 참석한 조사원들은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1회 조사와 2회 조사 간 간격을 지침을 통해 확실하게 정하고 이를 준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언하였다.

저도 조사의 간격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저의 경우는 1주일을 넘기지 않는다는 것이 좋았어요. 저는 이번 주 월요일 날 갔으면 다음 주 월요일 날 가는 방향으로 했어요. 그분은 어떨까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요. 이게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 조사원 간담회 중 / 조사원 김○○ ▪

여섯째, 질문 내용의 이해 문제이다. 본 조사는 연구진들이 사전에 구성한 질문지를 통해 조사원들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조사 전 연구진으로부터 조사지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는데 조사원 중에는 질문의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질문이 어렵다고 느끼거나 조사원이 이해하고 있는 단어가 질문의 핵심을 포착하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은 조사원이 있었다.

응답자는 대체로 자신의 가족이 문화생활을 잘 즐기지 않는 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렇고 응답자도 '문화생활'이라는 게 뭔지 잘 합의가 되지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 이것 역시 응답자가 문화 생활이 무엇인지 선생님께 반문하지 않는다면 응답자의 생각대로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가구가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문화생활을 잘 못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 약간의 불만(쇼핑을 못하는 것 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종교나 봉사활동, 스포츠 활동 등을 참고적으로 질문하여 주시면 더 좋지만요. 저희도 분석할 때 모두의 가치관이 달라 어떤 것을 문화생활로 보느냐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지금 하고 계시는 대로 앞으로도 질문하여 주시면 되구요, 예: 요즘 문화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or 요즘 하고 계신 문화생활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후 응답자가 뭐가

문화생활인지 반문한다면 선생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과 같이 가족 단위의 외출, 외식이나, 여행, 영화 관람, 종교, 봉사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등을 예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모든 질문에 적절하게 예시는 안 드셔도 돼요. ㄴ 요약본을 보면 이 가구의 문화 생활에 대한 내용은 얼추 나왔으니 시간이 촉박하시면 더 이상 질문 안하셔도 됩니다.

▪ 조사원 이○○의 질문에 대한 코디네이터의 응답 메일 중 ▪

질문지 첫 번째에 행복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힘들었어요. 그게 뒤에 어떤 질문과 연관이 있나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여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 해 보니까, 질문을 해 보니까 여쭙 볼 때 점연적은 면도 있었어요.

▪ 조사원 간담회 중 / 조사원 김○○ ▪

일곱째, 조사 장소에 대한 문제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사는 연구 참여자의 집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조사원들은 연구 참여자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가구 구성원 중에 조사를 꺼려하는 사람이 있거나 면접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장소가 없는 경우, 민감한 이야기를 깊이 다루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하였다.

저는 이 가구에 발생한 변화를 중심으로, 경제적 상태와 자녀와의 관계 등을 잘 엮으셔서 추가질문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답자가 고령임을 감안하셔서 최대한 편하신 상태에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시간이나 장소 등) 인터뷰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러다보니 선생님이 힘드시죠? ㄴ 장소도 옮기셔야 했고, 이야기 중에 경로 이탈도 있으실테구요.. 노인분들에게 인터뷰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선생님께서 좋은 조사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시기 참 어려운 작업입

니다. 2차 인터뷰도 잘 부탁드립니다.

▪ 패널참여가구 54 - 1차 조사 후 코멘트 내용 ▪

아드님이 장애가 있었는데, 아드님이 인터뷰 오는 것을 싫어했었는데, 저희와 비슷한 나이또래였어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나이또래나 어린 이성이 와서 자꾸 그런 질문을 하면 자존심이 상할까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서 외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그 분이 돌아오기 전에 다 끝내야 하니깐 그 시간에 쫓겨서 하였던 것도 있었어요.

▪ 조사원 간담회 중 / 조사원 강○○ ▪

이 부분은 지난 해 ‘인터뷰어로서의 어려움’에서도 다루어진 내용으로, 시간/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조사원들이 조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연구 참여자들이 방문할 수 있는 별도의 면접 장소가 구비되고 해당 장소에 연구 참여자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는 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전국에 거주하는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의 특성을 감안하였을 때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며 현행대로 연구 참여자의 집에서 최대한 돌발 상황이나 면접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굉장히 그분이 잘 보이고 싶어 하고, 눈치를 보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낌을 받아서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하였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뒤에서 주무시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다시 요청을 드려서 훨씬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일단 혼자가 있는 공간이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가족도 아내가 없는 혼자만이 있을 수 있는 비밀 공간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이야기 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어요.

■ 조사원 간담회 중 / 조사원 김○○ ■

요약본에 적기는 했는데 이 가구의 경우 두 분 다 인터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여의치 않아 걱정이지군요. 저도 그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을 닫고 조용히 하는 방법이나 시간차를 두고 방문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듯 싶어요. 예를 들어 남편분이 도착하시기 1시간 전쯤 방문하셔서 아내분과 먼저 인터뷰를 하고 나중에 남편 분이 오시면 방문을 닫고 인터뷰를 하시는 방법이요.. 하지만 이런 경우, 안전을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분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장소의 문제 역시 많이 지적되어 왔지만 이 문제만큼 저희 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자 분들께서 잘 조정해주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곳에 슈퍼가 있다면 여름이기 때문에 파라솔 등에서 인터뷰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 조사원 오○○의 질문에 대한 코디네이터의 응답 메일 중 ■

여덟째, 조사원 간 능력 차이이다. 본 조사에는 질적 연구 경험이 많지 않은 조사원부터 조사나 연구 경험이 풍부한 조사원까지 경력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때문에 조사원 간 능력에 따라 조사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저는 조금 어려웠던 질문이 부부간의 폭력이나 자녀의 폭력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 조사원 간담회 중 / 조사원 김○○ ■

인터뷰 하는 동안 아무래도 제가 긴장을 많이 한 탓인지 녹취록을 만들고 요약하면서 인터뷰 내용을 다시 살펴보니 응답이 풍부하게 잘 나오지 않았고 저는 또 잘 파고들지도 못하고 준비한 질문대로만 피상적인 대화를 하고 온 느낌입니다.

⇒ 첫 번째 인터뷰는 대개 그렇습니다. 라포가 형성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질문지의 내용이 워낙 방대해 질문지의 내용을 다 인터뷰해야 할 것 같은 압도감이 있으시지요? ^^ 그러다보니 처음에는 모든 조사원들이 일단 질문지의 내용을 하는 데 까지 하자는 마음으로 인터뷰를 하시기 때문에 막 파고들지 못합니다. 또한 저희 인터뷰 특성 상 2번 밖에 못 만나 뵙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구요. 염려마시고,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다만, 예전에 인터뷰를 했던 가구의 경우, 예전의 녹취록을 다 보신 후 똑같은 답이 나올 법한 질문은 생략해주시고, 그동안의 변화 상황을 집중적으로 인터뷰해주시면 됩니다. 응답자도 매해 다른 사람이 조사를 오면서 같은 질문을 받으면 지루해질 수 있을 뿐더러 저희가 알고자 하는 부분은 변화된 부분이고 그러한 것에 대한 응답자가 갖는 의미, 응답자의 가족이 부여하는 의미 등이기 때문입니다.

■ 패널참여가구 28 - 1차 조사 후 코멘트 내용 ■

하지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구의 선정이 이루어져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너무 수월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조사원의 개인적 특성은 조사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개인차가 큰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획일화된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사원 교육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조사원 간 개인차를 고려한 조사원 교육이 시행되었다면 조사원 개인적 발전이나 조사 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지

만 이러한 부분이 간과되어 조사원 활용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상기한 조사의 한계가 있었지만 조사원들은 미진한 부분을 극복하고 신뢰로운 조사 결과를 담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다. 때문에 매우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좋은 조사의 결과를 축적할 수 있었다. 더불어 조사원들은 의미있는 경험을 통해 개인적으로나 학문적으로 한층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조사하면서 제일 좋았던 부분은 저는 조사를 하러 갔지만, 그분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삶에 대해서 생각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 조사원 간담회 중 / 조사원 이○○ ■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나간 가구인 경우 라포형성이 잘 형성되어 작년보다는 올해 조사가 좀 더 수월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나간 가구도 첫 회기에서는 마음을 많이 안 열었었는데, 두 번째에는 좀 더 편하게 하게 되어서 매년 계속 방문을 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었고요.

■ 조사원 간담회 중 / 조사원 김○○ ■

나중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울고 했었어요.

■ 조사원 간담회 중 / 조사원 김○○ ■

제6절 질적 패널조사 수행 및 자료 활용시 윤리적 고려

1. 질적 패널조사 수행시의 윤리적 고려

지난 해, 연구 과정의 평가를 통해 차기 년도 연구인 본 조사를 위해 ‘인터뷰어와 실천가의 차이점 인식’, ‘아동면접에 대한 교육 강화’, ‘전년도 조사 자료 활용’이 제안되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지난 해 제안되었던 내용을 먼저 검토한 후 전 소절에서 논의된 바를 바탕으로 차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인터뷰어와 실천가의 차이 인식’은 올해 조사에서도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이었다. 본 조사는 빈곤을 중심으로 하는 매우 민감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조사자는 연구 참여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을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열악한 상황에 처한 연구 참여자와 면접하게 되는 사회복지관련 전공자인 조사자들은 그동안 체득된 휴먼 서비스 전문가로서의 태도와 조사자로서의 태도 사이에서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 작년 연구에서는 사전에 이러한 혼란을 예방하고 실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준비하고 이를 조사원에게 교육할 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올해 조사원 교육에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미진하여 조사원들은 작년과 같은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둘째, ‘아동면접에 대한 교육 강화’는 올해 조사원 교육을 통해 보완되지 않았지만 질문지 자체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되어 아동면접과 관련한 어려움은 보고된 바 없었다. 작년 조사의 경우, 많은 조사원들이 단답형으로 일관하거나 조사에 거부감을 느끼는 아동 참여자들로 하여금 조사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는데, 올해에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동일한 어려움은 보고되지 않

았다. 다만, 아동이나 청소년 자녀의 일과표를 작성하는 질문 등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일과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경우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었다. 하지만 대체로 유사한 일과(집-학교-집)를 보내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일상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전년도 조사 자료 활용’에 대한 부분으로, 2차년도 조사의 특성상 많은 정보가 없었던 작년에 비해, 작년과 올해에 걸쳐 축적한 정보가 제공되어 조사원들이 작년에 비해 원활하게 조사에 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조사에서는 기존 조사에 참여했던 조사원이나 기존에 전사 작업을 했던 조사원, 복지패널의 조사원으로 활동했던 이력을 가진 조사원들이 포함되어 있어 정보 활용에 능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처음 조사를 실시하는 조사원 역시 정보를 잘 활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조사를 진행해왔던 연구진과 코디네이터가 지속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어 조사 가구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초임 조사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시의 적절하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년 조사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응답자 주소 재확인, 약도 및 교통편, 전년도 인터뷰 수행 정보-시간, 장소, 대략적인 스케줄-연락이 안 될 때 어디에 연락하면 좋은지 등에 관한 정보> 등은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있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 외에도 연구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문제점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연구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보완하였는데, 해가 갈수록 연구 참여자들의 연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어려움은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표에 나온 용어를 응답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문제는 이번 조사에서도 지적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는 학력이나 연령이 매우 다양한 연구 참여

자들의 속성 상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금까지 논의된 조사 과정 경험을 바탕으로 추후 조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조사원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조사원 교육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조사원의 개인적 특성에는 조사 경험 유무, 질적 연구 경험 유무,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의 정도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는 조사원 교육이 모든 조사원을 대상으로 조사 전 1회 시행되고 있는데 차기년도 조사부터는 조사 경험이나 질적 연구 경험이 없는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보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그러한 보충 교육에서는 질적 연구(조사)의 개관, 심층 인터뷰의 전략과 기본적인 기술에 대해 다루는 것을 제언한다. 그리고 모든 조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원 교육에서는 본 조사 내용과 연구의 취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질문지의 각 세션과 질문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어 조사원들로 하여금 조사의 목적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조사의 방향을 잘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뭘 것은 좀 빼고 하는데 이번에도 교육에 조금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좀 더 상세하게 해 줬으며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조사원 간담회 중 / 조사원 김○○ ■

또한 조사원 교육 시, 미리 각 가구의 특성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배부하여 각 가구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코디네이터에게 미리 질의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조사의 경험이 있는 조사원

들이 다시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 조사원 교육에서 그들을 활용한 파트를 마련하여 조사원 간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질문을 하셨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분명히 여기에 관련된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없으시다고 하는데 제가 계속 질문을 해서 캐기도 그렇고..그 부분이 제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 조사원 간담회 중 / 조사원 이○○ ■

둘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고 조사원을 배려한 가구 선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사의 경험이 있는 조사원들은 자신이 담당하였던 가구에 선 배치하고 있는 현행 규칙을 지속하도록 하되, 가구의 특성과 조사원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가구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질적 조사 경험이 있는 조사원의 경우, 보다 많은 이슈를 포함하고 있는 가구에 배치하고 조사의 경험이 전무한 조사원의 경우, 변화가 크지 않았던 노인가구나 응답에 협조적이었던 가구에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거리상의 문제, 조사원 간 형평성을 위해 현행처럼 무작위로 가구를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으나 보다 심층적이고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는 연구진과 코디네이터의 사전 논의를 통해 조사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의도적으로 가구를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담당 가구에 대한 조사 과정 기록지 작성 및 유지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코디네이터는 별도로 과정 기록지를 작성하고 조사원들과 의사소통한 기록을 모두 남겨두고 있는 반면 조사원들은 각 가구의 인터뷰 요약본과 녹취록을 작성하고 있다. 하지만 각 가구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조사원이 가구의 특성, 예컨대 면접이 용이한 시간, 면접 시

특이점 등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차기 조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가 지속될수록 축적된 가구의 정보는 보다 풍부한 조사와 연구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차후 조사부터는 조사원들로 하여금 간단하게 각 가구의 조사 과정과 가구의 특성을 메모하게 하여 해마다 실시되는 조사에 유용하게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1차 조사 직후 코디네이터에게 전달하도록 한다면 코디네이터가 가구에 대한 특성을 바탕으로 2차 조사를 기획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분명히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캐치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누구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치 마시구요, 혹시 부족했거나 짚짚했던 부분은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메일로 제게 말씀해주셔도 좋고 전화를 주셔도 좋습니다.

제 판단에 부족했던 부분이나, 의미가 모호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선생님께서 코멘트를 주시는건지,

⇒ 네. 그 부분도 말씀해주시구요, 혹시 조사를 하시다가 의아하거나 문제가 생겼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시거나, 어려운 것이 있으신 것 모두 말씀해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 도와드릴게요. 부족했던 부분은 꼭 말씀해주시면 이후 조사 기획에 더 좋더라고요.

▪ 패널참여가구 19 - 1차 조사 후 코멘트 내용 ▪

마지막으로, 조사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구성하여 조사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조사원들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 간의 간격에 대해 지침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물론 조사원이 방문해야 하는 해당 가구의 장소(거리)와 연구 참

여자의 의견은 조사 일정을 기획하는데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할 요소이기 때문에 일원화된 규칙 적용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1차 조사 후 일정 기간 내에 코디네이터와 상의를 하고 2차 조사를 기획한 후 2차 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사원들을 독려하는 본 조사의 원칙을 준용할 수 있도록 매 뉴얼을 구성하고 조사원 교육에서 이를 교육하여 조사 과정상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처음에 인터뷰를 가서 다음 약속을 잡지 않으면 다음 약속을 잡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이 좀 있어요 스케줄을 보고 얼굴을 보고 다음 약속을 잡으면 그게 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 같아요 처음에 갔을 때 그런 약속을 잡고 매끄럽고 이런 불안도 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약간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그런 점도 있지만 내년에도 조사를 한다면 1차와 2차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라는 지침만 있다면 1차에 방문했을 때 그 범위 내에서 약속을 잡고 오는 게 마음이 더 편해요 어느 정도 간격에 대한 지침만 있었더라면.

▪ 조사원 간담회 중 / 조사원 김○○ ▪

2. 질적 패널조사 자료 활용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고려한 것은 윤리적 이슈들이다.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방법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윤리적 이슈들로는 연구에 대하여 올바르게 밝혔는지, 연구 참여자의 고지된 동의서는 받았는지, 자발적인 참여인지, 연구 참여로 인한 피해는 없는지,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받는 보상은 적당한지, 비밀은 보장이 되는지 등에 대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조사와 연계되어 기존 패널조사 대상 가구 중에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질적 패널가구를 표본 추출하여 조사 및 연구를 진행되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참여자에게 연구과정에 대해 밝히게 되었으며, 표본으로 추출된 질적 패널가구(연구 참여가구)에게는 사전에 연락하여 질적 조사에 대한 소개를 한 후 참여의사를 확인하였다. 이후 실제 심층면접을 실시하기 전, 질적 조사 및 본 연구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한 뒤에 질적 패널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심층면접을 시작하였다. 즉, 심층 면접에 참여한 가구원 모두에게 각각의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시작하였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와 고지된 동의와 관련된 이슈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은 한국복지패널 조사에 참여할 경우에 대한 보상과 균형을 맞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제공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참여가구들은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통해 이미 일정 기간 동안 조사 참여에 따른 보상체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 있어 보상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특히 논의가 필요한 윤리적 이슈로는 연구 참여로 인한 피해와 비밀보장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먼저, 연구 참여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마친 후 몇 개월 후에 심층면접을 위해 다시 방문하기 때문에 피로감이나 거부 반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복지패널 양적조사 설문지는 분량 자체도 많으며, 조사 범위도 방대하고 구체적인 반면, 심층 면접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사생활을 침해받는다라는 느낌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가구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원자료에서 연구 참여가구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거하고 가공된 자료를 공개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연구보고서는 범주화 결과만을 제시하거나 가구아이디를 새롭게 부여 하는 등을 통해 연구 참여가구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제Ⅲ부

질적패널 분석



제5장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패턴과 맥락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연구결과

제3절 소결

5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 패턴과 맥락분석¹¹⁾

제1절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패턴과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에 참여하는 가구들 중에서 아동과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구들을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일과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일상생활에 대한 패턴 분석과 맥락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회복지제도의 목적이 국민의 행복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든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만족이든 결국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다는 깨달음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높은 수준의 부와 소득,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고용상태와 주거, 교육수준을 행복의 조건 또는 객관적 삶의 질로 보든지 아니면 주관적 경험세계 안에서 느끼는 충만함이나 높은 수준의 만족도, 소소한 즐거움, 감사하는 삶을 행복의 요소 또는 주관적 삶의 질로 보는지와 상관없이 그러한 모든 요소와 조건들이 일상생활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의 다른 주요 탐구주제들과 연결해 볼 필요

11) 권지성(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가 있을 것이다.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연구를 통해 수행한 이전의 연구들에서, 연구자는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행복의 의미와 요인 또는 조건, 객관적 사물과 주관적 마음이 연결된 맥락 구조 등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로 바꾸고, 연구의 초점을 일상생활의 맥락과 함께 일상생활의 ‘패턴’에 두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상생활 패턴’이란 아동·청소년의 하루 일과와 일주일간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생활양식을 말한다. 또한 ‘일상생활 맥락’이란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과 가정생활, 기타 지역사회 내 생활 영역에서 학습, 여가, 관계, 수입과 지출, 신체활동과 정신활동, 종교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생활의 패턴과 맥락 자체를 파악하는 것은 응용연구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일상생활 맥락과 패턴이 조금 더 큰 맥락인 ‘가족’의 맥락, 특히 ‘자산’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연구의 초점은 가구의 소득수준이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생활 맥락과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반대로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생활 맥락과 패턴이 가구의 소득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소득수준별로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생활 맥락과 패턴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비교하여, 거기에서 나타나는 일상생활 맥락과 패턴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소득과 일상생활에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맥락과 패턴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고안하고 있는 일상생활 ‘패턴 분석’과 일상생활 ‘맥락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이 연구의 초점이 일상

생활 맥락과 패턴 같이 학계에서 생소하게 여겨질 수 있는 현상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상학이나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사례연구, 내러티브 탐구 등의 기존 질적 연구접근들이 이러한 현상을 탐구하는 데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연구자 자신인 권지성(2012)이 제안한 분석틀을 토대로 하면서 이미 수행한 맥락-구조 분석 연구들을 참고하여 새로운 분석방법을 시도해 보았다. 이 연구의 참여자는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에 포함된,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심층면접과 연구참여자들 자신이 기록한 일과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일상생활 패턴 분석과 일상생활 맥락 분석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일상생활 패턴 분석은 주로 일주일 간의 일과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심층면접 과정에서 그러한 일상생활의 패턴과 맥락에 대해 질문한 뒤에 그에 대한 답변을 녹취록으로 작성하고 범주화하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서는 전체 면접 자료에서 제시된 가족의 맥락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일상생활 맥락 분석은 학교생활과 가정생활, 기타 여가생활로 구분한 뒤 학습, 여가, 관계, 수입과 지출, 신체활동과 정신활동, 종교 등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하고, 그러한 요인들을 서로 연결하여 전체적인 맥락 구조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제2절 연구결과

1.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패턴

여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패턴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부모인 연구참여자들이 작성한 일과표를 토대로 아동·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보내는 활동들의 비중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면접에서 진술한 자녀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경험들을 분석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시간사용 분석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시간사용은 먼저 학령단계에 따라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 안에서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각 학령단계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일반가구가 1사례, 저소득(수급)가구가 1사례였다. 일반가구 아동의 경우 잠자는 시간이 8시간,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2시간, 학교에서 수업시간이 7.5시간, 학원이 2시간이었으나 저소득가구의 경우 잠자는 시간이 11시간,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1시간, 학교 수업시간이 5시간, 방과후 수업이 3시간, 태권도 학원이 1시간이었다. 학년 차이나 다른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야겠지만, 전반적인 시간사용 패턴을 볼 때, 일반가구 아동이 저소득가구 아동보다 잠을 적게 자고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일반가구가 4사례, 저소득가구(차상위, 수급경험가구, 조건부 수급, 수급 포함)가 4사례였다. 사례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학교 수업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대체로 저소득가구 아동들이 일반가구 아동들에 비해 잠자는 시간은 1-2시간 더 길고,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1-2시간 더 짧으며,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눈에 띄는 패턴 중 하나는 저소득가구 아동들이 TV를 시

청하는 시간이 더 길다는 점이다.

중학생들의 경우 1학년과 2학년에는 장애나 다문화와 같은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어서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3학년만을 비교하였다. 중학교 3학년생들의 경우 일반가구가 2사례, 저소득과 조건부수급 가구를 포함한 저소득가구가 5사례인데, 두드러지는 차이는 아니지만 일반가구 중 학생들이 저소득가구 중학생들보다 잠자는 시간은 1시간 정도 더 길고,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더 짧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과 달리 중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정규수업과 방과후 수업을 포함한)이 10시간 정도로 더 길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고등학생들의 경우 중학생들보다 전반적으로 잠자는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학교 수업시간도 대체로 10시간이 넘어가면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도 길어지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들의 전체 사례는 6사례이며, 그중에서 일반가구가 2사례, 현재 수급가구가 2사례, 차상위와 탈수급 가구를 포함하여 2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일반가구 2사례와 저소득가구 4사례로 다시 묶어서 보면, 일반가구 고등학생 2사례의 경우 학원과 방과후 수업에서 보내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저소득가구 고등학생들의 경우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학교 수업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시간사용 분석

번호	학령	집				이동	학교		학원	여가	기타	수급여부	가구 형태	비고
		공부	침	잠	기상		수업	방과후						
012	초2	2	1	8	1		7.5		2			X	일반	
077	초1	1	2	11	1		5	3	태권 1			O	모자	모녀장에
072	초4	1	3	9	1	1	5		영수 5			X	일반	
040	초5	2	2	9	1	1	5		4		TV 1	X	일반	
046	초5	3	4	8	1	1	6					X	일반	
086	초6	2	2	9	1	1	7		영어 1	3		X	일반	
081	초4	2	1	10	1	1	5	사물 1	피 1	2		X 차상위	일반	
032	초5	1	2	8	1	1	6	놀이/공 2	영 1		TV 1	X 유경험	일반	다자녀
076	초6			11	1	1	7	지역 3			TV 1	O 조건부	모자	
024	초6			10	1		7		4		TV 3	O	모자	장애
020	중1	2	2	7	2	1	7		1	1		X	일반	
120	중1		1	10	1	1	7		그룹 3	친구 1		O 조건부	모자	
021	중2			8	1	1	8			컴 3	TV 1	X	일반	장애연금

번호	학명	집				이동	학교		학원	여가	기타	수급여부	가구 형태	
		공부	쉼	장	기상		수업	방과후						
052	중2		1	9	1	1	9		3			X	재혼	재혼/다문화
090	중2	2	2	7	1	1	9			게임 1	레슨 1	X	일반	
029	중2			9	1	1	7			2	폰 2	X 유경험	일반	
109	중2	1	3	8	1	1	7		2	컴 1		O	일반	정신장애
102	중3	1	2	9	1	1	7	2				X	일반	
019	중3		2	9	1	1	9			컴 2		X	모자	
078	중3		1	8	1	2	11					X 저소득	일반	
103	중3	1	2	7	1	1	7		3	1		O 조건부	일반	신용불량
071	중3	3	3	7	1		8			잠 2		O 조건부	모자	
104	중3	1	2	8	1	1	7	3				O 조건부	모자	자녀 장애
125	중3		4	8	1	1	8	2		게임		O 조건부	일반	자녀 장애
098	고1			9	1	1	14		1			X 차상위	모자	
113	고2		1	7	1	1	11				집제녀	O 조건부	일반	다문화
028	고2			7	1	2	8.5		컴 3.5		T/G 1	X	일반	
013	고2			6	1	2	10	2			? 2	X	모자	
116	고2	1	2	10	1	1			5	1	독서실	X 탈수급	모자	검정고시
117	고3	1	1	6	1	1	13					O	모자	

나.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경험

여기에서는 아동·청소년 자녀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경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크게 아동(초등학생)과 청소년(중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1) 아동(초등학생)의 일상생활에 대한 경험

초등학생 자녀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경험은 일상생활 패턴과 요즘 고민과 해결방법, (자녀의) 강점, 다양한 생활영역에 대한 생각, 예외 상황, 부모의 기대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상생활 패턴은 크게 평일과 주말로 구분되었다. 평일 패턴은 다시 등교, 하교, 특별활동과 학원, 집에 돌아온 후로 구성되었다. 초등학생들의 등교 시간은 7시 10분에서 8시 40분까지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학교 정규시간이 끝난 뒤에는 바둑이나 태권도, 미술 같은 취미특기 교육을 받기도 하고 방과후 수업, 위스타트,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들도 있었으며, PC방에 간다는 경우도 있었다. 특별활동으로는 봉사활동, 보충수업, 학습지 공부, 돌보미 서비스 받음, 박물관 수업, 컴퓨터 수업, 영어 학습 등이 있었다. 집에 돌아온 후에는 컴퓨터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아이 혼자 저녁을 챙겨먹고 아홉시반쯤 잠든다고 답한 사례도 있었다.

주말 패턴에 대해서는 답이 많지 않았는데, 오후 1시에야 일어난다는 사례가 있었으며, 집에서 TV를 시청하거나 스마트폰 게임을 한다는 경우도 있었다. 학원이나 교회에 다니는 사례들도 있었으며, 친구나 가족들과 놀러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표 5-2〉 초등학생의 일상생활 경험

영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일상생활 패턴	평일	등교	7:10~8:40
		하교	바둑, 태권도 / 방과 후 수업 / OO대 가서 운동하고 위스타트에서 토요일마다 하는 것, 형편이 어려워 학원을 못 보내니까 성당에 다니는 자매님이 도와줌 / 피시방으로 감 / 아동센터 / 미술수업
		특별 활동과 학원	운동하고 봉사활동을 해서 늦게 오는 편, 매일 한 시간씩 보충수업 함 / 학습지 공부를 함 / 돌보미 서비스로 4시반쯤 귀가함 / 수요일엔 학교에서 무료로 박물관에서 하는 수업을 들음, 컴퓨터 수업도 들음 / 기타수업 끝나면 국제영어마을 가서 공부
		집에 돌아온 후	컴퓨터 하고 햄스터랑 놀이 / 아이 혼자 저녁을 챙겨 먹고 아홉시 반쯤 취침
	주말	일어남	오후 1시
		집에서	TV 시청, 스마트폰 게임
		학원이나 교회	교회 / 성당 / 토요일 오전마다 수학학원 보강하러 감 / 일요일에는 하루 종일 공부 / 종교단체에서 집회
		놀러 다님	친구들과 공원으로 놀러감 / 배드민턴을 치м / 체육공원에 감, 일요일에는 거의 아빠와 붙어있으려고 함 / 학원에 가고 화장품가게 갔다가 노래방 갔다가 들어옴.
요즘 고민과 해결방법	요즘 고민	경제적 어려움	학원비 등 이야기 할 때 미안함, 컴퓨터도 바꿔줘야 하는데 못 바꿔주고 있음.
		학업	청소년 회관 같은 경우 5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생각 하고 있음,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한다면 비용도 훨씬 싸고 가까워서 훨씬 좋음 / 매달 16만원씩 내야하니까 부담스러움, 안정이 되면 줄넘기 등 여러 서비스를 시켜주고 싶음, 막연하게 애들이 돌아다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훨씬 좋음 / 수학 성적
		관계	친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성격인 애들이 많음, 지금은 잘 지내는 거 같음.

영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성격	활발하고 말도 잘 하지만 자신감이 없이 기가 죽어있어 친구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할 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함.
강점	능력	문혀 있음	조금만 받쳐주면 공부도 잘 할 것 같은데 못해 줘서 답답함.
		잠재력이 있음	가능성도 있고 잠재력도 있음.
	성격	성격	두루뭉수리한, 배려심이 깊음, 원만함.
	자원	특기	독창대회에 나가서 금상을 받을 정도로 노래를 잘함.
다양한 생활 영역에 대한 생각	가족관계	부모	둘째 셋째 엄마 셋이 이야기 하고 아빠와 큰아들은 이야기 잘 안 함, 아빠는 TV 보는 시간에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함 / 둘째와 막내는 고민이나 일상생활에 대해서 엄마에게는 잘 말하는 편
		아빠	화날 때 엄하게 하는 편 / 부부가 서로의 양육 태도에 대해서 서로 불만이나 문제없음 / 자녀들이 아빠를 무서워함.
		엄마	내 자녀라서 자녀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딱 봐서 아니다 싶으면 상대방 아이의 편도 들어줌.
		형제	안에서는 원수지간이지만 나가면 서로 잘 챙겨 줌.
	친구관계	동성친구	토요일마다 아들 친구들이 집에서 잠, 교우관계가 원만한 편, 친구들은 다 착한 편 / 초등학교 때는 소극적이어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음.
		이성친구	딸은 남자한테 크게 관심이 없음, 딸이 누굴 만난다 그러면 괜히 샘이 남, 이성적인 관심보다는 공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음.
	학교 생활	교사	선생님이 신경도 써주시고 예뻐하심.
		진로	군인 / 소방관 / 의사
		학업	공부는 잘 못함, 공부로 스트레스를 주는 편은 아님 / 꿈에 비해 노력을 하지 않음.

영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예외 상황	자녀의 가출을 경험함	자녀의 가출	학원 시험을 두 번 떨어져서 엄마가 화가 남, 잔소리 하지 말라던 아들에게 아침에 친구들과 놀이 말라고 잔소리를 했음, 그 날 엄마에게 찾지 말라는 문자를 보냄, 엄마의 믿는다는 문 자를 받은 그 다음날 집으로 들어옴(2주).
부모의 기대	부모의 바람	아이에게 바라는 점	시간 날 때마다 오락하는 것, 차라리 책을 읽 든 공부를 했으면 좋겠음, 전기세가 많이 나와 끓긴다고 하면 게임을 중단함 / 노는 시간을 줄이고 책을 보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음, 아들 같은 경우는 취침 시간이 빨랐으면 좋겠 음 / 집에 오면 꼭 엄마 옆에만 붙어 있으려고 하는 점. 혼자 있을 땐 이것저것 잘 하다가도 엄마만 옆에 있으면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함 / 일찍 자고 늦잠을 자지 않았으면 좋겠음 / 자 녀 모두가 뭐든지 열심히 하며 꿈을 크게 가졌 으면 좋겠다고 생각, 해야 할 것을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음.

초등학생 자녀들과 관련된 요즘의 고민과 해결방법들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학업, 관계, 성격의 영역들이 포함되었다.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학원비 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미안하다거나 컴퓨터가 고장 나서 바뀌줘야 하는데 못 바뀌주고 있어 미안하다는 진술이 있었다. 학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험들이 제시되었는데, 저렴한 학습 기회에 비용을 낼 생각이 있다는 진술, 매달 내야 하는 비용이 부담스럽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여러 가지 기회를 주고 싶다는 진술, 다른 한편으로는 막연하게 돌아다니는 시간이 줄어들어 좋다는 진술 등이 포함되었다. 과목 성적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관계의 경우 성격이 맞지 않는 친구들도 있지만 잘 지내고 있다는 진술도 있었다. 자녀의 성격 때문에 고민이라는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도 포함되었다.

자녀의 강점으로는 능력, 성격 특성, 자원 등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의 경우 자녀들의 능력이 현재 드러나기보다는 잠재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 부모는 조금만 받쳐

주면 공부도 잘 할 것 같은데 못해줘서 답답하다고 했으며, 다른 부모는 가능성도 있고 잠재력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성격 특성으로는 두루뭉수리함, 배려심이 깊음, 원만함 등이 장점으로 제시되었다. 자원으로는 특기라고 부를만한 것으로 ‘노래를 잘함’이 언급되었다.

자녀와 관련된 다양한 생활영역에 대한 생각에는 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등이 포함되었다. 가족관계는 다시 부모와 아빠, 엄마, 형제 간 관계로 구분되었다. 부모와 자녀 간 관계는 자녀들과 엄마, 자녀들과 아빠의 관계가 다를 수 있었다. 아빠는 화날 때 엄하게 하는 편이라거나 아빠를 무서워한다는 진술에서 보는 것처럼 일정한 거리가 느껴진다. 형제의 경우 안에서는 원수처럼 지내지만 나가면 서로 잘 챙겨주기도 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친구관계는 동성친구와 이성친구로 구분되었다. 동성친구의 경우 친구들과 잘 지낸다는 경우도 있었지만, 놀림을 받았다는 경우도 있었다. 이성친구의 경우 초등학생이라 아직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생활의 경우 교사와 관계, 진로, 학업 등으로 구분되었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교사와 관계가 중요한 것으로 보이며, 진로는 다양하게 언급되었다. 학업의 경우 부모들이 아직 공부하도록 강요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자녀에 대해 꿈은 있지만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진술도 있었다. 자녀의 일상생활에서 예외적인 상황으로 자녀의 가출을 언급한 사례도 있었다.

아이에게 부모가 바라는 것으로는 게임이나 노는 시간보다 책을 보거나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엄마와 지나친 밀착이나 늦게 잠을 자는 점, 할 일을 미리 하지 않는 것 등을 경계하였다.

2) 청소년(중고등학생)의 일상생활에 대한 경험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참여 부모들의 경험은 일상생활 때

턴, 요즘 고민과 해결방법, 강점, 생활영역에 대한 생각, 부모의 기대 등으로 구분되었다. 각 영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생활 패턴은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평일은 등교, 하교, 특별활동과 학원, 집에 돌아온 후 등으로 범주화되었다. 청소년들은 7시 30분부터 8시 사이에 등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교 후에는 합기도 학원, 축구 등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야간 자율학습 때문에 10시에 오는 경우와 자기주도 학습을 포함하여 공부에 매달리는 사례들도 있었다. 학원을 가거나 과외를 받거나 화상영어수업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집에 돌아온 후에는 대체로 학교나 학원 등에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 늦기 때문에 잠깐 공부를 하거나 게임 등을 하다가 잠드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주말에는 11시 정도로 늦게 일어나는 사례가 있었고, 학교에 가서 1시 쯤까지 있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아니면 집에 있다가 약속이 있어서 나가거나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학원이나 교회, 바둑수업, 아르바이트, 주말체험, 봉사활동 등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례들도 있었다.

둘째, 중고등학생인 청소년들의 고민에는 경제적 어려움, 학업, 관계, 대학과 진로 등이 포함되었다. 경제적 어려움에는 갖고 싶은 직업이 있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망설여지는 점, 자기 방을 갖지 못하는 점이 포함되었다. 학업은 공부하기 벅차다는 것도 있었지만 교사에게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거나 EBS 방송 시청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었다. 관계에 대한 고민은 많지 않았는데, 전학 온 후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괴로웠다는 사례가 있었다.

〈표 5-3〉 청소년(중고등학생)의 일상생활 경험

영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일상 생활 패턴	평일	등교	7:30~8:00
		하교	집에 와서 수련원에서 끝난 후 합기도 다녀옴 / 야간 자율 학습하느라 10시에 옴 / 과외, 자유공부 / 집안일 / 자기주도 학습 / 축구
		특별활동과 학원	학원을 감 / 과외 / 화상영어수업
		집에 돌아온 후	프로그램이 없는 날은 학습으로 대체하는 등 시간은 매일 같음. 저녁 먹고 집에서 숙제 하는 등 계속 지냄 / 게임하다가 학원 갔다 와서 스마트폰을 하다가 잠들 / 고단해서 잠을 잠.
	주말	일어남	11시
		학교 감	학교에 1시까지 있음.
		집에서	집에 있거나 약속이 있으면 나가는 정도, 일요일은 하루 종일 집에 있음. 독서를 하거나 친구들을 만남.
		학원이나 교회	2시까지 학원에 있음 / 교회 / 바둑 수업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를 함.
		놀이감	친구들과 외출하기도 하는데 꼬박 전화로 알려 줌, 토요일에 수련원에서 하는 주말 체험함 / 예전에는 봉사활동에 갔지만 최근에는 가지 않고 놀러나가는 것 없이 집에서 놀고 잠을 잠.
요즘 고민과 해결 방법	요즘 고민	경제적 어려움	웨딩플래너를 하고 싶은데 경제적 부담으로 쉽게 생각하지 못함 / 개인의 방을 갖지 못함.
		학업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벅차함 / 공부 잘하는 친구와 조모임을 하면서 선생님에게 불평 등한 대우를 받음 / EBS 방송 시청
		관계	전학 온 후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괴로워했음.
		대학과 진로	장점을 찾아야 해서 힘들어함 / 여러 꿈을 가지고 있음 / 직업군인 / 상담심리사 / 요리사
	해결방법	해결방법	컴퓨터로 스트레스를 풀 / 혼자 혹은 친구들에게 고민 상담을 함.

영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강점	능력	관심과 특기	손재주가 좋아서 이것저것 만드는 것을 좋아함. 헤어, 네일, 팩 등에 관심이 많음 / 중학생 때부터 앞머리 잘라주고 500원씩 받고 교복 꿰매주고 함 / 컴퓨터를 잘함.
	강점	성격	꼼꼼하고 집중력이 좋음 / 차분함 / 인간성이 좋음. 의리
		관계	사교성이 좋고 배려심이 좋음.
		자기통제	집중력이 좋음.
	자원	에너지	에너지가 넘쳐서 행동적임.
	기타	대외활동	입학사정관제라고 동장을 했는데 비용을 반반씩 부담해서 필리핀을 다녀오고 서로의 집에서 이틀정도 홈스테이를 함, 동장 일을 끝마치면 은장, 금장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부담스러워서 하기 싫어함, 일주일에 한번씩 오리엔티어링 해서 산으로 극기훈련 가고 자료를 다 올려야 하나까 힘들어함.
생활 영역에 대한 생각	가족관계	가족 분위기	다른 가족에 비해 화목한 편이라고 생각함.
		엄마가 자식을 볼 때의 생각	지금 주체가 안돼서 어려운 것 말고는 관계가 좋음. 늘상 편하고 의지하고 어느 순간 힘이 되다가도 울컥함.
부모의 기대	바라는 점	부모의 바람	등교 시간이 너무 이름, 8시까지 간다면 행복할 것 같음 / 핸드폰 게임을 너무 많이 함, 독서를 많이 했으면 좋겠음, 아빠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 밤마다 책을 봄. 첫째가 너무 집에만 있음 /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사용했으면 좋겠음.

대학과 진로 범주에서는 자신의 장점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아서 힘들어 한다는 진술, 여러 개의 꿈이 있어서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 기타 여러 직업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고민들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는 컴퓨터로 스트레스를 풀거나 혼자 또는 친구들에게 고민 상담을 한다는 사례들이 있었다.

셋째, 청소년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는 능력, 강점, 자원, 기타 등이 제시되었다. 능력은 관심과 특기의 형태로 제시되었는데, 손재주나 다양한 관심사, 컴퓨터 활용능력 등이 언급되었다. 강점에는 성격과 관계, 자기통제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특성들이 포함되었다. 성격으로는 꼼꼼하고 집중력이 좋음, 차분함, 인간성이 좋음, 의리 등이 제시되었으며, 관계에는 사교성이 좋고 배려심이 좋음, 자기통제에는 집중력이 좋다는 진술이 포함되었다. 에너지가 넘쳐서 행동적이라는 진술도 있었는데, 이는 자원으로 분류하였다. 그밖에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특별한 대외활동 경험들도 강점으로 언급되었다.

청소년의 경우, 생활영역에 대한 생각에는 가족관계만 포함되었는데, 여기에는 가족 분위기와 엄마가 자식을 볼 때 드는 생각이 언급되었다. 다른 가족에 비해 화목한 편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종종 자녀를 대하기 힘들다는 경험이 여기에 해당된다.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에게 바라는 것으로는 등교 시간이 너무 일러서 조금 늦춰졌으면 하는 것, 게임을 덜하고 독서를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 스마트폰 사용을 줄였으면 하는 희망사항들이 포함되었다.

2.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맥락

여기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의 일상생활 맥락을 분석한다. 일상생활 맥락은 공간 차원에서 아동·청소년들과 사회환경체계 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맥락 구조를 말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맥락 구조에는 가족, 교육, 여가 체계 등이 포함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는 경험된 사물과 경험한 마음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각 연

구참여 가구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모두 분석하였고, 각 가족의 맥락 구조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가구의 맥락과 저소득 가구의 맥락을 비교하였다. 또한 이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초·중학생인 아동과 중고등학생인 청소년들을 자녀로 둔 사례들을 추출하여 따로 분석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맥락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 틀은 [그림 5-1]과 같다. 이 그림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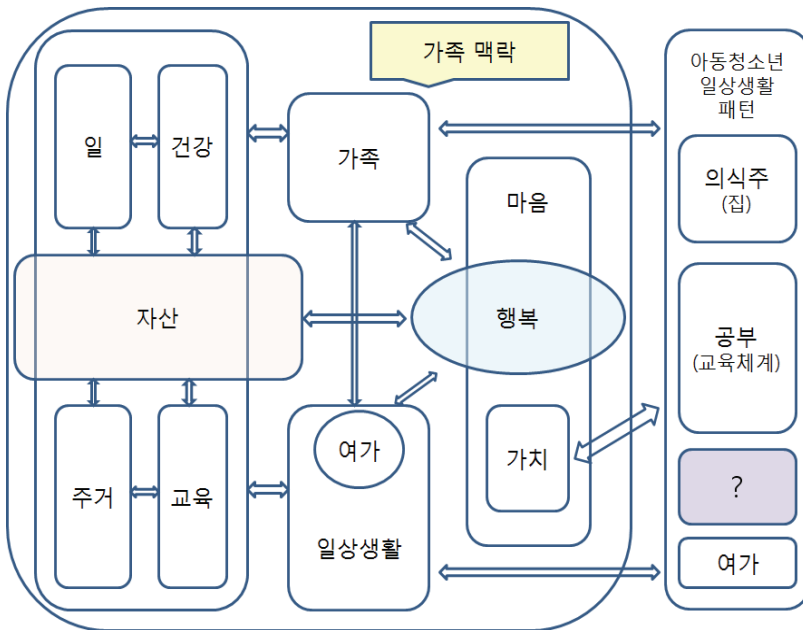
왼쪽의 큰 그림은 ‘가족 맥락’이다. 가족 맥락은 다시 왼쪽의 ‘생활’(일, 건강, 자산, 주거, 교육으로 구성) 영역과 오른쪽의 ‘마음’(행복감과 가치) 영역, 가운데 부분의 위와 아래에 있는 ‘가족관계’ 영역과 ‘일상생활’(여가 포함)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른쪽의 직사각형 그림은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패턴’을 나타낸다. 일상생활 패턴은 크게 의식주(집)와 공부(교육체계), 여가, 선택(?로 표시된) 영역으로 구분된다. ‘의식주(집)’는 아동·청소년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포괄하며 잠, 밥, 쉼, 씻기, 준비하기 등으로 이루어진다. ‘공부(교육체계)’는 학교 수업과 방과후 수업을 포함한 공교육 체계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포함한다. 여가는 공간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과 함께 쉬거나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보내는 시간들을 말한다. 물음표로 표시된 빈 공간은 집과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과 여가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들을 뜻한다. 이 시간은 각 사례의 아동·청소년과 부모, 가족들이 합의하여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사례는 이 시간을 학원이나 과외, 특기교육과 같은 교육활동으로 채울 수도 있고, 어떤 사례는 이 시간을 노는 시간으로만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교육 체계의 특성과 잠, 밥, 쉼, 씻기 등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활동들에 보내는 시간에 개인 차이가 크지 않다고 가정한다면, 각 발달단계상의 아동·

청소년들이 집과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과 활동들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실제적인 차이는 여가 시간이나 물음표에 해당되는 시간의 사용에서 나타나리라 가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사용의 패턴과 사례 간 차이는 가족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표 5-4〉는 가족 맥락의 영역과 하위영역들을 구분하고 각 사례의 특성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빈칸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은 이번 조사에서 수집되지 않은 사항들이다.

[그림 5-1]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맥락구조



〈표 5-4〉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맥락

번호	학령	행복			빈곤		생활영역					가족과 자녀의 일상생활			
		가치	행복	조건	수급	자산	고용	건강	주거	교육	여가	가족	자녀	학교 외	일상
사례1	초4	자신	6.5	남편	X	빚	자영	비만	자가	자녀	마트	외도	애정	학원	공부
사례2	초5	가족/ 건강	5	건강 가족	X	대출	실직 텔레 마케터	관절 폐경	부모집	대학2 학원	영화 공원	애들덕	만족	악기 보습	비빔 아빠
사례3	초6	신앙	8	몸 힘들 신앙	O	실비/ 연체	복지관 식당	측만증 치과	임대 아파트	신대원	바우처 책	이혼 모자	사춘기 초임	영어 마을 아동 센터	비빔 돌림
사례4	초6	필요	5	소득	O	빚	미취업	허리다리 통증	임대 아파트	ADHD 학교	못함	이혼	ADHD 1-3점	학원 위스타트	도우미
사례5	중1	돈	6.5	건강 돈	X	파산 빚	형 사업체	갱년기 불면	아파트	없음	영화 운동	8점	작은애 미안함	아들딸 60만원	주말 아빠 놀이
사례6	중1	-	5	돈	O	빚	자활 (+간병)	긴기	전세 대출	보육 교사 자격증	영화	사별	화장 사춘기	자활 공부방	사춘기 대화
사례7	중3	건강	6	건강 자녀	X	-	다방	두통	주택	자녀	영화	후회	학교만 / 봉사	없음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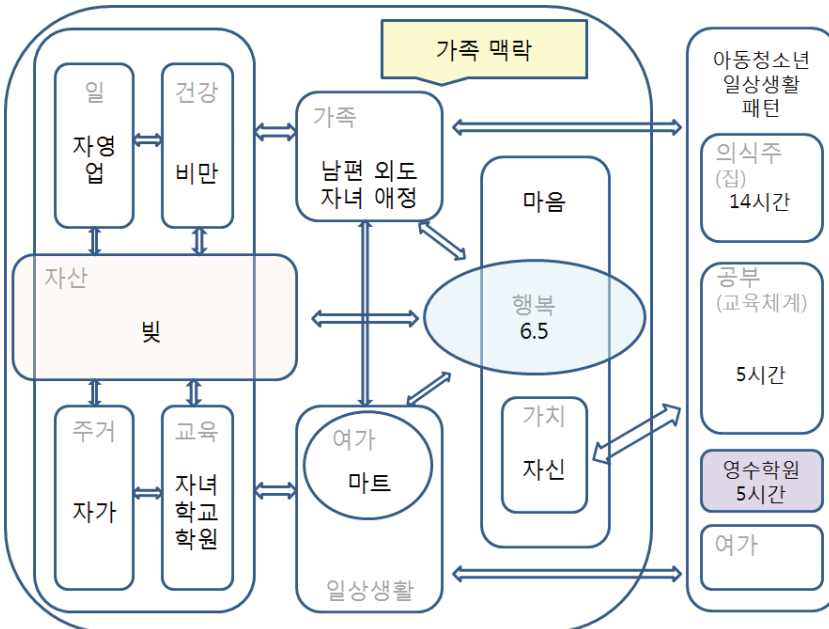
번호	학령	행복			빈곤		생활여역					가족과 자녀의 일상생활			
		기치	행복	조건	수급	자산	고용	건강	주거	교육	여가	가족	자녀	학교 외	일상
사례8	중3	-	7	자산	○	-	인터넷 쇼핑몰	건강함	영구 임대	없음	모임 기타	이혼	만족	없음 낮잠	대학
사례9	고2	-	8	담배	X	빚	과외	노안	부모	회화	못함	샘물	-	학원	SNS
사례10	고3	-	8	-	○	남친 빚	병원 피부 관리실	ADHD 당뇨/ 고지혈증	영구 임대	대학생 원룸 교통비	여행	이혼 찾아옴 남친	사춘기 폭력 6명	수련관 합기도	학교 폭력

가. 사례1의 일상생활 맥락

사례1의 행복 점수는 6.5점이며 자기 자신에게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하였다. 남편의 외도로 부부관계는 깨어졌지만 자녀에게 애정을 쏟고 있다. 빛이 있지만 자영업을 하면서 갇혀나가고 있으며, 비만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않지만 자기소유의 집이 있다. 교육영역에서는 자녀를 학교와 학원에 보내고 있다. 여가라고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외식하는 것이 전부다.

이 사례의 아동은 집에서 14시간, 학교에서 5시간을 보내며, 특별한 여가는 없고, 영수 학원에서만 5시간을 보낸다. 배우자와 관계가 좋지 않으며 자녀에게도 기대하지 않게 되어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러한 패턴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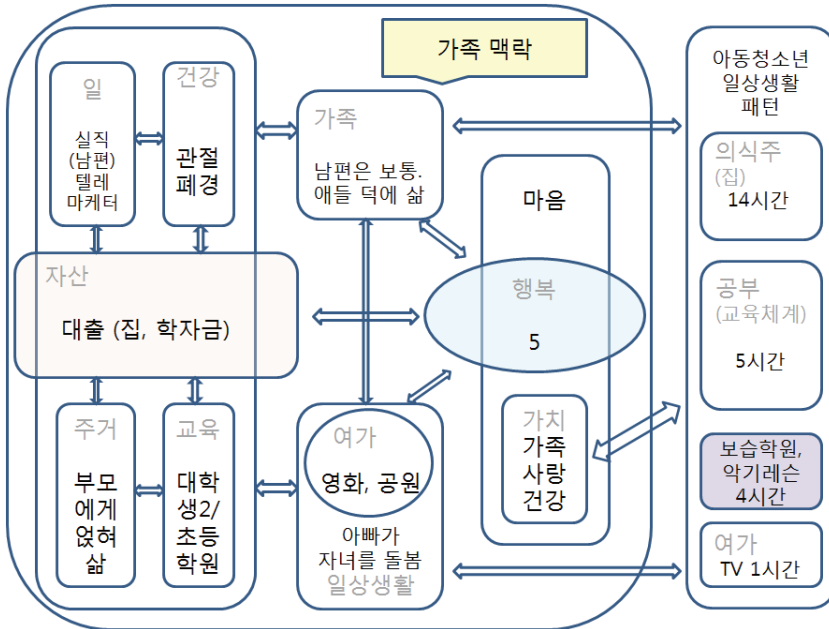
[그림 5-2] 사례1 아동(초등 고학년-일반가구)의 맥락



나. 사례2의 일상생활 맥락

사례2의 행복 점수는 5점이며, 가족 간의 사랑과 건강에 가치를 두고 있다. 사례2의 경우 남편이 실직한 후 집에 있고 자신이 텔레마케터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 주택대출과 학자금대출로 빚이 적지 않은데 관절도 아프고 폐경기가 오는 듯하여 몸도 좋지 않다. 돈이 없다 보니 지금은 친정부모에게 얹혀살고 있으며, 대학생 자녀 둘은 군대 등 휴학 중이고 초등학교 자녀만 학원에 보내고 있다. 남편과 관계는 보통이며, 애들 덕에 산다고 하였다. 가끔 영화를 보거나 공원에 같이 놀러 나갔다 오는 것이 여가생활의 전부며 아빠가 주로 자녀들을 돌보고 있다.

[그림 5-3] 사례2 아동(초등 고학년-일반가구)의 맥락



사례2의 아동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14시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5시간이며, 여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집에서 TV를 한 시간 정도 본다. 그리고 보습학원과 바이올린 레슨으로 나머지 4시간을 보낸다.

사례2의 경우 남편의 실직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지만 부모의 집에 살면서 주거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대학생 자녀들이 스스로 학비를 벌고 있으며, 아빠가 어린 자녀를 돌보는 덕분에 근근히 버텨가면서 돈을 모으고 있다. 학원과 악기 레슨에 적지 않은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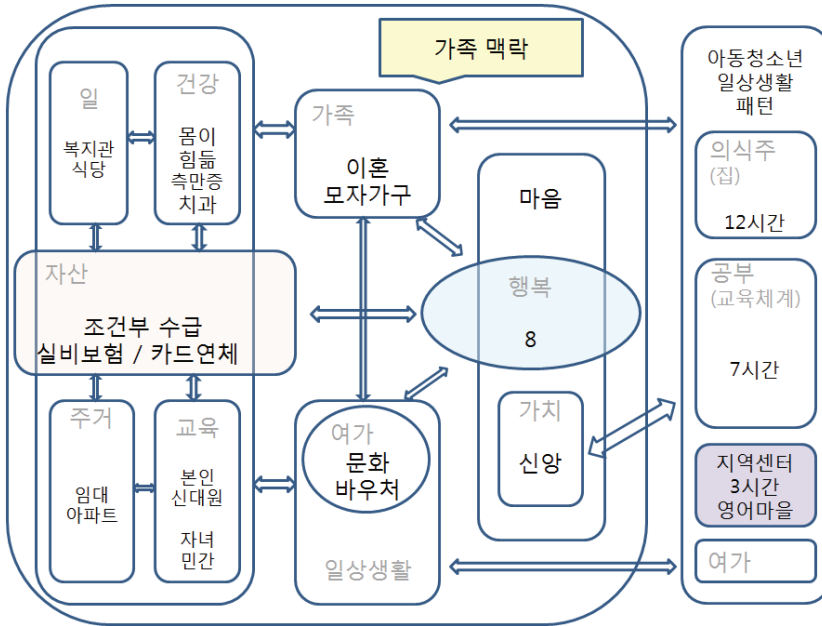
다. 사례3의 일상생활 맥락

사례3의 행복 점수는 8점이다. 앞의 두 일반가구 사례의 점수가 6.5점과 5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급가구인 사례3의 점수가 8점이라는 것은 의외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사례3은 이혼한 모자가구로서 몸이 힘든 데다 척추 측만증도 있고 치과 치료도 받고 있으며, 조건부수급자로 일을 해야만 하고,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악조건들을 대부분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행복 점수를 높게 평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례3은 그것이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신앙’을 꼽았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다.

사례3의 아동은 집에서 12시간, 학교에서 7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에서 3시간을 보내고 있고, 영어마을에도 다니고 있다. 일반가구 사례들이 학원 등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 반면에, 사례3은 사회서비스를 통해 유사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림 5-4] 사례3 아동(초등 고학년-수급가구)의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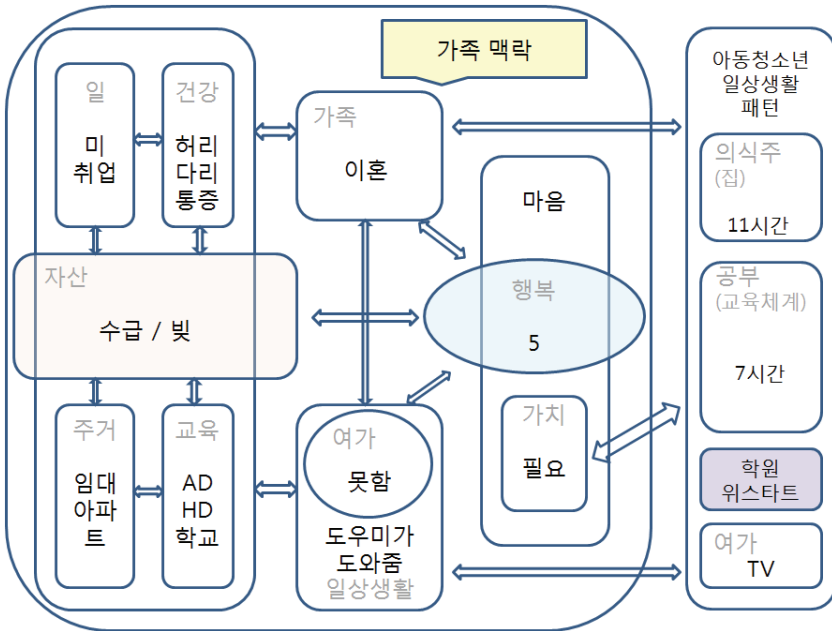
라. 사례4의 일상생활 맥락

사례4의 행복 점수는 5점이며,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답하지는 않았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필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사례4의 가족 맥락을 보면 이러한 답이 나온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갇아야 할 빛이 있고, 미취업상태로서 급여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있고,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 남편과는 이혼했고, 자녀는 ADHD 증상들을 보이고 있어서 다루기가 어려우며, 일상생활은 도우미가 와서 봐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복감을 느끼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가족의 맥락은 해당 아동의 일상생활 패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례4 가구의 아동은 집에서 11시간, 학교에서 7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TV 시청을 여가로 보내고 있다. 이 아동이 앞의 사례들과 다른 점은 저소득계층 아동들을 위한 위스타트 사업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사례4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조건들을 갖고 있지만, 그러한 조건들을 극복하기 위한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5] 사례4 아동(초등 고학년-수급가구)의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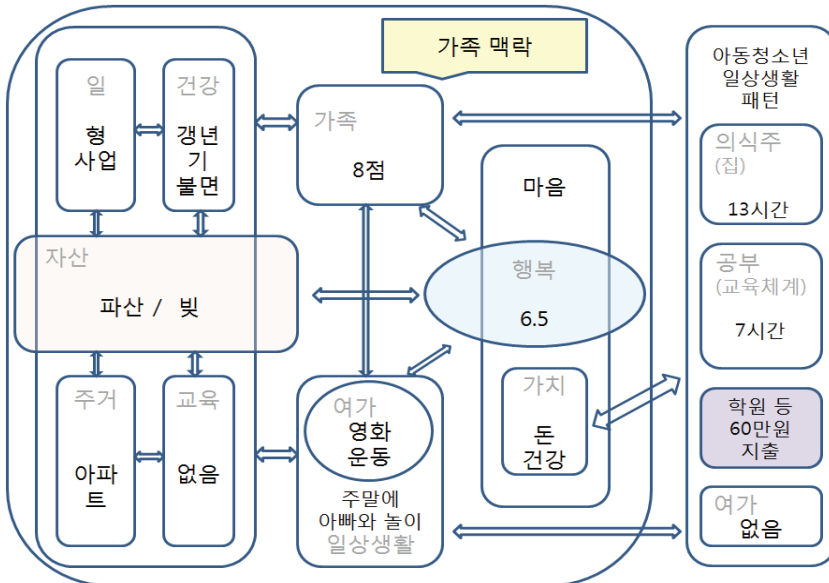
마. 사례5의 일상생활 맥락

사례5의 행복 점수는 6.5점이다. 사례5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과 건강인 것으로 보인다. 가족의 맥락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자산 영역에서 이전의 파산 경험과 현재의 빚이 가정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갹년기에 접어들면서 몸이 아프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파산에도 불구하고 수급 상태로 전환되지 않은 것은 남편이 형의 사업체에서 일하면서 일정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5는 행복 점수가 6.5점인데 비해 가족에 대한 만족도는 8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남편과 관계도 좋은 편이며 자녀들도 특별히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 주말에는 남편과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여가라고는 가끔 영화를 보러 가는 것 외에는 딱히 없다.

중학교 1학년생이 된 사례5의 자녀는 집에서 13시간, 학교에서 7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남은 시간에 학원을 다니고 있다. 그리고 학원에 매달 6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이 정도 규모의 지출은 수급가구와 확연히 구별되는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6] 사례5 청소년(중1-일반가구)의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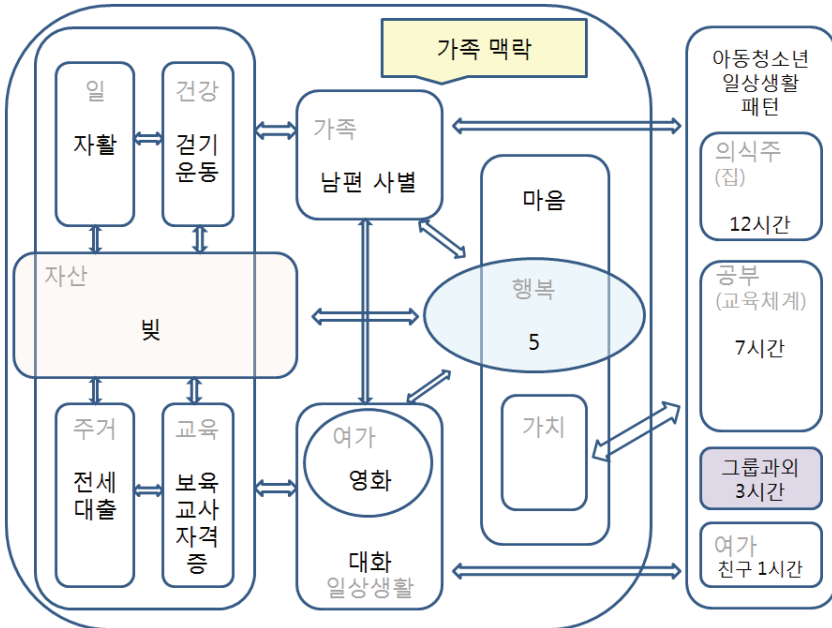


바. 사례6의 일상생활 맥락

사례6의 행복 점수는 5점이다. 이 점수를 주게 된 주요 조건은 돈이었다. 남편과 사별한 후로 자활 근로를 하고 있지만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전세 대출로 생긴 빚은 갚아갈 엄두도 못 낸다. 그나마 몸과 마음은 건강한 편이어서 다행이다. 자활 근로 외에 다른 일을 하기 위해 보육교사 자격증도 따두었다. 중학교 1학년생인 자녀와 보내는 여가 시간은 가끔 영화를 보는 정도며, 일상생활에서는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

청소년 자녀의 일상생활 패턴을 보면, 집에서 12시간, 학교에서 7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방과후에는 친구와 1시간 정도를 보내고 있다. 나머지 시간에는 그룹과외를 3시간 정도 받고 있다.

[그림 5-7] 사례6 청소년(중1-수급가구)의 맥락



같은 중학교 1학년생인 사례5와 비교하면, 그룹과의 이 청소년의 한 부모가 주어진 예산 안에서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었을 것이다. 일반가구인 사례5가 학원비 등으로 6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보면 이러한 전략의 차이는 분명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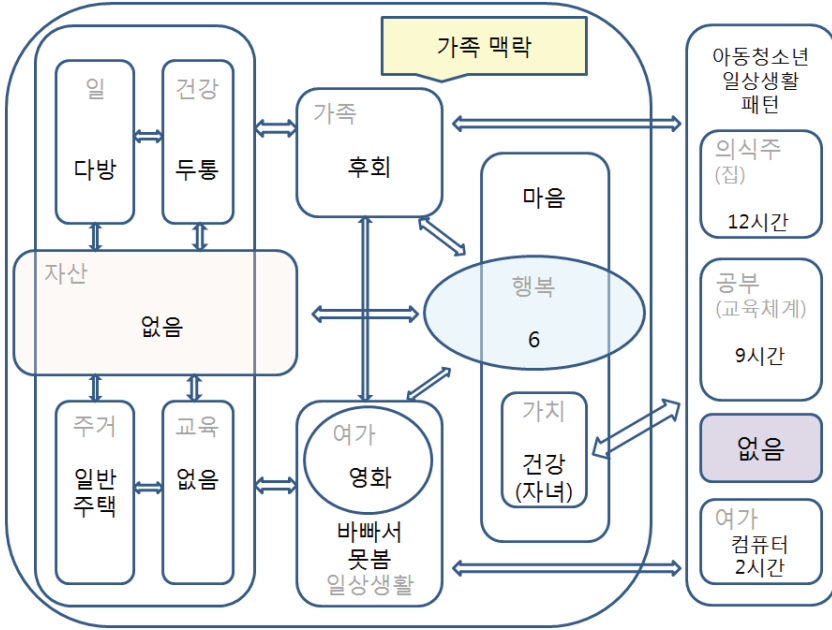
사. 사례7의 일상생활 맥락

일반-모자 가구인 사례7의 행복 점수는 6점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건강’과 ‘자녀’였다. 가족 맥락을 살펴보면 이러한 가치가 제시된 배경을 알 수 있다. 오래된 두통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후회’한다고 표현할 만큼 가족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한부모로서 생계를 유지해가는 입장에서 남편의 빈자리와 자녀의 중요성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사례7은 일반주택에서 살고 있고, 가구주인 여성은 다방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 일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자녀를 더 보기가 어렵고, 가끔 영화를 보는 것으로 여가를 보내고 있다.

중학교 3학년생인 사례7의 청소년은 집에서 12시간, 학교에서 9시간을 보내고 있다. 학교가 끝난 뒤 학원이나 다른 장소에서 하는 활동은 없는 반면에, 컴퓨터와 게임 등으로 2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례7의 한부모가 돈에 가치를 두지 않고 수급가구에 비해 생계가 어렵지 않은데도 자녀가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은 ‘일’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꽤 오래 있다가 늦게 돌아오기도 하지만 자신도 긴 시간 동안 바쁘게 일하기 때문에 자녀를 돌보거나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림 5-8] 사례7 청소년(중3-일반가구)의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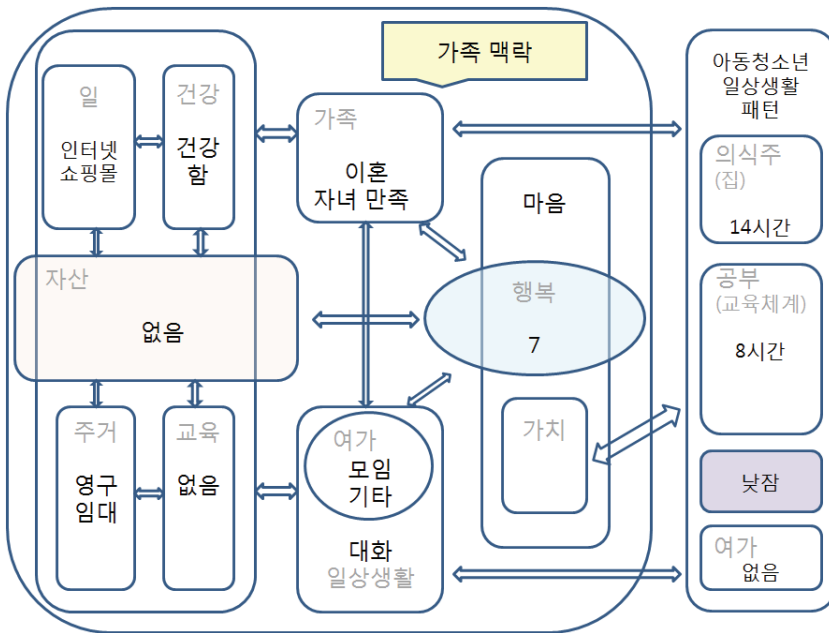
아. 사례8의 일상생활 맥락

사례8의 행복 점수는 7점이다. 앞서 제시된 사례7과 같이 중학교 3학년생 자녀가 있는 사례8은 남편과 이혼한 뒤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고 재산이 없어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조건이 더 나아 보이는 사례7보다 주관적인 행복 수준은 더 높다. 여기에는 친자매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조금은 더 자유롭게 재미를 느끼면서 일할 수 있다는 점, 건강한 몸, 그리고 싱글들의 친목모임 등에서 느끼는 좋은 감정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중3인 자녀와 공유하는 일상생활은 ‘대화’ 정도로 단조로운 편이다.

이 사례 가구의 청소년은 집에서 14시간, 학교에서 8시간을 보내고 있

다. 여가로 분류할만한 시간은 따로 없다. 그 대신 특이한 것은 매일 집에 와서 낮잠을 2시간씩 잔다는 것이다. 3~4년 전부터 시작된 패턴이 중학교 3학년생이 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독특한 패턴이기는 하지만 이 사례의 한부모 여성이 대체로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고, 인터넷 쇼핑물 일로 분주하며, 조건부수급자로서 생계비 외에 지출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굳이 자녀를 통제하거나 개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5-9] 사례8 청소년(중3-수급가구)의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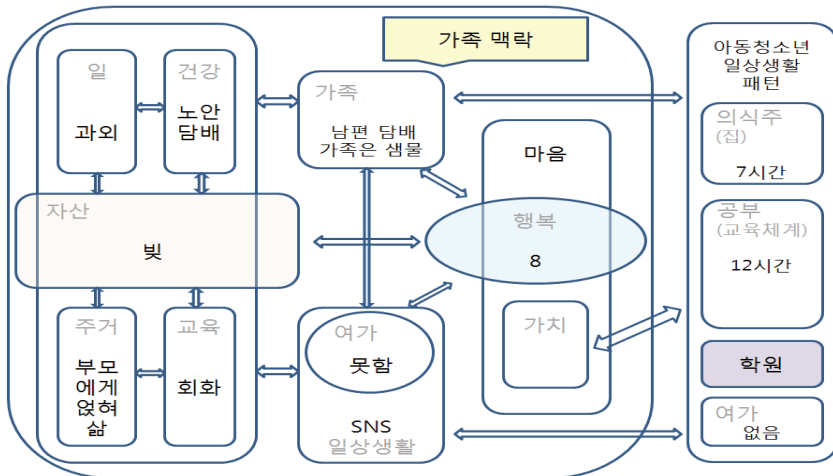


자. 사례9의 일상생활 맥락

사례9의 행복 점수는 8점이다. 이 점수를 준 이유에 대해서 사례9의 한 부모 여성은 흡연 때문에 점수를 깎은 것이라고 했다. 과외를 해서 돈을 벌고 있으며, 스스로 회화 공부를 할만큼 여유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빚을 떠안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부모에게 얹혀 살고 있다. 가족은 샘플 같은 존재라고 했다. 여가는 따로 보낼만한 여유가 없으며, 자녀와는 SNS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교류를 많이 하는 편이다.

사례9 일반 모자가구의 청소년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인데, 집에서 7시간, 학교에서 12시간을 보내며 여가시간은 없다. 나머지 시간은 학원에서 보내고 있다. 학교에서 이미 하루 일과의 절반 정도를 보내는 셈이지만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학업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가족의 맥락이 청소년의 일상생활 패턴에 영향을 미칠 여지도 크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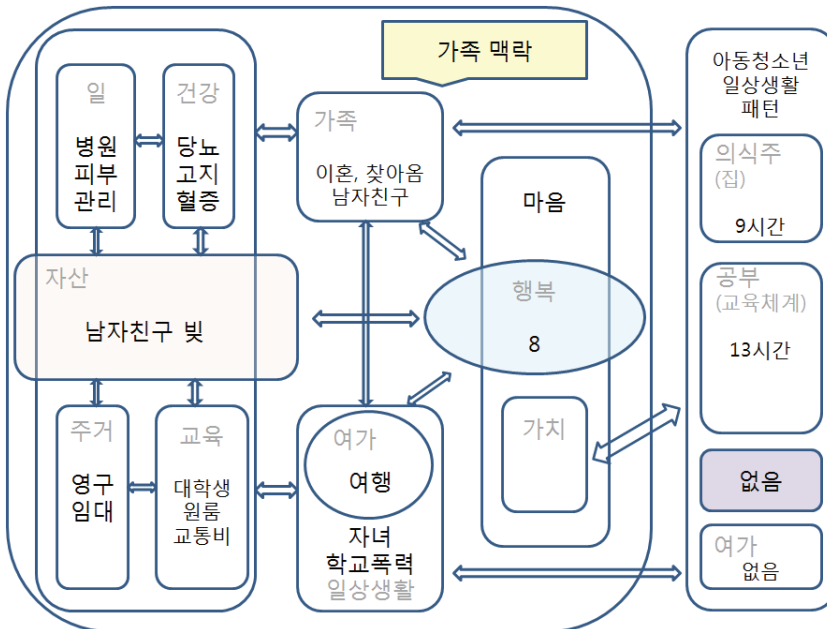
[그림 5-10] 사례9 청소년(고2-일반가구)의 맥락



차. 사례10의 일상생활 맥락

사례10의 행복 점수는 8점이었다.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나 이 점수를 부여한 조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8점이라면 비교적 높은 점수인데, 객관적인 상태나 조건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점수를 주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혼한 남편이 가끔 찾아와서 불편하게 하고, 어쨌든 수급자로서 어려운 형편인데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당뇨와 고지혈증으로 건강도 좋지 못하고, 자녀는 학교폭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례10의 한부모 여성이 이런 점수를 부여한 것은 남편과 아빠의 역할을 채워주고 있는 남자친구와의 일상과 괜찮은 일자리(병원에서 피부관리)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11] 사례10 청소년(고3-수급가구)의 맥락



사례10이 속한 수급 모자가구의 청소년은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서 집에서 9시간, 학교에서 13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여가 시간은 따로 없고, 특별하게 활동하는 시간도 없다. 하루 일과의 절반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학원에 갈 여지도 없는 것이다.

고등학교 2학년생인 사례9의 청소년과 비교해 보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에서는 차이가 작지만 사례10의 경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다. 고등학교 3학년은 입시를 코앞에 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과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사례10의 경우 재정적인 형편 때문에 학원에 보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녀가 학교폭력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학교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것은 이를 해결할만한 자원이나 전략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제3절 소결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패턴과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에 참여하는 가구들 중에서 아동과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구들을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일과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일상생활에 대한 패턴 분석과 맥락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연구결과는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패턴과 일상생활 맥락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패턴을 분석하였는데, 먼저 부모인 연구참여자들이 작성한 일과표를 토대로 아동·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보내는 활동들의 비중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연

구참여자들이 면접에서 진술한 자녀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경험들을 분석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시간사용은 먼저 학령단계에 따라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하고, 각 단계 안에서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아동·청소년 자녀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경험은 크게 아동(초등학생)과 청소년(중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초등학교 자녀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경험은 일상생활 패턴과 요즘 고민과 해결방법, (자녀의)강점, 다양한 생활영역에 대한 생각, 예외 상황, 부모의 기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들의 경험은 일상생활 패턴, 요즘 고민과 해결방법, 강점, 생활영역에 대한 생각, 부모의 기대 등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아동·청소년들의 일상생활 맥락을 분석하였다. 일상생활 맥락은 공간 차원에서 아동·청소년들과 사회환경체계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맥락 구조를 말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각 연구참여 가구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모두 분석하였고, 각 가족의 맥락 구조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가구의 맥락과 수급가구의 맥락을 비교하였다. 또한 이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초등학교생인 아동과 중고등학생인 청소년들을 자녀로 둔 사례들을 각각 추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에서 드러난 이슈들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생활 패턴에서는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 사이의 미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례 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가구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저소득가구의 아동과 청소년들보다 공부에 투입하는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가구 아동·청소년들의 부모들은 저소득가구 아동·청소년

년들의 부모들보다 자녀들이 학업수행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일상생활의 맥락으로 범위를 넓혀서 보면, 이러한 패턴의 차이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정자원과 돌봄 활동, 가치관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재정자원은 넉넉하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대신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재정자원은 부족하지만 자신의 가난한 삶을 한탄하며 자녀들만이라도 부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더 많은 시간 동안 공부하고 더 많은 경험들을 쌓을 수 있도록 필요한 다른 자원들을 찾고 끌어들이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기보다는 아동기에서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차이가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생이 되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매우 길어지고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두 집단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초등학생들의 경우 학교 수업 시간 이외에 각자가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길고, 각 가구의 자원과 가치관, 고용상태 등에 따라 할 수 있는 활동의 폭이 달라진다. 그럼에도 현재의 교육복지체계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러한 차이를 메우기 위한 서비스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반가구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원 수업이나 과외, 레슨을 받는 대신, 저소득가구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지역아동센터나 위스타트 사업 등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교육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활동의 차이 자체는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적인 문제는 그러한 교육서비스들의 ‘질’적 차이에서 비롯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이러한 질적 차이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점이 될 것이다.

넷째,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저소득가구들 중에서도 이러한 교육복지서비스를 활용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떤 수급-모자 가구는 방과후 수업 이후에 자녀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지내다가 집에 돌아와 혼자 있는 시간을 허용하는 반면, 어떤 가구는 돌보미 서비스를 활용해 어떻게든 자녀가 혼자 있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역사회에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상당히 많은 서비스와 자원이 존재한다고 보면, 각 아동과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는 단순히 부모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각 부모들이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들을 알고 자신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제6장 저소득 가정의 자녀양육 현상에 관한 연구

제1절 서론

제2절 관련 문헌 검토

제3절 연구결과

제4절 결론

6

저소득 가정의 자녀양육 << 현상에 관한 연구¹²⁾

제1절 서론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때 적용되는 이론(접근)은 인적자본투자모델과 가족과정모델이다. 전자는 부모의 아동에 대한 투자 정도가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빈곤 가정의 경우, 교육, 여가, 건강, 정서, 주택 등의 여러 부분에 있어 아동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 결과 아동이 불리한 발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가족과정모델의 경우에는 빈곤 가정이 다른 가정에 비해 가족 내 갈등 및 스트레스 수준이 높는데 이것이 아동발달에 부정적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이론적 접근을 활용한 실증적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 부모 역할에 대한 보완적 지원과 때로는 부모 역할을 대체하는 형태의 사회적 보호를 제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Ramey, Dorval & Baker-Ward(1983)의 연구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정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54명의 영아 가운데 무작위로 27명을 선발하여 보육시설에 보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정보육만을 경험하도록 한 결과, 시설보육경험 아동이 가정보육 아동에 비해 발달이나 지능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것은 보육시설이 빈곤가정 아동의 부모 역할을 보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12) 정선옥(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들어 영유아 조기투자의 확대로 아동빈곤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빈곤이 야기하는 문제를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여러 나라에서 head start(미국), sure start(영국), best start(호주), 우리나라에서 드림스타트를 실시하는 것도 같은 맥락, 빈곤 가정에서 아동들을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물론, 빈곤 가정은 여러 가지로 아동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을 야기한다. 우선, 의식주에 소요되는 필수적 생활비 압박으로 영영결핍이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열악한 물리적 환경으로 인한 사고 및 질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빈곤가족부모는 일반가족 부모에 비해 영유아기 아동에게 새로운 인지적 자극이나 탐색적 활동촉진 및 주도적 학습동기강화가 약하며(김정미·곽금주, 2007), 영유아기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자극환경에 처한 아동은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게 된다(김효진, 2008; 김광혁·차유림, 2007). 특히 학령기에는 학부모가 제공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학업성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Mayer, 1997)이라는 점에서 볼 때, 빈곤은 아동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아주 극단적으로 빈곤 가정에서 아동을 자라도록 하는 것은 위험한가? 어떻게 도와야하는가? 부모에게 올바른 양육방법을 알려주는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부모가 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덜어주면 가능한 것인가? 최근 부모 교육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이혼가정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위해 부모 교육을 의무화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도 있다. 또한 2011년 아동학대 신고가 1만 건을 넘어서고 부모에 의한 학대가 83.2%를 차지한다고 발표되면서 정부와 국회는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교육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육아 스트레스와 미숙한 양육능력에 따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 등 보호자 교육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연합뉴스, 2012년 11월 19일).

이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빈곤 가정에서는 아동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빈곤 가정의 자녀 양육 현상은 무엇인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통해 빈곤 가정의 자녀 양육 현상을 편견 없이 이해하고 자녀 양육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2절 관련 문헌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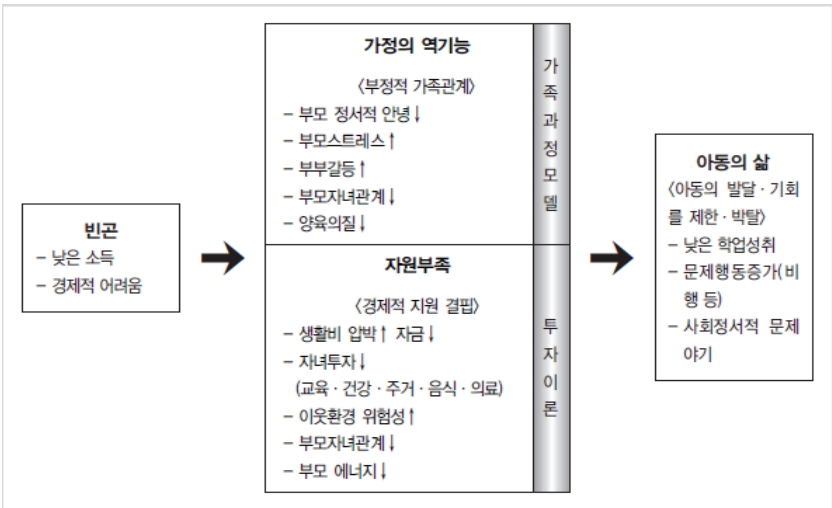
1.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본투자이론이 낮은 소득과 그것으로 인한 아동이 가용할 자원이 부족을 강조하고 있다면, 가족과정모델에서는 가정의 역기능과 주양육자의 양육태도를 주요 경로변수로 지적한다(김효진, 2008). 이 두 가지 모델을 중심으로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경로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6-1]과 같다. 이러한 모델이 빈곤상황에 처한 아동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원조방법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빈곤상황이라도 부정적 발달 산물을 보이지 않는 아동도 있다. 소위, 레질리언트한 아동의 경우에는 빈곤상황이 다른 결과를 야기한다. 레질리언스는 흔히 적응유연성으로 번역되며, 적응유연성은 고위험 상황이나 심각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유능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빈곤아동의 적응유연성의 경우 빈곤이 바로 심각한 위험상황이다. 김순규(2010)는 다양한 연구로부터 빈곤이라는 위험상황에서 아동 및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호 요인들을 찾아내었다. 보호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 <표 6-1>과 같다.

〈표 6-1〉 빈곤아동·청소년의 적응유연성 및 발달과 관련된 보호요인

분류	보호요인
개인관련요인	책임감, 계획성, 높은 자존감, 자기효능감, 자율성, 좋은 대인관계기술
가족관련요인	민주적 양육태도, 경제적 자원,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자녀교육 관여, 부모의 교육적 열망 및 기대
학교 및 지역사회 요인	민주적 학교 분위기, 교과수업 외 활동참여, 지지적인 교사, 사회적 지지

〔그림 6-1〕 아동빈곤의 영향경로



자료: 김효진(2008).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저소득가정의 양육현상이라는 것은 주로 〈표 6-1〉의 가족 관련 요인과 관련되지만, [그림 6-1]에서와 같이, 자원부족과 가정의 역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표 6-1〉과 [그림 6-1]을 따를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다양한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이 그려지면서 어떤 결과들이 예견된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 가정의 자녀양육의 모습이

드러나기 보다는 특정 변수로 환원된 혹은 익숙한 개별 변인(분절적인 변인)들 간의 작용만 남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양육현상 그 자체에 주목하고자 한다. 현상이란 반성, 성찰, 분석, 개념, 범주 이전에 이미 ‘있는 그대로’의 것이라는 정의를 따르는데(조용환, 2010), 현상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정의할 때, 양육현상은 저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어떠한 기존의 개념이나 해석을 내려놓은 상태의 ‘있는 그대로’의 양육을 뜻한다. 즉, 저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양육현상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2. 소득과 자녀 양육간의 관계

전국 단위로 이루어진 아동청소년통합실태조사(2009)에서는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1) 현재 자녀를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2) 앞으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3) 부모가 희망하는 교육수준, 3) 희망하는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실제로 교육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준 등을 질문하였다. 현재 자녀를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또한 앞으로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물음에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부모들은 그런 편이라고 대답하였는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도 잘 키울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부모가 희망하는 교육수준을 알아본 결과, 부모들은 상당수가 자녀가 대학교 이상을 졸업하기를 희망하였는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희망하는 자녀의 교육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양육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빈곤과 아동발달에 관한 양적 연구를 살펴보면, 빈곤이 인지발달 및 사회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다.

우선, 빈곤이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아동 및 청소년의 여러 발달 영역 가운데 인지발달이나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김광혁, 2010). 그런데 가구소득이 학업성취도 미치는 영향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그리고 아동의 발달 시기에 따라 다르다. 즉, 우리의 상식과 달리 소득의 영향은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영향보다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이 보다 강하다는 점이다(김광혁, 2010). 이것은 아동의 학업성취도를 설명하는데 가구소득이 중요한데, 가구소득의 영향력이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빈곤층이나 저소득층 아동의 학업성취도를 설명하는데 가구소득이 다른 계층에 비해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아동의 발달시기에 따라 소득수준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혁(2010) 연구에서 초등5학년, 중1학년, 중3학년에서 가구소득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초등5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가구소득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세한 수준으로 크지만,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것은 가구빈곤이나 경제적 결핍의 영향이 어린시기에 더 클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발달시기와 무관하게 소득수준이 학업성취도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소득수준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여러 선행연구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되는 것과 달리, 빈곤이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학업성취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은희 외, 2013). 왜 그럴까? 한 가지 설명은 소득수준이 학업성취도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변수에서 찾을 수 있다. 김광혁(2010)에 의하면,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정서적 발달의 경우, 학업성취도

에 비해 가족 관계 변수가 주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반면, 학업성취도에는 교육적 투자나 가정 내외의 물리적 환경 변수가 주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를 적용하면, 소위 “물질적 결핍≠관계, 보호, 애정 결핍”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결국 소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빈곤, 저소득 가정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3. 저소득 가정의 자녀양육 현상

그런데 과연 저소득 가정에서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양적 연구의 결과들이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몇 편의 질적 연구(김은정·진미정, 2007; 손승영, 2009; 김효정, 2010, 박상은 역, 2012)들이 있다.

소규모 식당노동 여성종사자를 대상으로 노동의 의미를 고찰한 연구(김효정, 2010)에 의하면, 고된 식당노동과 함께 가사노동, 자녀양육에서 자유롭지 않는 기혼여성이 삶을 드러내었고 특히 자녀와의 긴장관계를 다루는 방식에 관해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하였다. 김효정(2010)에 의하면 식당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가사노동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 가사노동 수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집안을 항상 깔끔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리된 집안 살림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조금 흐트러진 채로 살아가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가족구성원을 개별 주체로 인식함으로써 개별적인 소비의 욕구, 시간의 부족, 체력의 비축 등 자신의 다양한 욕구와 타협하면서 가족생활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들을 개별주체로 바라보는 여성들의 인식은 배우자와 자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남편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인 삶을 강조하였다. 자녀들과의 ‘개별성’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자녀는 부부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이자 가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기능한다(김효정, 2010). 남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각자의 개별적인 삶의 경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이러한 배우자에 대한 기대 없음은 여성들에게 가족과 노동의 의미를 부부가 아닌 자녀를 중심으로 인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결국 기혼여성의 삶에서 자녀는 삶의 이유이며 희망의 원천이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자녀가 기혼여성의 기대와 다른 삶을 살거나 사회의 구성원으로 제대로 된 몫을 하지 못할 때, 자녀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식당노동을 지속해 온 여성들은 더 이상 자녀를 중심으로 자신이 수행하는 노동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철회하는 것은 힘겨운 현실을 버텨온 자신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기에, 기혼 여성은 자녀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착하다’는 표현하면서 현재적인 자녀의 모습에 만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자녀들을 ‘착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기대를 배반하는 자녀로 인해 받게 될 충격을 사전에 완화하면서 식당노동을 통해 자녀를 양육해 온 자신의 어머니 노릇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김효정, 2010).

식당노동에 참여하는 기혼여성들의 ‘자녀중심성’은 배우자에 대한 기대 없음과 자녀에 대한 ‘기대’, ‘착한 자녀’의 경계에서 협상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열을 중심으로 하는 ‘자녀중심성’과 차이를 갖는다(김효정, 2010). 또한 이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열심히 사는 현재’로 대체하면서 자녀들을 ‘삔뚫어지지 않게 키웠다는 점’, ‘착하게 키웠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형성하고 있다(김효정, 2010).

손승영(2009)의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일상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영향력, 자녀와의 관계를 소상하게 파악하였다. 부모의 계층을 고려하여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한 결과, 학부모들이 자녀로부터 가장 바라는 것인 대부분 공부에 대한 기대로 나타났다. 저학년 때에는 생활습관이나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부모들에게도 자녀의 학년이 높아지게 되면 대학입시를 목표로 한 학업성취가 최대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또한 자녀가 부모의 바람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공부를 기준으로 자녀를 평가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즉,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경우에는 평가가 매우 좋았고 부모로서의 자긍심이 대화 도중에 자주 배어나왔다(손승영, 2009).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계층에 따른 자녀에 대한 기대, 자녀에 대한 평가 등이 드러나지 않고 ‘대부분’의 부모라는 표현 속에 저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 현상이 간과된 측면이 있다.

한편, 미국 한부모 어머니들의 삶을 분석한 김은정·진미정 역(2007)에서는 한부모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삶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들의 경제적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들에게 ‘좋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좋은 어머니’의 모습과 다를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즉, 미국 한부모 어머니에게 ‘좋은 어머니’는 최소한 그들의 자녀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있도록-위험한 거리로부터, 약물이나 갱으로부터, 임신으로부터, 퇴학당하는 것으로부터-해준다는 것이다. 저임금 노동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해야만 하는 어머니들에게 이것은 매우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일 수 있다(김은정 외 역, 2007). 또한 이들이 생각하는 ‘좋은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외식을 하고 유선방송 TV를 보여주고 비디오를 빌려주고 패스트푸드점에 데리고 가고개학 첫날 입을 새 옷을 차주거나 혹은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를

사주는 사람이다(김은정 외 역, 2007). “왜 필수품을 구매하지 않고 보다 합리적으로 소비하지 않는가?”는 우리의 물음일 뿐이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 결국, 우리가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삶을 우리의 방식이 아닌 그들의 ‘있는 그대로’의 방식으로 고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박상은 역(2012)에는 사회적 계층이 일상생활의 구성, 언어 사용, 가족과 기관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어린아이의 삶과 가족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미국의 중산층 아이와 노동자 계층 및 빈곤층 아이 등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제3절 연구결과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연구 3차년도(2013년)자료를 활용하였다. 면접 가구 중에서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있고 과거에 수급대상이었거나 현재 수급을 받고 있는 18가구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개방코딩 수준에서 녹취록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자료를 개념화하고 유사한 개념을 범주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 어떤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가?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라는 대답이 아닌, ‘사람됨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 ‘거짓말하지 않기’, ‘남을 배려하는 아이’, ‘마음이 부자인 사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도움이 되는 사람’ 등의 답변이 많았다. ‘좋은 대학 진학’, ‘돈 많이 벌었으면’, ‘비 안 새는 집에서 승용차 한 대 있었으면’, ‘전문직을 가졌으면’ 등과 같은 보다 현실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자녀가 기대만큼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공부를 뒷받침할만한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타협으로 ‘바른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어찌되었든, 저소득 가정의 부모(부 혹은 모)는 자녀의 바른 심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원: 예를 들어 딸이 성장을 하잖아요. 딸은 사회에서 어떤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라세요

응답자: 내 핸드폰에서 해 놓았지만 제일 필요한 아이가 되길 바라요.

조사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답자: **그냥 사회에서 제일 필요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인관계도 넓고 사회에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더불어 살아야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물론 남들처럼 공부 잘해서 의사 판사 되라고 그러고도 싶지만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회구성원에서 융합해서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지가 커갈 수 는 없거든요. 같이 더불어서 커가는 것이 지 올라가는 것이지, 혼자만 우뚝 섰다고 해서 저는 그게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모자 한부모, 조건부수급)

2. 바라는 대로 키우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녀를 바라는 대로 키우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물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이의 재능을 키워주지 못하는 것, 그리고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과 미안함, 안쓰러움을

표현하면서도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사 줄 수 없으니까, 집에서 다양한 음식을 준비해준다는가, 학원에 보낼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주도학습을 시키기 위해 엄마가 자기주도학습과 관련된 교육을 받으러 다닌다는가, 공부 습관을 잡아주기 위해 노력한다는가,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한다고 생각한다는가, 본을 보이기 위해 부모도 공부를 한다는가, 양육과 관련된 지식을 얻기 위해 부모 교육 TV 프로그램을 챙겨본다는가 혹은 퇴근 후에 집에 일찍 귀가하여 돌아올 아이를 기다리며 맞이한다는가 하는 등의 양육 행동이 발견되었다. 부모들은 나름의 여건 속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너무 고되고 힘이 들면 의지가 약해지는 법이다. 결국 사회나 국가가 co-parenting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조사원: 그러면 계속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양육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응답자: 부모의 경제력이요? (네).. 아직까지는 난 그거를 못 느꼈는데 이제 주위에 조금 고학년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영어나 뭐 친구들.. 학원 보내고 어떻게 하고 하는데 가고 싶어 하는데도 못 보내는 경우도 있나 봐요. 학원비도 20만원씩이고 그러니까 그런 학원도 보내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막 우리에도 조금 커가면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불안해요. 수입이 없으니까 불안하긴 해요. 근데 이제 뭐 닥치면 닥치는 대로 자기주도 학습 특장을 들어서 가서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다 학원은 아무데도 안 다녔더라고 그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애들이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게 자기 자신이 알아서 계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애를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죠. 그러면 돈 하고 관련이 없을 거 같아요. 근

데 이제 그저 말고는 들어갈 일이 없죠(모자 한부모, 수급).

조사원: 아이가 이렇게 클 때까지 어머니가 하셨던 행동이나 말, 이런 것 중에 ‘내가 이런 건 진짜 잘했다.’ 이런 건 없으세요?

응답자1: 그래요. 그것은 내가 인제...(조금 생각하다가) 어쨌든 내가 항상 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 다른 엄마들은, 보면은 인자 물론, 가끔 모임 있으면... 밖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지만 거의 그런 것은 없었고. 항상 제시간에 재를 항상 기다리고... 퇴근하고는 항상 기다렸죠. 제가 바라는 것은 밖에 나가면 항상 엄마가... 다른 엄마들은 집에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못해줬지만... 퇴근하고 나서는 허튼짓 않고 항상 집에서 애기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 내 저기, 내 즐거움은 많이 버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자신 있어요(모자 한 부모, 조건부 수급).

특히 이혼으로 한부모 모자가정이 된 경우, 배우자로서 아이 아빠가 밟고 원망스럽지만 자녀에게 아빠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기 위해, 그리고 아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빠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많이 드러났다. 또한 혼자서 키워서 그렇다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 더 엄격하게 키우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도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조사원: 제가 다른 곳에 가보니까 아이가 아빠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 구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시고... 혹시 OO 같은 경우는 어떤지...

응답자: 여기 동네 특성 상 보면... 애들이 대 부분 아빠 아니면 엄마... 이렇게 있는 애들이 거의 50%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생활화 될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 저 학년 때 어떤 아이가 어떤 남자아이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는 여자를 되게 싫어한대요. 엄마, 여자를 다 죽여 버리고 싶다고 한대... 이러는 거야. 왜 그럴까 싶었는데 그게 아빠의 영향력이었던 거예요. 아빠가 자기... 집 나간 와이프인지, 도망 간 와이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혼한 사 이인지 모르겠지만... 죽일 년이라고... 죽여 버리고 싶다는 증오 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아이가 보고 자란 거죠. 그 아이는 그런 걸 보고 컸기 때문에... 그런 성품을 갖게 되었는데... (중략) **아이 하고 어렸을 때부터 아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질 않았어요. 말을 하질 않았죠** (모자 한부모, 조건부 수급).

3.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자녀를 키우면서의 어려움은 키우면서 후회되는 점이 무엇인가를 통해 알아보았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껏, 그리고 제대로 뒷바라지를 해주지 못하는 것, 배움이 짧아 공부를 잡아주지 못하는 점, 말 안들을 때 감정적으로 대하고 화풀이했던 것, 몸이 힘들어서 제대로 놀아주지 못한 것, 일과 가정일이 너무 바빠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등으로 나타났고 이혼으로 모자 한부모 가족이 된 경우에는 남편을 잘못 선택한 것, 아이한테 잘 해주지 못해 아바한테 보내면 어떠했을까 생각하는 것 등을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저소득 가정의 양육 지원을 위해서 국가에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가정을 위한 진정한 일-가정 양립 가능한 일자리의 제공, 지속적이고 개별화된 학습지원,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는 부모 교육, 부모의 숨통을 틔워주는 서비스(예를 들어, 부모

휴식서비스, 가사 도우미 파견 서비스 등)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조사원: 아이를 키우고 처음 세상 밖에 나와서 사는 엄마들에게 자립이나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씩씩하게 살려면 최소한 어떤 어떤 것은 생각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응답자: 글썄요. 제가 생각해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처음부터 식당이나 몸을 많이 지치게 쓰는 일을 했다면 지금처럼 편하게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별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무조건 몸만 쓰는 식당이나 이삿집이나 마구잡이로 들어가서 몸 혹사하면서 일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중략) 처음에 그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7~8시간 일해야 한다면 5시간 정도만 힘들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를 위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중략) **고되면하려고하는 의지도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모자 한부모, 수급)

제4절 결론

이상의 연구 결과로부터, 저소득층 자녀 양육은 “자녀의 ‘사람됨’을 강조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음”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선 자녀 양육에서 ‘사람됨’을 강조하는 것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사람됨’의 강조를 우리가 여성을 다른 남성에게 소개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성격 좋은 사람’과 대비시켜 이해할 수 있다. 여성을 소개할 때 ‘성격이 좋다’고 하면 이 이야기를 들은 남성은 ‘예쁘지 않은 여성’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소개하는 사람도 ‘예쁘지는 않지만 성격만은 최고’라는 맥락을 깔고서 ‘성격 좋다’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와 비교할 때, 저소득층 부모들이 자녀의 사람됨을 강조하는 것이 진정으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중시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자녀들에 대해 특별히 내세울 것(예를 들어, 공부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하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것(‘사람됨’)으로 합리화, 자기 위안을 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저소득층 자녀 양육에서 두드러진 또 다른 현상은 ‘고군분투함’이다. 부족한 돈, 짧은 배움, 양육방법을 모름, 건강하지 않은 몸과 마음, 늦게까지 일을 해서 시간이 없음 등등으로 저소득층 부모가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이들은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 돈이 넉넉하지 않으니 돈을 적게 들이고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매체를 통해 양육방법을 배우고 퇴근 시간을 아이 귀가 시간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는 등의 모습이 발견되었다. 참으로 고군분투, 악전고투하고 있는 셈이다. 빈곤, 저소득 가정에서 자녀는 어떤 존재인가? 한 연구에 의하면 자녀돌봄은 위기가정으로 하여금 가족레질리언스를 생성하는 원인이기도 하면서,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김승권 외, 2012). 이것은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충분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자녀양육은 가족이 위기상황을 헤쳐갈 수 있는 동력으로 작동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즉 저소득층 부모의 부담이 견딜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경우, 어떻게든 버텨왔던 자녀 양육의 방식들이 무너질 수 있으며 가족의 위기가 가중될 위험 또한 존재한다. 그러기에 우리 사회와 국가가 아이를 공동 양육한다는 생각에서 부담을 덜어주고 지지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양육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차원의 노력과는 별개로 부모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제7장 장애인(가구)의 장애 및 질병 발생으로 인한 영향과 대처 경험 연구

제1절 서론

제2절 분석결과

제3절 소결

7

장애인(가구)의 장애 및 << 질병 발생으로 인한 영향과 대처 경험 연구¹³⁾

제1절 서론

본 연구는 장애인(가구)의 장애 및 질병 발생으로 인한 영향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 또는 가구원들의 대처 경험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특히 장애발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생애주기에 따라 살펴봄으로써 장애의 영향에 대한 시간적 맥락과 내용을 파악하는 수직적 분석과 장애가 당사자를 포함한 가구(가구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수평적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한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직장(일)을 그만 둔 이유가 ‘장애로 인해서(장애상태 악화)’가 4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 때문이 15.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장애 악화 및 새로운 질병이나 사고 발생률은 매우 높은 편이며, 이는 장애인(가구)의 소득활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빈곤이나 수급상태로의 경제적 계층 하락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장애 관련 사건 발생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리, 정서적 위축과 사회활동의 축소를 동반시키고, 생애주기별 변화를 일으키며, 장애인 당사자와 가구원들의 삶의 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한다.

기존의 많은 장애연구는 장애의 영향을 단면적으로 살펴보는 경향이 있고, 장애등록이 될 만큼의 장애는 아니지만, 급성이나 만성 질환으로

13) 이은미(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해 환자 당사자나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삶의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특히 이미 장애를 가진 가구원이 또 다른 급성이나 만성 질환을 가지게 될 때 이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나 가족관계에서의 영향에 대한 복합적인 연구가 부족했다.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본 질적패널연구의 장점과 특성 상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영향과 대처 경험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 또는 질병 관련 주요 사건의 영향과 대처 경험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빈곤, 장애, 질병의 영향과 대처 양식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장애인구의 고령화 또는 노인인구의 장애발생률 증가로 인한 장애인(가구)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바 향후 노후대책에 대한 질문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노인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실천방안 마련에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내용으로는 1) 장애인(가구)의 장애 및 질병 발생의 영향과 대처 경험, 2) 장애관련 생애주기별 사건(교육, 직업, 사회생활, 결혼, 가족관계 등의 영역별 탐색)과 그 의미와 영향, 3) 복지혜택 수급 여부와 이용 경험, 4) 장애인과의 교류, 5) 노후대책 및 준비 경험, 6) 장애의 의미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1:1 심층면접법을 활용하였는데 2013년 3차 조사에 참여한 60가구 중 총 26가구가 장애 또는 질병의 영향과 대처 경험에 대해 의미있는 답변을 해주었다. 이 26가구는 장애 등록 또는 비등록자가 모두 포함된 수이다. 또한 장애인으로 등록했고, 위의 질문에 응답했더라도 의미있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던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금번 조사에서는 지난 1, 2차 조사보다 장애유형이 다양했고(지체, 뇌병변, 지적, 시각, 청각, 내부장애, 정신장애 등), 장애인의 연령대가 10대에서 70

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다. 경증보다는 중증장애인의 비율을 높이고, 비등록장애인이라도 질병의 영향을 많이 받아 기능상 장애를 겪고 있는 다수의 참여자도 분석에 포함한 것이 금번 조사의 특징이라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단편적으로 연구되어 왔던 장애인(가구)의 장애 발생 영향이나 장애관련 경험 분석을 넘어 장애나 주요 질병발생이 생애 주기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쳐왔고, 이에 대처하는 장애인 당사자나 가구원의 대처 경험이 어떠한지 심층적인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 자세하게는 장애와 질병, 이의 영향과 대처방식이 장애인 당사자와 가구원의 삶에 심리, 사회, 경제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는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과제는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3차년도 질문에 포함된 고령장애인 또는 노년기 진입 장애인의 노후대책 및 준비 경험에 대해서도 탐색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분석결과

1. 장애 또는 주요 질병 발생이 당사자 및 가구원에게 미친 영향과 대처 경험

본 연구에 참여한 장애를 가진 대부분의 가구주나 가구원들은 장애나 주요 질병발생으로 인해 개인적 차원에서는 정신건강의 문제, 가족관계의 단절이나 가족기능 및 역할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직장을 잃게 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의 범위가 매우 축소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정신건강의 문제

장애발생 및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건강의 악화는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정신건강의 문제도 동시에 경험하게 하고 있었다. 우울감에서부터 무기력함, 희망이 없음 등의 감정을 경험할 뿐 아니라, 이것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패널참여가구 66은 장애로 인해 당장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정신적으로 우울감이 찾아온 경우이다.

건강하던 게 맘대로 노력도 못하고, 맘대로 돈도 못 벌고 이렇게 뭐, 뭐 병신이잖아. 막 그래 되니까 마음이 갑자기 막 그래 어려운 점이 오고(패널참여가구 66)

패널참여가구 118의 경우에도 중도척수장애 발생 초기에는 매우 절망하고, 삶의 의욕을 상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포기로 돌아갔지요. 그래도 스물일곱 여덟 그때야, 꿈이 좀 많았겠어요. 그게 다 일순간에 다 무너졌지요. 처음에 한 2년이면 회복이 어지간히 하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절망으로 빠졌죠(패널참여가구 118).

문제는 이러한 우울감이나 절망감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장애나 질병으로 인한 근로활동의 중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결되고, 수급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최저생계비 수준의 빈곤층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정신건강은 장기간 위협받는다.

그게 극단적으로 얘길 해선 안 될 지는 몰라도, 희망이 없어요 뭐... 암만 정부에서 저 뭐 수급비를 올리든지, 올려봤자 뭐 얼마 뭐 100%로 올려주

고 이렇지는 못 하거든요. 한계가 있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 생활이 그런다고 확 나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지금 예를 들면 처음에 뭐 반찬 한 개 먹는 걸 두 개 먹을 수는 있겠지만은 생활이 확 필요 정도로 해줄 수는 없거든요(패널참여가구 68).

이와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는 장애나 질병에 더불어 생애주기 상 갱년기에 접어들거나 나이가 많아 고령이 된 경우 신체심리적 특성 상 더 큰 어려움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갱년기 증세가 오는 거 같아요. 그래 갖고 막 항상 불안하고 불안하다는 느낌이 들고 땀도 막 화악 났다가 막.. 아니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화악 나고 막.. 이게 몸 자체가 지금 늙어서 버린 거 같아요 지금..(침묵).. 뭘 좀 이게 말 들어보니까 갱년기 증세라고 하더라고요 짜증도 막 나고. 재미가 없어서 삶 자체가.. 재미가 없어.. 근데 그런 얘기를 “어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어디가 아픈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거 갱년기 오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상담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갔어요(패널참여가구 77).

너무 늙어가니까 서러워... 치매 안 걸리고 살다가 곱게 가는 거. 난 그게 바라는 거야. 정신 말짱하니 해서 곱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 그래야지 이렇게 앞도 못 보면서 치매 같은게 올까 봐 그게 걱정이야(패널참여가구 31).

패널참여가구 93의 경우에는 91세의 고령의 할머니로 어지럼증이 심해지는 등 건강이 악화되어 ‘이제 다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고 모셔가려고 하지만 짐만 되는 것 같고, 자녀

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 가지않는다고 하였다.

나. 기초생계가 어려움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생활고 즉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특성 상 수급권자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장애발생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 수급자가 된 경우도 있었고, 수급자이지만 중도 질병이나 장애발생으로 인해 더욱 빈곤하게 되거나, 경제적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스스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면 갈수록 더 못 하죠 그 때는 나름대로 그래도 다만 며칠이라도 일을 했었는데 요새는 뭐 몸이 안 좋아가 영 못 하는 상태가 되니까 뭐 더 좋아지기보다는 뭐 나빠져서 나빠졌지..그런 게 없어(패널참여가구 68).

이와 같이 기초생계가 어렵다 보니 건강회복을 위해 운동을 해야하지만 때꺼리도 걱정할 판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

당뇨나 고혈압이나 뭐 이런 게 운동을 하면 된다 하는데 운동이라 하는 게 맘이 편해야 운동도 되고 여유가 좀 있으면 산에도 올라가고 그러지요 살기 바쁜데 뭐 아침에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고 오늘 내일 곧 죽는다는 이런 판정을 받았으면 그 땐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당장 뭐 때 꺼리도 걱정해야 할 상황에서 산에서, 산에 올라가서 뭐..내 몸 위해서 가긴 가야겠죠 가긴 가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 거든(패널참여가구 68).

등산을 가도 등산복 등에서 빈부차이를 느끼고 구청의 구민체육센터에 가도 소외되는 느낌 때문에 가지 않게 된다고 말하는 패널참여가구 68의 진술은 장애로 인한 신체적 어려움 뿐 아니라 생활고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더욱 심각한 문제임을 실감하게 하였다.

패널참여가구 54의 경우 지체장애3급에 청각장애5급의 중복장애를 갖고 있어 몸이 많이 불편해서 생활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자식들마저 형편이 어려워 손별리기 어렵고, 그러다보니 ‘희망이 없다’고 하였다. 더욱이 남편은 더 심한 장애로 요양병원에서 와병중인데 70-80만원 나오는 연금으로 남편 요양병원비 조달하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자식이 많아 수급자도 될 수 없어 극심한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참여자56의 경우에도 뇌병변 장애 발생 이후 사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하였다.

저기(거실)까지는 몬갔다. 힘들어서. 그래 내가 산다. 사는데 내가 죽지도 몬한께 살아야 안하잖나? 그자? 근데 내가 하는 말은 사는데, 죽을 때까지... 딱 죽어빠고 살 때는 좀 건강하게 살아야 아(애)들이 먼데서 걱정을 안하제(패널참여가구 56).

패널참여가구 94의 경우 74세의 노인남성인데 최근 심근경색 발병으로 시술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다. 딸의 도움으로 병원비를 겨우 해결하기는 했지만 아껴쓰는 방법 외에는 방도가 없고,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받지만 매우 적은 액수라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하였다.

기초생계가 어렵다보니 작년 조사(2012년)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꿈을 갖고 공부하던 패널참여가구 24는 사회복지사로 취업할 경우 수급자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사라져 더 힘든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사 취업을 포기하였다.

다. 가족관계에 문제가 생김

장애나 주요질병의 발생은 가족해체나 가족관계에서의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었다. 패널참여가구103의 경우 조건부 수급가정인데 배우자(남편)의 장애는 부인이 볼 때에는 심하지 않고 근로의지만 있으면 일거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남편이 전혀 일을 찾지 않고 있고 있어 이는 가족의 생계 뿐 아니라 가족관계의 갈등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자기가. 약간 다리 저는 것 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자격지심 갖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남들이랑 똑같이 생활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본인 그. 뭐라고 그럴까. 고집만 좀. 자기 자존심만 좀... 꺾으면되는데, 그 부분을 못하는 게 참. 내가 봤을 때는 안타깝죠. 내가 뭐 가서 몇 백 만원씩 벌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애들 학원비 정도 벌 수 있는 거. 백 만원 안이든지 백 만원이든지... 그 정도 버는 거. 그 정도는 남자가 나가서 벌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그걸 안 하니 까 내가 입장에서는... 서운한 거고. 그렇죠(패널참여가구 103).

패널참여가구 111의 경우에도 장애가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이혼의 주요 원인이 되었고, 원가족(형제포함)에게도 자기모습이 초라하고 피해를 끼칠 것 같아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고 하였다. 패널참여가구 118의 경우에도 중도척수장애로 인해 어머니의 불안증이 증가되고, 가족에게 폐를 끼쳤다고 느껴 가족과 교류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참여가구 97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지적장애 자녀를 둔 패널참여가구 97은 정상적인 자녀를 둔 사람이 제일 부럽고, 형제간에도 이런 힘든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여 장애가구원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 그러니깐 금전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어. 제일 부러운 것은 사람이 제일 부러워.

조사원: 사람이요?

응답자: 응. 정상적인 사람이. 그게 제일 부러워. 그러니깐 나는 돈에 욕심 부릴 순간이 없는 거지.

(중략)

응답자: 동우들(형제들) 간에도 안 해요. 친정 여동무(자매들)들도 있으면 이야기 할만하잖아. 개들한테도 일절 말을 안 해.

조사원: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응답자: 개들은 호화스럽고 재미있어 죽겠는데. 내가 뭐하러 내 이야기를 해. 암 말도 않고 있어. 동서 남편도 ‘아주머님 이제 한 말씀 하세요’ 그러면, ‘난 할 이야기가 없어.’ 그래요. 그러니깐 동우들 간에도 몰라. 애들이 이렇게 생겨서, 속 좀 썩겠다. 이렇게만 알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 내가 말 안 하니깐 몰라. 이게 무슨 자랑이라고 해. 지들은 재미있어서 이야기 하는데,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아. 내 생각만 자꾸 머리에 떠오르는 거야. ‘너희는 좋겠다.’ 그 생각뿐이지(패널참여가구 97).

남편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활동의 문제로 인한 생계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 집안일이나 자녀 문제 상의 등이 가능하지 않아 가족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서 애들이 인자 컸으니까 결혼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저희가 노후 대책문제 같은 거 그런 것들 다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 마누라는 전혀 그런 거 생각을 못 하니까(패널참여가구 92).

남편의 음주운전으로 정상이던 아이가 지적장애를 갖게 된 참여자125의 경우 부인의 인생과 남편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술먹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안 산다 헤어지자까 지 했는데... 에휴. 어쩔 수 없이 지금...애를 위해서... 애가 불쌍하겠더라 고... 내가 가버리면...(패널참여가구 125).

물론 장애나 질병발생으로 인해 가구원간에 부정적인 문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다. 장애를 입은 자녀를 둔 경우 특히 부모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고, 빈곤의 문제로 인해 수술이나 재활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가족의 상심은 가족애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었다.

나하고 대화도 하고 한 번씩 맥주도 사다가 놓고 한잔씩 하고 친구처럼 잘 지내요. 근데 이제 얼굴이 그렇게 생겼으니깐 밖에 나가기 싫어서 그렇지. 성형 수술 2-3번 정도 더 해야 되는데 돈이 안되니깐 그게 가슴이 아픈데...(패널참여가구 77).

라. 자녀들에게 부담을 끼침

장애나 질병의 발생은 자녀들에게 부담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장애인의 경우 자녀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끼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노인 장애인 당사자들의 심리부담이 더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참여가구 56의 경우 딸들이 생활비를 보내다가 자기들도 생활이 어려워지니 못 보내고 있고, 이에 대해 마음을 아파하는 경우이다. 또한

결혼 못 한 아들에게 병원비 등 경제적 부담을 끼치는 것에 대해 매우 미안해하고 있었다. 패널참여가구 78의 경우 75세의 노인 할머니로 건강이 매우 안 좋지만 아들에게 얘기하면 큰 병원에 가서 돈을 많이 쓰게 될 것 같아 말하지 않고 참고 사신다고 하였다.

패널참여가구 92의 경우는 정신장애로 인해 약을 복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신체활동이 장애를 받기 때문에 가사활동이 어려운 형편이다. 자녀들이 이 부분에 대해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시아머니 될 사람이) 음식을 못하면 나중에 며느리감을 어떻게 데려오겠냐’는 아들의 말에 큰 상처를 받는 것 같다고 하였다(배우자의 진술).

왜냐면 엄마가 장애 인자 귀찮아가지고 음식을 못 맵글잖아요. 금계 인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내가 결혼하면 며느리를 어떻게 데리고 오겠어. 엄마가 김치도 못 담는데? 약간 험박. 험박성 있는 말을 하죠. 그러면 인자 그걸 듣고 오면은 또 엄마는 또 우울하죠. 자식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도 사람인데 또 속이 상하죠(패널참여가구 92).

남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를 어린 자녀들에게 숨기고 있어 특히 사춘기 자녀와 번번이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제 큰 애가 중학교 이학년 사춘기이다 보니까, 자꾸 게임하고 스마트폰만 메달 리니.. 아빠하고 큰아들하고 자꾸 부딪힘이 있으니까 그게 힘들죠. 큰 애가 이제 사춘기라.. 아빠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게 걱정이죠. 아빠를 너무 미워하니까(패널참여가구 109).

이와 같이 장애나 질병 발생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자녀들에게 부담을 끼치게 되고, 이를 경험하는 장애 당사자는 장애나 질병의 고통이

나 부담에 더하여 자식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대인관계의 축소와 기피

장애나 질병의 발생은 사회활동의 반경을 좁히는데 대인관계가 축소되거나 대인관계를 맺을 기회를 피하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패널참여가구 111은 59세의 남성으로 장애가 불편해서 외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장애를 입고 사는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기 싫어 집에 사람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위축감이 심했는데 자신이 장애있는 것을 알면 알아보는 것 같아 아닌척하고 다닌다고 하였다.

내가 병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알봐요. 그렇기 때문에 난 절대(강조) 요만큼도(장애인인 척 안해요). 남들이 있으면 더 뻣뻣하게 가려고, 더 힘차게 가려고 그러지...(패널참여가구 111).

62세의 한 장애남성도 장애인단체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그것도 돈이 드는 일이라 현재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전혀 교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거기가면 돈이 우선 들어요. 택시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힘들죠 물가도 오르고 내가 안돼. 못가요(패널참여가구 106).

54세의 한 정신장애 여성도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는 친구들과의 교류가 있었으나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 부담스럽고 소화를 못 시켜 대인관계가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도 같이 있어요. 친구들은 별 부담이 없었을 건데, 내가 이제 소화를 못 하는 거죠. 친구 대인관계를. 친구들은 스스로 없이 나를 대하는데, 나는 그게 부담이 되는...(패널참여가구 68),

바. 희망을 찾고자 노력함

장애나 질병발생과 함께 경제적 빈곤은 생계의 위협, 삶의 의지 상실, 가족관계의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참여자의 경우이긴 하지만 희망을 찾고자 노력하기도 하였다. 패널참여가구 118의 경우에는 장애발생 후 오랜 시간 무기력하게 살았는데, 어머니 생전에 먼저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양봉을 시작하여 재화에 성공하였다. 양봉으로 자기 생계를 해결할 뿐 아니라 벌을 이용한 약침으로 이웃에게 봉사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장애를 잊게 되었다고 하였다.

알음알음으로다 이웃사람들이 또 오잖아요. 그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혼자 있는 시간보다는 여럿이, 내가 도움을 받는거더라고요. 시간 지나서 보니까. 그게 그래서 많이 내가 극복이 된 것 같아요. 내가 장애라는 걸 거의 잊고 살다시피 하니까(패널참여가구 118).

류마티스 장애를 앓고 있는 67세의 한 참여자도 류마티스에 더하여 눈 수술, 허리수술까지 하게 되면서 우울증이 왔으나 주변의 권유로 종교생활(교회)을 하고, 복지관봉사를 하게되면서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다.

누가 권해가지고 2010년도부터 교회도 나가기도 시작하고 조금 나아지고

올해는 5월 중순부터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어요(패널참여가구 60).

2. 장애인과의 교류

본 연구참여자들의 장애인과의 교류는 적극적이거나 활발하게 이루어 지지는 않고 있었다. 일부의 경우 장애인 친구와의 만남이나 전화통화 등을 통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패널참여가구 92는 컴퓨터를 정기적으로 나가게 되면서 장애인 동료들과 어울리게 되고, 매우 만족스러워 하고 있었다.

좀 컴퓨터라고 거기서 이 달에 그. 그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하니깐 그런 분들 하고 같이 뭐 산책을 한다던가? 같이 영화를 간다던가? 뭐 그런 일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보내고 있어요(패널참여가구 92).

패널참여가구 31은 시각장애라는 특성 상 만남보다는 장애인 친구들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였다.

조사원: 선생님은 그러면 주변 같이 장애 있으신 분들이랑 교류가 있으세요? 뭐 같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응답자: 네. 전화. 전화로 목소리나 듣지 뭐.

조사원: 전화 통화로 얘기 하고

응답자: 예, 먼데서 사니까 그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못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앞 못보는 사람들.

조사원: 전화로 연락 하면 무슨 얘기를 주로 하세요?

응답자: 잘 있냐 뭐, 여기는 어떻다. 거기는 잘 지내냐. 시골에는 어떠냐 뭐 그런 얘가지 뭐. 얘기할게 뭐 있어요 봐야 뭘 얘기를 하지(패

널참여가구 31).

정신장애를 가진 54세의 한 참여자는 병원에 가서는 같은 정신장애 겪는 사람들과 편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지만, 병원 문을 나서서는 일반인으로 보이고 싶어 주변사람을 경계한다고 하였다.

응답자: 이제 병원에서는 아저씨들하고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병원 문 나서면 이제 일반인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경계를 하죠 병원에서는 스스럼이 없어지는데 병원 문을 딱 나서면 아 경계를 해요.

조사원: 병원에서 만나시는 분들은 얘기가 편하셔서 그럼 좀..?

응답자: 심리적으로 이제 0선생님한테, 0선생님에 대한 호의가 있으니까 이제 환자들 봐도 정답게 느껴져요. 근데 병원 문만 딱 나서면 이제 아, 내가 약한 점이 보일까, 싶어 경계하게 되죠 주변사람을 경계하죠(패널참여가구 68).

반면 장애인 동료를 만나게 되면 식사나 교통비 등이 소요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뭐 어디 인저 움직일라케도 또 금전적으로도 막 좀 그게 있고 또 저희들 뭐 눈 어두운 사람들이라도 한번 얻어 먹으면 한번은 또 이래 대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여유가 없다 보니까 어울리는 것도 좀 부담이 가고 이렇더라고요(패널참여가구110).

패널참여가구 104의 경우 장애자녀를 두고 있는데 처음에는 정보교환이나 교류 차원에서 장애자녀 부모들과 자주 만남을 가졌었으나, 자녀들

이 자라면서 점점 보낼 곳이 없어져서 부족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다보니 만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응답자: 서로 만나서 도움이 되고, 학원이 있다면 같이 보내보고 그러는게 아니라 내 자식만 보내면 땡인거예요... 거기에 다른 아이가 갈까 봐 오히려 두려워 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조사원 : 경쟁이니까... 아...

응답자 : 그렇죠 그런 모임은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요. 어렸을 때나 정보를 줘서 학원에 가고 하지만 지금은 뭐 다 성인이 됐는데... 내가 그 엄마들하고 가서 뭐... 하면 뭐할거예요? 그래서 안하는게 낫겠다... (패널참여가구 104).

3. 복지혜택 수급 경험과 문제점

본 패널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수급 또는 조건부 수급을 받고 있거나, 받지 못하고 있어도 경제적 상태가 저소득 또는 빈곤층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혜택 외에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 활동보조인서비스, 요양보호서비스 등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복지혜택에 대한 경험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수급제도가 없었으면 생존하기 힘들었을 것, 생계비나 연금액의 상향조정을 바랍,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주거제공 및 시설 선택권 확대가 필요함 등의 소주제들로 분석되었다.

가. 수급제도와 기타 복지서비스가 없었으면 생존하기 힘들었을 것

수급제도는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구의 주 생계수단이 되고 있었다. 근로를 통한 소득이나 사적이전 소득이 거의 없는 이들 가구에게 수급비는

최저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수급자) 벗어나기려면 내가 그만큼 돈도 있고 이제 노력에, 돈이 많이 모이고 하면 뭐 벗어 나가면 좋지만, 이거 아니면 내가 죽는데 뭐, 벗어나갈 수가 없죠. 그 원력으로 사는데...(패널참여가구 66).

(나라에서 안 도와줬으면) 그게 뭐 사는데 오죽하겠어요? 만약에 그나마도 지원이 안되면 정말로 어렵죠 생활하는데...(패널참여가구31).

특히 의료보호 또는 의료급여제도는 장애나 질병을 가진 가구의 경우 수급비 다음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었다.

조사원: 차상 위였고? 차상 위 계층을 벗어나기 힘든 이유는 뭐죠?

응답자: 경제적인 거겠죠. 그리고 저가 아직은 그 집도 가계랑 다 이제 세 짝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리고 마누라가 차상위 대상자가 아니면 약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병원비랑. 그니까 감당을 못 하면 나 일어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조사원: 그럼 일단은 차상위 인게 좋기도 하네요?

응답자: 예. 덕을 많이 보죠. 네. 왜냐하면 저기 정신과 약이라면 이 또 막 피부질환. 하여튼 병원에 다니는 것이 많습시다. 근데 그 병원비 감당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보험도 안돼요. 저 정신과 든 사람은. 그니까 전적으로 내가 다 내야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여기서 그 정도 수입 갖고는 뭐.. 바닥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죠 (패널참여가구92)

만성질환을 가진 경우에도 평생 의료비 부담이 큰데 국가의 의료혜택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또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하니까 류머티즘 환자라. 의료비도 그렇고 그래도 요새는 의료비가 국가에서 많이 혜택을 주니까 그거는 좀 많이 나아졌어요. 처음보다 많이 나아졌지 우리가 10% 밖에 안내니까(패널참여가구 60).

응답자: 아파 인제 병원에 가 가지고 서는 이제 저거 되면은 이제 약 사면은 약 저거 처방 받아 하면은 그게 이제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치료비, 요 치료비가 조금 면제 되고

조사원: 음, 음, 약 값도 면제가 되요?

응답자: 네, 면제가 되요 (아) 그래, 그러니까 다 면제 되니까 사는 게 이렇게 조금그래도, 그것까지 면제 안 되면 살기 진짜 어렵거든요. 한 달에 약이, 복용하는 약이, 저, 저, 이제, 계산하는 데 보니까는 11만 얼마를 내더라고 근데 계속해 다달이 하면 1년이면 돈이 얼마야, 그지? 백만 원 넘잖아. 그러니까 그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지(패널참여가구 66).

이 외에도 요양보호사로부터 큰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92의 경우 팔순노모와 함께 살게 되면서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전에는 부인이 아파 요리 등을 남편이 전담해서 식생활이 빈약했다면, 현재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식생활이 훨씬 수월해지고 좋아져서 행복감이 높아졌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수급가구에서는 국가의 도움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뭐 도와주는 걸로 감사하고 뭐 또 안주면 안주는가 보다 하고 그러지 뭐. 그걸 갖다 뭐 어떻게 할 이유가 없는 거고 내, 어? 내가 뭐 어떤 뭐뭐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것도 아니잖아? 그거는 어? 그 좀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건데 그게 무슨 내가 그것만 해도 뭐 감지덕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뭐 그걸 안준다고 뭐 뭐 어디 내가 그 사람한테 뺏겨봤나? 나라에. 그런 건 아니잖아(패널참여가구 111).

아니 그걸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안되는 거지. 주는거에 한계가, 나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백원이라도 더 주려면 다 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천원을 더 주더라도 나만 주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만족해야죠 뭐(패널참여가구 31).

그러나 정보의 부족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뒤늦게 받게 된 경험도 일부 참여자들에게서 드러났다.

우리 먹으라 하는 거였으면 동해(주민센터)가 말해줄 수 있고 우리 아파트 반장도 얘기해 줄 수 있는거 아이가? 근데 이것들이 썰리 입 딱 다물고 있다가... 말도 안하대?(패널참여가구 56).

응답자: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알려주지 안 그런 이상 이상 수급이라는 제도가 뭔지 몰라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조사자: 어머님도 누군가를 통해서 아신 거예요?

응답자: 네(패널참여가구 113).

패널참여가구 68의 경우에는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이 많아 장애등록

하지 않고 살아왔다. 최근에는 장애등록을 했으나 혜택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나. 생계비나 연금액의 상향조정을 바람

대부분의 수급가구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가지고 최저생활을 하기 때문에 생계비나 연금액 등의 현금지원액이 인상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생계비) 그걸 줄 올려줬으며.. 너무 진짜 부족해. 물론 우리가 할말은 없지만 나랏돈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할 말은 없지만 조금만 더 올려주면...(패널참여가구 125).

패널참여가구 106의 경우에도 수급비가 인상된다면 조금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였는데 나이가 많기 때문에 수급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패널참여가구 107의 경우에도 장애인에게 더 많은 현금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였다. 일반 수급가구도 생계비 인상을 원하지만 장애나 질병을 가진 가구의 경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현재의 수급비나 연금액으로는 생계를 꾸려나가기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향후 근로를 통한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부조를 통한 수입인상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주거제공 및 시설 선택권 확대가 필요함

장애나 질병이 있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생계비 지원 외에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정적인 주거제공에 관한 것이었다. 전세나 월세 등 주거비가 매우 높은 현실에서 안정적인 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은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한참 생각함) 우선...집이지. 집. 살 수 있는 거주지가 가장 중요한 거 같애. 밥이야 3끼 먹을 꺼 1끼 먹으면 되는 거지. 쌀이 없다고 치면은. 그리고 전기도 사실 뭐 밤새도록..배터리 어디서 얻어서 배터리 불 키면 되 는거고. 수도물이야 그까짓 거 뭐 뭐 펄펄 끓여서 보리차 뭐 삼천원 치 사면 한 한달 먹잖아. 그러면 되는 거고 그런데 거주가 문제야. 이게 거주 가. 이걸 추워서 잠을 못 자. 저 스티로폼 이거 내가 사서 댄 거야. 겨울 이 되면 담요를 여기다 막아놓고 자야 돼 추워서. 이 천장에서 김이나, 뭐 머리에 추워서..그런데..이런 집이라도.집이 없으니 한 달에 거의 20만원돈 주고 살아야 되잖아...(패널참여가구 111).

아휴, 이사를 갔으면 좋겠어요. 이사를 갔으면 좋겠는데 이사를 갈라고 해도 갈 형편도 못되고 여기 인제 10년. 10년 동안 살면서 그 동안 살면서 돈을 모아 갖고 인제 나가라는 얘기죠? 10년 동안에? 근데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10년 동안에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사 갖고 가겠어.. 택 도 없어, 전세도 못 얻는데. 그러니까 공공.. 공공 임대 아파트 같은 거 새로 요즘에 많이 짓는 갑 더구만. 그런 데.. 그런 데 들어가서 살았으면 좋 겠어...(패널참여가구 107).

패널참여가구 104의 경우 형편상 장애자녀를 집에서 키우지 못하고 시설에 보냈으나, 자녀가 성인이 되면서 점점 더 보낼 시설이 없어지는 현실에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애들이 크면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패널참여가구 104).

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장애나 질병을 가진 장애인가구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수급제도와 관련 행정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본 패널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도 근로와 연계되지 않는 수급제도의 제도적 한계가 가장 문제라고 느끼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근로를 하게 되면 바로 연동되어 수급액이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현실 때문에 수급비를 생계수단의 전부로 붙잡고 사는 이들에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매우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모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더라도 고용이 불안정하고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언제 근로를 중단하게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급이 탈락이 되어버리면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수급에서 탈락이 되면 다시 재진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차라리 근로를 통한 수입을 포기하게 된다. 수급자들에게 주어지는 의료혜택, 주거지원 등도 수급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었다.

저는 뭐 당장 100만원이라도 일을 하러 나가고 싶죠, 나가고 싶은데 만약에 (수급)떨어져버리고, 나중에 혹시 일자리라도 잃으면 내 생활도 잃고 이렇다니까요. 이러니 어느 누가 일하러 다니겠습니까?(패널참여가구 110).

수급제도 뿐 아니라 복지전달체계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장애인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일선의 복지공무원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것이다.

그 복지 관계되는 사람은 한 자리에서 계속 오래 지속이 되어하는거야 그
래야 그 동네를 관할하고 있는 사람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파악을 잘 하잖
아... 이거는 뭐 일년에 몇 번씩 갈리니 열 받는거야 물어봤던 거 또 물어
보고(패널참여가구 111).

4. 장애인(가구)의 노후대책

2013년 질적패널연구에서는 전년 연구에서는 질문하지 않았던 장애인
(가구)의 노후대책에 대해 질문하였다. 분석결과 절대다수의 가구에서 노
후대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노후 경제적 상태가 현재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예상하게 되었다. 먼저 건강하는 늑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현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건강하
게 늑을 수 있는 노후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조사원: 어머니께서 나이 계속 들어가시잖아요. 기왕이면 좀 잘 늑어간다
하려면, 어떻게 필요할까요?

응답자: 근데 생활력이 너무 없다. 내가 벌 수가 있냐, 쓸 줄만 알지. 벌
일 수가 있냐.

조사원: 음.. 좀 벌이가 있어야 늑는 것도 잘 늑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응답자: 맞아. 그것도 일을 해가면서 재미가 있을낀데, 내가 뭘, 환자가 뭘
할 수가 있냐 아무 것도 못하잖아.

조사원: 중요한 것은 생활력, 경제적인 능력이 중요하다.

응답자: 맞아(패널참여가구 54).

패널참여가구 92, 97, 107, 109, 111 모두 노후대책이 전혀 없고 그
날 그날 지내고 있다고 하였다. 아프지 않고 현재만큼만이라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수급비가 많이 인상되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노후준비를 생각할 여력이 전혀 없다고 하였다.

그거 뭐 돈이 없으니까 무슨 노후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걸 노후라는걸 생각하면 더 머리가 아파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아무튼 사는 데 까지는 건강에 좀 충실해 질라고 노력하고,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그 삶의 질이 질이 향상되는데 생각을 하는게 낫지. 아휴, 노후. 아우 머리 아픈 얘기지 뭐(패널참여가구 111).

참여자 중 일부는 사보험에 가입하여 건강이나 사후를 대비하는 노력도 있었으나 형편상 매우 적은 금액의 보험을 들고 있어서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실정이었고, 다른 경우는 장애나 건강상의 이유로 사보험 가입마저도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중 유일하게 한 여성참여자만이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있고, 이것이 노후준비의 전부라고 하였다(패널참여가구 109).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구는 생계가 더 어려워지고, 희망보다는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더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더해질수록 근로가능성이 낮아지고 의료비 지출이 더 높아질 경우가 많아 삶의 질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장애의 의미

연구참여자들에게 장애의 의미에 대해 물었을 때 대부분 부정적인 응답이 도출되었다. ‘장애는 절망’(패널참여가구 118), ‘장애는 내 인생을 바꿔놓은 것’(패널참여가구 111), ‘장애는 짐’(패널참여가구 24), ‘누구든지 있어서는 안되는 것’(패널참여가구 92), ‘다스려야 하는 것’(패널참여

가구 68) 등으로 표현하였다.

지금 현재 이 조건 상황에서는 이제 내가 이걸 이 병 증세를 다스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이게 제일 급한 문제입니다. 다스리며 살아야. 다스리지 않고서는 내가 일상생활을 살 수가 없잖아요. 뭐, 일을 한 가지라도 마음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마음 축 가라앉으면, ‘아, 해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있 다니까요. 할 일을 보고 알고 있어도, 그걸 생각하고 몸은 이렇게 붙어서 앉아있다니까요. 이것을 이제 빨리 활동을 하려고 그러려면 약을 먹고 나를 이렇게 컨트롤을 하고 나를 계속 이렇게 훈련시켜야 되는 거죠(패널참여가구 68).

패널참여가구 77의 경우에는 큰 교통사고로 엄마와 딸이 모두 큰 장애를 입게 되어 엄마는 근로능력을 잃게 되고, 딸은 안면장애로 왕따를 당해 가족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하소연하였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우리는 교통사고 때문에 인생을 망쳤어요.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 완전히. 그때는 막 우리 딸내미 둘 키우면서도 혼자 살면서도 자신 있게 살고 수급 뭐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 그때....(패널참여가구 77).

제3절 소결

본 연구는 장애인(가구)의 장애 및 질병 발생으로 인한 영향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 또는 가구원들의 대처 경험을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특히 장애인구의 고령화 또는 노인인구의 장애발생률 증가

로 인한 장애인(가구)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바 향후 노후대책에 대한 질문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노인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실천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1:1 심층면접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2011년부터 시작된 질적패널조사 대상 가구와 2012년, 2013년에 모집된 가구 중 장애나 질병발생으로 인해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거나 질병의 영향을 받고 있는 29가구를 중심으로 면접 내용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장애유형이 포함되었으며, 장애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각종 만성적, 고질적 질환을 경험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면접 내용이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중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또는 주요 질병 발생으로 인해 당사자 및 가구원의 정신건강이 위협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전과 달리 장애로 인한 신체사용이 자유롭지 못하고 지속적인 통증이나 고통을 느끼게 되면서 근로활동을 포함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이는 당사자로 하여금 생활반경을 좁히고 자연스럽게 위축되고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생애주기 상 갱년기나 노년기에 접어든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정신적 고통이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기초생계를 유지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장애나 질병으로 인한 소득활동의 중단과 함께 부가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 부담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부담은 연구참여자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장애 또는 주요 질병을 겪는 가구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의 정신건강센터나 보건소 등에서 지역구 내 중증질환자나 장애인들을 위한 정기적인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해본다.

둘째, 상황이 이렇다보니 장애나 질병 발생 가구원의 가족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가족 간 역할 갈등으로 인한 문제, 가족해체, 대화

단절이 일어나고 원가족과는 왕래를 중단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가족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노년기에 접어드는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자녀에게 부담을 끼치는 것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이 매우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자녀들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한 상황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갈등이 심각한 상태로 악화되기 전에 장애나 주요 질병 발병 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과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과의 교류에 있어서는 적극적이거나 활발한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단체나 기관을 통해 만난 동료들과의 간헐적 만남이나 전화통화를 시도하지만 이 역시 비용이 부담되어 자주 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교통비나 식대가 부담이 되어 교류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 이동이나 식사 지원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넷째, 복지혜택 수급 경험과 문제점에 있어서는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수급제도나 기타 복지서비스가 없었다면 생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기초생계를 수급비에 의존하고, 의료급여를 통해 장애나 질병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혜택이 없다면 살 수 없었을 것이라는 참여자가 많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계비나 연금액수가 너무 적어 최소한의 기초생계를 유지할 뿐이어서 이 액수가 상향조정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생활에 있어 가장 부담이 되는 집세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이 더 보급되어 안정된 주거를 하기 원했다. 생계비 상향조정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복지재정과 세수에 대한 분석, 정책 방향과 맞물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수급실태를 다시 한 번 면밀히 파악하

여 실효성 있고 현실성 있는 수급제도로 운영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애인 가구의 노후대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급급하기 때문에 오늘 내일 근근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노후준비는 전혀 생각해 볼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후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비단 장애인 가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들 가구의 특성 상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계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현재의 희망키움통장 등을 저소득 장애인 가구나 중증 질병 발병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3년째 진행된 복지패널 연계 질적연구로 장애인가구의 장애 및 질병 발생으로 인한 영향과 대처 경험에 대해 분석하였다. 장애와 질병의 영향이 장애인 당사자와 가구원들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대처 경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더 심도있게 조명되고 분석되어야 하지만, 종단적 변화가 일어난 가구의 수가 제한적이고, 그러한 변화를 질적연구를 통해 명확히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현재의 연구방향과 목적을 재검토하고, 질문을 더욱 선택, 집중하여 질적패널 연구의 장점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해본다.



제8장 빈곤가구 한부모 여성의 자활 경험에 관한 연구

제1절 서론

제2절 연구결과

제3절 소결

8

빈곤가구 한부모 여성의 << 자활 경험에 관한 연구¹⁴⁾

제1절 서론

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국외 사회복지문헌들에서 등장하는 자활(self-sufficiency)에 대한 비판적 논지는 주목할 만하다. 먼저 그 논의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자활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접근이 특정의 합의 없이 ‘위로부터의 관점(top-down approach)’에서 시작되어 대중화되었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 빈곤정책의 법적 근간이 된 1996년 제정된 복지개혁 법안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ies Reconciliation Act(PRWORA)은 근로를 통한 개인의 자활적 삶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복지패러다임을 따르고 있다. 이 법안은 수급권을 갖고 있는 빈곤층일지라도 근로능력이 있는 한 반드시 근로활동과 연계되어 국가가 지정한 특정 기간¹⁵⁾안에 탈수급과 경제적 자립을 성취하도록 요청한다(Hawkins, 2005; Hong et al., 2009; Brush, 2000). 이는 국가가 사회구성원의 복지의존을 최대한 경계하여 가능한 복지수급자들의 숫자를 감소시키겠다는 의도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복지개혁 이후 빈곤층의 현실을 조사해온 연구들은 빈자들의 근로연계가 탈빈곤과 탈수급의 과정과

14) 정혜숙(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5) 1996년 제정된 미국 복지개혁 법안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ies Reconciliation Act(PRWORA)은 최대 60개월(5년)까지만 복지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여 복지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의무화하여 탈수급을 통한 자활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실제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복합적 원인들을 지적하면서, ‘자활’의 접근에는 반드시 자활당사자들의 실제 현실을 반영하는 ‘아래로부터의 관점(bottom-up approach)’이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Riger and Staggs, 2004; Kneipp, 2000). 예로, 근로연계에 참여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경험을 질적조사한 Hong 외 (2009)는 참여자중심으로 본 ‘자활’의 관점은 특정시점의 성과로 판단할 수 없는 보다 장기적인 차원의 과정으로서 ‘현실적인 재정목표’와 ‘개인의 역량강화 과정’의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둘째, ‘위로부터의 관점’으로 출발된 ‘자활’의 개념적 접근이 경제적 자립에 집중적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일반적으로 자활 개념은 ‘소득을 얻는 근로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부지원의 복지수혜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의 경제적 지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적 가치를 반영하는 자활 개념은 총체적 차원으로 개인들의 다양한 현실과 근로 조건(문화와 지역사회 공동체의 특성 차이들을 반영하는)을 포괄하는 보다 생태적 차원의 총체적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Garces, 2003; Kneipp, 2000).

셋째, 자활의 목표와 성과에 초점을 둔 기존 연구들은 양적연구설계에 근거하여 주로 경제적 차원의 지표들을 중심으로 그 성과를 측정해왔다. 그러나 소수 질적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된 연구는 자활이 단편적이고 정체된 한 시점의 개인의 상태와 상황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다차원적 평가와 과정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Gowdy와 Pealmutter(1993)는 복지이론 당사자들이 경험한 경제적 독립의 주관적 의미를 질적으로 탐색하면서, 자활은 네 가지 영역 즉 ‘자율성과 자기결정’, ‘경제적 안정과 책임’, ‘가족과 자신의 복지’, ‘소속된 지역사회 안에서 사는데 필요한 기본 자산’을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위 논지들은 ‘자활’ 당사자들의 실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관점’ 연구와 자활의 다면적 측면을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질적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자활 관련 사회복지연구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작된 2000년 이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 초기에는 자활 성과와 관련된 변인들을 밝히는 연구들(이상록·진재문, 2003; 유태균·김경휘, 2003; 김교성·강철희, 2003; 이형하·조원탁, 2004)이 주종을 이루다가, 자활사업의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최근에는 자활사업의 효과 관련 연구들(김준현, 2009; 박희정 외, 2010; 백학영 외, 2011; 박정호, 2010; 백학영·조성은, 2012)이 증가되기 시작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국내 연구자들이 자활의 성과를 측정할 때 이미 경제적·정서적·사회적 차원을 포함한 측정 지표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국내 자활 접근에 대한 개념적·이론적 논쟁을 이끌어가는 사회복지연구자들의 숫자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드물게 몇몇 연구자들이(신명호, 2006; 김인숙, 2008) 자활의 이슈를 복지 패러다임이나 가치의 관점에서 국내 자활 접근을 새롭게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특히 김인숙(200: 97)은 ‘제도적 자활’과 ‘실천(현장)적 자활’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의 문제로 인해 현재 국가가 주도하는 자활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자활의 ‘복잡성, 총체성, 그리고 현실성’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자활 접근에 ‘아래로부터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앞선 문제제기의 맥락에서 볼 때 타당한 지적이다. 국내 자활 문헌 중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주관적 인식이나 경험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매우 드물다. 양적연구로는 정원오·김진구(2005)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에 대한 태도 인식과 자립의지와와의 관계를 조사하였고, 질적연구로는 백학영·고미선(2006)이 여성가장의 자활사업 참여경험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진입 전망을 탐색하였다.

보편적 차원에서 복지의존과 자활의 경계에서 가장 많은 분투를 하고 있는 취약 집단들 중 하나가 한부모 여성들이라고 볼 수 있다(Hobson, 1990; Christopher, 2001; 이용우, 2006). 국내 석재은 외(2003)연구에 의하면 여성가구주가 남성가구주에 비해 빈곤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률이 3배가량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자활사업을 조사한 연구들을 살펴봐도 여성들의 비중은 남성에 비해 일관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부모 여성들의 자활사업 참여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외문헌에서 빈곤 여성들의 복지의존과 자활 이슈를 지적한 주요 연구들은(Rusyda et. al., 2011; Grube-Farrell, 2002; Gabe, 2003; Cheng, 2010; Cooney, 2006) 현재 자활 접근이 한부모 여성들의 실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당위적 목표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즉, 복지개혁이 지향하는 자활의 목표는 존재하는 시장경제의 모순(직업기회 부족, 노동시장 변화 등)과 자녀돌봄환경의 열악함을 반영하지 못한 규범적 요청으로서 실제 당사자들에게는 ‘자활’이 비현실적 이상과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내의 경우 빈곤여성들에 초점을 둔 양적연구 (강남식·백선희, 2001; 황미영, 2002; 강남식·신은주·성정현, 2002)는 축적되고 있으나 한부모 여성들의 자활 이슈를 탐색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위의 맥락을 통해 국내 역시 자활과 관련된 ‘아래로부터의 관점’ 연구 그리고 빈곤 한부모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 연구들이 보다 활성화 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저소득층 한부모 여성의 자활 경험을 탐색하여 자활 당사자들의 고유 인식과 욕구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활 접근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본 연구성과는 자활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국내 여성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의 운영자들이 참여자들의 경험적 현실을 숙고하여 보다 당사자들에게 적합하고 민감한 정책 및 실천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극할 수 있다. 더불어 한국의 자활논의와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평가에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빈곤가구 한부모 여성들의 자활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제2절 연구결과

1. 참여자 정보

본 연구에 참여한 한부모 여성 7명의 인구학적 특성과 자활 현실과 관련된 간략한 정보를 <표 8-1>에서 제시¹⁶⁾하였다. 참여자 모두는 학령기 자녀들을(1명~3명)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이다. 이들 7명 중 4명은 자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3명 중 2명은 자활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개인적 차원의 직업을 갖고 있다.

<표 8-1> 참여자 정보

참여자 임의번호 (성별)	자녀수 (연령)	자활사업 참여역사와 현재까지의 주요현실
1(여)	3명 (24,17,12)	- 자활사업 참여경험 없음.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몇몇 기술을 배웠으나 장애로 인해 제약이 있었음. - 직업 없음. 성당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음. - 배우자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아서 이혼하게 됨. 현재 첫째 아들은 ADHD이고, 둘째 딸은 초등학교 재학 중임. 모자가구로 가구주는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기초보장 수급 중임.
2(여)	1명 (15)	- 자활사업 참여경험 없음. - 컴퓨터 관련 업계에서 5~6년째 종사하고 있음. - 배우자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아서 이혼하게 됨. 한부모로 지낸지 10년 정도 되었음. 모자가구, 조건부 수급 중임.

16) 참여자들의 사적 비밀보장을 위해 참여자들에게 임의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242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3차): 취약계층의 삶을 중심으로

참여자 임의번호 (성별)	자녀수 (연령)	자활사업 참여역사와 현재까지의 주요현실
3(여)	1명 (12)	- 자활사업 참여경험 있음. 재가방문으로 어르신 집에 방문하여 청소 하기, 복지관 내 설치지, 청소, 지적 장애인 프로그램 보조 등의 자 활근로 경험을 가지고 있음. 현재도 복지관에서 자활근로를 하고 있음. - 미용기술을 배워서 경제활동을 하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음.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였고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음. - 가정불화로 이혼을 하게 됨. 모자가구, 조건부 수급 중임.
4(여)	3명 (19,16,13)	- 자활사업 참여경험 없음. - 교육관련직종에 종사하다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곧 퇴사에정임. 퇴 사 후에는 주간에는 아르바이트와 야간대학교를 다니면서 청소년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 후 관련계통에서 재취업할 계획임. -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함. 모자가구, 수급경험 없음, 차상 위 계층임.
5(여)	1명 (15)	- 자활사업 참여경험 있음. 약 5년 전에 자활사업(즉 사업단)에 들어 가 있었음. 각자의 명의로 천만원씩 대출을 받아서 가게를 오픈했 으나 자활사업 담당자의 간섭과 자율성 부족으로 그만두게 됨. - 현재는 동사무소에 가서 청소를 하고 퇴근 후에는 저녁 늦게까지 식당 아르바이트를 다님. - 배우자가 시어머니에게 상당히 의존적이었고 이로 인한 가정불화 로 이혼하게 됨. 첫째 아들은 자폐장애를 앓고 있어서 시설에서 살 고 있고 중학교 재학 중인 딸이 있음. 모자가구, 조건부 수급중임.
6(여)	3명 (20,17,14)	- 자활사업 참여경험 있음. 여가사업단에서 공부도우미, 노인정에서 동요나 동화구연을 한 경험이 있음. -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 후 현재까지 근무 - 이혼하고 싱글마더가 된지는 5년 정도 됨. 배우자의 가정폭력, 보 수적인 양육방식, 도박 및 사업으로 인한 재산탕진, 아버지로서의 역할부재 등으로 이혼하게 됨. 첫째 아이는 대학을 다니고 있으며, 둘째 아이는 고등학생이고, 셋째 아이는 ADHD로 현재 치료를 받 고 있음. 모자가구(사실상 재혼가구), 기초보장 수급 중임.
7(여)	1명 (13)	- 자활사업 참여경험 있음. 자활에 3번째로 사업을 참여하고 있는데 간병, 천연비누 만드는 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자활근로를 하고 있음. - 자활근로와 함께 간병이나 식당에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음. 탈 수급을 하기위해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고령으로 취직이 어려웠음. - 배우자의 사별로 한부모가 됨. 모자가구, 조건부 수급 중임.

2. 심층면담 영역

본 연구는 조사문제인 “빈곤가구 한부모 여성들의 자활 경험은 어떠한가?”를 탐색하기 위해 심층 면담(각 약 2시간)을 수행하였다. 전체적으로 심층 면담은 연구자가 준비한 반구조화된 질문들(3~4개)로 시작되었으나 자료수집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질문들을 부가적으로 활용하면서 개방적 형식으로 진행 및 완성되었다. 활용된 질문들의 주제 영역들을 제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 ‘자활’에 대한 이미지(혹은 정의) (참여자에게 ‘자활’이란?)
- ‘자활’ 사업 참여 경험
- ‘자활’적인 삶(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 ‘빈곤’, ‘한부모여성’, ‘복지의존’, ‘자활’에 대한 총체적 경험
- 현재 ‘자활’의 수준(질)의 평가 및 앞으로의 계획

3. 결과분석

본 연구 결과의 대주제 ‘빈곤가구 한부모 여성의 자활 경험’의 하위영역으로 9개의 주제들이 도출되었다.

가. ‘자활’의 이미지

자신의 고유한 직업을 갖고 있는 참여자들은 ‘자활’이라는 용어자체의 개념적 이미지(‘독립’, ‘자신감’, ‘스스로 일어서는 것’)를 보고한 반면, 자활사업에서 일한 경험을 갖고 있는 참여자들은 자활사업과 관련된 ‘낙인

감'의 경험을 근거로 '자활' 용어에 대한 주관적 이미지를 보고하였다. 후자의 경우 '자활'의 원래 이미지보다는 '자활사업 참여'에서 느꼈던 '밑바닥' 인생의 이미지와 연관되어 '자격지심'의 느낌을 보고 하였다.

능력?...독립적인 것 자신감..(참여자 임의번호 2).

오투기처럼 스스로 일어서는 것?(참여자 임의번호 4).

자활, 자활이라고 하면 조금씩 자격지심이 들어요 일반인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반사람들은 자활이라고 안하고 영세민이라고 해요(참여자 임의번호 5).

자활...공공근로...가장 밑바닥 같아요 그런 이미지여서 3개월 동안 울었어요...그 의미를 알면 싫어할 일은 없는데 그 자활이라는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좋게 되어 있지 않아요(참여자 임의번호 3).

나. 자활과 일

참여자들은 과거 예기치 못한 '이혼'의 좌절감과 '한부모'로서의 중압감에 긴장되고 두려웠지만 망설임 시간 없이 세상 밖으로 나가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고백하였다. 참여자들은 힘든 근로로 인한 고단함이 크지만 한부모로서 느끼는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일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의 부담을 토로하였다.

굉장히 힘들어요 ... 물론 돈을 보면 기쁘죠 그런데 몸은 아주 피곤하고 전반적으로는 표현을 하자면 기쁘지는 않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

다. 애를 키워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니까 돈을 벌어야 하는 의무감
(참여자 임의번호 7).

아래 참여자는 자녀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 일을 계속 유지하지만 그 일은 ‘자활’의 원 뜻 ‘스스로 활동 하는 것’과 잘 맞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내 스스로 활동 하는 것? ...자활이라는 의미는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 저 같은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이잖아요? ...이건
제 스스로가 아니라 엄마니까 하는 거죠(참여자 임의번호 4).

그러나 참여자들은 한부모와 빈곤의 현실을 대면하면서 느꼈던 초기 두려움에 스스로 맞서 나가면서 용기 있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선택하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다 자기 마음가짐이죠 ‘아 나는 왜 못해, 안돼.’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너무 무섭고 ‘어떻게 회사생활을 하고 사람들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하
지?’ 그런 게 정말 두려웠죠 근데 지금은 뭐... 어색하죠, 오히려 집에 있
는 게(참여자 임의번호 2).

일이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성취감’과 ‘당당함’에 기여함으로써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그 관계의 질이 ‘상호존중’으로 변화되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다고 보았다.

자신 스스로에게 성취감도 있고 물론 집안일만 한다고 성취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엄마도 이렇게 일하면 아이들에게 당당할 것 같아요(참여자

임의번호 1).

제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녀들이) 중학교 들어가면서 부터는 어느 정도 돕기 시작하더니 고등학교 들어가서 부터는 제가 밖에서 활동하고 늦어진다 싶으면 벌써 썩 해놔어요 ...제가 손도 대지 못하게 썩 정리를 끝내놔요. 집에 가면 오히려 그 시간에 아이들과... 대화하고 그런 수다를 떨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서가 아니라, 적게 보내서가 아니라,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달라진다고 보거든요(참여자 임의번호 6).

위 참여자는 자녀가 ‘일하는 엄마’를 위해 가사일을 도우면서 엄마와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고, 엄마에 대한 칭찬과 존중의 표현을 하는 것을 큰 보람으로 보고하였다.

엄마가 움직여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면... 엄마가 예전에는 참 못생겼대요. 근데 못생겼다고 말은 못하겠대요. 내 엄마니까. 그래서 엄마 예쁘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자꾸 예쁘다고 하니까 예뻐지더라요. 그러니까 예쁘게 보여졌겠지요. 우리 엄마 예뻐, 진짜 예쁘다, 왜 이렇게 젊은 거야. 이렇게 칭찬을 해요(참여자 임의번호 6)

다. 자활과 경제력

참여자들은 ‘돈(경제력)’이 그들의 자활적 삶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인정하면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자녀 양육 및 교육’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건강 유지’ 비용에 대한 현실적 부담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엄청 중요하죠 우리가 말로는 죽으면 돈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잖냐고 제발 돈돈돈 그러지 말자고 근데 솔직히 다 돈이잖아요(참여자 임의번호 4).

많이 좌우하죠 ...일단 행복의 지수를 채는 것 자체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에 들어가는 것이 다 돈이고... 나 혼자서 살수 있어요 ...근데 저는 자녀가 셋이니까...학습지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시줄 수가 없어요(참여자 임의번호 6).

경제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나이가 들수록 많이 들더라고요...그냥 나이도 들고 하니까 아플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험도 없고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네요(참여자 임의번호 2).

아래 참여자는 자녀들을 지원하고 격려해야하는 엄마로서 경제력이 없을 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는 자녀들의 엄마에 대한 비난과 실망이 우려되어 위축되었던 현실을 회고하였다.

우리 같은 사람에겐 돈이 없으면 사실은 엄마의 영향력 이런 것은 거의 땅바닥이에요. 엄마가 힘이 있어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건데 아무것도 없고 정말 지지같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말 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은 또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참여자 임의번호 4),

라. 자활과 자신감

모든 참여자들은 한부모로서 자신과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제력을 매우 중요한 자활의 조건으로 꼽았지만, 몇몇 참여자들은 자신감을 갖춘

삶의 에너지가 근본적으로 더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물론 돈도 중요하죠. 저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돈은 내가 벌려고 하면 벌어요. 사실. 가정에 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내가 돈을 어떻게 벌겠어요. 자신감이 없는데. 그럼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감이 내 자신과 자식을 위해서 그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참여자 임의번호 1).

더불어 그들은 이혼을 하고 한부모가 된 이후 자신감을 잃고 위축될 수 있는 복합적 현실에서는 일을 통해 ‘돈의 가치’ 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인 대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밖으로 나와서 돈을 조금을 벌든 많이 벌든 나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싶어요. ...내 아이가 어려서 안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저도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집에서 살림만 하던 내가. 그렇게 생각 했었는데 나오게 되면 진짜 할 수 있는 게 참 많거든요. ...그래도 이혼했다고 하면 세상이 안 좋게 보기는 해요. 쉬쉬하기는 하지만 그런 거 무시하고 당당하게. ...우울증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참여자 임의번호 4).

마. 자활과 복지의존

참여자들 모두 아무리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놓일지라도 가족이나 친지의 경제적 도움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불편한 현실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한부모 가정으로서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의 병행이 버겁고 힘들 때 그들에게 제공되는 국가의 복지지원은 매우 긴급하고 필수적인

도움의 원천으로 인식하였다.

당연 도움 되죠 국가가 주는 건... 급식비 안내고 어디 수학여행 갈 때 비용 안내고...(참여자 임의번호 5).

지원받는 것 자체를 모르기도 했는데, 모자가정이 되고 의료혜택도 받으니까 이렇게 받는게, 정말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아동바등 100만원 버는 것은 같지만 아이들 먹거리나 쓰는 것이 더 나아졌다는 거죠. 내가 부담해야 할 것을 나라에서 조금 부담을 해주니까 나은 거죠(참여자 임의번호 6).

참여자들은 수급자로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해 수치심을 느낀 것은 사실이나 시간이 흐르면서 복지의존에 대한 생각과 의식이 달라졌다고 고백하였다. 참여자들은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해나가면서 자립해나가는 그들 자신에 대한 믿음과 성취감을 통해 수급 초기에 지녔던 낙인감을 극복하고 있었다. 동시에 그들은 복지의존 자체를 그들 자신의 약점이나 부끄러움의 경험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부모로서 ‘엄마’의 몫을 다하는 그들 자신에게 ‘부끄러운’ 보다는 ‘당당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고 싶어 한다.

처음에는 굉장히 그랬는데, 나도 하면 되지. 그게 엄마이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진짜 구청 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 스스로 위축되고 그랬는데 ... 내가 탈수급하고 싶다는 생각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만 엄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대하고 있어요. 나만 손해고 내 마음도 스트레스 받고 내가 애 키우는 데 널 위해 뭔들 못하겠느냐 그래서 당당하게 지내기로 마음먹었죠. 나중에 아이가 커서 국가에 갚아도 되고, 내가 부자 되고 잘 풀려서 국가에 갚아도 되고, 그런 식으로 내가 컨트롤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막 그렇게 위축되고 부끄러운 것은 없어요(참여자 임의번호 7).

당연히 있죠. 국가가 주는 건 급식비 안내고, 어디 수학여행 갈 때 비용 안내고(참여자 임의번호 5).

참여자들은 수급자 혹은 자활대상자로서 느끼는 ‘낙인감’의 원천으로 그들을 대하는 ‘서비스제공자들의 태도와 행동’을 지적하였다. 아래 참여자는 수급자이지만 노후를 고려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 구청에 의뢰하였지만 ‘영세민이라는 것들...’ 하면서 무시하는 직원의 태도로 인해 큰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꼈다고 고백하였다.

국민연금을 안 넣어줘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이 자활일로만 살 순 없잖아요?... 우리도 국민연금을 넣어보자 했는데 자활하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넣을 수 없는 입장인 거예요. ...우리가 100% 내도 좋으니까 해달라고 해서 구청에 의뢰를 하고 국민연금을 넣게 되었어요. ...구청에서 보조로 자활근무를 하고 있는 이는 친구가 있는데 그 계장이라는 분이 그 일 때문에 말이 오가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앞에 있는 줄도 모르고 ‘영세민이라는 것들이 돈도 없으면서 무슨 국민연금을 내느냐.’(참여자 임의번호 7).

바.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

자활사업에 참여했던 4명의 참여자들은 자활사업의 실태와 그 성과와 관련된 ‘내부자적 관점’의 의견들을 표출하였다. 무엇보다도 자활사업에 투입되는 자원들이 쓸모없이 낭비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먼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놀고먹어도 돈은 나오는’ 조건들을 전제하기 때문에 낮은 근로동기를 갖게 되고 근로성과 역시 좋지 못하다는 평가이다.

돈 낭비지. 막말로 안이하다고 우리는 놀고먹어도 돈 나오니까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비현실적인.. 이렇게 있어도 돈은 주는데 그러면 안 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 해라하고 기회를 주면 어떻게든 해볼 텐데 여건도 안 맞는데다가 그러니까 다들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고 그런 것들이 제 눈에는 보여요(참여자 임의번호 7).

두 번째 문제로는, 자활사업 운영과정에 참여자들의 만족이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 언급되었다. 자활당사자들의 욕구 혹은 선택적 대안들을 반영하지 않은채 사업운영자들의 계획대로 획일적으로 이루어져 참여자들은 운영자들의 일방적 계획을 무조건 수용하고 따라가야 하는 현실이라는 점이다.

욕구조사나 만족도 조사 하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아요. 물을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건지...”(참여자 임의번호 3).

위에서 알아서 다 짜서 예산으로 내려오면 그 설계로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참여자 임의번호 7).

세 번째 문제는 앞서 지적한 대로 참여자들의 욕구나 선호와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자활사업에서 지정된 근로활동이 대부분 단순노동(주방, 청소 등)들이라는 점이다. 자활사업의 특성이 참여자들의 자아실현의 욕구와는 거리가 멀어 일의 기쁨이나 보람보다는 낙인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평가하였다.

또 그 자활이라는 근무자체가 주방일, 아님 청소 그러니까는 정규직 사원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선택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시키세요 그

러니까는 안 그래도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공황장애로 시달리는 분들에게 남들이 하기 싫은 하찮은 일들을 시키세요. 자기들 하라고 하면 하지 않을 일들(참여자 임의번호 3).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한 자활 사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부정적 피드백들에도 불구하고, 몇몇 참여자들은 자활사업에 대한 감사함을 진심으로 표출하였다. 자활사업에서 얻는 재정적 이익은 적더라도 자녀양육의 주 양육자로서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여가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강점으로 꼽았다.

내 개인적으로는 자활하는 것도 참 감사하게생각해요.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아이를 어떻게 키웠을까 싶어요. 제가 이거 하기 전에는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 했었고요. 거기가 너무 늦게 끝나고 그래서 병원 구내 식당 일도 했어요. 근데 거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만날 울고 다니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이 자활이라는 것을 공무원께서 연결해 주셔서 했는데 솔직히 월급은 적은 데 적지만 고정적으로 나오고 아이랑 같이 토요일, 일요일까지 지낼 수 있다는 게 항상 훨씬 더 좋더라고요(참여자 임의번호 7).

사. 엄마로서의 분투와 보람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걱정스런 행동을 보일 때 그들의 삶을 가장 버겁게 경험하는 때’라고 보고한다. 자녀의 아빠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당당한 엄마로서 자녀를 잘 키워서 보여주고 싶지만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든 순간이라고 말한다. 특히 이 순간에 그들은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보이지 말아야 하는 행동(‘왜 데려왔는지 모르겠다’, ‘죽어버리겠다’)을 보이기도 하였다고 고백한다.

속으로 ‘니들 내가 왜 데려왔는지 모르겠다’ 욕 할 때도 많았고 너무 화났을 때는 엄마가 이런 소리하면 안 되는데 ‘아빠한테 가라고’ 했어요 ... 주변에서 ‘혼자 키우니까 애들이 이렇지’ 라는 소리 듣기 싫었다고 막 이런 거나, 나중에 그 사람이 우리 애들을 버렸어도 우리 애들이 크게 잘 되는 걸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힘들었죠 그때마다 막말 많이 했어요 ‘엄마가 너네들 이런 거 보려고 키우는 줄 아냐.’ 심할 때는 죽어 버리겠다는 소리도 하고 그랬었어요(참여자 임의번호 4).

참여자들은 경제활동을 병행하면서 자녀 돌봄과 교육을 책임지는 한부모 역할이 매우 당황스럽고 힘들었음을 회고한다. 그들은 이 때 느꼈던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과 답답함의 감정들을 기억하였다. 그들은 대부분 이혼, 빈곤, 한부모로서의 현실로 인해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혼돈스러운 우울증이나 불안을 경험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제 능력이 못되어서 학원도 못 보내고 이혼하고 제가 지식이 많이 있어서 아이가 물어보면 척척 알려준다든지 이런 것을 못하니까 나도 답답해요. 아이한테도 아이가 물어봐도 포기해버리고 그럴 때는 좀 답답하고 미안하지. ...돈이 없어서 밤늦게 아르바이트로 식당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참여자 임의번호 5).

제 스스로 바보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모르는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너무 싫고, 우울증도 온 것 같고... 제 자신이 너무 멍청하다는 느낌. 그래서 싫었죠(참여자 임의번호 2).

더불어 참여자들은 ‘아빠의 부재’로 인해 자녀들이 겪고 있는 현실들이 슬픔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자녀가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더라도 엄마

를 위해 크게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알고 있기에 그 자녀의 엄마 마음은 더 짠하다.

힘든 점은 아이가 다른 가족들을 비교하면서, 다른 가정의 모습과 다르니까, 그
게 제일 미안하죠? 딸의 일기장을 보고 아빠얘기안할 때..(참여자 임의번호 2).

반면 그들은 힘겨운 삶의 역경 속에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은 사랑하는 자녀의 ‘엄마’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가능했다고 진술하였다.

혼자 살 때는 죽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힘들지 않으니까. 자식으로 인해서
힘들고 그럴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싶을 때도 있지만 자식을 위해서 내
가 살아야지, 우리 애들은 어디로 가. 내가 있음으로 해서 집이 있고 없었다
면 뿔뿔이 흩어지지만 아이로 인해서 사는 것도 많아요(참여자 임의번호 1).

앞서 살펴본 ‘엄마로서의 분투와 좌절’ 속에서도 참여자들은 ‘엄마로
서’ 그들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의연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한
부모로서 힘들지만 끝까지 자신들을 지원하고 지켜주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자녀들의 엄마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과 존중의 표현들로 인해 가
능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딸애가 다른 집 부모와 비교해서 나를 좋은 엄마라고 칭찬해주지요... 그
냥 나쁜 엄마는 아닌 것 같아요(참여자 임의번호 2).

내가 아이에게 그런 소리해요. 당당하게 살라고 어떨 때는 아이가 저에게 그래
요. 나 엄마가 좋다고 우리엄마가. 밖에 나가서 모임 있으면 늦는다고 말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늦지 거의 저는 딱 끝나면 집에서 지키고 있어요. 엄마

가 당당해야지 아이에게도 큰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참여자 임의번호 7).

아. 자활의 동력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녀들의 존재는 참여자들의 자활 동기와 의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자녀들의 존재 외에 참여자들의 삶의 동기와 에너지에 원천이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조건들이 있다. 참여자들은 ‘부모의 존재’, ‘종교적 신념’, ‘나눔과 봉사’ 등이 그들 삶을 긍정하고 힘든 현실조차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보고한다.

저는 아빠바라기예요 ...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이고 살아가는 힘은 아빠예요 ...저를 지켜주고 우리 아이들도 키울 수 있고 원동력이고 받침이죠 ...가끔 답답하면 엄마한테 가요, 산소에.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위로가 되었어요.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너무 힘들 때는 엄마에게 가서 얘기를 많이 해요. 아빠가 땅이라 면 엄마는 하늘에서 저를 지켜주는 거죠(참여자 임의번호 4)

내가 수급자가 자연스럽게 된 것처럼, 내가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또 다시 갈 거다. 그러니까 내가 막 억지로 삶을 억지로 산다고 되는 게 안 되더라고요...이렇게 나의 삶을 전체적으로 말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도 제 자신이 신기하죠(참여자 임의번호 3).

우울증이 있을 때 내가 봉사를 해보자 그러면 내가 얻은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봉사를 하다 보면 더 아랫사람을 보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 왜 우울증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위에만 쳐다보면, 저도 위를 쳐다보면 화나죠. 내가 위만 보면 화나지만 밑을 보면 ‘아,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이 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난 왜 못사나, 더 힘내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임의번호 5).

자. 미래 지향적 자활

참여자들은 빈곤과 자녀양육으로 쉽게 지칠 수 있는 것이 한부모의 삶 이기에 미래지향적인 계획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의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더불어 참여자들은 자활을 장기적 차원의 삶의 지속 적 과제라고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생계유지하는 차원에서 복지의존이나 근로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전략이라고 평가한다. 따라서 자활당사자들을 돕는 길은 그들에게 스스로 삶을 계획하고 '물고기잡 는법'을 터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 다고 인식하였다.

바로 하는 거하고 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누가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했지만 제일 처음에 저도 그랬 지만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어떻게 데리고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 것인 지,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인지 천천히 방법을 찾아서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야지만 앞으로 나가지 하루하루 주는 대로 먹고 그러면 발전 이 없어요(참여자 임의번호 2).

노숙자들도 하루 하루는 살아요, 사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고 기를 잡아서 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기를 잡을 것인지를 알려줘야 한다 는 거죠. 지금은 고기를 잡아서 주면 편하고 배부르니까 나중에 배고플 때 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줄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참여자 임의번호 6).

제3절 소결

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활에 대한 사회복지적 논의에 빈곤가구 한부모 여성의 내부자적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참여자들은 자활이라는 용어를 주로 자활사업과 연관된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그 원뜻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영세민’, ‘밑바닥’ 과 같이 그들 스스로 ‘사회적 약자 혹은 빈곤층로서의 낙인감’을 ‘자활’의 이미지로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이미지는 특히 자활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참여자들이 표출한 것으로, 그들의 자활사업 경험에 대한 평가적 인식을 살펴보면, 그들이 왜 그런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자활 당사자들의 관심이나 만족여부에 대한 환류 과정 없이 위로부터의 일방적 기획과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자활사업이 참여자들의 자활 의지와 근로동기를 제대로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자활정책 및 프로그램 의사결정자들이 참여자 중심의 지향성을 반영하고 포함시켜 나가야 자활사업의 긍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위 연구에 참여한 한부모 여성들은 그들 스스로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자녀를 위한 주양육자로 거듭나야 하는 현실이 매우 당황스럽고 힘겨웠지만, ‘자활’이라는 삶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에서 제시된 것처럼, 복지의존에 대한 참여자들의 현실 부정과 낙인감은 수급 초기 시기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들이 점차 자녀를 위한 주양육자로서의 책임감과 자활 의지를 세워 나가면서 오히려 ‘복지 수급 및 의존’ 현실을 당당하게 수용하고 국가의 복지지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 욕구를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나아

간다. 즉 빈곤과 복지의존의 현실에 대한 참여자들의 대처 과정이 건강하게 발전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복지의존에 대한 국가의 우려는 일반적으로 수급자 개인들의 자립 및 근로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가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본 연구에서 탐색한 참여자들의 자활 인식과 현 자활사업에 대한 욕구 등을 고려할 때 그 가정은 타당하지 않다.

셋째, 일반적으로 자활개념은 소득, 근로여부, 복지의존 여부 등의 경제적 지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의 참여자들에게도 ‘경제적 자립 혹은 자활’의 의미는 가정경제를 홀로 책임져야 지고 자녀의 주양육자로 살아가는 한부모 여성들의 현실에서 절대적 우선순위로 인식되어진다. 그러나 그들 역시 ‘짧지도 쉽지도 않은 자활의 여정’을 지속적으로 버티고 걸어가기 위해서는 ‘경제력’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정신적 기제(자아실현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혼, 한부모, 수급자, 빈곤층이라는 사회적 낙인감 뿐만 아니라 애달프고 고달픈 부모 역할의 도전들을 담담하고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는 그들 ‘마음의 힘(자존감, 자신감)’이 경제력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위 연구결과와 정책적·실천적 함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빈곤층 자활 당사자들에게 ‘자활’의 이미지가 원래 뜻과 취지와는 다르게 전달되고 표현되는 것은 그들의 ‘자활사업’ 참여 경험이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된 자활사업의 평가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그들이 처한 현실과 부합한 사업의 성격과 목표가 설정될 때 ‘자활사업 참여’가 그들 당사자들에게 실제적 자활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부모 빈곤여성들이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면서 탈빈곤과 탈수급을 성취한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 목표가 될 수 있다. 특히 미성년 학령기 자녀들을 양육하는 시기에 있는 한부모 여성들의 자활과정에 있

어 ‘복지의존’은 매우 긴요하고 필요한 단계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 시기에 탈수급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그들의 건강관리와 부모역할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와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것이며, 이는 장기적 차원에서 그들이 자활적 삶에 도달하는 것을 앞당기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자활’은 결코 한 개인의 경제적 자립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 자활은 그의 사회적 관계와 일상생활의 질(개인, 부모, 직업인으로서)과 연관되어 있는 총체적 삶의 과제이자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의 자활 정책 차원에서 취약계층 한부모 여성들과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줄 수 있는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더불어 미래지향적 자활 차원에서 자활 당사자들이 ‘일 혹은 사회적 참여(나눔과 봉사)’을 통해 자아존중과 자아실현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직업 능력 및 자아 개발 프로그램을 자활사업과 연동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제9장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경험한 삶의 변화와 탈빈곤 전망: 혼합방법론을 중심으로

제1절 서론

제2절 이론적 배경

제3절 질적 분석

제4절 양적분석

제5절 결론

9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 경험한 삶의 변화와 탈빈곤 전망: 혼합방법론을 중심으로17)

본 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의 1~3차년도 자료 중 세 개의 웨이브 자료를 모두 갖고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14인의 빈곤 가구의 가구주를 분석하여, 이들이 지난 3년간 경험한 삶의 변화와 탈빈곤과 탈수급(수급자의 경우) 전망에 대한 맥락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어서 순차적 탐구전략에 따른 연구설계를 활용하여, 질적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확인하기 위한 양적자료 분석을 실시한다. 양적분석은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 자료 중 저소득층 패널(중위소득의 60% 미만)을 활용하며, 질적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가설들을 변량분석과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제1절 서론

본 장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경험한 삶의 변화와 탈빈곤과 탈수급 전망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이어서 순차적 탐구전략(Sequential Exploratory Design)에 따른 연구설계(Creswell, 2009; Creswell et al., 2003)를 활용하여, 질적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확인하기 위한 양적자료 분석을 실시한다.

빈곤 연구자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연구주제 중의 하나는 빈곤의 진입

17) 조준용(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과 탈피를 설명하는 역동성과 관련된 연구일 것이다. 이 주제는 초창기에는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한 연구들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노동시장 변수 등을 활용한 빈곤의 동태적 분석을 통해 나타났으며(구인회, 2005; 구인회 외, 2008; 금재호·김승택, 2001; 김교성·노혜진, 2009; 김교성·반정호, 2004; 김은하, 2009; 유태균·박효진, 2009; 임세희, 2006; 지은정, 2007), 이후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심리적 요인 등 보다 확장된 변수들을 사용하여 탈빈곤 뿐만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 탈수급을 연구하는 경향으로 발전하고 있다(안서연 외, 2011; 이원진, 2010a, 2010b). 이러한 연구들은 빈곤층의 탈빈곤과 탈수급을 촉발하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적인 규명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곧 빈곤정책에 관심이 있는 빈곤 연구자와 정책가들에게는 빈곤정책의 방향성과 효과성에 대한 생산적이고 실천적인 토론을 유발하였다. 특히 종단적 자료를 활용하여 통제된 변인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이고 일반화 가능한 인과적 관계에 대한 설명들은, 빈곤의 역동성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거시 빈곤정책의 운영 방향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과 같은 빈곤에 대한 양적분석은 연구자 혹은 정책가 중심의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측정 변수들 역시 심도 깊은 현상의 본질을 하나의 수치로 단순화하고 있어, 빈곤의 역동성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태도, 행위 동기 및 결과, 맥락, 삶의 통찰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점도 있다(김교성, 2011; 조준용, 2012). 또한, 기존의 양적연구들이 사용한 변수들이 갈수록 포화상태가 되고 있고, 더 나아가 획일적인 실증주의에 기반한 연구 경향들은 다른 지식기반에 근거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할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하기도 한다. 그리고 결과의 해석이 확률적 통계모델에 기반하여 변수간의 단선적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되는 변수가 반복되고 정책적 함의도 비슷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빈곤 역동성의 원인이나 동기 또는 이와 결부된 개인적 경험이나 인식의 맥락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양적연구들은 심도 깊은 당사자들의 경험을 축약하여 수치화한 변수들의 일반화된 관계에 관심을 가지다보니, 삶의 경험들에서 나타난 총체적 관점과 맥락적 관계에 기초한 분석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특히 탈빈곤이나 탈수급과 같이 관찰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빈곤지위의 변화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단선적이고 확률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변화의 과정에서 연구대상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겪는 경험과 인식의 변화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병행되지 않으면, 현상의 총체적 이해가 쉽지 않다. 어찌보면 다분히 획일적인 연구주제와 비슷한 변수의 반복은 연구자나 정책가의 관심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대상자들의 삶을 이해하고 경험과 인식의 변화를 추적하며, 그러한 변화의 맥락에서 탈빈곤과 탈수급을 논의하는 것은, 보다 다양한 인식론의 기반을 둔 지식의 탐구와 연구방법론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측면과 함께 대상자를 먼저 이해하고 효과성을 높이는 빈곤정책을 연구할 수 있는 대상자 중심의 정책이 가능한 기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지난 3년간의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의 자료 중 세계의 웨이브 자료를 모두 갖고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14인의 빈곤 가구주를 분석하고, 이들이 지난 3년간 경험한 삶의 변화와 탈빈곤과 탈수급(수급자의 경우) 전망에 대한 맥락적 분석을 시도한다. 본 장에서 연구대상자들의 전망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난 3년간의 인터뷰 자료 검토 결과, 아직도 빈곤지위나 수급자격의 변화가 동태적으로 관찰된 사례가 나타나

지는 않아 불가피하게 의식 영역인 전망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점이 크다. 하지만, 기존연구에서 나타나듯, 이러한 탈빈곤(탈수급)전망이 실질적인 지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안서연 외, 2011), 이러한 연구가 추후의 가시적인 지위 변화에 대한 선행적 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우선 질적자료 연구를 통해 연구대상자들이 경험한 삶의 변화와 탈빈곤과 탈수급 전망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시도하고, 이어서 순차적 탐구전략(Sequential Exploratory Design)에 따른 연구설계(Creswell, 2009; Creswell et al., 2003)를 활용하여, 질적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확인하기 위한 양적 분석을 실시한다. 양적 분석은 우선 변량분석을 통해 탈수급 유형에 따른 소득차와 가계전망, 수급여부에 따른 비경상 소득과 자존감의 차이에 대한 가설 검증을 시도한다. 그리고 교육과 생활형편, 자존감, 비경상 소득 및 탈수급 전망간의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탈수급 전망과 생활형편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가설 검증을 시도한다.

제2절 이론적 배경

1. 탈빈곤과 탈수급의 개념 및 기존연구 검토

우리나라에서 탈빈곤과 탈수급의 개념은 엄밀히 말해 다른 개념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탈빈곤은 탈수급의 충분조건으로서, 탈수급이 되어도 탈빈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소득빈곤에도 불구하고 탈수급을 하는 경우를

탈빈곤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 여유진 외(2004)나 이원진(2010)은 탈수급 형태를 단순히 ‘제도적 탈수급’을 한 것과 ‘탈빈곤적 탈수급’을 한 경우로 나누었고, 노대명·원일(2011)은 ‘성공적’ 탈수급과 ‘행정적’ 탈수급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은 한국복지패널 중에서도 중위소득 60% 미만의 저소득층 패널에서 추출된 것으로, 특히 14인의 빈곤 가구주의 경우는 수급권자와 비수급권자가 혼재되어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빈곤 지위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비수급권자의 향후 생활 형편 전망과 수급권자의 ‘탈빈곤적 탈수급’에 대한 전망 및 ‘제도적 탈수급’에 대한 전망을 동시에 포함하게 된다.

한편, 패널자료를 활용한 기존 대부분의 빈곤과 관련된 양적연구들에서는 빈곤의 역동성을 절대적 빈곤선이나 탈수급과 같이 뚜렷하게 측정 가능한 종속변수들을 빈곤 지위의 변화로 정의하고 이를 종속변수들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표 9-1>은 이러한 연구들을 사용자료 및 사용된 변수들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표 9-1〉 빈곤의 역동성과 관련된 기존연구 정리

연구자	사용자료	독립변수	종속변수	정책제언
김재호 김승택 (2001)	한국노동패널 (1998-2000)	여성가구주(-), 가구원수, 가구주연령(-), 가구주교육(-), 가구순자산(+)	빈곤결정요인, 동태분석: 빈곤탈출(+), 빈곤진입(-)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고용의 질적 향상
김교성 반정호 (2004)	한국노동패널 (1999-2001)	연령(-), 교육년수(-), 건강상태(-), 빈곤 경험여부(+), 비정규취업자·실업자(+), 서 비스업·제조업(-), 직업형태 중 관리직 문·사무직·서비스·생산직(-)	빈곤진입	차별화된 근로연계복지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결혼상태(+), 가구원수(-), 빈곤경험여부 (-), 비정규취업·실업자(-), 서비스·제조 업·운송창고업·1차 산업(+), 직업형태(사무직·서비스직·생산직+)	빈곤탈출	
홍경준 (2004)	한국노동패널 (1998-2002)	가구주연령(노인가구 포함여부 따라 다 름), 가구주(원)학력(+), 취업가구원수(+), 가구주 취업지위(+)	빈곤 이탈 이행률(+)	빈곤근로가구 소득 보장 프로그램 확대, 근로 빈곤층 취업기회 제공, 적극적 고용전력, 공 공부문 고용 질 향상
구인회 (2005)	한국노동패널 (1998-2003)	빈곤진입시기(IMF이후+), 가구주연령(중년층이상-), 가구주 교육(고졸까지+), 부양아동(+)	빈곤탈출(+)	장기빈곤 해결 위해 노인빈곤층 집중, 여성가구주 위한 대책, 근로소득 향상 위한 제도

연구자	사용자료	독립변수	종속변수	정책제언
구인회의 (2008)	한국노동패널	프로빗 분석. 남성가구주인 경우 학력(+), 건강(+), 50대 이상 중고령(+), 고등학생 이하	탈수급 (+) 탈수급 (-)	
임세희 (2006)	한국노동패널 (1998-2002)	취업여부(+), 취업의 질(정규직+), 빈곤기간(-), 비근로소득(+)	빈곤탈출확률: 빈곤탈출에 유리한 변화(+) 빈곤탈출에 불리한 변화(-)	빈곤층에 대한 노동시장정책 강화, 고용안정성 및 질 확보, 비근로소득 변화에의 관심 필요.
지은정 (2007)	한국노동패널 (2000-2004)	근로빈곤 노동시장 참여기간(-)	근로빈곤 탈출(+)	노동수요 활성화정책, 노동시장구조 개혁, 빈곤층 노동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및 차별 완화 정책
김교성 노혜진 (2009)	한국노동패널 (1998-2007)	여성가구주(-), 연령(-), 교육수준(+), 취업상태, 지역(GDP·사회보장비용+, 실업률-)	빈곤 탈피(+)	지역사회 수준에서 기회구조의 개선 및 복지 환경 조성 고려
김은하 (2009)	한국노동패널 (1999-2006)	노동시장 경력, 교육수준, 직업훈련, 배우자 유무, 가구원수(-), 이전소득(+), 낮은 노동시장지위(-), 자영업(-), 서비스·판매직(+)	근로빈곤 여성들의 빈곤탈출(+)	교육보다는 좋은 일자리가 더 중요함. 공적이직이 필요함. 사회보험 적용의 확대.

연구자	사용자료	독립변수	종속변수	정책제안
유태균 박효진 (2009)	한국노동패널 (2001-2005)	연령(-), 배우자(+), 근로여부(+), 교육수준(+), 근로가구원수(+), 노인가구원수(-), 공적이전비용(-), 사적이전비용(-)	남성가구주 빈곤탈피(+)	성별 고려한 빈곤정책, 여성빈곤가구 가구주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지원 필요
		연령(-), 근로가구원수(+), 노인가구원수(-), 건강상태(+)	여성가구주 빈곤탈피(+)	
이원진 (2010a)	한국복지패널 (2006-2008)	수급기간(-), 연령(40세 이상-), 교육수준(고졸이상+), 좋은 건강상태(+), 배우자(-), 부양아동(-), 취업(+)	탈빈곤적 수급탈출(+)	다양한 정책방안을 통한 수급탈출 촉진 및 차 상위 계층의 수급진입 예방, 부정적 정책수단 지양, 수급탈출확률이 높은 집단의 조기탈출
		수급기간(-), 수급진입시기('01이후+)	탈제도적 수급탈출(+)	
이원진 (2010b)	한국복지패널 (2006-2008)	수급진입(+) 우울(+)	우울(+) 수급진입(+)	
안서연 구인회 이원진 (2011)	한국복지패널 (2006-2009)	수급기간(-), 가구원수(-), 대표근로능력자(남성+, 혼인상태(미혼-), 교육(고졸+), 좋은 건강상태(+), 상용직·고용주·자영업자(+), 3년 이내 수급탈피 전담(+), 정신건강 변수(집단별 상이)	수급탈출(+)	기존의 합리적 선택모형 접근을 기대모형 관 점으로 보완 수급자 집단별 이질성 고려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앞서 서론에서 제시했듯이 인구사회학적 변수, 노동시장 변수, 제도적 변수 등 상당 부분 유사한 변수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빈곤 역동성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유사성은 패널자료의 사용이 오히려 연구자들의 인식의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을 야기할 정도이기도 하다(조준용, 2012). 물론 비교적 최근에 나온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빈곤제도 관련 변수들과 연구 대상자들의 인식 및 심리 상태에 대한 변수들이 포함되어있어, 보다 다차원적인 빈곤연구가 가능하게 된 측면도 있다. 일례로 이원진(2010b)의 경우 심리 정서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여 우울과 수급 진입 및 탈피를 연구하였고, 안서연 외(2011)는 자존감과 주관적 수급탈피 전망이 수급탈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안서연 외(2011)의 연구에서는 자존감과 주관적 수급탈피 전망이 수급탈출에 영향을 미치며, 기존의 합리적 선택모형 중심접근은 기대모형의 관점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수급자의 수급유지가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 이해된다고 하지만, 이미 많은 실패의 경험을 겪으며 가족해체, 재산소진의 과정에서 무기력증을 체득한 측면도 있으며(Ellwood, 1994, 안서연 외(2011)에서 재인용), 따라서 단순히 인센티브만으로 탈수급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수급자의 심리 정서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빈곤층에게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여 블랙박스를 통과하면 탈수급이 이루어진다는 단선적이 사고가 아니라, 블랙박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심리 정서적 경험을 이해하고 이에 기반한 탈빈곤 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층이 경험한 삶의 변화와 탈빈곤 전망에 대한 맥락적 분석을 시도하고, 이러한 질적분석 결과의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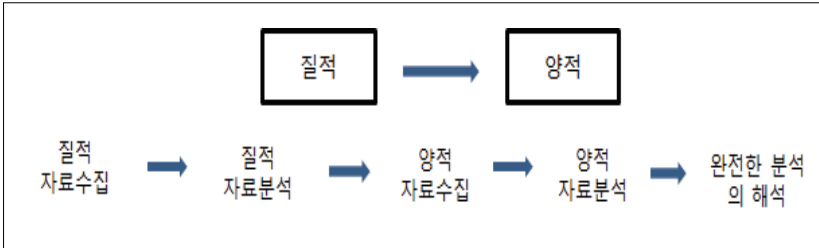
석과 확인을 위한 양적자료 분석을 혼합연구 형태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모형

본 장에서 시도하는 혼합연구는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를 결합하거나 연합시켜 탐구하기 위한 접근으로, 단순히 두 가지 종류의 자료를 모아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연구의 효과성이 더 커지도록 두 접근을 함께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Creswell & Plano Clark, 2003; Creswell, 2009). Creswell(2009)는 이러한 혼합연구 방법을 크게 순차적 설명전략과 순차적 탐구전략, 순차적 변형전략, 동시적 내재전략, 동시적 변형전략 등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의 순서, 강조되는 연구방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관심이 있는 근로능력자들의 삶의 변화와 탈빈곤 인식에 대한 종단적 고찰은 질적 연구로부터 출발하여 자료를 분석한 후, 부차적인 연구로 양적연구를 실시하여 질적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질적 연구결과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일반화하려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Creswell(2009)에 따르면 질적 분석을 선행하고 이에 기초하여 양적 분석을 시도하는 순차적 탐구전략(Sequential Exploratory Design)에 해당한다. [그림 9-1]은 이러한 순차적 탐구전략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9-1] 순차적 변형전략 연구설계



자료: Creswell et al., 2003, Creswell, 2009에서 재인용

제3절 질적 분석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표 9-2>에 정리된 바와 같이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의 1~3차년도 자료 중 세 개의 웨이브 자료를 모두 갖고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14인의 빈곤 가구주이다. 우선 연령대는 35세에서 60세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여성이 13명이고 남성이 1명이다. 2013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는 6명이며, 나머지 8명은 비수급 상태였다. 이들의 결과적으로는 노모의 사망과 아들의 대학포기로 가구원수가 줄고 추정소득이 생겨서 탈수급을 경험했던 한명(패널참여가구 7)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지난 1년간 수급지위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양적연구에서 본다면 종단적 측면에서 수급지위에 대한 변량이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어, 빈곤지위 변화에 대한 결정요인이 분석이 힘들게 된다. 하지만 이후에 나타나는 심층면접에 대한 분석을 보면, 삶의 경험의 변화뿐만 아니라 빈곤 지위나 탈수급의 지위의 변화에 대한 전망도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질적종단자료 분석을 통해 경험의 변화에 따른 빈

곤 지위 및 수급 지위의 변화에 대한 전망에 대해 맥락적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 이처럼 빈곤 지위 전망에 대한 논의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향후 지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질적인 변화에 앞선 선행적 연구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2. 삶의 경험의 변화, 그리고 인식

여기서는 지난 3년간 연구 대상자들이 경험한 빈곤과 관련된 삶의 경험과 인식을 3차년도에서 드러난 변화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경험의 변화에 대한 고찰은 이후 탈빈곤 전망을 설명하는 주요 맥락적 요소가 된다.

가. 고단한 삶의 연속: 사별, 죄책감, 자녀문제, 무기력함

본 연구대상자들 중 상당수는 빈곤한 삶의 고단한 경험을 지속하며,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었다. 치매노모의 사망(패널참여가구 7)이나 시모의 사망(패널참여가구 21)가 같이 가족과의 이별을 경험한 경우는 제대로 잘 모시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회한의 감정에 어려움을 겪고, 이러한 가구 구성원의 변화가 탈수급을 초래할 경우에는(패널참여가구 7)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감이 극에 달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한다. 또한 건강상의 문제들은 계획했던 탈빈곤 노력을 실행할 수 없는 큰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패널참여가구 7, 77, 21). 또한 탈빈곤의 희망으로 생각했던 자녀가 학업을 포기하거나 게임중독, 가출 등의 엇나가는 행동을 할 때에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패널참여가구 7, 92).

〈표 9-2〉 연구대상자 특성 요약(n=14)

참여 가구	나이	성	학력	가구특성 및 변화 (‘13)	빈곤경험 (‘11, ‘12)	경험의 변화 (‘13)	탈빈곤 노력의 변화(‘13)	탈빈곤/탈수급 전망 변화(‘13)	수급지위 변화 (‘11→‘12→‘13)
7	57세	여	고퇴	한부모가구, 아들(재수생→ 대학포기), 치매노모 사망	이혼, 주식실패, 건강문제	건강악화 자살생각	자산형 성취감→ 체념	이들의 성장→체념	수급→수급→ (탈수급→수급)
24	49세	여	대재 → 대졸	한부모가구, 아들2(1: 지적장애)	이혼, 미성사, 장애로 구직 어려움	대학졸업	대학 교육→ 좋은 일자리 구직	대학 졸업후 탈수급 →수급 유지	수급→수급→수급
53	60세	여	초퇴	한부모가구, 딸(대학 졸업 후 취업).	이혼뒤 일용직 전전, 건강 나쁨	딸의 취업 건강회복	일용직→ 희망키움 통장 만기 다가옴, 보험들기	자신이 딸에게 부담될까 우려	수급→수급→수급
71	42세	여	대졸	한부모가구, 딸(중)	이혼, 인터넷 쇼핑몰	수급액 감소	근로증가	지속적인 근로 계획	수급→수급→수급
76	38세	여	대재 → 대학원	한부모가구, 딸(초)	이혼뒤 총격, 자살	대학원 진학	탈수급 유보	대학 졸업→수급권 가치에 미치는 직장 없음	수급→수급→수급
77	48세	여	고졸	한부모가구, 딸2(성인) 아들(초) 장애가구	이혼, 교통사고로 가구주와 딸 장애	건강악화	자영업 계획→ 건강악화로 포기	비관적임	수급→수급→수급
29	35세	여	고졸	남편과 이혼후 재결합, 셋째 출산	이혼뒤 식당, 청소 등 일용직 전전	셋째 출산으로 비용 부담	마트에서 일함	경제 형편을 어려워나 가정 행복도 높음	비수급→비수급→ 비수급

참여 가구	나이	성	학력	가구특성 및 변화 (‘13)	빈곤경험 (‘11, ‘12)	경험의 변화 (‘13)	탈빈곤 노력의 변화(‘13)	탈빈곤/탈수급 전망 변화 (‘13)	수급지위 변화 (‘11→‘12→‘13)
98	41세	여	고퇴	한부모가구, 아들(초) 딸(중)	이혼, 자녀 양육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	보험회사 사직	새로운 직장 구직 중	빈곤 대물림 두려움 → 적은 급여라도 경제활동 지속	비수급→비수급→ 비수급
12	40세	여	대졸	배우자(남편), 딸(초)	남편이 자신이 일하는 것 원치 않음. 전셋집 빚	외도로 위기	자신 사업장 생김	빈곤 대물림 두려움→ 사업장 이후 두려움 줄어듦	비수급→비수급→ 비수급
13	46세	여	대졸	한부모가구, 딸(중)	이혼, 과외수업 생업			빈익빈 부익부→ 근로=자존감	비수급→비수급→ 비수급
21	54세	여	고졸	배우자(남편), 딸2(성인 장애, 대학생), 아들(중)	남편사업 파산으로 부도, 남편가출 등 위기	건강악화, 시도 사별→ 죄책감	본인은 일당 받는 일, 남편은 시댁 사업	빈곤 물려주느니 자살 → 공과금이 안떨리면 웃는 것	비수급→비수급→ 비수급
32	51세	여	중졸	배우자(남편), 딸3(대학생2, 초1)	남편 화물차 운전, 부채		요양보호사	수급은 더 낙후되게 만들 것	비수급→비수급→ 비수급
73	59세	여	중퇴	1인단독가구, 건강 나쁨, →재혼	빚, 이혼	남편이 빚해결	산재→유급자원봉사	재혼으로 나아짐	비수급→비수급→ 비수급
92	55세	남	중졸	배우자(아내), 아들2 분가(대학 중퇴)	외환위기, 빚보증, 아내 장애(정신분열)	토지보상 받아 이사감	계속 세탁일하고 있음	토지보상으로 도움받음	비수급→비수급→ 비수급

제 마음으로는 계획을 그렇게 (5년 뒤에는 아이가 돈을 벌고 하면 나아질 것) 잡았는데, 애가 또 그렇게... 마음을 못 잡고 그러니까 제가 실망해가지고(패널참여가구 7, 3차년도 인터뷰).

나. 빈익빈 부익부, 빈곤의 대물림

고단한 삶의 연속에서 결국 자녀에게도 빈곤이 대물림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출발점이 달라서 노력해도 안된다는 생각은 절망적이기도 하다.

제가 지금 최고 걱정이 가난을 아이들한테 되물려 주는 것이 최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3대가 망해도, 먹을 것은 있다고 부자는 영원히 부자가 되더라고요(패널참여가구 92, 2차년도 인터뷰).

가난이 가난을 물려주는가봐, 그말이 맞는가봐, (대책이)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우울증 걸릴 것 같다고요(패널참여가구 7, 2차년도 인터뷰).

솔직하게. 대부분의 있는 집 자식들이 잘되고 계속 잘되는 게 대물림 되잖아요? 근데 못사는 집들은 자식 못 가르치니까 계속 가난하게 되고 힘들어요 그 밑에서 밖에 못 놀아요 남들은 해외도 가고 학원도 다니니까 하나를 알려주면 똑 같은 상황에서 주변을 더 많이...(패널참여가구 98, 3차년도 인터뷰).

희망이 없는 것 같애. 빈익빈 부익부. 점점 갈수록 요즘엔 교육도 그런 것 같아요 점점 갈수록. (잘하는 애들은) 잘할 수 밖에 없고 못하는 애들은... 출발이 달라(패널참여가구 13, 3차년도 인터뷰).

빈곤을 물려주느니 자살 (패널참여가구 21, 2차년도 인터뷰)... 지금 애가 스물 일곱인데, 앞으로 3년만 있으면 30살인데, 지가 혼자니깐은 수급자잖아. 그럼 거기에 수급자 돈이 인제 4-50만원 나오겠죠?(패널참여가구 21, 3차년도 인터뷰).

다. 자녀에게 짐되지 않기 위한 노력

자녀의 성장 및 취업에 따라 탈수급이 예상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 등의 자산형성(패널참여가구 53)이나 민간 건강보험 가입 등을 통해, 당면한 탈수급을 준비하기도 한다.

응~~인자 왜 했냐면은, 자식인데 나중에는 내가 그런거라도 안들어놓으면 자식이 고생인데. 아파가 막 그래봐라. 자식이 뭐 자꾸 엄마한테 그 돈 병원비 대줄라고 해봐라. 그거 우짖끼고.. 딸 시집가고, 내가 인제 그때 되면 또 뭐 벌일 수 있는 능력도 안될거고.. 딸이 뭐, 딸이 엄마 굶가 죽이겠다. 바라지도 않하지만은... 나는 바라지도 안해. 지 시집가서 잘 살면 되는데, 근데 딸 입장에서는 또 엄마 혼자 이렇게 있으면 또 마음 아프잖아(패널참여가구 53, 3차년도 인터뷰).

패널참여가구 77의 경우 2차년도에 자영업 해보려는 의지를 보였으나 이제는 건강상태가 나빠져서 포기상태가 되고, 나중에 자녀에게 짐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우리아들 어느정도 커놓고 나면 크고 저 혼자 살아갈 수 있을 정도 되면 그냥.. 이승을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막 아프고 막~~힘들게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그냥 애들한테 내가 애들한테 내가 피해만 주지 않고 애들한

테 애들이 내가 짐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내가 짐만 안됐으면 좋겠어요.(침묵)..근데도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잘 모르겠죠 만약에 그 상황이 되면 양로원으로 가든지 해야죠..그쵸? (침묵)(패널참여가구 77, 3차년도 인터뷰).

라. 학력수준의 향상과 현실과 눈높이의 괴리

탈빈곤을 위해서는 좋은 직장을 잡아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급권자들이 널리 공감하고 있다.

일자리가 제일 낮지 않을까요? 돈보다는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근데 이제 이것도 문젠게, 멀쩡한 대학 나와서도 일 자리 구하기가 힘든(웃음). 이 마당에 그들을 위한 일자리가 또 어떻게 구해질 수 있느냐도 문젠 거 같애. 정말 전반적인 사회 문젠 거 같애..(패널참여가구 13, 3차년도 인터뷰).

(경제상황이)달라지려고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졸업후 취직하면) 내 자신부터 이제는 더 추리고.. 아마도 더 당당할 것 같아요...(취직후) 좀 안정된 생활을 할 것(패널참여가구 24, 1차년도 인터뷰).

그런데, 실제로 두 명의 싱글맘 수급권자(패널참여가구 24와 패널참여가구 76)가 질적패널 3차년도에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는데, 이들의 노동시장 경험이나 구직 노력은 이전과 차이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막상 대학을 졸업하게 된 다음에는 탈수급이 쉽지 않음을 얘기한다. 패널참여가구 24의 경우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 사회복지사 취업을 계획하였으나, 적은 급여를 가지고 장애가 있는 어린 자녀를 키워내기가 쉽지 않고,

수급자격 유지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취업을 포기하였다. “달라지려고 공부하고” 있던 그의 앞에 놓인 현실은 직장을 통해 “당당한” 삶보다는 “생존”을 위한 “벗어나기 힘든” 수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나은 것이 되었고, “월급을 많이 못 받는” 직업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패널참여가구 76의 경우 역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구주로, 아이 양육과 교육을 고려하면 취업을 통한 탈수급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보다 현실적으로 수급권이 갖는 유무형의 가치를 계산해보고, 이에 걸맞는 일자리가 나오기까지는 취업을 유보한다.

네. 그래서 내가 무슨 십일조가 20 만원입니까? ... 나중예요 일단 수급을 했어요... 정말 그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대략적으로 우리 애기가 급식비 받는 거라던가 이런걸 계산해보니 한 20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여길 벗어나려면 한달 수입이 최소한 300은 되어야겠구나(패널참여가구 76, 3차년도 인터뷰).

마. 안정적인 직장은 자율성과 자존감의 회복

이러한 수급권의 가치에 대한 생각은 패널참여가구 71에서도 발견되는데, 그는 현재 인터넷 쇼핑몰에서 나오는 근로소득과 생계급여의 합이 12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자신이 150만원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다면 탈수급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사실 150만원은 현재보다 30만원 정도 더 생기는 수준인데, 이 금액이 현물급여 등을 포기한 탈수급 가능 급여로 생각하는 것은,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급여가 나온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한 달에 꾸준히 얼마씩 나오는 게 되게 안정적이니깐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벗어나기 위해서..교육을 잘 받아서 좋은 직장을 일단은 가져야 가

능할거 같아요(패널참여가구 71, 3차년도 인터뷰).

이처럼 안정적인 급여제공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특히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계획이 서는 삶이 중요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근로동기에 대한 생각도 드러나는데, 이는 곧 자울성 및 자존감의 회복 의지로서의 일자리 찾기로 나타나기도 한다.

일하러 나간다는 게 고마울 때도 있더라고요. 내가 어디서는 필요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저에게 노동은 필요한 것 같아요(패널참여가구 71, 3차년도 인터뷰).

네. 밖으로 나와서 돈을 조금을 벌든 많이 벌든 나의 가치를 높이라고 하고 싶어요. 나는 어려서 안돼, 내 아이가 어려서 안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저도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집에서 살림만 하던 내가. 그렇게 생각 했었는데 나오게 되면 진짜 할 수 있는 게 참 많거든요. 나를, 내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만이 자식 키우는 것이나 그런 면에서 당당할 수 있고(패널참여가구 98, 3차년도 인터뷰).

(빈곤한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일할 수 있는 거... 돈도 돈이지만 일단 빈곤으로 인해서 느끼는 상실감이나 자괴감이 크잖아요. 삶을 이끌어 가는 데는, 자기가 조금 인정받고 있다는 그런 게, 내가 뭔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힘이 되게 클 텐데...(패널참여가구 13, 3차년도 인터뷰).

(취직해서 돈이 더 생기면 아이들)이) 지가 원하는 걸 해봤으면 해서요(패

패널참여가구 24, 1차년도 인터뷰).

패널참여가구 77의 경우도 150만원만 벌 수 있다면 수급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본인이 할 수만 있다면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

(월급을 150 정도 벌 수 있다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나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 포기를 할 꺼 같아요...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하면 좋겠어요...(패널참여가구 77, 3차년도 인터뷰).

바. 예상 밖의 경제적 문제 해결

때로는 1차 년도, 2차 년도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하여 경제적 형편을 돕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패널참여가구 73은 올해 재혼하여 남편이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다. 그전까지 배상금 지불 문제와 나쁜 건강으로 고단한 삶이 지속되고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적 환경이 안정되어 가고 있으며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고 있다. 패널참여가구 79는 IMF 이후의 빚잔치를 마감해가는 과정이나 대학을 중퇴한 큰아들은 게임중독이 되고, 정신장애가 있는 아내는 변화가 없으며, 노모를 모시게 되었다.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지만 살고 있는 집에서 토지 보상금을 받게 되어 이사를 하게 되고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기도 하였다.

3. 삶의 경험과 인식의 변화와 탈빈곤 전망

앞서 제시했듯 탈빈곤 전망이란 수급권자에게는 제도적 탈수급과 탈빈곤적 탈수급에 대한 전망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비수급권자에게는 보나온 경제적 환경에 대한 전망을 의미할 수 있다. 여기서는 질적패널 3차

년도에 나타나는 경험과 인식의 변화들이 이들의 탈빈곤 전망과 어떻게 맥락적으로 연결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제도적 탈수급 이후의 경험과 탈빈곤 전망

취업이나 경제적 형편이 좋아지는 일이 생기지 않아도 추정소득의 증가나 가구원의 사망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늘어나서 탈수급을 하게 되는 제도적 탈수급의 경험은 당사자에게 어떠한 경험이 될 것인가?

본 연구 대상자의 패널참여가구 7의 경우, 아들이 수능을 포기하고 치매 노모의 사망을 겪으며 추정소득과 가구원의 변화로 인해 수급권 탈락을 경험했고, 탈빈곤의 희망이었던 아들의 방황에 대한 체념과 우울을 경험하며 본인이 자살생각을 하는 등 3차년도에도 다시 한번 “무너진”(2차년도 인터뷰 당시 사용된 용어임) 경험을 하고 있었다. 또한 건강이 더 나빠지면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고단한 빈곤한 삶의 굴레를 경험하고, 이제는 자활계획이 없다고 말하며 탈빈곤에 대한 절망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결국 제도적 탈수급을 경험하고 자활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된 건강을 경험하면서, 자살생각과 같은 극한의 선택을 생각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후 건강을 사유로 다시 수급권을 획득하였는데, 적은 생계급여를 생각하면 구직하여 일을 하고 싶지만 건강이 허락하지 않고, 아들의 취업을 통해 탈수급을 희망했으나 이젠 전망이 어둡다.

이처럼 수급가구원의 변화 등의 사유로 제도적 탈수급을 한 경우, 괜찮은 일자리 등의 지속가능한 취업이나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는 한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할 뿐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현실에서는 고단한 삶이 이어지고 있는 빈곤층에게 탈수급을 유인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되고 있지만,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제도적 탈수급이란 언제든 다시 수급 상태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미완의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는 함의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들에게 빈곤이란 현상이 단순히 경제적 궁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사별할 때까지도 잘 모시지 못하고, 자녀들에게는 빈곤을 물려주는 것 같아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녀들 역시 출발점이 달라서 이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 것 같으며, 스스로는 앞으로 자녀들에게 짐박에 되지 않을 것 같아 한없이 낮아진 자존감이 공존하는 복잡한 현상이었다. 이들에게 부양의무자 기준, 가구원 수, 추정 소득 등의 행정적 기준들은 기댈 곳이 없는 현실에서는 사실상 더욱 전망이 없는 삶으로 내 몰고 있을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다.

나. 탈빈곤적 탈수급에 대한 전망

인터뷰에서 나타난 수급권자의 경우,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탈빈곤이 가능한 탈수급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들이 의존성이 크다는 기존 양적연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탈수급 확률이 떨어지는 현상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질적 분석은 이것이 반드시 의존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이들은 안정적인 직장이야 말로 자신의 자율성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로 여기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얻기에는 너무도 많은 장벽들과 어려움이 얹혀있다.

빈익빈 부익부와 빈곤의 대물림에 대해 자책하며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그래도 교육을 통해 좋은 직장을 잡는 것이 유일한 탈빈곤의 방법이다. 특히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의 경우는, 약간의 소득 상승보다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계획을 세워가며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야 말로 장기적

인 탈빈곤의 해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의료와 교육급여가 제공되는 수급권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가구주 본인이 대학을 졸업하는 등의 인적자본 향상이 이루어져 약간의 소득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직업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더라도(패널참여가구 24, 76), 이를 탈빈곤적 탈수급의 기회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제도적 탈수급을 기피하려고 노력하는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이들은 더욱 합리적인 계산을 시도하기도 하는데, 여러 사례에서 나왔듯이 현물과 현금을 포함한 나름대로의 수급권의 가치를 책정하고, 그보다 대략 50% 정도는 더 벌 수 있어야 수급권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에게는 가구 소득이 일정정도 증가하여 탈수급을 한다 해도, 현물급여를 포함한 수급권의 가치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소득 감소로 느껴져 더 빈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들에게 탈빈곤적 탈수급의 전망은 더욱 어둡다.

한편 동거 자녀의 취업과 함께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여 만기를 앞두고 있는 경우(패널참여가구 53)는, 단순한 가구 소득 증가뿐만 아니라 형성된 자산을 통해 탈수급 이후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기도 하였다. 희망키움통장은 일종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며, 그 사이에 미래를 계획하며, 민간 보험 등에 가입하는 등의 실천적 전략을 실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과 인식이 내포하는 것은, 이들이 단순히 의존적이라는 것보다는 제도적 탈수급이 아니라 탈빈곤적 탈수급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즉, 수급권자들이 수급권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탈수급으로 인해 더욱 빈곤해질 가능성을 인지하고, 위험을 피하려는 생존본능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탈빈곤의 계획과 전망이 있다면, 보다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 역시 경험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다. 비수급 근로능력자의 탈빈곤에 대한 전망

비수급권자의 경우라도 대다수가 고단한 삶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경제적 어려움과 빈곤의 대물림에 대한 고민, 자녀에게 짐될까 두려운 마음은 수급권과 관계없이 부정적인 탈빈곤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수급권자보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업을 갖거나 시댁의 도움을 받는 경우(패널참여가구 12, 13, 21, 98), 배우자와의 재결합(패널참여가구 29), 예기치 못했던 도움의 발생(재혼남의 도움/패널참여가구 73, 토지보상/패널참여가구 79) 등 상대적으로 빈곤이라는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이 있을 경우, 어느 정도 탈빈곤에 대한 긍정적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또한 일용직이라도 꾸준한 근로 경험이 있거나 가내 일자리 경험이 있는 경우는, 오히려 수급 행위에 대해 비도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이들에게 근로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며, 그것이 당당한 삶(패널참여가구 98) 이고 자기가 인정받는(패널참여가구 13) 삶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의 경우,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준비와 계획이 가능하기도 하였는데, 장애가 있는 자녀의 성인 이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여 미리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노력(패널참여가구 21)과 같은 것은 당당함과 자존감을 바탕으로 눈앞의 당장의 어려움보다 멀리 볼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제4절 양적분석

본 절에서는 앞서 질적연구에서 분석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삶

과 인식, 그리고 탈빈곤 전망을 바탕으로 양적연구를 위한 개념과 가설을 도출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하며,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를 활용하여 가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 자료는 질적연구에서 다루었던 탈수급이나 탈빈곤과 관련된 전망이 변수로 제시되었는 가장 최근에 공개된 자료이고, 질적연구와 연계된 자료라는 점에서 가설 검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은 질적 연구결과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일반화하려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 자료 중 근로능력이 있는(심신능력상 근로가능 및 단순 근로가능자) 빈곤층의 제도적 탈수급 경험, 탈빈곤적 탈수급 전망, 그리고 비수급층의 탈빈곤 전망과 관련된 가설들을 세우고, 패널조사 변수 중 탈수급 이유, 1인당 평균 가구소득, 학력, 자아존중감, 생활형편전망, 경제상황 및 복지수준에 대한 전망, 주관적 최저생활비와 적정생활비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질적연구에서 도출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1. 질적 연구에 기반한 추론적 가설

가. 제도적 탈수급의 경험과 관련된 가설

우선 제도적 탈수급 이후 경험과 탈빈곤 전망에 대한 질적 분석에서 나타난 인식은, 탈수급이 탈빈곤과 별개이며 제도적 탈수급은 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탈빈곤 전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아래와 같은 가설로 제시되었다.

1-1) 제도적 탈수급자는 수급자보다 소득이 많겠지만 탈빈곤적 탈수급

자보다는 소득이 낮을 것이다.

1-2) 제도적 탈수급자의 가계전망은 수급자보다 낮을 것이다.

나. 탈빈곤적 탈수급에 대한 전망과 관련된 가설

탈빈곤적 탈수급은 자신이 계산한 수급권의 가치(여기서는 주관적인 적정생활비) 이상의 소득이 가능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수급권의 가치 이상의 소득을 벌지 못하면, 비록 적은 액수의 현금급여를 받더라도 다른 현물급여와 혜택을 고려하여 수급권을 유지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연구나 수급권자들의 인식에서 도식처럼 자리 잡고 있는 교육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질적 분석 결과에서는 교육 그 자체로 탈수급전망을 높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교육의 효과는 인적자본의 향상 효과도 있고 좋은 직장 가능성도 높였지만, 더 좋은 직장이 아니면 근로를 유보하는 매커니즘으로 작용하기도 하였고,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계산을 하도록 만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수준이 직접적으로 탈수급 전망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생활전망 및 자존감을 매개로 하여 탈수급 전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 탈빈곤적 탈수급자는 제도적 탈수급자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적정 생활비 이상의 소득을 벌 것이다.

2-2) 교육수준이 탈수급 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생활전망과 자존감을 매개로 하여 나타날 것이다.

다. 비수급 근로능력자의 탈빈곤에 대한 전망

질적분석에서 나타난 비수급 근로능력자들의 삶의 경험은 수급권자들과 크게 차이하지 않았다. 고단한 삶과 경제적 어려움 등은 수급권자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전망을 경험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이 있었으며, 위험에 대응하는 기회와 자원이 있었다. 이때 양적 연구를 위해서 위험에 대응하는 기회와 자원은 비경상소득으로 조작적 정의를 시도하였다. 또한 수급권자에 대한 비수급 근로능력자들의 인식은 부정적인 편으로 보여 졌다. 이에 비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은 높은 것으로 보였다. 이것들은 보다 계획적이고 준비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생활형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탈수급 전망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수준, 생활전망, 자존감 등이 탈빈곤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교육수준은 매개효과 없이 직접적으로 탈수급 전망을 높이지 못할 것이라는 가설 (2-2)와 달리, 탈빈곤 전망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탈빈곤은 회피하려는 대상이 아니라 추구하려는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3-1) 비수급 집단이 수급 집단에 비해 비경상소득이 높을 것이다.
- 3-2) 비수급 집단이 수급 집단에 비해 자존감이 높을 것이다
- 3-3) 교육수준, 생활전망, 자존감은 탈빈곤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모형 및 변수의 정의

이상의 가설들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 두 가지의 연구모형이 가능하다.

우선 제도적 탈수급자의 소득(1-1) 과 가계전망(1-2), 그리고 탈빈곤적 탈수급자의 소득과 주관적인 적정생활비(2-1), 비수급집단의 비경상소득(3-1) 과 자존감(3-2) 과 관련된 가설들은 집단간의 평균을 비교하는 것으로 t-test 와 변량분석(ANOVA) 방법을 활용한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생활전망 및 자존감을 매개로 탈수급 전망에 미치는 영향(2-2)과 탈빈곤 전망에 미치는 영향(3-3)은 이상의 변수들을 잠재변수로 사용하여 경로 분석을 실시하는 구조방정식(SEM) 모형을 활용한다. <표 9-3>은 이러한 연구모형을 정리한 것이다.

<표 9-3> 연구가설 별 연구모형

가설	연구모형
1-1) 제도적 탈수급자는 수급자보다 소득이 많겠지만 탈빈곤적 탈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낮을 것이다.	T-test ANOVA
1-2) 제도적 탈수급자의 가계전망은 수급자보다 낮을 것이다.	
2-1) 탈빈곤적 탈수급자는 제도적 탈수급자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적정생활비 이상의 소득을 벌 것이다	
3-1) 비수급 집단이 수급 집단에 비해 비경상소득이 높을 것이다.	
3-2) 비수급 집단이 수급 집단에 비해 자존감이 높을 것이다	
2-2) 교육수준이 탈수급 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생활전망과 자존감을 매개로 하여 나타날 것이다.	SEM
3-3) 교육수준, 생활전망, 자존감은 탈빈곤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래 <표 9-4>에 제시된 주요 변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탈수급을 경험한 가구 중, 그 이유가 ‘근로소득의 증가’, ‘가구원의 취업’인 경우 ‘탈빈곤적 탈수급 가구’로 정의하며, 그 외 ‘친인척 등의 도움’, ‘가구원수의 변화나 조사결과의 변화’, ‘재개발 등으로 재산이 늘거나 다른 지역 이사 등의 사유로 탈수급을 경험’ 등의 경우는 ‘제도적 탈수급 가구’라고 정의하였다.

1인 평균 가구소득은 소득에 관한 모든 변수를 합하여 생성한 연간 가구 총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활용하였다.

비정상소득은 증여·상속, 경조금, 보상금, 사고보험금, 퇴직금·사회보험일시금·보장성 보험 해약금, 동산·부동산매매차익, 기타소득의 값을 모두 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1인당 주관적 최저생활비와 주관적 적정생활비는 패널에서 제시된 주관적 최저생활비 및 주관적 적정생활비를 가구원수로 나누어 사용하였으며, 기간은 한 달 단위이고 액수는 만원 단위이다.

자아존중감을 나타내는 변수는 Rosenberg Self-Esteem Scale로 측정한 결과값을 활용하였다.

생활전망에 관한 변수는 생활형편, 행복, 부채, 소비지출 전망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응답한 변수를 합하여 활용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향후 생활전망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탈수급 전망은, 향후 얼마후에 탈수급이 가능한지 전망을 묻는 질문을 5점 척도로 전환하고, 수입, 자산, 취업과 관련된 전망 점수와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탈수급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탈빈곤 전망은 수입, 자산, 취업과 관련된 전망 점수와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탈빈곤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표 9-4〉 변수설명

구분	변수정의	변수값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관련	탈수급 경험 여부	0: 수급 → 수급(t) 0: 수급(t) 1: 수급 → 비수급(t)
	탈수급 종류	1: 제도적 탈수급 2: 탈빈곤적 탈수급
	수급 및 탈수급 집단 구분	0: 수급 1: 제도적 탈수급 2: 탈빈곤적 탈수급
소득 관련	1인 월평균 소득	연간 가구 총 소득/가구원수/12 (단위:만원)
	비경상소득	연간 가구 비경상소득 (단위:만원)
주관적 최저생계비 관련	1인당 주관적 최저생활비	주관적최저생활비/가구원수, 월평균 금액(만원)
	1인당 주관적 적정생활비	주관적적정생활비/가구원수, 월평균 금액(만원)
인구학적 요인 (SEM 통제변수)	성 연령 부양아동수 가구내취업자 건강	남/여 만 나이 가구 18세 미만 아동수 가구내 취업자 수 건강상태
교육수준	학력 직업교육	최종학력 (년도로 변환) 직업교육 (년도로 변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	총10문항, 각 문항 1~4점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
생활전망	생활형편전망 행복전망 부채전망 소비지출전망	각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형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
탈수급 전망	탈수급전망 가계수입전망 가계저축전망 가계부동산전망 가계금융자산전망 취업전망	탈수급전망(6개월 미만: 5점, 6개월-1년: 4점, 1년-18 개월: 3점, 18개월-3년: 2점, 3년 이상 & 잘모름: 1점) 나머지는 탈수급기준과 관련된 전망 변수로 각 5점 척 도, 점수가 높을수록 탈수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
탈빈곤 전망	가계수입전망 가계저축전망 가계부동산전망 가계금융자산전망 취업전망	각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탈빈곤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

3. 연구결과

가. 집단간 비교 모형 결과

먼저 집단비교 분석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가구 및 수급 탈피 경험 가구, 그리고 수급경험이 없는 저소득층 1,251 가구원(중위소득 60% 미만)이다.

〈표 9-5〉는 집단간 평균차이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제도적 탈수급 집단의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51.3만원으로, 수급 집단 47.9만원과 탈빈곤적 탈수급 집단의 51.7만원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아서, 가설(1-1)은 기각되었다. 한편 가계 전망의 경우는, 제도적 탈수급 집단(8.0)이 수급 집단(8.8)보다도 더 낮게 나타나, 오히려 탈수급이 더 비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가설(1-2)은 검증되었다.

탈빈곤적 탈수급자의 소득과 제도적 탈수급자의 주관적인 적정 생활비의 평균(1인당)은 각각 51.7만원과 61.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탈빈곤적 탈수급자의 소득이 제도적 탈수급자의 주관적인 적정 생활비보다 높을 것이라는 가설(2-1)은 기각되었다. 이는 탈수급자의 주관적 적정 생활비 수준으로 나타난 1인당 산술평균 61.4만원(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245.6만원)이 우리나라 4인가구 최저생계비 154만원을 고려해볼 때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실제 현실의 탈빈곤적 탈수급자의 소득이 주관적 수준에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탈빈곤적 탈수급자의 실제 소득 51.7만원도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8천원에 달해, 적어도 최저생계비 보다 30% 포인트 이상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9-5〉 주요 관심변수에 대한 집단 간 평균차이

구분		N	1인 월평균 소득 (만원)		가계전망		1인당 주관적 최저생활비		1인당 주관적 적정생활비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집단 1	수급	1189	47.9	-.58	8.8	1.57	42.9	-.41	64.0	-.30
	탈수급	62	51.5		8.4		44.0		65.1	
집단 2	수급	1189	47.9	.57	8.8	4.81**	42.9	.98	64.0	1.42
	제도적 탈수급	39	51.3		8.0		41.9		61.4	
	탈빈곤적 탈수급	23	51.7		9.0		47.4		71.3	
집단 3	제도적 탈수급	34	51.3	-.02	8.0	-1.89+	41.9	-1.10	61.4	-1.33
	탈빈곤적 탈수급	23	51.7		9.0		47.4		71.3	
구분		N	자아존중감			비경상소득(가구)				
			평균		t/F	평균		t/F		
집단 4	수급	182	26.5		-6.33***	48.0		-3.46***		
	비수급	378	29.2			188.5				
구분		N	가구원 1인당 주관적 적정생활비 vs. 가구원 1인당 가구소득				t/F			
집단 5	제도적 탈수급	39	61.4				.623			
	탈빈곤적 탈수급	23	51.7							

+p<0.10, *p<0.05, **p<0.01, ***p<0.001

한편 비수급 집단의 비경상소득 188.5만원은 수급 집단의 비경상소득인 48만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서, 비경상소득으로 대표되는 위기에 대응하는 기회와 자원의 경우 비수급 집단이 더 많을 것이라는 가설(3-1)은 검증되었다. 끝으로, 비수급 집단의 자아존중감 점수 29.2는 수급집단 26.5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가설(3-2) 역시 검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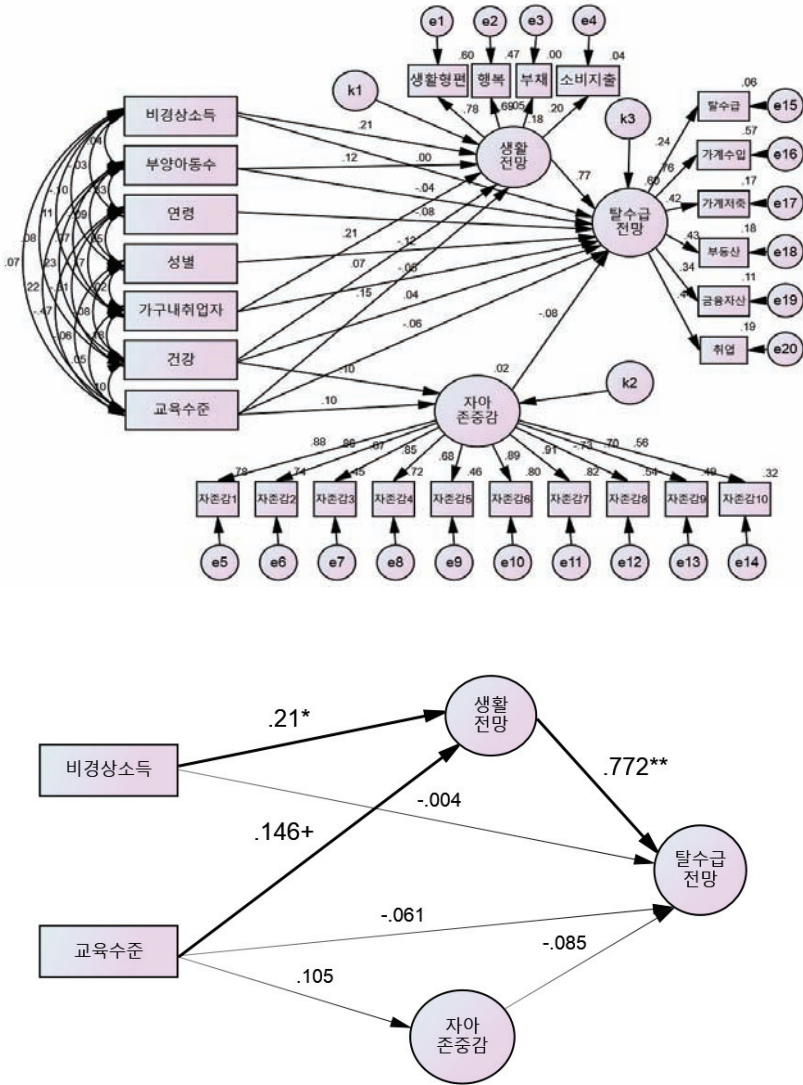
나. 탈수급 전망과 생활 형편 전망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결과

탈수급 전망에 대한 분석 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가구주 18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9-2]는 가설(2-2)를 검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인 교육수준과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과 생활전망, 종속변수인 탈수급 전망 간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었다. 본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chi^2=492.884(df=294, p<.001)$, RMSEA=.060, CFI=.868, IFI=.875, TLI=.831로 나타나서 적합도 제고를 위한 추후의 작업을 요하고 있다.

비경상소득과 교육수준의 영향을 중심으로 경로를 보고한 그림을 보면, 비경상소득과 교육수준은 생활전망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생활전망은 탈수급전망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질적연구에서 탈수급자들에게서 위기에 대응하는 자원이 많이 발견되고, 이것이 생활전망을 밝게 할 수 있다는 가설적 서술을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수준이 생활전망을 밝게 함을 보여주고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도가 떨어졌다($p<.10$).

[그림 9-2] 탈수급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 p<.10, * p<.05, **p<.01

또한 교육수준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질적 연구와 일맥상통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질적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높아진 자아존중감에 따른 좋은 일자리 선호가 오히려 탈수급을 연기할 수 있다는 점이 자아존중감이 탈수급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비경상소득과 교육수준이 탈수급전망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 또한 부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비경상소득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아니어서 탈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교육수준 역시 탈수급 전망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주어, 교육이 자존감과 생활전망을 매개로 탈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일부 지지하고 있다. <표 9-6>은 탈수급 전망에 대한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9-6> 탈수급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구분	탈수급 전망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비경상소득	.160	-.004	.164
생활전망을 통한 간접효과			.164
교육수준	.043	-.061	.104 (=.113-.009)
생활전망을 통한 간접효과			.113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효과			-.009

변수 간 효과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본 결과는 위와 같다. 비경상소득이 탈수급전망에 미치는 총효과 .160은 직접효과 -.004와 간접효과 .164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이 탈수급전망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총효과 .043은 직접효과

-0.061과 간접효과 .104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를 구성하고 있는 매개변수들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교육수준에서 탈수급 전망 경로 중 각각의 간접효과를 상세 분해하여 살펴본 결과, 교육수준→생활전망→탈수급전망 경로의 간접효과는 .113($= .146 \times .772$), 교육수준→자아존중감→탈수급전망 경로의 간접효과는 -.009($= .105 \times -.085$)로 나타나, 교육이 생활전망을 통한 간접효과가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효과에 비하여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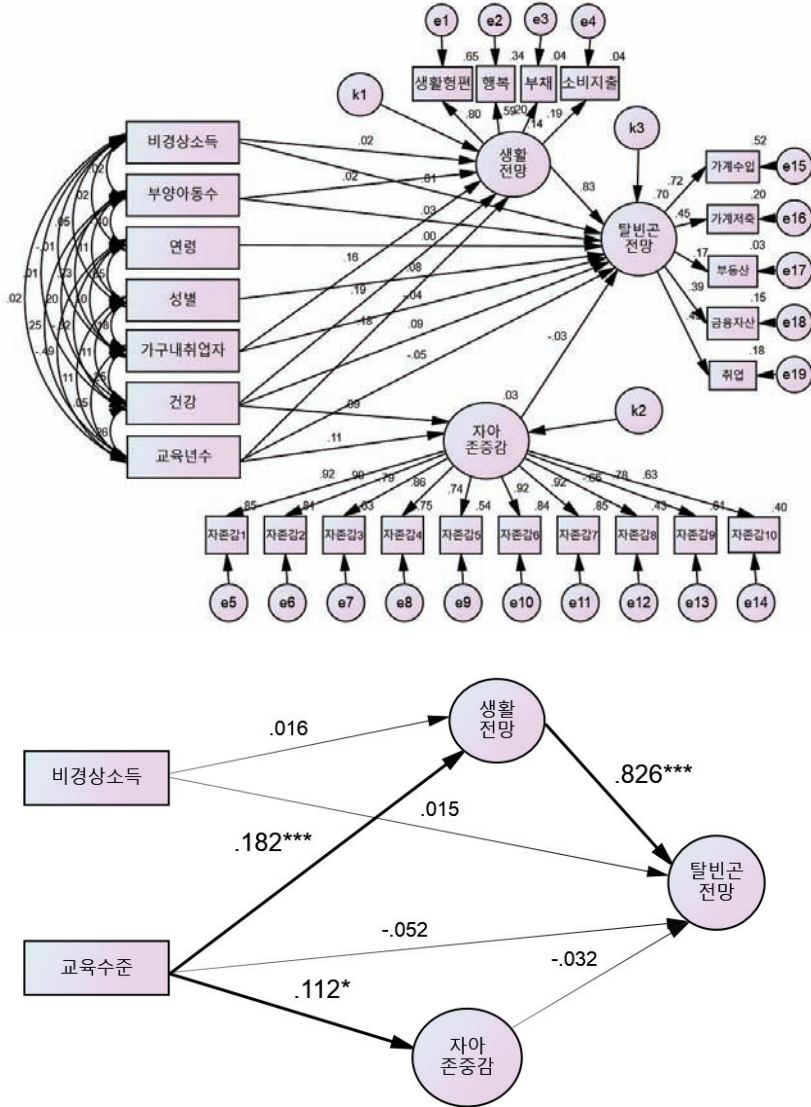
다. 탈빈곤 전망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결과

탈빈곤 전망에 대한 분석 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60% 미만인 가구주 58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9-3]은 가설(3-3)을 검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종속변수 간의 영향관계에 대하여 설정한 가설을 검정할 수 있다. 본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chi^2=853.580(df=269, p<.001)$, RMSEA=.061, CFI=.889, IFI=.891, TLI=.856으로 나타나, 적합도 제고를 위한 추후 작업이 요구된다.

[그림 9-3]을 보면, 교육수준은 생활전망과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하지만 비경상 소득이 생활전망과 탈빈곤 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비록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는 비경상소득이 긴급한 상황에 있는 수급자에게는 일시적으로 생활전망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어도, 탈빈곤 전망이라는 지속적인 상태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림 9-3] 탈빈곤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p<.05, **p<.01, ***p<.001

또한 가설에서 제시한 것처럼 생활전망은 탈빈곤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교육수준과 자아존중감은 탈빈곤 전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교육수준과 자아존중감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사실은 탈빈곤 전망과 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점은,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탈수급 전망을 종속변수로 한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는 탈빈곤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추구하려는 대상이므로, 교육수준이나 자아존중감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생활전망이나 자아존중감은 높일 수 있지만, 여전히 실물경제에 기반한 탈빈곤이라는 지위변동으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표 9-7〉은 탈빈곤 전망에 대한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9-7〉 탈빈곤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구분	탈빈곤 전망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비경상소득	.028	.015	.013
생활전망을 통한 간접효과			.013
교육수준	.095	-.052	.147 (=.150 - .003)
생활전망을 통한 간접효과			.150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효과			-.003

변수 간 효과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보면, 비경상소득이 빈곤전망에 미치는 총효과 .028은 직접효과 .015와 간접효과 .013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이 탈빈곤 전망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총효과 .095는 직접효과 -.052와 간접효과 .147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를 구성하고 있는 매개

변수들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교육수준에서 탈빈곤전망 경로 중 각각의 간접효과를 상세 분해하여 살펴본 결과, 교육수준→생활전망→탈빈곤전망 경로의 간접효과는 .150($=.182 \times .826$), 교육수준→자아존중감→탈빈곤전망 경로의 간접효과는 -.003($=.112 \times -.032$)으로 나타나, 생활전망을 통한 간접효과가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효과에 비하여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5절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경험한 삶의 변화와 탈빈곤전망을 혼합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탈수급이나 탈빈곤과 같이 지위의 변화와 관련된 변수를 주로 사용했던 기존의 양적 연구들과 달리 탈빈곤 전망이라는 개인적 인식과 관련된 현상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금번 3차년도 질적패널에서 지위변화가 드러난 사례가 없었던 점도 있지만,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연구 대상자의 인식과 전망에 초점을 두어 현상을 이해하고, 여기서 발견한 것들을 양적연구로 가설화하여 검증해보려는 연구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또한 기존 양적 연구에서도 주관적 수급탈피 전망이 수급 탈출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어(안서연 외, 2011), 연구 대상자의 인식과 전망에 대한 연구가 중요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질적분석 결과 수급자의 경우 제도적 탈수급과 탈빈곤적 탈수급으로 나뉘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기존 연구들이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양적연구에서 나타나는 의존성이나 탈수급기피 현상은 제도적 탈수급이 바로 탈빈곤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인식한 수급권

자의 행위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시금 양적연구를 통해, 제도적 탈수급 집단과 탈빈곤적 탈수급 집단 간의 소득 및 가계전망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통해서, 탈빈곤적 탈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도적 탈수급을 기피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수급자들의 탈수급 전망에는 교육수준이 생활전망과 같은 심리적 요인과 매개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비수급층을 포함한 근로빈곤층 전체의 경우, 질적분석 결과 수급자들이 경험하는 고단한 삶을 비슷하게 경험하였지만, 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와 위기에 대응하는 자원과 기회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이들의 탈빈곤 전망 역시 교육수준이 생활전망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빈곤과 자아존중감이 탈빈곤 전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생활전망을 높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실물경제에 기반한 탈빈곤이라는 지위변동으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탈빈곤 정책이 이들의 실제 생활형편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속가능한 탈빈곤 전망을 갖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또한 정책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탈빈곤을 유도하지 못하면, 수급자는 오히려 탈수급을 꺼리게 될 것이고, 비수급자는 여전히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함의를 제공한다.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탈빈곤이 가능하게 하는 정책은, 단순히 훈련이나 특정 프로그램이 탈빈곤을 유도할 것이라는 단선적인 사고를 지양하고,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다양한 서비스의 병행과, 안정적인 생활전망이 가능

한 일자리 공급, 그리고 저소득층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맞춤형 개별급여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필요한 급여를 필요한 대상에게만 제공하여 대상효율성을 높이고, 통합급여 방식에 비해 수급권의 가치를 낮추어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탈수급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생활형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나 주관적인 탈수급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탈수급은 제도적인 탈수급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별급여 실행과 더불어 근로빈곤층의 주관적 탈수급 전망을 높이고 생활전망을 제고할 수 있는 탈빈곤적 탈수급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제Ⅳ부

양적·질적패널 활용방안



제10장 양적·질적패널 활용방안

제1절 질적 연구 자료로서의 활용

제2절 양적패널 자료의 보완과 연계로서의 질적 패널자료의 활용

제3절 질적 패널자료의 활용상 한계점

제4절 질적 패널 구축의 기대효과 및 연계 활용방안

제1절 질적 연구 자료로서의 활용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와 연계된 질적패널 자료 구축의 첫 단계로서, 기존 패널 조사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양적 패널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주제 영역과 이슈들을 선별하여 질적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저소득층 삶의 복합적 현실을 심층적 차원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와 활용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앞으로 연구자, 복지현장 전문가, 관련 학문 전공 학생들에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질적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은 이번에 구축된 질적 패널자료와 관련된 아래 특성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질적 연구의 분석 자료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첫째, 본 자료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일과 빈곤과의 관계를 탐색하여 직장 및 구직과정, 고용지원프로그램 참여, 실직, 수급 등의 삶의 사건들에 관한 구체적 상황과 현실들에 대한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의 경제적인 현실을 통합적 관점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본 자료는 삶의 가장 기초 사회화 영역에 해당하는 ‘배우자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의 상호작용적 특성들을 당사자들의 주관적 인식에 근거하여 살펴봄으로써 빈곤이 가족 관계의 역동과 경

험의 주관적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셋째, 본 자료는 저소득층 가족 구성원(특히, 어르신)이 경험할 수 있는 정신 건강, 장애, 차별, 알콜중독, 가정폭력 이슈들에 대한 현실적 맥락과 상호 연관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빈곤과 동반되어 당사자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삶의 사건들의 복합적 현실에 대한 탐색적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질문의 주제영역을 구분하여 조사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구주 및 그의 배우자, 아동, 청소년자녀,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에게 해당되는 중심 주제를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서 세대간 관점의 차이 혹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 탐색할 수 있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밖에도 한 가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구원이 거주하면서 겪게 되는 삶의 이야기들을 각자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해석하며, 의미를 부여해나가는 과정을 살펴 보게 됨으로써, 빈곤과 연관된 다양한 주제와 관점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시도된 최초의 전국 단위 빈곤관련 질적 패널조사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다양한 삶의 영역과 주제에 관한 현실들을 종단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향후 생애과정 관점을 반영한 조사대상자 삶의 고유한 추이와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앞서 지적인 바와 같이, 최근 빈곤 역동성 혹은 빈곤의 동태적 변화를 보여주는 연구 성과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구축되는 질적 패널자료들을 종단적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패널 자료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초보연구자들을 위한 학습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질적 연구는 그 특성상 본인이 연구주제와 연구문제를 정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해야 하는데, 질

적 연구 초보자들에게는 이러한 학습의 기회를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특정 연구자가 수집한 질적 자료들은 자료 개방과 보관에 대한 윤리적 이슈 때문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없는 제약이 있으므로, 제3자가 타인의 질적 자료에 접근하여 질적 자료 분석방법을 학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가 구축한 질적 패널자료는 제3자에게 개방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어 보급될 수 있다면, 학교나 실천 현장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을 학습하고자 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질적 연구자료 분석의 기술을 훈련할 수 있다.

제2절 양적 패널자료의 보완과 연계로서의 질적 패널자료의 활용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양적 패널자료와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3차년도 질적 패널조사는 양적 패널자료의 근간이 되었던 주요 질문 문항들 중 질적 연구과정으로 연계하여 보완할 수 있는 조사영역과 주제들을 선별하여 심층면접 질문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양적·질적 연계 패널자료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성격은 연구 질문의 설정이 전형적 질적 연구 설계 구도에서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질적 패널자료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그동안 양적 패널자료를 찾았던 많은 이용자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된 질적 패널자료의 성격과 가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질적 패널자료에는 양적 패널자료의 성격을 규정하는 단순화, 수량화된 응답들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각 조사 문항에 대한 조사응답자들의 답변 뒤에 숨겨진 그들 현실의 맥락과 배

경을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양적 패널 조사 질문지에는 서비스 만족도, 생활 만족도 등의 다양한 차원의 만족도를 묻는 문항들의 경우, 하나의 문항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만족도를 일괄 평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또한 응답자가 만족과 불만족을 느끼게 되는 이유와 관련된 다중적 차원의 상황과 맥락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결과 해석상의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반면, 질적패널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만족도’와 관련된 질문의 응답 내용에는 응답자의 만족을 구성하는 상황적 배경과 원인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차이, 주관적 관점 등에 관한 복합적 사실들이 담겨 있다. 따라서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면 분석 결과를 기술 할 때 해석상의 민감성과 정교성을 보여줄 수 있어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과론적 관점에서 특정 변수들간의 관계나 경로를 설명하는 양적패널 자료의 통계 분석은 때로 실제 현실과 괴리된 이론과 모델을 제시하여 분석결과와 사실성과 설득력에 있어 큰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이 때 연구자들이 기존 연구 모형을 새롭게 구상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실에 근거한 사례와 이야기들이 필요하다. 즉 질적패널 자료가 포함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기술들은 조사 주제와 관련된 실제적 현실의 맥락, 배경, 과정들을 동태적 차원으로 보여주고 있어 양적패널 자료 분석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차원의 가설들을 실험해볼 수 있는 도전과 자극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질적패널 자료는 질적 연구 분석에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적패널 자료처럼 계량적 통계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변환시킬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질적패널 자료를 분류화·코드화 하여 수량화한다면 양적 연구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 영역에 대한 통계 분석을 수행하여 양적

패널 자료 분석을 보완할 수 있다.

넷째, 한국복지패널 자료가 중요한 복지정책의 수반과 개편을 위한 실증적 자료로 활용된다고 전제할 때, 질적 패널자료의 검토는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구축을 위한 조사 설문지 문항을 새롭게 개발하고 보완하는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질적 패널자료에 나타난 응답자들의 실제 현실을 참고하여 이에 보다 접근할 수 있는 문항들로 조사 질문지를 발전시켜 구성할 수 있을 때 저소득층의 복지적 욕구와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부합한 복지정책들을 계획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절 질적 패널자료의 활용상 한계점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론에 의한 접근을 시도하면서 제한된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방대하게 수집된 자료를 제한된 시간 내에 분석해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특히 각 가구마다 다양한 가구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면접을 수행해야 했고, 응답자 중 노인 대상자가 많았다는 특성 때문에 심층적인 면접 수행이 매우 어려웠던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염두에 둘 것을 제안하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활발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첫째, 본 자료의 수집과정에 있어 훈련된 조사원들을 투입, 면접을 수행하게 하였으나, 면접질문을 심도 있게 질문하고, 답을 얻는데 있어 경험이나 기술상의 미숙함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충분한 자원과 시간이 뒷받침되어주지 못한 점에서 기인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질적연구의 특성이 잘 반영된 자료수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는 몇몇 문제들이 발견될 것이다.

예를 들어 더 탐색해야 할 질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른 주제로 넘어갔던 경우이다.

조사원: 그러면 이제 거의 집에서만 생활하시고 계세요?

응답자1: 지금 침 맞고 병원 다니고. 약을 못 먹기 때문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혈압이. 쓰러지면 어떻게 해... 주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데, 본인이 노력을 하잖아요. 약 먹는 거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먹기는 먹어요. 알약을 못 먹기 때문에 가루약을 이렇게 먹는데, 먹으려면 속에서 미식 미식거려요. 그래서 음식을 못 먹겠어요 약 냄새가 나사... 그러다가 아예 약을 안 먹다가, 또 생각나면 먹기도 하고, 이렇게 먹으면 안되는데, 꾸준히 먹어야 하는데, 그 뭐 어떡해요, 그렇게 타고난 걸... 그래서 수급자로 그걸로 생활하고 있다니깐.

조사원: 어머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럴 때 기준이 되는 어떤 생각,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있을까요?

응답자1: 무너지고 나니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애는 컸지만, 희망이 없다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희망을 보고 살아야 하는데, 별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어떻게 된건지... 이래저래 그래도 어머님 계실 때는 좀 의지가 됐어, 뭐 없이 살아도 이게 없으시니까, 안 계시니까, 끈이 떨어져 나간 것만 같아요. 형제간에도 그렇고

일례로 위의 사례에서는 건강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였으며, 건강악화로 인한 경험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사원은 바로 일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이에 조사원이 좀 더 심층적으로 건강악화로 인한 생활의 변화 등에 대한 질의를

하였더라면 좀 더 의미 있는 면접이 되었을 것이다.

또 다른 경우는 질문을 상황에 맞게 수정, 변경하여 했다면 더 나은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이다.

조사원: 네 어머님. 작년에 이렇게 조사를 하고 1년 정도 지났는데, 요즘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변화가 있으신 거 같아요.

응답자1: 지금은 혼자 사는데.

조사원: 예. 작년 시점에 비해서, 하루 일과나 일주일에 생활 패턴

응답자1: 그걸 다 이야기해야 해?

조사원: 예.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지?

위의 사례의 경우는 도입부분으로 요즘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에 해당한다. 여기서 응답자가 ‘지금은 혼자 사는데..’라는 답변과 ‘그걸 다 이야기해야 해?’라는 부분에서 조사원이 ‘언제부터 혼자 사셨어요?’ 또는 ‘올해 혼자 사시면서 하루 일과나 생활패턴이 많이 달라지셨어요?’라고 다시 질문을 하거나, ‘다 이야기하시기 힘들시면, 어제는 어떻게 보내셨어요?’라고 다시 질문을 하였다면 더 자연스럽게 심도있는 질문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각 주제영역별, 대상별로 수집된 면접자료는 질적 연구에서 추구하는 현상의 본질이나 의미탐색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나, 패널조사 대상 가구의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주제와 영역에 있어서의 기초적인 질문을 그들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는 데에 의미를 둔다면 자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주 응답자 평균연령이 60세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질문내용에 있어 다소 연령부합성이 낮은 경우가 있었고, 때로는 응답자

의 거주 환경이나 문화와 동떨어진 질문 문항들도 있었다. 연구자들이 사전에 심사숙고하여 질문 문항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의 다양한 지역, 도시, 농촌을 망라하고, 학력이나 직업 등의 기본적인 인구학적 배경이 치밀하게 고려되지 않은 채 연구참여자 선정이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정보의 소외나 격차가 심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면접질문의 적절성이나 부합성이 낮아 좋은 자료수집이 어려웠다는 한계가 나타났다.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탐색할 수 있는 조정된 예비 질문 등을 준비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내용 면접을 생략하는 방식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표본 추출에 있어서도 보다 다양한 연령층과 성별을 포함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질적 패널조사에 사용된 질문문항이나 주제 영역, 그리고 각 조사내용별로 기초적으로 분석된 결과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다면 질적 연구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존의 한국복지패널 등을 활용하여 양적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관련 연구주제와 연관된 통찰과 후속 연구의 아이디어 또는 영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절 질적 패널 구축의 기대효과 및 연계 활용방안

본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구축된 질적 패널자료는 향후 한국복지패널과 더불어 질적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자료로 학술적 연구 및 정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국복지패널 연계 저소득층 중심의 양적 & 질적 패널 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복지패널 학술

대회에서 질적 연구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여 질적 연구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양적 & 질적 연구방법론의 연계 및 활용을 통한 학문적 교류와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은 통계청의 전국 가계동향조사 및 여타 국책연구기관에서 구축하고 있는 양적 패널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매년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는 각종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을 확대하여 양적 연구방법론과 함께 질적 연구방법론의 연계 및 혼합을 통해 다차원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하도록 패널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복지정책에 대한 체감도 및 정책수립을 위한 심층조사 표본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1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요약

사회정책에 관한 대부분 연구들의 분석방법은 양적분석이다. 양적분석의 중요성과 분석결과의 명료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적분석은 측정 가능한 부분을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질문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복잡하고 다양한 삶의 경험과 인식이 사상되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 질적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인식, 생생한 경험, 변화의 맥락 등을 담은 ‘블랙박스’ 내부를 관찰하는 데 유용하다(Padgett, 1998). 이러한 이유로 최근 질적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양적방법론과 질적방법론을 실용적인 차원에서 통합하여 서로의 장점을 살리는 혼합방법론(mixed methodology)이 나타나고 있다. 혼합방법론은 상대방의 발견에 대해서 인증(confirming), 반박(refuting)하는 과정을 통해 풍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Carvalho and White, 1997).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1년 한국복지패널 가구 중 빈곤층 100가구를 표본으로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자료’를 구축하였다. 즉,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일상적 생활모습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근로 및 탈수급 등 저소득층의 자활과 역동성과 관련된 수급자의 인식과 행태의 변화 양상에 대한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의 상호보완적 활용을 위해 질적 패널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로 수행되었다.

동 패널자료는 자료명이 내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몇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연계’라는 점은 앞에서 지적인 혼합방법론(mixed methodology)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계량적 분석으로 생산되는 수많은 통계 수치에 생명을 불어 넣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질적패널’이라는 점은 빈곤의 다차원성에 대한 동태분석을 질적인 방법으로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연구 3차년도 보고서로서,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질적분석과 함께 질적·양적 연계분석하고 있다. 1차 연도 보고서가 패널구축에 대한 기초 보고서인 점과 2차 연도 보고서가 질적분석만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금년의 연구는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양적 패널분석의 경우 3개년 이상의 자료가 축적되어야 제대로 된 패널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에 가까운 사실이다. 질적 패널분석의 경우 사금채취 과정과 비슷한 귀납적 분석을 하므로 양적 패널분석 더 많은 자료 축적이 되어야 가능하다.

본 연구는 2011년에 시작하여 금년에 3차 질적 조사를 완료한 상태이고, 자료입력 및 코딩,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작업 등은 진행 중이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질적 심층 패널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 축적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책건의를 도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차, 2차 자료(일부 연구는 3차 자

료 이용)를 바탕으로 5개 영역에서 심층분석한 연구 결과만을 이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아동 청소년의 일상생활 패턴과 맥락 분석

- 일상생활 패턴에서는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 사이의 미묘한 차이가 나타났다.
- 일상생활의 맥락에서 볼 때, 이러한 패턴의 차이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정자원과 돌봄 활동, 가치관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청소년기보다는 아동기에서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차이가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저소득가구들 중에서도 교육복지서비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양육 현상에 관한 연구

- 저소득층 부모들은 자녀가 ‘사람됨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으로 자라길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보다 구체적으로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 ‘거짓말하지 않기’, ‘남을 배려하는 아이’, ‘마음이 부자인 사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도움이 되는 사람’ 등을 이야기함
- ‘바라는 대로 키우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자녀 양육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활동에 대해 들어봄.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이의 재능을 키워주지 못하는 것, 그리고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과 미안함, 안쓰러움을 표현하면서도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실천하는 모습을 보

임. 특히 이혼으로 한부모 모자가정이 된 경우, 배우자로서 아이 아빠가 밋고 원망스럽지만 자녀에게 아빠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기 위해, 그리고 아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빠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많이 드러남.

- 마지막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껏 뒷바라지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함. 이밖에 배움이 짧아 공부를 잡아주지 못하는 점, 말 안들을 때 감정적으로 대하고 화풀이했던 것, 몸이 힘들어서 제대로 놀아주지 못한 것, 일과 가정일이 너무 바빠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등으로 나타남.
-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저소득층 자녀 양육은 “자녀의 ‘사람됨’을 강조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음”으로 이해될 수 있음. 특히 ‘사람됨’의 강조는 자녀들에 대해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것(사람됨)으로 합리화, 자기 위안을 삼는 것으로 해석됨. 저소득층 자녀 양육에서 두드러진 또 다른 현상은 ‘고군분투함’임. 부족한 돈, 짧은 배움, 양육방법을 모름, 건강하지 않은 몸과 마음, 늦게까지 일을 해서 시간이 없음 등으로 저소득층 부모가 처한 상황은 다 다르지만, 이들은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자녀를 키우고 있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부모의 부담이 견딜 수 없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든 버텨왔던 자녀 양육의 방식들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에 있음. 그러기에 우리 사회와 국가가 아이를 공동 양육한다는 생각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지해주는 노력이 필요함.

□ 장애인(가구)의 장애 및 질병 발생으로 인한 영향과 대처 경험 연구

○ 장애 및 주요 질병 발생이 당사자나 가구원에게 미친 영향과 대처경험

- 장애인들은 대부분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음. 우울감, 위축감, 소외감이 지속되고, 특히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정신건강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짐. 기초생계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가족관계에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함. 자녀들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부담을 끼칠 수 밖에 없고, 대인관계가 축소되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함.

○ 장애인과의 교류

- 본 연구참여자들의 장애인과의 교류는 적극적이거나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심리적, 물리적 부담과 함께 비용 발생도 교류를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었음. 생계가 어려울수록, 나이가 들수록 교류의 빈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음

○ 복지혜택 수급 경험과 문제점

- 수급제도나 기타 복지서비스가 없었다면 생존하기 힘들었을 것임. 특히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만성·중증질환자들은 의료급여 혜택에 매우 의존하고 있었음. 따라서 생계비나 연금액의 상향조정을 원하고 안정적인 주거제공을 희망함. 복지전달체계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근로로 연결되지 않는 현재의 수급제도와 자주 바뀌는 복지공무원 인사제도가 문제임.

○ 장애인(가구)의 노후대책

-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가구는 전혀 찾아보기 어려웠음. 생계를 걱정하기도 바쁜 현실에서 노후준비는 먼 나라 이야기임.

○ 장애의 의미

- 연구참여자들에게 장애는 ‘절망’, ‘인생을 바꿔놓은 것’, ‘다스려야 하는 것’ 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빈곤가구 한부모 여성의 자활 경험에 관한 연구

- 자활이라는 용어는 주로 자활사업과 연관된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어, 그 원뜻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영세민’, ‘밑바닥’ 과 같이 그들 스스로 ‘사회적 약자 혹은 빈곤층로서의 낙인감’을 ‘자활’의 이미지로 떠올리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자활 당사자들의 관심이나 만족여부에 대한 환류 과정없이 위로부터의 일방적 기획과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현재 자활사업은 참여자들의 자활 의지와 근로동기를 충분히 이끌어내기 역부족임.

- 복지 의존에 대한 참여자들의 현실 부정과 낙인감은 수급 초기 시기에 나타나지만 자녀의 주양육자로서의 책임감과 자활 의지를 세워 나가면서는 오히려 복지 수급 및 복지욕구에 대한 긍정적, 구체적 욕구를 발전시키고 있음.

- 참여자들에게 경제력 즉 경제적 자활의 의미는 크지만 ‘자활’의 긴 여정을 위해 이혼녀, 한부모, 수급자, 빈곤층을 극복하고 의연하게 그들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성취해갈 수 있는 정신적 기제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 복지 의존에 대한 국가의 우려는 일반적으로 수급자 개인들의 자립 및 근로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가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참여자들의 인식과 욕구 등을 고려할 때 그 가정은 클라이언트중심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함. 또한 국내

자활 정책 및 프로그램은 경제적 자활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한부모 여성들을 위한 자활 지원에는 자녀양육과 건강(신체적·정신적)관리와 관련된 자원들의 할당과 배치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경험한 삶의 변화와 탈빈곤 전망: 혼합방법론을 중심으로

○ 수급경험이 있는 빈곤층에 대한 혼합방법론을 사용한 분석을 통해, 탈수급 회피 행위와 인식 뒤에는 제도적 탈수급과 탈빈곤적 탈수급 집단 간의 소득 및 가계전망의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을 확인함.

- 탈수급을 위한 경험과 행위들이 생활전망을 높이지 못하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 확인함.

○ 수급자들의 탈수급 전망에는 교육수준이 생활전망과 매개되어 있으나 교육수준이 직접적으로 탈수급 전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비경상소득 역시 생활전망을 매개로 하여 탈수급 전망에 영향을 미침.

- 자아존중감의 경우 탈수급 전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안정적인 탈수급 상태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탈수급 전망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질적연구 결과와 부합함.

○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전망 역시 교육수준이 생활전망과 매개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교육수준은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치나, 여기서도 자아존중감은 탈빈곤 전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이는 교육이나 자아존중감만으로는 실물경제에 기반한 탈빈

곤 지위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음.

- 탈수급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제도적 탈수급은 탈빈곤과 다를 수 있음.
 - 탈수급 정책이 탈수급을 유도할 것이라는 단선적인 탈수급 경로를 강조하기보다, 근로빈곤층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생활전망 및 탈수급 인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안정된 생활에 대한 전망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탈빈곤 전망을 높일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 강남식·백선희(2001), 여성복지적 관점에서 자활지원사업의 분석과 활성화 방안, 사회보장연구, 17(2), pp.49-78.
- 강남식·신은주·성정현(2002), 여성 조건부 수급자들의 실태와 자활의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9, pp. 24-50.
- 강신욱(2009). 빈곤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한 빈곤정책의 방향. 경제발전연구, 15(2), pp.263-286.
- 강철희·김미옥(2003). 한국사회복지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분석과 고찰-질적연구 방법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논의. 한국사회복지학, 55, pp.55-81.
- 구인회(2005). 빈곤의 동태적 분석: 빈곤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57(2). pp.351-374.
- 구인회, 강병구, 이현주, 안서연, 이원진(2008). 탈수급 및 수급예방을 위한 공공 부조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권지성(2008). 쪽방거주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문화기술지. 한국사회복지학, 60(4), pp.131-156.
- 권지성(2010). 저소득층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대한 질적평가 연구: 서울시 희망플러스트통장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2(3), pp.193-218.
- 권지성(2012). 사회복지 질적 연구접근의 재구성: 그리고, 은밀한 맥락을 찾아서. 사회복지연구, 19, pp.159-181.
- 금재호, 김승택(2001). 빈곤의 규모와 이행과정. 연세경제연구. 8(2). pp.511-539
- 김광혁(2010).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족소득의 수준별 영향의 차이: 아동발달단계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1(2), 35-65.
- 김광혁·차유림(2007). 가구빈곤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8, 29-51.
- 김교성(2011). 사회정책 빈곤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사회정책, 18(1), pp.43-82.

- 김교성, 노혜진(2009). 빈곤 탈피와 지속기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생존표 분석과 위계적 일반화선형 분석. *사회복지정책*, 36(3), pp.185-212.
- 김교성·강철희(2003), 취업대상 조건부수급자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2, pp.5-32.
- 김교성·노혜진(2011). 빈곤의 세대간 탈피 경험. *사회복지연구*, 42(1), pp.243-278.
- 김미곤(2008), 근로능력 수급자의 탈수급 방안, *보건복지포럼*, pp.73-81.
- 김미곤 외(2012),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희 외(2011).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순균(2010). 빈곤아동·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연구에 대한 고찰. *학교사회복지*, 18, pp.87-105.
- 김승권, 김유경, 박정윤, 김연우, 최영준(2011). 취약 위기 및 한부모가족지원체계 구축과 자립지원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정·진미정 역(2007). *한부모 어머니들의 취업과 복지*. 신정.
- 김은하(2009). 근로빈곤층 여성의 빈곤탈출 결정 요인: 인적자본·가구특성·노동시장지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6(3), pp.239-268.
- 김은혜, 이효성(2006).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장애인의 중복 소외에 관한 논의. *장애인고용* 16(1), 23-44
- 김인숙(2007). 한국사회복지 질적 연구: 동향과 의미. *한국사회복지학*, 59(1), pp.275-300.
- 김인숙(2008), 자활개념의 재구성에 대한 탐색: 성매매여성 자활현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2, pp.95-129.
- 김정미·곽금주(2007). 취학 전 빈곤아동에 대한 부모, 가정환경자극, 사회적 지원의 영향력 탐색. *아동학회지*, 28(4), 305-318.
- 김준현(2009), 지역자활센터 협력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탐색적 분석: 서울, 부산,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7(1), pp.339-366.
- 김효정(2010). 저소득층 기혼여성의 노동의 의미에 관한 연구: 소규모 식당노동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6(1), 1-33.

- 김효진(2008). 빈곤이 아동에게 주는 영향분석. 보건복지포럼. 5., 33-42.
- 노대명, 원일(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취업수급가구의 탈수급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성공적 탈수급 및 행정적 탈수급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7. pp. 333-360.
- 노승현, 백은령(2012). 장애노인 가구의 빈곤결정요인에 대한 종단연구. 장애와 고용 22(4). 267-293
- 노혜잔·김교성(2010).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 사회복지연구, 41(2), pp.159-188.
- 박상은 역(2012). 불평등한 어린시절-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불평등의 대물림. 에코 리브르.
- 박순일(1994). 선진경제의 문턱에서 본 한국의 빈곤현실과 사회보장. 서울: 일신사.
- 박정호(2010).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자활성과, 사회복지연구, 41(3), pp.163-184.
- 박희정·오운섭·이오(2010), 논리틀을 이용한 자활사업 성과평가: 광주지역 자활센터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9(1), pp.279-311.
- 백학영(2006). 저소득 독거노인의 빈곤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31(가을), pp.5-39.
- 백학영·고미선(2006),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과 노동시장 진입 전망에 관한 연구: 여성가장의 자활사업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0, pp.83-114.
- 백학영·구인희·김경휘·조성은·안서연(2011), 자활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비판적 접근: 놀리모델을 적용한 자활사업 성과평가 체계 분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2), pp.3-35.
- 백학영·조성은(2012),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급 지위와 노동시장 지위 변동, 사회복지연구, 43(1), pp.143-178.
- 백학영·고미선(2007). 자활사업참여자의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과 노동시장 진입전망에 관한 연구-여성가장의 자활사업 참여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0, pp.83-114.
- 백학영·조성은(2012). 자활사업참여자의 자활경로와 자활과정에서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2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

- 서병수(2007). 한국의 다차원적 빈곤 분석: 실현능력접근. 사회복지정책, 8, pp.199-232.
- 석상훈(2007). 빈곤의 지속-상태의 존성 검증. 사회보장연구, 23(3), pp.79-99.
- 석상훈(2009). 노인빈곤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보장학회. pp.159-179.
- 석상훈(2011). 자산과 빈곤 지속. 사회보장연구, 27(2), pp.163-186.
- 석재은·김용하·김태완(2003), 여성의 빈곤실태 분석과 탈빈곤 정책과제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준모(2010). 소득수준별 가구경제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62(1), pp.109-132.
- 손승영(2009). 한국 가족의 청소년 자녀 사회화 연구: 부모의 기대와 개입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0(1), 57-84.
- 신명호(2003), 자활사업의 효과, 제대로 평가하자, 도시와 빈곤, 80, pp.19-45.
- 안서연 외(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탈출 결정 요인: 근로능력자 집단별 분석. 사회복지정책, 38(1), pp.199-226.
- 안서연, 구인희, 이원진(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탈출 결정요인: 근로능력자 집단별 분석. 사회복지정책. 38(1). pp.199-226.
- 여유진, 김미곤, 김계연, 임완섭, 고연분(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정수(2002). 한국사회복지학계 연구방법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상황과 복지, 13, pp.33-46.
- 유태균, 박효진(2009). 여성가구주 빈곤가구와 남성가구주 빈곤가구 간의 빈곤탈피 영향 요인 차이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5(3). pp.29-58.
- 유태균·김경휘(2006), 자활사업 중도이탈집단과 참여지속집단의 특성 및 중도 이탈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30, pp.39-70.
- 유태균·이선정(2011).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탈수급전후 의료서비스 이용 수준 차이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7(1), pp.185-215.
- 윤석범(1994). 한국의 빈곤. 서울: 세경사.

- 이봉주 외(2009).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이상록·이순아(2010). 빈곤지위의 변화에 정신건강이 미치는 영향: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1(4), pp.277-311.
- 이상록·진재문(2003). 지역사회 탈빈곤정책의 효과 분석: 경남·전북지역 자활후견기관운영의 성과 및 한계분석과 개선방안의 모색. 한국사회복지학, 52, pp.241-272.
- 이용우(2006). 여성 한부모 가구의 빈곤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 비교연구, 사회복지정책, 25, pp.53-80.
- 이원진(2010a).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동태의 특성 및 수급탈출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2(3), pp.5-29.
- 이원진(2010b).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지위 변화와 우울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62(4), pp.249-274.
- 이은주(2008). 근로빈곤층의 삶의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근거이론분석. 사회복지정책, 34, pp.331-356.
- 이인재(2003). 한국 자활산업의 동향과 과제, 동향과 전망, 58, pp.102-139.
- 이주하(2011). 빈곤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이해. 한국사회정책, 18(1), pp.11-42.
- 이태진 외(2007).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수급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 질적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태진 외(2008).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기반조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수급자 및 전담공무원 대상 질적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외(2009). 가난한 사람들의 일과 삶-심리사회적접근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형하·조원탁(2004). 한국 자활사업의 자활효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자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0, pp.217-244.
- 이희연(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의 사회적 배제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지 연구. 사회복지연구, 25(1), pp.281-315.
- 임세희(2006). 빈곤탈출의 결정요인: 경제활동 특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2(2), pp.253-277.

- 임세희(2010).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2(4), pp.377-402.
- 임재현(2011). 주거빈곤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2(1), pp.279-304.
- 정선영·정현숙(2011). 복지서비스이용이 저소득가구의 가족갈등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어려움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고찰. 사회복지연구, 42(1), pp.5-30.
- 정원오·김진구(2005).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주관적 평가와 자립전망, 사회복지연구, 28, pp.35-67.
- 정원오·이선정(2011). 빈곤계층의 소비패턴에 관한 연구: 2007년과 2008년의 변화 비교. 사회복지연구, 42(1), pp.305-331.
- 정은희·최세은·이상균·하태정(2013). 한국아동빈곤의 특성. 최종 워크숍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용환(2010). 질적연구: 현상학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질적연구 워크숍 자료집.
- 조준용(2012). 빈곤연구의 방법론적 편향성과 질적연구의 활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다차원성과 역동성 연구 측면에서. 한국사회정책, 19(4), pp.285-312.
- 지은정(2007).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 결정요인 연구: 근로빈곤노동시장의 경로제 약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3), pp.147-174.
- 진선미 외(2011). 요보호가구원의 부양이 가구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2(1), pp.139-158.
- 진재문(2001). 새로운 빈곤정책으로서의 자활사업: 가능성과 한계, 한국사회복지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4, pp.87-101.
- 최근·서병수(2006). 빈곤연구의 대안 패러다임으로서 Sen의 가능성접근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측면과 측정측면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5, pp.333-362.
- 최근·서병수·권종희(2011). 차원계수방식에 의한 다차원적 빈곤측정. 한국사회복지학, 63(1), pp.85-111.
- 최종혁·김수완(2012). 빈곤층의 자립의지에 대한 연구. 2012년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 최현수 외(201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홍경준(2002). 한국사회복지학계 연구방법론의 동향. *상황과복지*, 13, pp.13-32.
- 홍경준(2004).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4, pp.187-210.
- 홍현미라(2011). 사회복지 거시 실천에서의 질적평가 연구.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한 탐색.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3), pp.292-318.
- 황덕순(2001). 경제위기이후의 빈곤에 대한 동태분석. *노동정책연구*, 가을호, pp.31-59.
- 황미영(2002), 여성자활의 조건과 여성특화 자활사업의 특성, *한국사회복지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pp.605-620.
- 연합뉴스, '아동학대신고 1만 건 너머, 부모교육 의무화 추진', 2012년 11월 19일,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2/11/18/0701000000A KR20121118087400017.HTML>)
- Adato. M., Carter. M. and May. J.(2006). *Exploring Poverty Traps and Social Exclusion in South Africa us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ata*.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2(2), pp.226-247.
- Alcock. P.(2004). *The Influence of Dynamic Perspectives on Poverty Analysis and Anti-Poverty Policy in the UK*. *Journal of Social Policy*, 33(3), pp.395-416.
- Barrett. C.(2004). *Mixing Qualitative and Qunatitative Methods of Analyzing Poverty Dynamics*. SAGA Working Paper. March 2004.
- Brush, L. D.,(2000), *Battering, Traumatic Stress, and Welfare-to-Work Transition*, *Violence Against Women*, 6(10), pp.1039-1065.
- Carvalho. S. and White. H.(1997). *Combining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to Poverty Measurement and Analysis. The Practice and the Potential*. Papers 366. World Bank -

Technical Papers.

- Cheng, T.,(2010), *Financial self-sufficiency or return to welfare? A longitudinal study of mothers among the working poor*,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9, pp.162-172.
- Christopher, K. (2001), *Welfare state Regimes and Mothers' Poverty*, Social Politics, 9(1), pp.60-86.
- Cooney, K.,(2006), *Mothers First, Not Work First: Listening to Welfare Clients in Job Training*, Qualitative Social Work, 5(2), pp.217-235.
- Corden. A. and Millar. J.(2007). *Time and Change: A Review of the Qualitative Longitudinal Research Literature for Social Policy*. Social Policy & Society, 6(4), pp.583-592.
- Cresswell, J. W. & Plano Clark, V. (2007). *Designing and Conducting Mixed Methods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Cresswell, J. W. (2009). *Research Design: Qual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3rd edition)*. Sage Publications, Inc. 김영숙 외 역. 연구방법: 질적,양적 및 혼합적 연구의 설계. 시그마프레스.
- Cresswell, J. W., Plano Clark, V., Gutmann, M., & Hanson, W. (2003). *Advanced mixed methods designs*. In A. Tashakkori & C. Teddlie (Eds.), Handbook of Mixed Method Research in th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pp. 209-240. Thousand Oaks, CA: Sage.
- Daugherty, R. H., and Barber, G. M.,(2001), *Self-Sufficiency, Ecology of Work, and Welfare Reform*, Social Service Review, pp.663-675.
- Edin. K. and Lein. L.(1997). *Making Ends Meet: How Single Mothers Survive Welfare and Low-Wage Work*.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Farrall. S.(2006). *What is Qualitative Longitudinal Research? LSE Methodology Institute*. Papers in Social Research Methods. Qualitative Series. Paper 11.

- Gabe, T. (2003), *Trends in Welfare, Work and the Economic Well-being of Female-headed Families with Children*, New York: Novinka Books.
- Garces, J., (2003), *Towards a new welfare state: The social sustainability principle and health care strategies*, Health Policy, 65(3), pp.201-215.
- Gowdy, E. A. and Pealmutter, S., (1993), *Economic self-sufficiency: It's not just money*, Affilia, 8(4), pp.368-387.
- Grube-Farrell, B., (2002), *Women, Work, and Occupational Segregation in the Uniformed Services*, Affilia, 17, pp.332-353.
- Hawkins, R. L., (2005), *From Self-Sufficiency to Personal and Family Sustainability: A New Paradigm for Social Policy*,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32(4), pp.77-92.
- Hong, P. Y. P., Sheriff, V. A., and Naeger, S. R., (2009), *A Bottom-up Definition of Self-Sufficiency: Voices from Low-income*, Qualitative Social Work, 8(3), pp.357-376.
- Jick. T.D.(1979). *Mix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Triangulation in Ac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4(4). Qualitative Methodology. pp.602-611.
- Kneipp, S. M.,(2000), *Economic Self-Sufficiency: An Insufficient Indicator of How Women Fare after Welfare Reform*, Policy Politics Nursing Practice, 1, pp.256-266.
- Lawson. D., Hulme. D. and Muwonge. J.(2008). *Combin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to Further Our Understanding of Poverty Dynamics: Some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ple Research Approaches, 2(2), pp.191-204.
- Lawson. D., Mckay. A. and Okidi. J.(2006). *Poverty Persistence and*

- Transitions in Uganda: A Combin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2(7), pp.1225-1251.
- Mayer, S.(1997) *What money can't buy?: Family income and childrens' life chanc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illar. J.(2007). *The Dynamics of Poverty and Employment: The Contribution of Qualitative Longitudinal Research to Understanding Transitions*. Adaptations and Trajectories. Social Policy & Society, 6(4), pp.533-544.
- Molloy. D. and Woodfield. K. with Bacon. J.(2002). *Longitudinal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es in Evaluation Studies*.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Working Paper, 7. London: HMSO.
- Ramey, Craig T., Dorval, B., Baker-Ward, L.(1983). *Group Day Care and Socially Disadvantaged Families: Effects on the Child, the Parents, and the Family*. Advances in Early Education and Day Care. Greenwich, CT: JAI Press.
- Riger, S. and Staggs, S. L., (2004), *Welfare reform, domestic violence, and employment: What do we know and what do we need to know?*, Violence Against Women, 10, pp.961-990.
- Ruspini. E.(1999). *Longitudinal Research and the Analysis of Social Change*. Quality & Quantity, 33, pp.219-227.
- Rusyda, H. M., Lukman, Z. M., Subhi, N., Chong, S. T., Latiff, A. A., Hasrul, H. and Amizah, W. M. W., (2011), *Coping with Difficulties: Social Inequality and Stigmatization on Single Mothers with Low Income Household*, Pertanika Journal of Social Sciences & Humanities, 19(S), pp.157-162.
- Saldana. J.(2003). *Longitudinal Qualitative Research: Analyzing Change through Time*. Walnut Creek. CA: AltaMira Press.

Seccombe. K.(1999). *So You Think I Drive a Cadillac?: Welfare Recipients' Perspectives on the System and its Reform*. Boston: Allyn & Bacon.

부 록 <<

[부록1] 2013년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조사 조사표

2013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6년부터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양적자료와 연계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계층별, 연령별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욕구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와 조사 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댁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5월

※ 본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2013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조사' 참여에 동의하였으며, 가구실태 및 가구원에 대한 조사에 응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2011, 2012, 2013년 조사참여가구의 수집된 자료가 이차분석에 사용될 수 있음을 설명 받았으며, 이에 대해 역시 동의합니다.

가구주와의 관계: _____ 성명: _____ (서명)

추가응답자 1 가구주와의 관계: _____ 성명: _____ (서명)

추가응답자 2 가구주와의 관계: _____ 성명: _____ (서명)

< 문의 및 연락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2-380-8273, 8191)

가구 ID		가구주 성명	
조사소요시간	총 _____ 분 (총 면접 시간에 포함)	방문횟수	총 _____ 회
1차방문	____ 월 ____ 일 ____ 시 ____ 분 총 _____ 분	방문결과	☐ 완료 ② 미완 ☐ 미완사유:
2차방문	____ 월 ____ 일 ____ 시 ____ 분 총 _____ 분	방문결과	☐ 완료 ② 미완 ☐ 미완사유:
인터뷰어 이름		인터뷰어 연락처	

세션 I. 공통질문

요즘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루 일과나 일주일의 생활패턴,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

귀하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등)

1. 생활 만족

1) 귀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요즘 생활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우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으로 놓았을 때 현재 몇 점 정도에 해당하십니까?)

(왜 그렇게 점수를 주셨습니까?)

2)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 어떤 점들 때문에 불행하십니까?

(지금의 행복함/만족스러운 상태에 영향을 준 것들은 무엇입니까?)

(힘든 점들을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귀하의 불행함/불만족스러운 상태에 영향을 준 것들은 무엇입니까?)

3)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 경제: 빈곤

1) 지금 귀하와 가정의 경제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매우 부자인 상태를 10, 매우 가난한 상태를 0로 놓았을 때 현재 몇 점 정도에 해당하십니까?)

(왜 그렇게 점수를 주셨습니까?)

2) 지난 번 인터뷰 이후(작년에 비해) 새롭게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급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3) 지난 번 인터뷰 때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줄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 주의사항 ※

지난 번 인터뷰 때 별 노력 없이도 → 최근 들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신 노력이 있으신지 질문

(최근 들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더 시도하신 노력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러한 노력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4) 지난 번 인터뷰 때에는 주위로부터 ***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주위에서 도움을 받은 경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주의사항 ※

지난 번 인터뷰 때 도움이 전혀 없었으면 → 혹시 이번에는 주위에서 도움을 받은 경향이 있으신지 질문

(구체적으로 도움 받은 내용,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344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3차): 취약계층의 삶을 중심으로

3. 생활영역: 건강

1) 지금 귀하와 귀하의 가족은 신체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건강한 상태를 10, 가장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0으로 놓았을 때 현재 몇 점 정도에 해당하십니까?)

2) 지난 번 면접 때 (귀하 가족 중에서 ***) 이분 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 차도가 있었는지요?
그 이후 다른 가족분들 중 이분 분이 있었는지요?

3) 귀하 또는 가족구성원 중에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으셨나요?

※ 주의사항: 이 문항은 장애인분과 중립될 수 있기 때문에 면접자가 장애인분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선택된 가구인지 아닌지 확인한 후 질문하도록 함. 장애심층면접 대상자가 아니라면 진행하지 않음. 장애심층면접 대상자라면 중립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장애인분에서 하는 것으로 함.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에 도움을 받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4) 귀하와 가족구성원들은 신체적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요?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입니까?)

세션II. 선택질문

1. 경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지난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과 관련하여 (수급권을 유지, 수급권을 갖고 있었으나 곧 탈락할 것 같음, 수급탈락을 경험한 수급신청은 했으나 자격을 갖지 못함, 수급신청을 해본 적이 없다) 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 수급권과 관련되어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 주의사항 ※

변동이 있었다면 → 변동의 경위에 대해 질문(어떻게 how, 왜 why)

→ 변동의 경위에 대한 인식은 무엇인지 질문(알려진 것이었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든지)

변동이 없었다면 → 1) 수급유지의 경우

: 수급대상을 보아내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지출 계획은 어떤것에 대해 질문

→ 2) 수급자가 아닌 경우

: 수급권 획득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지출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수급자에 대한 인식은 어떤것에 대해 질문

수급 경향이 있었다면 → 민원 수급권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했을까요?

수급 경향이 없었다면 →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수급권을 알지 못했던 경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왜 수급권 신청을 안했는지, 국가가 수급자에게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주어야 할지 등)

2)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빈곤한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빈곤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게 좋을까요?)

3) 지난번에 민노총 때 앞으로 5년 뒤 귀댁의 경제사정이 *** 일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경제사정을 볼 때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원하시는 모습이 되려면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5년 뒤에 귀하의 모습은 어떠한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5년 뒤 귀하의 모습을 위해서 국가가 어떠한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까?)

2. 근로 및 고용지원 프로그램

1) 지난번에 만났을 때 *** 일을 하고 계셨는데(혹은 일을 하지 못하고 계셨는데), 한때도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 주의사항 ※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 현재보다 나은 일자리를 알고자 할 용의가 있는지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지요?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떤 도움이 가장 절실했지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일자리가 없다면 → 어떤 경로로 일자리를 구하고 계십니까?
일자를 구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지요?
일자를 구하는데 어떤 도움이 가장 절실했지요?

금년에 일자리를 찾았다면 → 삶의 질의 경향에 대해 말씀해주시요. (how, why, etc)
지금 어떤 경로로 일자리를 구하고 계십니까?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지요?
다른 나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떤 도움이 가장 절실했지요?

다른 일자리를 찾았다면 → 어떤 일자리를 그만두고 새 일자리를 얻게 된 과정과 경향에 대해 말씀해주시요.
어떤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나 삶의 질의 경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요.

2) 지금과 다른 새로운 일자리를 알고자 하십니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어떤 경로로 일자리를 구하고 계십니까?)
(일자리를 구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떤 도움이 가장 절실했습니까?)

3) 지난번에 만났을 때 이후 정부가 제공하는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까?)
(그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3. 생활영역

가. 정신건강

1) 현재 귀하는 심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건강한 상태를 10, 가장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0으로 놓았을 때 현재 몇 점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정신적 건강이 10점 만점보다 낮은 경우, 점수를 낮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2) 작년과 비교하였을 때 귀하께서 요즘 심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던 때가 있으십니까?

(힘들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들었습니까?)

(어떠한 도움을 받았으며,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3) (작년과 비교하였을 때) 귀하나 가족구성원 중, 심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시: 과도한 스트레스, 불안, 불면, 우울, 정신질환, 알코올, 자살 시도 등)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가장 지장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4) (작년과 비교하였을 때) 귀하나 가족구성원 중에, 심리적 혹은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이용해보았던 그 경험은 어떠하십니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계기나 이유, 알게 된 경로, 이용한 서비스 내용은 무엇입니까?)

(서비스를 통해 어떠한 변화와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5) 귀하는 (작년과 비교하였을 때)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귀하와 가족이 심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보다 더 건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 주거

1) 현재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그리고 주거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양호한 상태를 10, 가장 양호하지 않은 상태를 0으로 놓았을 때 현재 몇 점 정도에 해당하십니까?)

(앞으로 주거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개선되기를 바라십니까?)

(안정적 주거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교육

1) 현재, 귀하와 귀하의 가족구성원은 어떤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예시: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훈련, 취미교육 등)

2) 현재 또는 앞으로 귀하와 가족구성원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하십니까?

라. 문화

1) 현재, 귀하와 가족구성원은 어느 정도의 문화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2) 귀하와 가족구성원이 원하는 문화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이러한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4. 가족 관계

1) 귀하 가족 구성원의 친분적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와 달라진 점 혹은 최근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설명해주세요.

(가족생활에서 배우자 사이의 관계는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을까요?)

(부부관계와 부모 자식과의 관계 중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전년도와 달라진 점 혹은 최근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설명해주세요.

(결혼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부부관계를 돈독하게 혹은 개선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던 조건, 상황, 사건들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관련된 사건, 상황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시: 상처, 좌절, 배신, 기쁨, 갈등, 신뢰 등과 관련해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나름의 지혜를 갖고 계신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어떤 이유에서 인지 말씀해주세요.)

3)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부모님과 귀하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주의사항: 이 질문은 응답자가 65세 이상 노년일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며, 시대/장성, 분가/자가 등 여러 부모에 대한 중립응답보다는 응답자에게 가장 영향을 미쳤거나, 미치고 있는 1~2명의 부모에 대해 응답하도록 함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함께 살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가 이후 시대부모님/친정부모님과의 왕래는 어떠한 편입니까?)

(어린 시절을 회고해 볼 때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친 아버지, 어머니 따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아쉽거나 후회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입니까?)

(부모님과 갈등이 깊었던 경험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요?)

(부모님과 세대 차이를 느낄 때가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모님께 바라는 점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귀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4) 귀하의 자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주의사항: 이 질문은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아동청소년(양육)의 대상가구는 제외함.

(현재 몇 명의 자녀를 두셨습니까? 자녀들의 나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녀와의 관계에서 만족스런 부분과 불만족스런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자녀는 본인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5) 가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가족을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족은 ○○○ 이다.)

(가족은 귀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6) 최근 1년간 부부 상호간에 폭력(언어적, 정신적 치욕 포함)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폭력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7) 최근 1년간 남편(아내)과 자녀 상호간 폭력(언어적, 정신적 치욕 포함)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5. 인구특성별 가구원 조사: 장애인

1) 00씨는 실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고거, 현재 모두 포함)

- ※ 주의사항: 당시직업 경우에는 그대로 하고 장애인 당시직업 중안 장애를 겪고 있는 가구원에 대해 다른 사람 (가구원)이 응답하게 될 경우에는 응답자의 시각에서 볼 때 장애인 또는 장애를 갖고 있는 가구직원이 이 점에 대해 어떤 것 같은지를 물어야 하는 질문임
(그러한 문제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2) 00씨의 장애/ 질병 시도가 00씨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미치고 있는지)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 ※ 주의사항: 배우자나 다른 가구원에 대한 질문임 경우 당시직업이 어떻게 영향 받은 것 같은지 응답자가 추정해서
응답해야함
(교육, 직업, 사회생활, 관계, 결혼 등등 삶의 전 영역)

3) 00씨 주변에 의미 있는 사람들(예 가족, 친구, 회사 동료 등)이 00씨의 장애에 대해 어떠한
태도나 반응을 보여 왔습니까?

- ※ 주의사항: 배우자나 다른 가구원에 대한 질문임 경우 당시직업의 생각을 응답자가 추정해서 응답해야함
(이것이 00씨의 감정이나 행동,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미치고 있는지]요?)

4) 00씨는 주변에 장애인 친구나 동료(같은 질병이나 시도를 겪은 사람들)와의 교류가 있습니까?

- ※ 주의사항: 배우자나 다른 가구원에 대한 질문임 경우 당시직업의 생각을 응답자가 추정해서 응답해야함
(교류가 있다면 그 계기는 무엇이고, 그 경험은 어떠합니까?)
(교류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 00씨는 장애나 질병 발생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나라가 막아줌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느끼다면 어떤 면에서 그런지 말씀해주세요.

※ 주의사항: 배우자나 다른 가구원에 대한 질문일 경우 당시의 생각을 응답자가 추정해서 응답해야함

6) 00씨는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 혜택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주의사항: 배우자나 다른 가구원에 대한 질문일 경우 당시의 생각을 응답자가 추정해서 응답해야함

(장애인연금, 의료비지원, 보조도구 지원, 활동보조인, 세금감면 등)

(도움을 받아 본 적이 있다면, 그것이 본인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긍정적/부정적 경험 모두 탐색]

(현재 00씨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국가로부터 가장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정책, 제도, 서비스에 있어 더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7)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00씨의 노후는 어떤 모습이라고 바라보십니까?

※ 주의사항: 배우자나 다른 가구원에 대한 질문일 경우 당시의 생각을 응답자가 추정해서 응답해야함

8) 00씨에게 장애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6. 인구특성별 가구원 조사: 여성

1) 최근 1년을 돌아볼 때 가족생활에서 여성으로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2) 최근 1년을 돌아볼 때 경제활동경역 중에서 여성으로서 겪었던 어려움과 좌절이 (각종 성차별, 성희롱 및 성폭력 포함)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3) 최근 1년을 돌아볼 때 자녀 돌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녀 돌봄에 있어서 보람과 행복한 점이 있으십니까?)

(자녀 돌봄에서 보충적으로 어떤 자원을 활용하고 계신가요? [예: 가족과 친구 혹은 정부 보조 및 복지서비스 중에서])

4) 최근 1년간 출산을 경험(출산을 계획하셨습니까?)

(출산 동기는 무엇입니까?)

(출산과 관련하여 마주치게 된 도전과 갈등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7-1. 인구특성별 기구원 조사: 아동/청소년-양육

1) 자녀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주의사항: 기록관계 양쪽과 중립되지 않도록 질문해야함.

(자녀별 출생년월일, 성별, 연령, 학령, 종교, 질병이나 장애, 학업성취수준, 특이사항 등)

(가족생활주기와 관련하여 자녀들에게 의미 있었던 사건: 이사, 전학, 이별, 죽음 등)

2) (양육과 관련하여) 귀하의 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이었습니다?

※ 주의사항: 기록관계 양쪽과 중립되지 않도록 질문해야함.

(귀하의 부모님의 양육 태도는 귀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3) 자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0000을 실제 자녀 양육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실천의 결과는 어떠한가요?

(0000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이유)가 있을까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변화했다면 어떻게 변화했나요? 왜 변화했나요?)

(혹시 **씨를 잘 아는 편 남편 혹은 아내, (시) 부모, 친구 등은 **씨의 자녀 양육을 지켜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자녀는 **씨의 양육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 자녀가 어떻게 자라났으면 하고 바라십니까? 자녀를 0000하게 키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오셨습니까? 그런 노력들의 결과는 어떠한가요?

(0000하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달라졌다면(달라지고 있다면) 어떻게 달라졌나요?(달라지고 있나요?))

(왜 달라지게 되었나요?)

5) 자녀가 부모의 바람대로 자라고 있는 상태를 10, 그렇지 않은 상태를 0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 이유는?(이야기 따라 다르다면 각 자녀에 대해 따로 질문함)

6)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내가 잘 키웠구나!’ 혹은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실제 경험 속의 아이기를 들려주세요.

7)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실제 경험 속의 아이기를 들려주세요.
(지속되는 어려움: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오셨습니까? 그런 해결방법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일시적인 어려움: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오셨습니까? 그런 해결방법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8)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제 경험 속의 아이기를 들려주세요.
(한달 또는 1년을 단위로 자녀(들)에게 따로 지출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이러한 영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9) 가족 구조(부모의 이혼, 조손가족, 한부모 가정 등)가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제 경험 속의 아이기를 들려주세요.
※ 주의사항: 각 조사대상별 가족구조를 이해한 후, 대상별로 맞게 질문해야함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이러한 영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10) 가족 관계(가족성원들간의 유대, 친밀감, 갈등 스트레스 등)가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제 경험 속의 아이기를 들려주세요.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이러한 영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356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3차): 취약계층의 삶을 중심으로

11)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시면서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2)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2. 인구특성별 가구원 조사: 아동/청소년-일상생활 맥락

1) 요즘 자녀들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첨부하는 표 활용)

- (일주일을 단위로 자녀들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한 자녀들의 일과가 부모님의 일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주일의 일과 중에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일과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자녀를拉扯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민거리들이 있으면 이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 자녀를拉扯가 갖고 있는 능력, 정력, 자원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4) 자녀(들)의 가족관계, 친구관계, 아성관계, 교사인 관계, 진로, 학업, 취미여가, 신체건강, 정신건강 등 일상생활 전반에 관해 평소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5) 자녀(들)의 일주일간 일과나 일상생활 양태들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기를 바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6) 자녀(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어려움들 중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58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3차): 취약계층의 삶을 중심으로

〈일과표〉

※ 주의사항: 본 일과표는 자녀수만큼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추후 역설 양식에 맞추어 이기하여야 상부해야함.

구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6시 이전							
06:00 - 07:00							
07:00 - 08:00							
08:00 - 09:00							
09:00 - 10:00							
10:00 - 11:00							
11:00 - 12:00							
12:00 - 13:00							
13:00 - 14:00							
14:00 - 15:00							
15:00 - 16:00							
16:00 - 17:00							
17:00 - 18:00							
18:00 - 19:00							
19:00 - 20:00							
20:00 - 21:00							
21:00 - 22:00							
22:00 - 23:00							
23:00 - 24:00							
24:00 이후							

8. 인구특성별 가구원 조사: 노인

1) 요즘 일상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혹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2) 최근에 일을 하고 계십니까?(또는 돈을 받고 계십니까?)

(그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의미 있는 점/좋은 점, 그리고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것입니까?)

3) 여기에서는 주로 어떻게 보내십니까?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대략적인 지출비용, 얼마나 자주 등)

4) 만약 여력이 주어진다면, 언제 하고 있는 활동 외에 더 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입니까?

(그 활동을 하기 위해 어떤 도움 혹은 지원이 필요합니까?)

5) 귀하께서 자신이 '노인이다' 라고 느낄 때는 어떤 때입니까?

(노인이 되면서 느끼는 삶의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6) 귀하께서 생각하기에, '잘 늙어간다' 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잘 늙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우리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대우나 인식은 과거에 비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 노인을 위한 사회 제도 중,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록2] 2013년 코드표

분류1 node1	분류2 node2	분류3		분류4		분류5	
		node3	description	node4	description	node5	description
성별	남자	남자					
		여자					
		104미만					
		104 - 19세					
		20세 - 29세					
나이		30세 - 39세					
		40세 - 49세					
		50세 - 59세					
		60세 - 69세					
		70세 - 79세					
		80세 - 89세					
		90세 - 100세					
도입	연령의 가치		연령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귀하가 연금에 가입 중입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귀하가 연금에 가입 중입니까? 어떤 것을 받게 됩니까?				
생활만족	생활만족요소		현재로서는 어떤 것 때문에 불만족하십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지금 귀하의 가정의 경제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장제1	빈곤	현재상태	지금 빈 인터넷 사용(약년에 비해) 새롭게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과거의 어려움	오.				
		해결노력	지금 빈 인터넷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줄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주위 도움	지금 빈 인터넷에는 주위로 부터 ***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주위에서 도움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주셨습니까?				
		신체적 건강	지금 빈 인터넷에는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생활영역1	건강	지금 빈 인터넷에는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시간적 건강 문제	귀하 또는 가족들 중 어떤 분이 있었습니까? 그 이후 지도가 있었습니까? 그 이후 지도가 있었습니까? 그 이후 지도가 있었습니까? 그 이후 지도가 있었습니까?				
		시간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	귀하 또는 가족들 중 어떤 분이 있었습니까? 그 이후 지도가 있었습니까? 그 이후 지도가 있었습니까? 그 이후 지도가 있었습니까? 그 이후 지도가 있었습니까?				
		신체 건강요소	귀하와 가족 구성원들은 신체적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장제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 변동	지금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과 관련하여 (수급권을 유지, 수급권을 갖고 있었으나 출퇴락한 것, 건강, 소득변화를 경험한, 수급신청을 했으나 자격을 갖지 못한, 수급신청을 해 준 적이 없다) 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 수급권과 관련하여 변동되어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필수생계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비대면	지금부터 만났을 때 앞으로 5년 뒤 귀 뒤의 경제사정이 *** 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경제사정을 볼 때 이것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원하시는 모습이 되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분류1 node1	분류2 node2	분류3 description		node4	분류4 description		node5	분류5 description
노드 및 그용지 프로토타입	현재형				현재보다 나은 일지리를 찾고자 할 용의가 있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더 나은 일지리를 구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더 나은 일지리를 구하는데 어떤 도움이 가장 절실했나요?			
					이러한 형태로 일지리를 구하고 계십니까?			
					일지리를 구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생활 영역2	현재형		지나면에 만났을 때 *** 일을 하고 계셨는데(혹은 일을 하지 못하고 계셨는데), 현재도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보다 나은 일지리를 찾고자 할 용의가 있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더 나은 일지리를 구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더 나은 일지리를 구하는데 어떤 도움이 가장 절실했나요?			
					이러한 형태로 일지리를 구하고 계십니까?			
					일지리를 구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현재보다 나은 일지리를 찾고자 할 용의가 있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더 나은 일지리를 구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더 나은 일지리를 구하는데 어떤 도움이 가장 절실했나요?			
					이러한 형태로 일지리를 구하고 계십니까?			
					일지리를 구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주거 교육 문화	현재형		지금과 다른 새로운 일지리를 찾고자 하십니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현재보다 나은 일지리를 찾고자 할 용의가 있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더 나은 일지리를 구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더 나은 일지리를 구하는데 어떤 도움이 가장 절실했나요?			
					이러한 형태로 일지리를 구하고 계십니까?			
					일지리를 구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현재보다 나은 일지리를 찾고자 할 용의가 있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더 나은 일지리를 구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더 나은 일지리를 구하는데 어떤 도움이 가장 절실했나요?			
					이러한 형태로 일지리를 구하고 계십니까?			
					일지리를 구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주거 교육 문화	현재형		지금과 다른 새로운 일지리를 찾고자 하십니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현재보다 나은 일지리를 찾고자 할 용의가 있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더 나은 일지리를 구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더 나은 일지리를 구하는데 어떤 도움이 가장 절실했나요?			
					이러한 형태로 일지리를 구하고 계십니까?			
					일지리를 구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현재보다 나은 일지리를 찾고자 할 용의가 있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더 나은 일지리를 구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더 나은 일지리를 구하는데 어떤 도움이 가장 절실했나요?			
					이러한 형태로 일지리를 구하고 계십니까?			
					일지리를 구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분류1 node1	분류2 node2	분류3		분류4		분류5 description
		node3	description	node4	description	
가족관계	가족간관계	부모-노년관계	부모-노년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부모님과 귀하/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무엇인 가요?			
		자녀관계	귀하의 자녀분들과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정의	가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부간관계	최근 1년간 부부 상호간에 협력(연아책, 정간적 지원 포함)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 면 목적을 무엇에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녀관계	최근 1년간 남편(아내)과 자녀 상호간 협력(연아책, 정간적 지원 포함)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장래인		아르들	OO씨는 살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과거, 현재 모두 포 함)			
		장래생활	OO씨의 장래/생활/사고에 OO씨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다고(미치고 있는자) 생각하십 니까?			
		주유인용	OO씨 장래에 있어 있는 사람들(예, 가족, 친구, 회사 동료 등)이 OO씨의 장래에 대해 어떠한 태도나 반응을 보여 왔습니까?			
		교부	OO씨는 주변에 장래인 친구나 동료(같은 직업이나 사교를 겪은 사람들)와의 교류가 있습니 까?			
		사회적생활	OO씨는 장래나 생활 방식 미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신체적, 정신 적, 사회적으로 생활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느낀다면 어떤 면에서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혜택	OO씨는 현재 우리나라의 장래인을 위한 복지 혜택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노후준비	개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OO씨의 노후는 어떤 모습이 될 바 라십니까?			
		장래의의미	본인에게 장래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가정에서의자립	최근 1년을 돌아볼 때 가족생활에서 여성으로서 자립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니까?			
		장래생활에서의이	최근 1년을 돌아볼 때 장래생활 경험 중에서 여성으로서 겪었던 어려움과 좌절(이각종 정치 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기타)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		자녀를돌아보는	최근 1년을 돌아볼 때 자녀를 돌보는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육상생활	최근 1년간 육상을 경험(육상을 개회) 하십니까?			
		자녀관계	자녀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부모의의생활	(영양과 관련된) 귀하의 부모님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양의중요성	자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0000을 실제 자녀 양육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실천의 결과는 어떠한가요?			
		자녀에대한가정	자녀가 어떻게 자라오리라고 바라십니까? 자녀를 0000하게 키우기 위해 어떤 노력 해 오셨습니까? 그런 노력들의 결과는 어떠한가요?			
		자녀에대한가정	자녀가 부모의 바람대로 자라고 있는 상태를 10, 그렇지 않은 상태를 00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다른다면 각 자녀에 대해 따로 말씀해			
		부모양육에대한장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내가 볼 키움'이나 혹은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 십니까? 실제 경험 속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영양이러음	자녀 양육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실제 경험 속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 오.			
		영양과생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제 경험 속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대상별 기 구 조사	아동청소년 양 육	가족간관계	가족간관계의 어떤 조속가정, 한부모 가정 등)가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제 경험 속의 이야기를 말씀하십시오.			
		가족간관계				

분류1	분류2	분류3	분류4		분류5	
node1	node2	node3	description	node4	description	node5
		가족관계와영육	가족관계(축성원혼간의 유대, 친밀감, 결속, 스트레스 등이 지녀 영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제 경험 속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보이영육청진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녀영육후회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시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상상황	요즘 자녀들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려움/해결방법	자녀를 키자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민거리들이 있으면 어느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능력/인정권	자녀를 키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 정권, 자결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친로/간강등	자녀(들)의 가족관계, 친구관계, 이성관계, 고사와 관계, 진로, 학업, 취미여가, 신체건강, 정신건강 등 일상생활 전반에 관해 평소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하는 삶	자녀(들)의 일주일간 일과나 일상생활 영역들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기를 바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거/이러움	자녀(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어려움들 중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상생활	요즘 일상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혹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경제활동	최근에 일을 하고 계십니까(은 돈을 받고 계십니까)?			
		여가활동	여가시간은 주로 어떻게 보내십니까?			
		추가희망활동	만약 여가가 주어진다면, 하지 하고 있는 활동 외에 더 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입니까?			
		노인/이러노일때	귀하께서 자신이 '노인이다'라고 느낄 때는 어떤 때입니까?			
		노인/다우인식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잘 늙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개성/성향	우리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대우나 인식은 과거에 비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을 위한 사회 제도 중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부모/가구의자						
행						
평가1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회비납부

-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019-219956-01-014 (예금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3-01	근거중심보전정책에 필요한 연구근거 현황 및 활용	김남순
연구 2013-02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3-03	의료서비스시장의 경쟁구조 및 경영효율성에 관한 연구	김대중
연구 2013-04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위상과 권리	윤강재
연구 2013-05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정기혜
연구 2013-06	화장품 및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중심적 연구	김정선
연구 2013-07	보건의료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박은자
연구 2013-08	진료비지출 요인분석 및 거시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3-09	의약품 정책이 의사의 처방에 미친 영향 연구	박실비아
연구 2013-10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김동진
연구 2013-11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 설계	강희정
연구 2013-12	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 정책수립 -기금운용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실증적 연구	원종욱
연구 2013-13	소득분배 악화의 산업구조적 원인과 대응 방안	강신욱
연구 2013-14	소득계층별 순조세 부담의 분포에 관한 연구	남상호
연구 2013-15	저소득층 현금 및 현물서비스 복지지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김태완
연구 2013-16	기회의 불평등 측정에 관한 연구: 성장배경을 중심으로	김문길
연구 2013-17	2013년 빈곤통계연보	임완섭/노대명
연구 2013-18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한중일의 최근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노대명
연구 2013-19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이현주
연구 2013-20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3차): 취약계층의 삶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3-21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지역단위 분석 연구	박세경
연구 2013-22	사회복지영역의 평가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정홍원
연구 2013-23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김성희
연구 2013-24	장애인지원서비스의 질과 공급특성 분석 연구	박수지
연구 2013-25	복지재정 DB구축과 지표 분석	박인화
연구 2013-26	중앙과 지방의 복지재정형평화 연구	고제이
연구 2013-27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신화연
연구 2013-28	사회보장 재원조달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유근춘
연구 2013-29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현황과 대책	정영철
연구 2013-30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특성	정은희
연구 2013-31-01	한중일 인구동향과 국가 인구전략	이삼식
연구 2013-31-02	인구예측모형 국제비교 연구	이삼식
연구 2013-31-03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신윤정
연구 2013-31-04	보육서비스 공급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김은정
연구 2013-31-05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김미숙
연구 2013-31-06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여유진
연구 2013-31-07	출산·보육 통계생산 및 관리효율화 연구	도세록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3-31-08	가구·가족의 변동과 정책적 함의	김유경
연구 2013-31-09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 자질 향상 방안: 고령 임산부의 출산 실태와 정책 과제	이소영
연구 2013-31-10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일차의료기관 모형개발	황나미
연구 2013-31-11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분석을 위한 지역 추적조사: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오영희
연구 2013-31-12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한국 가족주의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외부위탁
연구 2013-31-13	남북한 통합 시 적정인구 연구	이삼식
연구 2013-31-14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정경희
연구 2013-31-15	고령화 대응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전망과 공급체계 개편연구	이윤경
연구 2013-31-16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점에서의 공적연금제도 개편 방안	윤석명
연구 2013-31-17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선우덕
연구 2013-31-18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정립방안연구: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김진수
연구 2013-31-19	효과적 만성질환 관리방안 연구	정영호
연구 2013-31-20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외부위탁
연구 2013-31-21	여성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외부위탁
연구 2013-31-22	농촌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농촌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	외부위탁
연구 2013-31-23	평생교육관점에서 바라본 노년교육의 현황과 정책과제	이윤경
연구 2013-32-1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영향평가 및 지식포털운영	서미경
연구 2013-32-2	건강영향평가TWC성과평가 및 건강행태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격차감소를 위한 전략평가	최은진
연구 2013-33	아시아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건강보장	홍석표
연구 2013-34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구(4년차)	정은희
연구 2013-35	2013년 친서민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III: 사회서비스산업-제3섹터-고용창출 연계 모델	이철선
연구 2013-36	2013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오미애
연구 2013-37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빅 데이터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송태민
연구 2013-38	2013년 사회정신건강 연구센터 운영: 한국사회의 갈등 및 병리현상의 발생현황과 원인분석 연구	이상영
연구 2013-39	2013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센터 운영	김승권
연구 2013-40-1	2013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이현주
연구 2013-40-2	2013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신규 표본가구 통합DB(KOWEPS_Combined)을 중심으로	최현수
연구 2013-41	2011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II): 만성질환관리, 일반의약품이용, 임신출산, 부가조사	최정수
협동 2013-1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오영호
협동 2013-2	가임기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	이상림